

발간등록번호

71-3830000-100024-14

안양유원지 & 안양예술공원

안양유원지는 안양의 대표적인 피서지이자 휴식처였다. 이를 재정비해 조성한 안양예술공원은 산과 하천이 어우러진 공간에 조각·설치미술 작품이 배치되어 자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안양의 대표 명소로 자리하고 있다.



Anyang Recreational Area &
Anyang Art Park

제19권

안양유원지&안양예술공원



기획 방향과 구성

○ 안양시사는 총 20권으로 제작되었다.

권	제목	권	제목	권	제목	권	제목
01	지리와 환경	06	산업구조와 산업생태계	11	안양동	16	호계동
02	역사와 지역사회	07	시장과 지역상권	12	박달동	17	평촌동 & 평촌신도시
03	지방자치	08	교육과 문화	13	석수동	18	안양역 & 안양1번가
04	도시의 형성과 성장	09	노동세계와 노동문화	14	비산동	19	안양유원지 & 안양예술공원
05	건축과 주거의 변화	10	시민사회와 생활세계	15	관양동	20	금천지

- 제01~10권은 안양시의 지리, 역사, 지방자치, 산업, 상권, 교육과 문화, 노동, 시민사회 등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구성하였다.
- 제11-19권은 안양시의 공간을 단일한 생활 공간과 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공간으로 구분하여 권을 구성하였다. 단일한 생활 공간은 법정동을 단위로 하였고, 다양한 문헌자료와 구술자료를 활용하여 자연 및 인문환경, 지역의 변화, 주민들의 생활 모습 등을 서술하였다. 상징적 공간은 안양의 전통적 도심이었던 안양역과 안양1번가, 국민관광지로 이름을 날린 안양유원지와 이후의 안양예술공원, 수도권 1기 신도시인 평촌을 대상으로 하여 각 공간의 역사 및 경관 변화와 사람들의 이야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제20권은 1950년, 시흥군에서 발간된 『금천지(衿川誌)』를 완역하여 수록하였다. 『금천지』는 당시 중심 지역인 안양읍을 포함한 시흥군의 사회·교육·행정·문화 등을 소개한 군지(郡誌)이다.

서술의 범위와 원칙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상 안양시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 간 비교나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 시간적 범위 : 권별 주제와 특성에 맞게 서술 내용의 범위를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 내용적 범위 : 각 권의 기획 취지와 해당 주제에 맞게 목차와 항목을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전체적인 체제와 내용의 충실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문과 첨삭을 하였다.

저작권과 출처

- 이 책의 저작권은 안양시에 있다. 이 책에서 사용한 도표와 사진 등에는 출처와 저작권자를 표기하였다. 출처와 저작권자 표기가 없는 경우는 안양시 제작·소장 또는 집필자 제공 자료임을 밝혀둔다.
- 집필자가 제공한 자료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및 관련 문제의 책임은 해당 집필자에게 있다.
- 이 책에서 사용한 지도와 항공촬영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한 것이며, 필요에 따라 구글 지도·네이버 지도·카카오맵을 사용하였다.
- 이 책에 수록한 내용과 도표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별도의 저작권자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contents

1 삼성산과 삼성천에서 마주한 시간과 공간의 교직(交織) / 006

제1장 삼성산과 삼성천 공간 읽기 / 008

제2장 단일한 공간과 중첩된 시간 : 종초사에서 안양예술공원까지 / 076

2 안양유원지 연대기 / 110

제1장 경성 근교 관광지로 부상한 관악산과 안양풀 / 112

제2장 안양유원지 전성시대 / 148

제3장 1970년대 안양유원지 운영계획과 개발계획 / 190

제4장 안양의 산업화·도시화와 안양유원지의 쇠락 / 224

3 안양유원지에 남겨진 추억과 삶 / 276

제1장 그 여름, 우리는 안양유원지에 갔다 / 278

제2장 안양유원지, 그곳에 사람이 살아요! / 312

4 자연과 예술이 만나는 공간, 안양예술공원 / 348

제1장 자연 위에 펼쳐진 예술의 무대, 안양예술공원 / 350

제2장 안양예술공원 APAP 작품 아카이브 / 382

5 삼성천 계곡 따라 문화와 생태 읽기 / 456

제1장 역사와 건축예술을 담다: 안양박물관과 김종업건축박물관 / 458

제2장 안양예술공원 숲길 따라 만나는 맛의 풍경 / 494

제3장 한국 최초의 수목원,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둘러보기 / 518

01

삼성산과 삼성천에서 마주한 시간과 공간의 교직(交織)

제1장 삼성산과 삼성천 공간 읽기

제2장 단일한 공간과 중첩된 시간 : 중초사에서 안양예술공원까지



제1장

삼성산과 삼성천 공간 읽기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1. 관악산과 삼성산의 비교적 경관

관악산과 삼성산 일대는 한강 남쪽에 위치한 경기산지의 한 축으로, 오늘날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금천구, 경기도 과천시와 안양시를 포괄하는 지역이다. 지리적으로 이 일대는 북으로는 청계산과 남쪽의 광교산으로 이어지며, 동쪽으로는 한강과 서쪽의 안양천 유역으로 완만히 낮아지는 복합적인 산악지형을 이루고 있다.

관악산(冠岳山, 해발 632m)은 과천시 중앙동과 서울 관악구와 금천구, 그리고 안양시 북부에 걸쳐 있으며, 서쪽으로는 삼성산(三聖山, 481m)과 능선으로 이어진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과천현의 진산이 관악산이고 금천현의 진산이 삼성산이라 하여, 두 산은 예로부터 별개의 산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실제 지형상 두 산은 동일한 산계(山系)에 속하며, 삼막사 동쪽 계곡을 경계로 동쪽이 관악산, 서쪽이 삼성산으로 구분된다. 이 경계선은 조선시대 행정구역상 과천현과 금천현의 경계이자, 현재 행정구역상 과천시와 안양시의 경계로 이어진다.

관악산은 험준한 봉우리와 깊은 계곡이 발달한 산세를 지니며, 북쪽으로는 청룡산·우면산과 함께 한강 남쪽의 자연적 방벽을 형성한다. 산봉우리의 형태가 마치 ‘갓(冠)’과 같다고 하여 ‘관악(冠岳)’이라 불리었고, 『고려사』에는 ‘冠嶽’으로 기록되어 있다. 산세가 높고 불규칙하며 암봉이 노출되어 있어 옛사람들은 이 산을 ‘화산(火山)’으로 인식하였고, 한양 도성에 불길한 기운을 준다고 믿었다. 이에 따라 조선 건국 초 태조는 관악산의 화기를 제압하기 위해 연주사와 원각사를 세우고, 궁성 앞에 해태상을 배치하는 등 풍수적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전승은 관악산이 단순한 자연지형을 넘어 수도의 안정과 국운의 상징으로 기능했음을 보여 준다.



삼성산과 관악산 지형

삼성산은 관악산 서쪽 줄기로, 해발 약 480m의 주봉을 중심으로 여러 암자와 사찰이 분포한다. 산명 '삼성(三聖)'은 신라 문무왕 대에 원효·의상·윤필 세 대사가 이곳에서 수행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전하며, 이는 이 산이 신라 불교의 산악수행 전통과 밀접히 관련된 성지였음을 시사한다. 삼성산의 주요 사찰로는 삼막사, 망월암, 망해암, 염불암, 안양사, 보장사, 지장사 등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남서사면의 골짜기를 따라 형성되었다. 산지 하부에는 석수동 삼막골사지, 백련암지, 중초사지(안양사지) 등 다수의 사지가 분포하여, 이 일대가 통일신라 이래 불교문화의 밀집지였음을 보여 준다.

관악산과 삼성산을 잇는 능선은 북에서 남으로 점차 낮아지며, 그 사이를 따라 형성된 안양천(安養川)은 지역의 중심 수계로서 흐른다. 안양천 유역은 하천의 완만한 곡류와 충적평야로 이루어져, 예로부터 농업과 인구 정착이 용이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불교사적으로도 이 하천 주변은 산악사찰과 평지사찰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었는데, 특히 안양사(安養寺)는 안양천 지류인 삼성천 북안의 평탄한 지형에 위치하여 고려시대 법상종의 중심사찰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평지사찰의 존재는 관악산-삼성산 일대의 불교가 산중 수행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및 왕실과 교류하는 종교공간으로 발전했음을

보여 준다.

지질학적으로 관악산과 삼성산은 화강암과 편마암이 교차하는 복합 암반대지대로, 수많은 암릉과 기암괴석이 발달해 있다. 특히 관악산 주봉인 연주봉과 삼성산의 남사면은 절벽형 지형이 발달하여, 사찰과 암자들이 산비탈을 따라 계단식으로 배치되었다. 이러한 자연경관은 불교의 수행처로서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했으며, 불교 건축이 지형의 흐름을 따르며 조성되는 특징을 낳았다. 사찰의 배치는 대체로 남향 혹은 동향으로, 일조량이 풍부하고 풍수적으로 기운이 모이는 곳에 입지하였다.

행정지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관악산 동쪽은 한성부와 과천현의 관할이었고, 서쪽 삼성산 일대는 금천현의 영역이었다. 두 현은 한강 남쪽 교통로를 따라 연결되었으며, 남태령과 인덕원 일대는 삼국시대부터 한양으로 진입하는 요충지였다. 이러한 교통·군사적 요인은 관악산과 삼성산의 종교적 위상에도 영향을 주어, 불교사찰이 왕실의 행차로와 밀접하게 배치되었다. 『세종실록』과 『현종실록』에 나타나는 기우제 기록에서도 관악산은 국가적 제의의 장소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안양·과천 지역의 지형적 배경은 산지·평야·하천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공간구조를 이룬다. 관악산은 북쪽의 험준한 암산으로 왕권의 상징적 수호산이었고, 삼성산은 남쪽의 완만한 사면을 따라 불교신앙과 민속신앙이 공존하는 신앙공간으로 확장되었다. 안양천과 그 지류는 이러한 산악신앙의 중심축을 남북으로 연결하며, 불교유적의 분포를 따라 형성된 자연적·인문적 축선은 이후 안양과 과천의 도시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불교유적 분포는 자연환경과 종교문화, 그리고 사회경제적 네트워크가 중층적으로 얽혀 형성된 역사적 경관이라 할 수 있다.

관악산과 삼성산 일대의 불교유적은 산중 곳곳에 흩어진 사찰의 집합이 아니라, 산지의 지형적 구조와 인문환경이 맞물리며 형성된 복합적 공간체계를 보여 준다. 이 지역의 불교유적 분포는 크게 ① 산악권 중심의 수행·기도 사찰군, ② 하천·평지권 중심의 교류·왕실 사찰군, ③ 외곽부의 비보·민속 신앙 사찰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세 범주는 상호 연결되어 ‘불교의 생활권’을 구성한다.

우선 산악권 사찰군은 관악산과 삼성산의 주능선과 계곡을 따라 분포한다. 관악산 동사면에는 불성사, 의상대, 연주암, 관악사지가, 서사면에는 자운사와 화장암이 자리한다. 이들 사찰은 대부분 해발 200~500m의 산록부 혹은 암봉 하단부에 입지하며, 바위와 절벽을 배경으로 삼는다. 이는 수행과 참선 중심의 선종적 사찰 배치 특징으로, 사찰의 공간구조가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산지형 불교 건축의 전형을 보여 준다. 불성사와 연

皇朝文獻通考

朝地圖書之印

冠岳山

香爐峰

界川界

三聖山

聖住庵

命勝堂

安房里

三春寺

龍林芝山

瓦岩

萬安橋

虎壓寺

松林

海山

佛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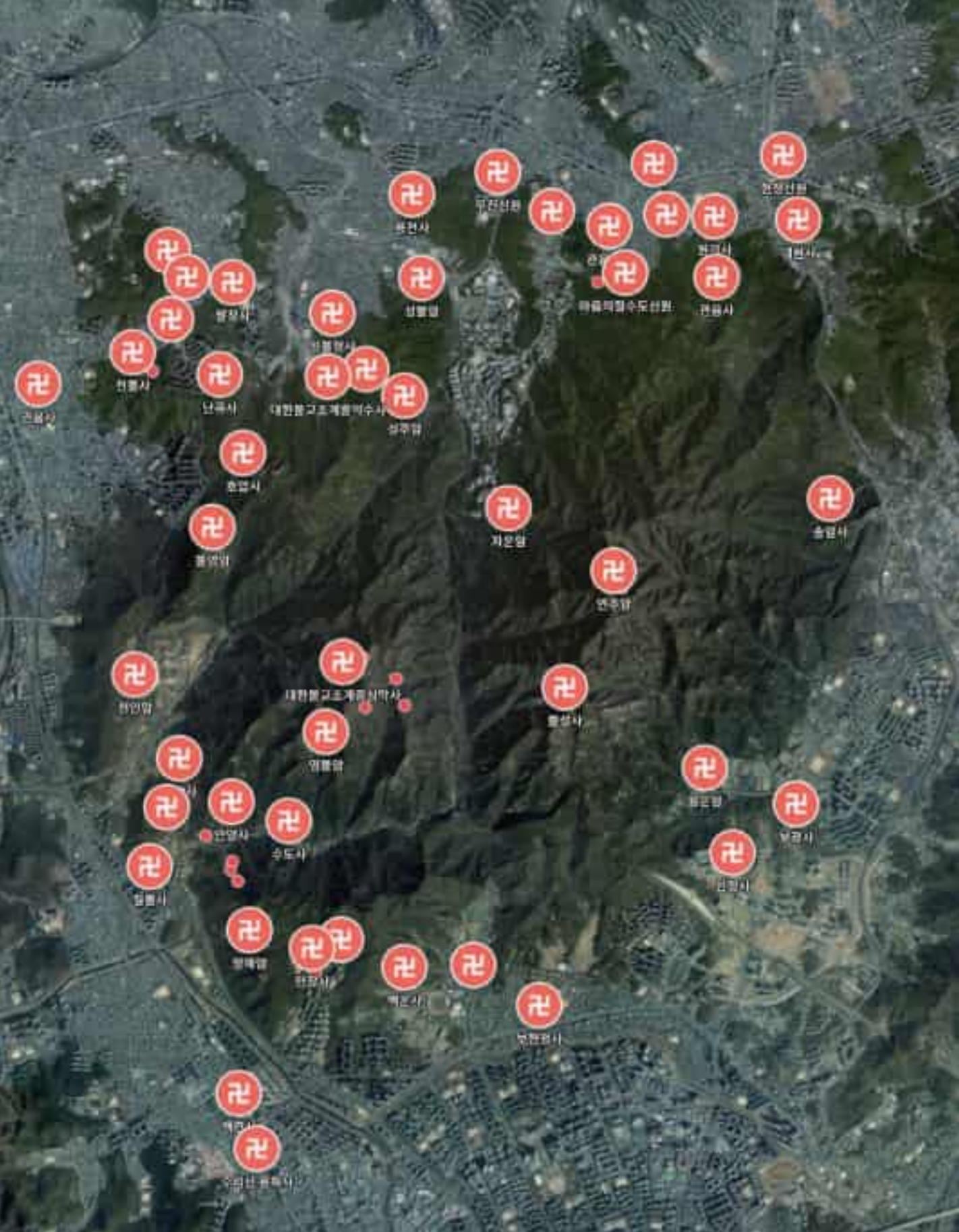


과천현 관악산 자락에 자리한 불교 사찰(1872년 지방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제공)

주암은 의상대사의 수행 전통을 계승한 의상계 불교의 상징이며, 관악산 주봉부에 위치한 점은 왕도(王都)를 향한 불교적 시선, 즉 '수도 수호의 영산(靈山)'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한다.

이에 비해 삼성산 서사면에는 삼막사, 망월암, 염불암 등 다수의 사찰과 사지가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계곡수가 풍부하여, 수행과 기도뿐만 아니라 생활과 신앙이 결합된 공간으로 발전하였다. 삼막사는 원효·의상·윤필의 수행지로 전해지며, 이후 도선국사·나옹·지공·무학 등으로 이어지는 선종 계보의 중심지로 자리하였다. 이러한 계보적 지속성은 삼성산이 고려-조선시대에 걸쳐 '남부 수도권 불교의 정신적 거점'으로 기능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망월암과 염불암은 완만한 능선에 위치하여, 산중 수행과 평지 신앙이 만나는 접점으로 작용하였다.

하천·평지권 사찰군은 주로 삼성천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안양사지는 삼성산 남단과 삼성천 북안의 충적지에 위치하는데, 안양사는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합을 기원하며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는 불교가 정치적 통합과 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



2025년 관악산과 삼성산 일대 불교사찰

로 기능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평지 사찰군은 수도 남부에서 왕실·관료·승려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행정적·의례적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외곽 비보·신앙 사찰군에 해당하는 호암산 동쪽 기슭의 호암사와 사자암은 조선 초 무학대사가 한양의 남쪽 ‘화산(火山)’ 기운을 제압하기 위해 창건한 비보사찰로, 국가적 풍수 체계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이들 사찰은 불교가 단순한 신앙을 넘어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정치적 장치로 기능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석수동 일대의 삼막골 사지, 불당골사지 등은 고려 말기~조선 전기에 존속한 민속신앙형 암자군으로, 불교가 민간신앙과 결합한 현장적 양상을 잘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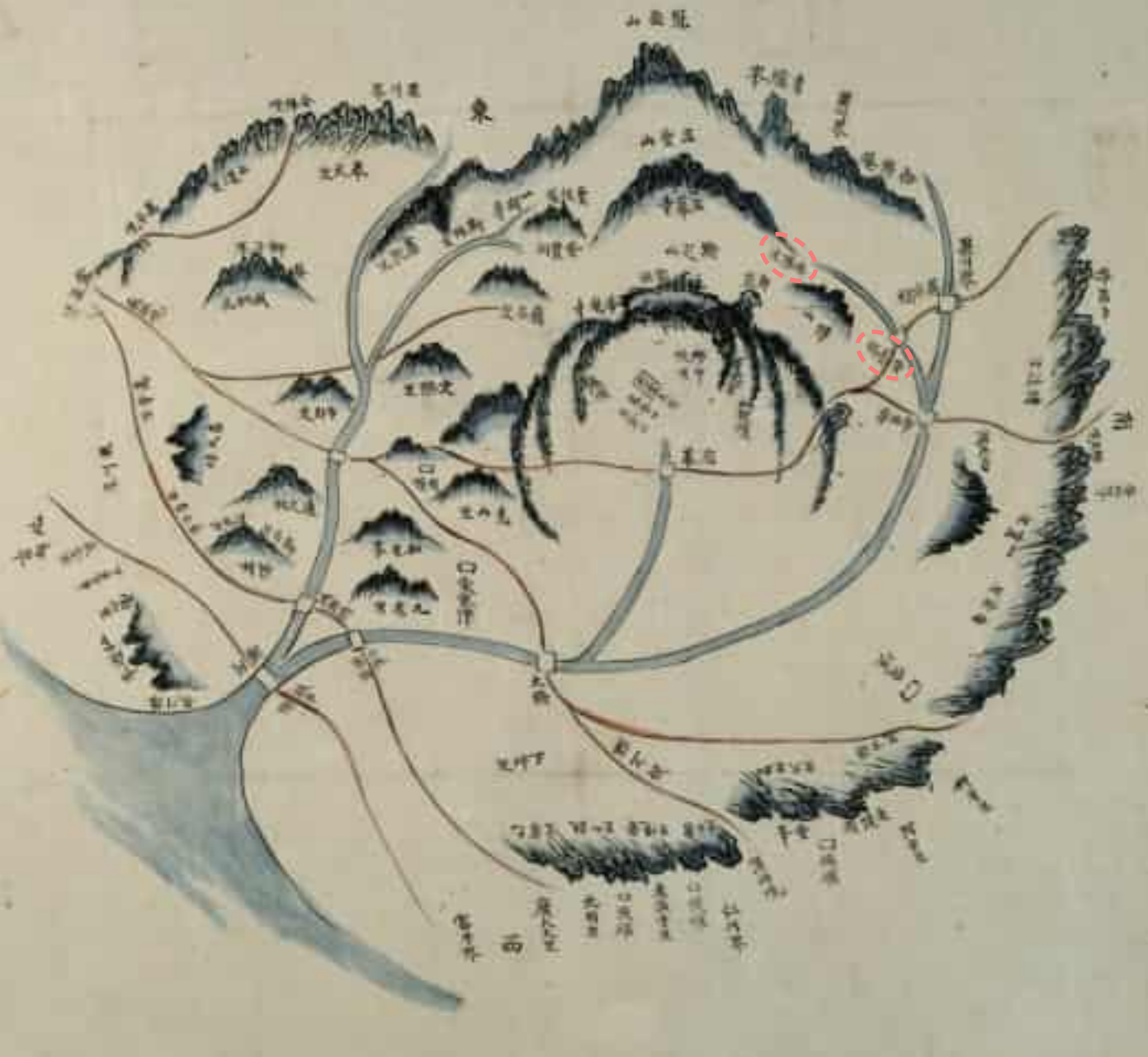
2. 삼성천 경계 마을의 명칭 전이(轉移)

1) 시흥의 안양, 과천의 안양

삼성천은 예로부터 시흥과 과천을 경계선 역할을 한 지형물로, 삼성천 일대는 “두 고을이 맞닿는 변두리”에 가까운 공간이었다. 조선 후기 읍지와 18~19세기 지도류에서 삼성천을 따라 경계선이 그어지고, 그 북쪽은 시흥현(금천) 지역, 남쪽은 과천현 지역으로 인식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삼성천은 양 지역을 가르는 행정적·공간적 분절선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경계 구조에서 ‘안양(安養)’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안양이라는 지명은 삼성천과 삼성산 자락에 위치한 안양사(安養寺)에서 유래하였는데, 이 사찰은 고려 태조 왕건이 창건한 대규모 불교 사찰로, 고려 전기부터 조선 전기인 16세기까지 상당한 규모와 위세를 유지하였다. 안양사는 경계부의 거점이었는데 이러한 위치적 특성 때문에 ‘안양’이라는 이름은 사찰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 전반에 퍼져 나가며 다양한 지명과 시설명에 사용되었다.

『여지도서』에는 시흥현 안양리(安養里)가, 『호구총수』에는 과천현 안양리(安陽里)가 기록되어 있으며, 『여지도서』 과천현 산천조에는 안양천(安養川)이, 교량조에는 안양교(安養橋)와 안양천석교(安陽川石橋)가 기록되어 있어, 하천과 다리 등에도 ‘안양’이라는 이름이 폭넓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안양장(安陽場)과 같은 시장 명칭에도 같은 이름이 쓰였다. 이 과정에서 ‘양(養)’과 ‘양(陽)’이 혼용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원래



시흥현 지도에 나타난 안양리와 안양교(1872년 지방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제공)

의 표기는 ‘기를 양(養)’이 타당하나, 음이 같은 ‘별 양(陽)’으로 표기되는 사례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표기 혼용은 문헌 기록자의 인식 차이나 지역적 언어 습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과천현 지도에 나타난 안양장(1872년 지방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제공)

〈표 1〉 삼성천 일대 행정구역과 마을

구분	18세기 중엽	19세기 중엽	20세기 초	구분	1914년	1963년 (안양읍)	1973년 (안양시)
과천 하서면	안양리 (安陽里)	안양리	안양리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	안양리	안양동
		발사리	발사리				
		석수촌 (石手村)	석수동 (石水洞)				
			장내동				
시흥 현내면	안양리 (安養里)	안양리	안양리		동면 안양리	신안양리	석수동

자료 : 18세기 중엽-시흥현 『여지도서』(1759)와 과천현 『호구총수』(1789); 19세기 중엽-시흥현 『경기지』(1842)와 과천현 『과천현읍지』(1871); 20세기 초-『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 1914년-『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안양리·안양천·안양교 등 경계 인근 교통로와 취락, 교량, 시장에 ‘안양’이라는 명칭이 부여되면서, 두 고을에서 공유하는 접합 공간의 명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명칭의 상징성과는 별개로, 행정 관할의 기준은 여전히 자연지형에 따라 규정되었고, 삼성천 이북과 이남이 서로 다른 고을에 편입되는 구조가 유지되었다.



동면 안양리와 서이면 안양리

이에 18세기 중엽에 이르르면 과천 하서면에도 안양리(安陽里)가, 시흥 현내면에도 안양리(安養里)가 형성되면서 ‘안양’은 마을 이름으로 정착하였다. 이로써 삼성천 일대는 ‘안양’이라는 이름이 널리 쓰이면서도, 동시에 그 이름의 소속을 둘러싼 역사적·행정적 논의가 발생하는 지점이 된다. 행정적으로 두 지역에서 각각 안양리가 존재했으며, 이후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과천군과 시흥군이 통합될 때에도 이 명칭은 유지되어 시흥군 서이면과 동면의 법정리 이름으로 남았다.

1905년 경부철도의 개통은 안양이라는 지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천군 하서면 발사리에 설치된 안양역은 철도망을 통해 전국 각지로 ‘안양’이라는 이름을 알려 나갔으며, 더 이상 특정한 사찰이나 마을만을 의미하지 않고, 철도를 중심으로 한 교통·상업 중심지의 명칭으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안양역을 중심으로 도시 기능이 집중되면서 서이면 전체가 ‘안양’이라는 지명으로 통칭되기 시작하였고, 1941년에는 공식적으로 서이면이 안양면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행정적 승격 과정에서 1949년 안양읍으로, 1973년에는 안양시로 발전함으로써 안양은 현대 도시 명칭으로 정착하였다.

이와 같은 명칭의 확대와 행정적 변화로, 시흥군 동면에 속해 있던 안양리는 1963년 안양읍으로 편입되면서 명칭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신안양리(新安養里)’로 리명을 변경하였다. 그 후 1973년 안양시 승격 시에는 다시 석수동으로 지명이 바뀌었고, 이로써 해당 지역에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안양’이라는 마을명은 사라지게 되었다.

2) ‘안양동’이 된 석수, ‘석수동’이 된 안양

김정호(金正浩, 1804~1866)가 편찬한 『대동지지(大東地志)』의 시흥현(始興縣) 기록에서도 삼성산이 읍치 동쪽 10리에 있고, 과천의 관악과 돌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삼성산과 관악산은 암반이 노출된 화강암 산지로, ‘석산’이라 불렸다. 삼성천은 석산인 삼성산과 관악산의 경계를 이루는 능선에서 떨어지는 자연 계곡수가 모여 형성된 하천, 즉, 석수(石水)였다.

이에 삼성천 주변에 형성된 마을은 석수촌 또는 석수동이라 불렸다. 이 지명은 1871년 발간된 『과천현읍지』에 처음 나타났는데, 하서면에 소재한 마을로 석수촌(石手村)이 등장하였다. 그전 기록에는 과천현 하서면에 안양리만 있었는데, 마을이 점차 분화되어 감에 따라 행정적으로 마을 단위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가면서 삼성천 주변 마을을 ‘석수촌’으로 구분하여 지칭한 것이다. 이 마을은 1912년 석수동(石水洞)으로 불렸으며 과천군 하서면 안양리 지적원도에도 석수동으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1912년 일본인 야스에 쇼조(安江正三)가 매입한 초가도 ‘과천군 하서면 석수동’에 소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석수동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서이면 안양리에 속하게 되면서 법정리의 지위를 지니지는 못했지만, 1950년대 제작된 지도에도 삼성천 남쪽 안양읍 안양리에 속한 자연마을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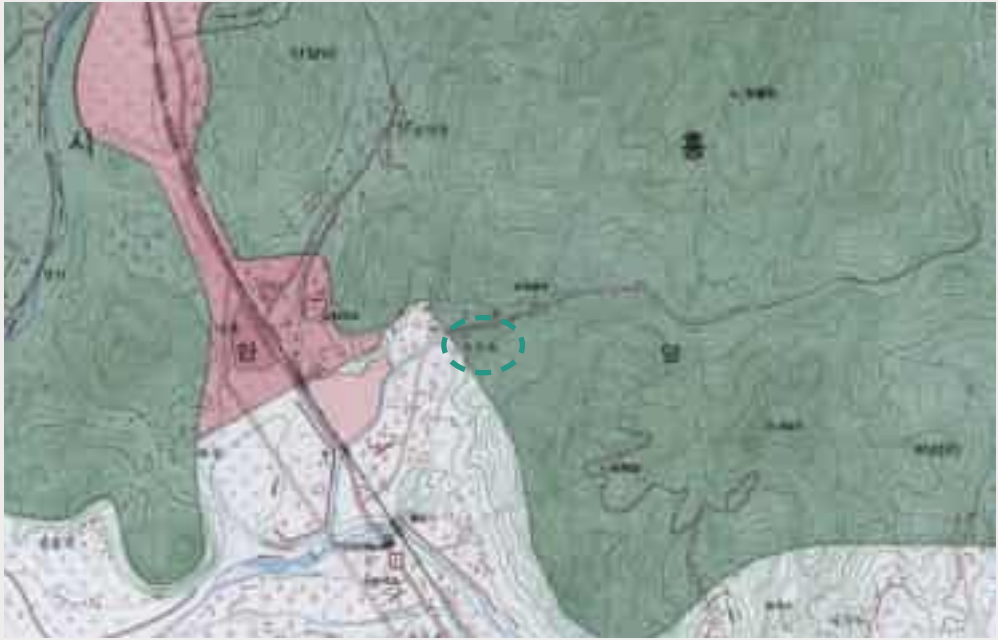
이에 비해 삼성천 북쪽에 위치한 마을, 즉 현재 만안구 석수동으로 불리는 곳은 1973년 안양시 승격 이전까지 문헌자료에 석수동으로 기록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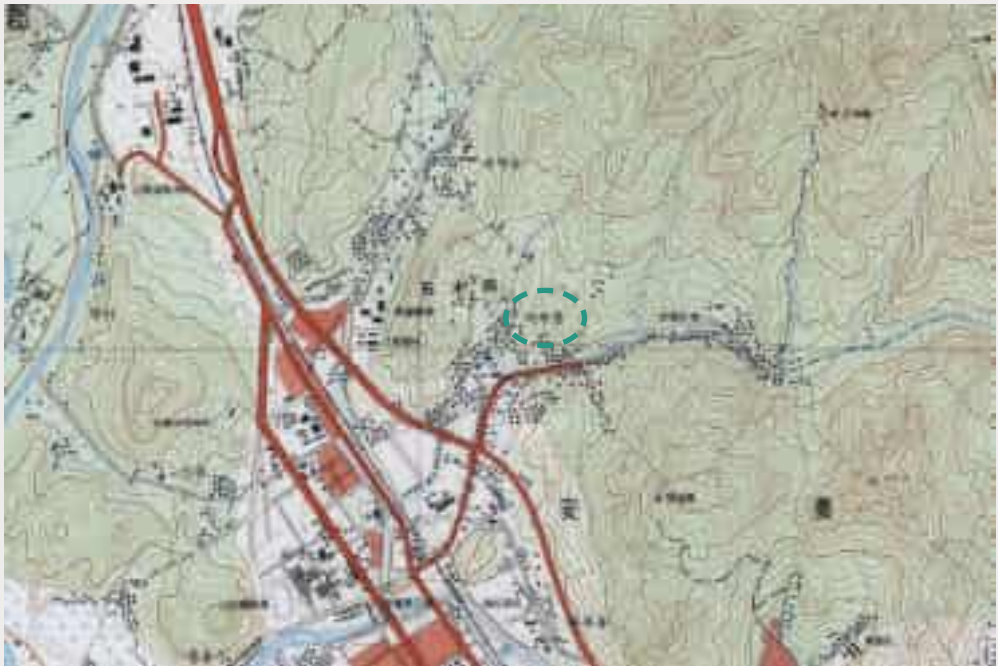
1911년 토지조사 후 작성된 과천군 하서면 안양리 지적원도에 표기된 석수동(국가기록원 제공)
시흥군 군내면(동면) 안양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음을 표시해 놓고 있다.



1957년 지도에 나타난 안양읍 안양리의 자연마을 석수동



1972년 안양읍 안양리의 자연마을 석수동



1979년 지도에 나타난 석수동
 신안양리가 석수동으로 변경되었고, 자연마을 석수동도 삼성천 북쪽에 표시되었다.

안구 석수동은 조선시대 각종 문헌에 일관되게 시흥현 현내면(군내면) 안양리로 기록되어 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에도 시흥군 동면 ‘안양리’로 불렸는데, 일제시기에 작성된 지형도에는 동면 안양리에 속한 마을로 삼막골만 기재되어 있다. 동면 안양리는 1963년 안양읍으로 편입되면서 신안양리로 명칭이 변경된 데 이어 1973년 안양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지명의 혼란을 맞기 위해 석수동으로 개칭되었는데, 이로써 안양이라는 지명과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다.

3) 남자하동

조선시대 고지도를 보면 삼성천 부근을 남자하동(南紫霞洞)으로 기재하였는데, 성호 이익이 남긴 『유관악산기(遊冠岳山記)』에 따르면 “불성암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곳을 남자하”라 했다.

산에는 영주대(靈珠臺, 연주대)가 실로 가장 높은 봉우리인데 산의 승경이 이보다 뛰어난 곳이 없습니다. 그다음이 자하동(紫霞洞)인데, 자하동이라고 이름한 동이 넷이지요. 불성암(佛成菴)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곳을 남자하(南紫霞)라 하고, 남쪽에서 서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곳을 서자하(西紫霞)라고 하는데, 모두 일컬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李瀾, 『遊冠岳山記』, 『星湖先生全集』 卷之五十三〉

‘자하(紫霞)’는 관악산 정상부 연주대 아래로 뻗어 나가는 계곡 전체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관악산은 ‘자하골’ 혹은 ‘자하골’이라 불렸는데, 이는 ‘자하골’의 음운이 변형된 형태로 추정된다. 여기서 ‘자’는 옛말에서 ‘산’이나 ‘고개’ 또는 ‘성(城)’을 뜻하는 지형어였다. 즉 ‘자하골’이란 말은 ‘산에 딸린 골짜기’ 혹은 ‘고개가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며, 관악산 자락의 실제 지형을 반영한 이름이었다. 우리말의 지형어 변화 과정을 보면 ‘자’에서 ‘자’, 다시 ‘재’로 이어지는 음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는 원래 ‘위’나 ‘꼭대기’를 뜻하는 말로 쓰이다가, 점차 산과 고개의 의미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자→자→재’의 흐름 속에서 17세기 이후 문헌에 ‘자’ 형태가 나타나고, 근대에 이르러 ‘재’가 표준어로 굳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자하골’ 또는 ‘자하골’은 본디 ‘산이나 고개의 골짜기’를 뜻하는 순우리말 지명에서 유래한 것이다.²

이후 한자 문화의 영향으로 자하골을 한자 표기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음을 따라 ‘자



금천현 지도에 표기된 남자하동(『지승』,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제공)



南紫霞



『삼성기유첩(三聖記遊帖)』(1826년, 박기준) 「남자하」에 그려진 삼성산과 삼성천(안양박물관 제공)

하(紫霞)로 적게 되었는데, 이때의 ‘자하’는 본래 의미와 무관하게 ‘붉은색 노을’이나 ‘신선의 경치’를 뜻하는 문학적 어휘로 대체되었다. 이로써 실질적인 지형명인 ‘갯골’이 문인층의 감각과 결합하여 ‘자하동(紫霞洞)’이라는 세련된 한자 지명으로 변모한 것이다. 따라서 자하동의 ‘자하’는 갯나무나 색채와 관련된 표현이 아니라, ‘산(재)’을 의미하는 토착어 ‘갯’이 음운 변화를 거쳐 한자식으로 미화된 결과이며, 이는 실제 지형의 특성과 조선 후기의 문학적 상징 의식이 겹쳐 형성된 복합적 지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19세기 문인들이 유람 후 만든 《삼성기유첩》에서 남자하(南紫霞)는 이 유람의 출발점이자 중심축이었다. 화첩 첫 장면인 ‘남자하’는 곧 고려 안양사가 위치했던 현 안양사지 일대를 조망하는 도상으로 제시된다. 여기에는 삼성천을 따라 형성된 계곡, C자형 물길, 민가와 숲, 그리고 증초사지 당간지주와 두 기의 탑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함께 그려져 있다. 이 장면은 남자하를 산골 초입이 아니라, 고려 이래 불교 가람과 마애유산·탑군이 밀집한 “역사적·종교적 거점이자 자하동 체계의 남문(南門)로 위치시킨다. 남자하에서 시작해 염불암·삼막사·망월암·불성사로 이어지는 동선은 삼성산 남사면의 사찰·마애상·불교 경관을 따라 오르는 일종의 성지 순례 코스이자, 진경산수화의 무대가 된다. 즉 남자하는 안양의 지역성, 불교 신앙, 진경산수의 시각 언어가 교차하는 기점으로 설정되며, 자하동 체계 전체를 ‘안양에서 시작하는 유람 서사’로 정렬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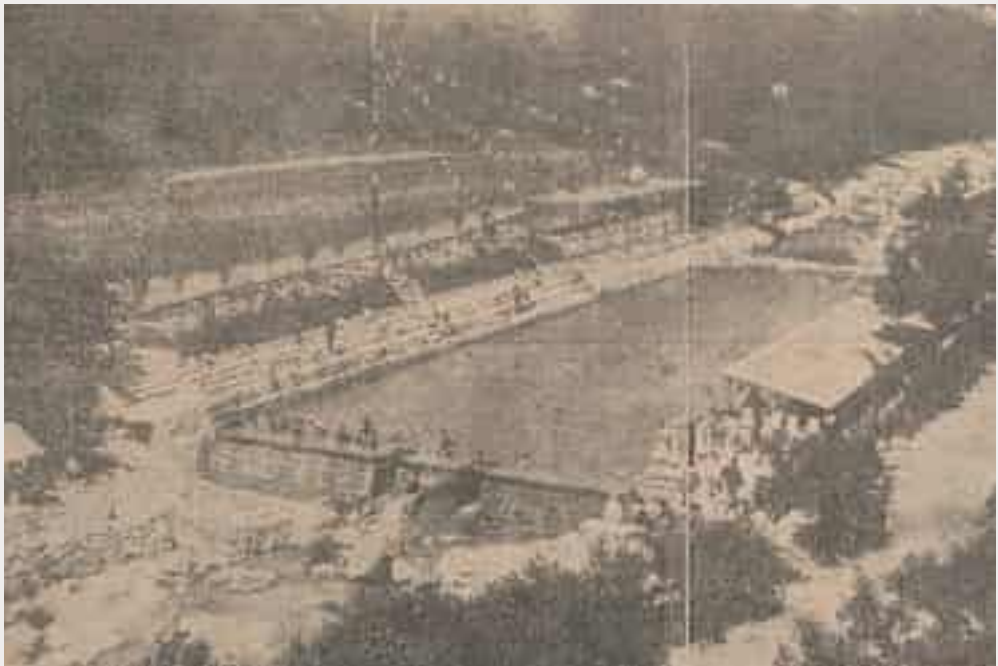
3. 삼성천 계곡을 따라 조성된 안양유원지 풀장

1932년 안양풀장이 처음 개장한 이후 안양유원지에는 크고 작은 풀장이 운영되었다. 이 풀장들은 삼성천 계곡을 따라 설치되었는데, 피서객들에게 잘 알려진 곳은 무료로 운영되었던 안양풀장과 유료로 운영되었던 대형풀장, 맘모스풀장, 안양관광호텔풀장, 만안각풀장 등이었다.

풀장의 위치는 유류산업을 지나자마자 자연 지형을 활용하여 조성된 안양풀장(3기)이 있었고, 그 북쪽으로 100여m 지나면 대형풀장(성인용, 어린이용)이 있었다. 대형풀장에서 계곡을 따라 동쪽으로 250여m 떨어진 곳에 맘모스풀장(성인용, 어린이용)이, 그 북쪽으로 50m 지점에 안양관광호텔풀장이 있었다. 안양관광호텔에서 동남쪽으로 170m 지점에는 만안각풀장(성인용, 어린이용)이 자리하였다.



제1폴장만 설치되어 있는 안양폴장(『경성신문』 1934년 8월 24일)



제2폴장이 설치되어 있는 안양폴장(『조선신문』 1935년 7월 22일)

이들 풀장의 설립 시기는 각각 달랐는데 안양풀장은 삼성산 골짜기에 자연 계류를 막아 만든 ‘자연형 풀장’으로 1932년(소화 7)에 설치되었다. 이 풀장은 길이 60m, 폭 20m, 깊이 1.8m 규모의 근대식 시설로 조성되었고,³ 자갈을 깔고 시멘트 콘크리트를 부어 바닥을 정비한 후, 계곡수를 직접 끌어들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수질이 좋고 자연미를 해치지 않는 형태였다. 주민들은 흔히 이 풀장을 ‘제1풀장’이라 불렀다.

1935년 7월 22일 『조선신문』에 실린 사진을 보면 안양풀장이 2기로 늘어나 있다. 제2풀장은 제1풀장의 길이를 60m에서 50m로 줄인 후에 만들었다. 이어 1940년 경성부는 아동들의 입간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6,000원이라는 큰 금액을 들여 제2풀장을 길이 40m, 폭 20m 규모로 확장하였다.⁴

제3풀장은 언제 건립되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으나 1956년이 되면 안양유원지에 경기용 정규 풀을 위시하여 대인용, 소인용, 아동용 등 4개 풀장이 운영되었다고 한다. 제3풀장은 아동용 풀장이었는데 길이와 폭이 20m 정도의 규모였다.

관악산록의 수려한 풍치를 자랑하는 당시 안양유원지의 풀은 금년에도 동 유원지운영위원회의 활약으로 200만 원의 경비를 들여 경기용 정규 풀을 위시하여 대인용 소인용 아동용 등 4개 풀과 각종 운동경기장 각종 유희장 등 완전 수리하고 19일 상오 12시 내빈 다수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성대히 거행하는 동시 수영대회도 개최하였다.〈「안양유원지 개원」, 『조선일보』 1956년 6월 22일〉

시흥군보승회는 1955년 미군 440부대와 국군 제1201건설공병단을 투입하여 정규 풀장을 건립하였다. 이들의 기술과 장비 지원을 받아 국제 경기 규격에 가까운 길이 50m, 폭 20m의 정규 풀장이 건립되었다. 이는 기존 자연형 풀장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인공 콘크리트 조성의 대형 수영장이었다. 1955년 7월 3일 개장식에서는 신설기념 수영대회가 열려, 유원지의 위상을 다시 한번 강화하였다. 그 후 대형풀장은 길이는 25m, 폭 15m 규모의 어린이 풀장도 설치하였다.

안양유원지에 정규의 풀이 신설되어 3일 상오 11시부터 그 개장식을 거행하리라 한다. 시흥군보승회에서는 유원지로서 알려진 안양풀이 규모가 작음으로 이번에 새로 길이 50미터, 폭 20미터의 정규 풀을 신설해서 30일 상오 11시에 개장식을 거행하고 이어 풀 신설기념 수영대회를 개최한 다음 일반에 공개하리라 한다.

〈「안양에 정규풀 3일에 개장식」, 『조선일보』 1955년 7월 2일〉



제3풀장(경기도 멀티미디어 자료실 제공)



1955년 건립된 대형풀장(경기도 멀티미디어 자료실 제공)



1968년 개장한 맘모스풀장(경기도 멀티미디어 자료실 제공)

1968년 여름에는 ‘맘모스풀장’이 개장되었다. 장모(張某) 씨가 8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여 만든 상업 풀장이었다.⁵ 맘모스풀장에는 길이 50m, 폭 20m의 성인용 풀장과 길이 20m, 폭 10m 정도의 어린이 풀장이 설치되었다.

안양관광호텔은 1968년부터 신축 공사를 시작해 1970년 개장하였다. 당시에는 안양유원지 상류 계곡이 서울 근교의 대표 피서지로 각광받던 시기였고, 안양관광호텔은 이 유원지 전체를 조망하는 언덕 위에 자리 잡았다. 안양관광호텔은 계곡을 내려다보는 삼성천 언덕 위에 세워진 안양유원지의 대표 건물이었다.

안양유원지 초입의 자연형 풀장(무료 풀장)들이 서민적인 피서의 상징이었다면, 안양관광호텔 수영장은 유료 풀장이면서 편의시설·탈의실·샤워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어 가장 시설이 좋은 고급 풀장으로 기억되고 있다. 안양관광호텔 수영장은 워낙 시설이 좋아 피서철마다 인파가 몰리는 곳이었는데, 성인용 풀장은 길이 58.8m, 폭 23.3m, 어린이용 풀장은 길이 12m, 폭 6m였다.

안양관광호텔은 흰색 외벽의 본관 건물과 이를 둘러싼 야외 수영장, 그리고 별관 형태의 나이트클럽을 갖추고 있어서, ‘호텔, 풀장, 나이트클럽’이 결합된 복합 레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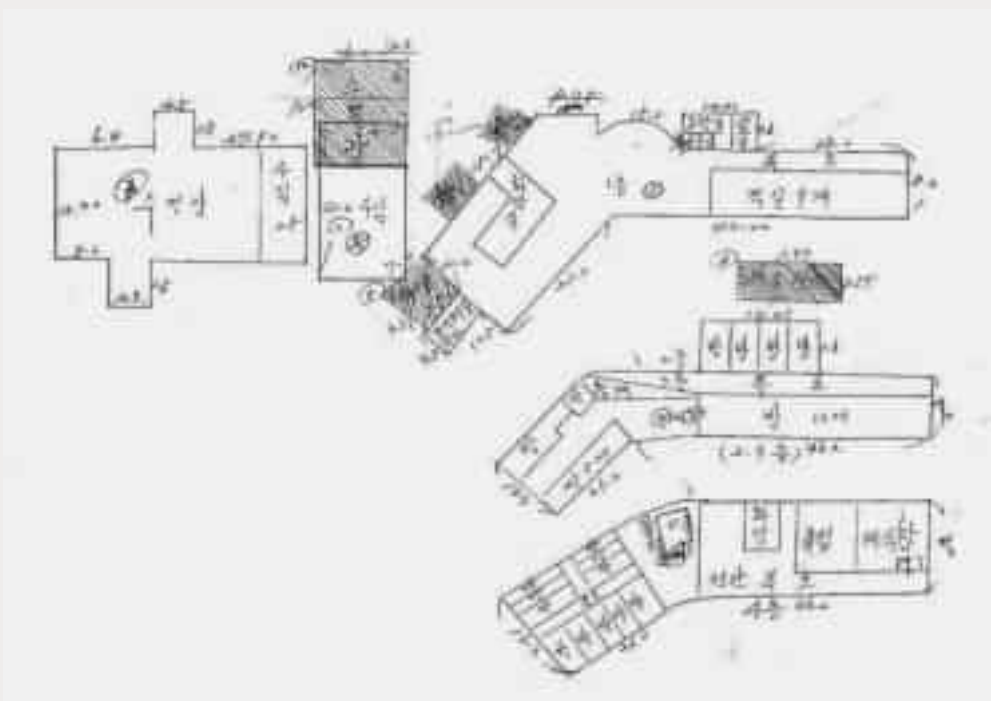
1970년 개장한 안양관광호텔폴장(국가기록원 제공)

설에 가까웠다. 이처럼 ‘호텔, 야외 수영장, 나이트클럽’으로 구성된 안양관광호텔은 1970~1980년대 안양유원지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별관으로 운영되던 나이트클럽에는 당시 최고 수준의 악단과 가수들이 출연했는데, 1980년대에는 조용필을 비롯한 국내 최정상급 가수들이 무대에 서면서, 여름철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서울에서 손님들이 몰려들 정도였다고 한다. 낮에는 호텔 투숙객과 피서객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저녁이면 나이트클럽에서 음악과 춤, 공연을 즐기는 패턴이 정착되면서, 안양관광호텔 일대는 ‘서울 근교 최고의 유원지’라는 이미지의 핵심 공간이 되었다. 안양유원지 계곡 전체가 여름이면 사람들로 가득 찼고, 호텔 수영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유료 풀장으로 꼽혔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안양유원지 전체가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게 되고 레저 패턴의 변화가 호텔 운영에도 점차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곳은 1980년대 초에 기아그룹의 연수·교육 공간인 ‘기아의 집(기아연수원)’으로 쓰였고, 1990년대 후반에는 청소년 수련과 숙박을 겸하는 유스호스텔 블루몬테로 재탄생하면서, 안양유원지의 흥망성쇠와 함께 모습을 바꿔 온 장소라고 할 수 있다.



1979년 안양관광호텔 건물 배치도(안양시청 제공)



1970년대 안양관광호텔수영장과 건물 평면도(안양시청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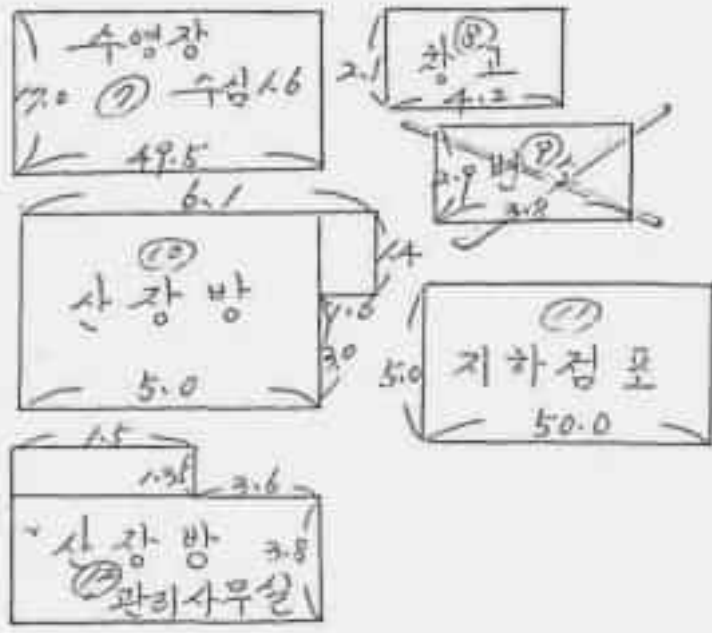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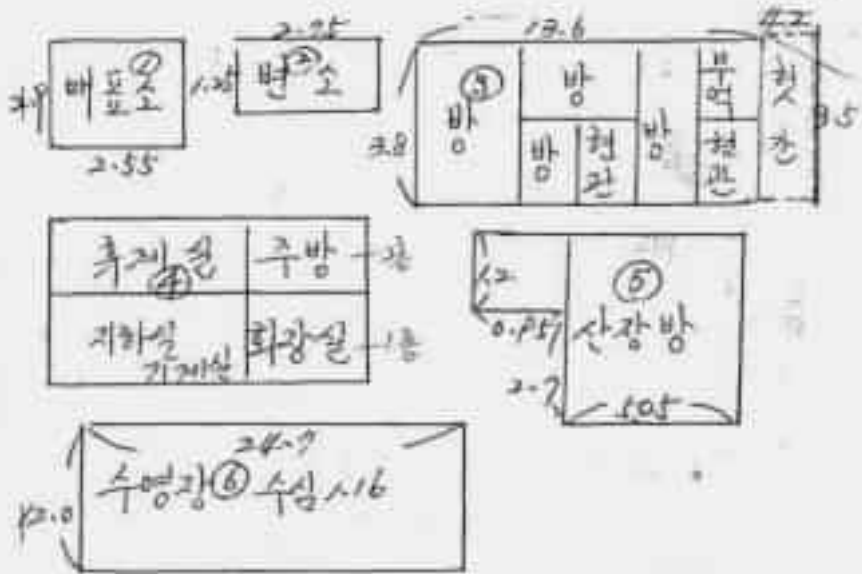
1970년대 개장한 만안각풀장

만안각여관과 풀장은 안양관광호텔 동쪽에 설치되었는데, 안양유원지의 주요 수영장 중 가장 삼성천 상류에 자리하였다. 1972년 이전에는 설립된 것으로 보이며, 성인용 풀장은 길이 49.5m, 폭 17m이고, 어린이용 풀장은 길이 24.7m, 폭 12m 정도였다.

관악산골짜기의 수려한 풍치를 배경으로 서울 도심에서 버스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 안양관광호텔을 비롯 13개의 여관, 식당 13개소, 매점 77개소, 기타 탁구장, 보트장, 당구장 등 오락시설, 관광호텔과 만안각여관의 대형풀장을 비롯, 유료 풀장이 4곳(어린이용이 붙어 있다), 무료 풀장이 2곳이다. (중략) 만안각여관의 방갈로나 객실은 1박 2일에 2천 500원~3,000원(숙박을 얹고 방안 빌면 하루 1,500원), 이곳의 풀장입장료는 호텔□것과 같다.

〈'자녀 손 이끌고...가까운 물, 쉴 곳을 찾는다', 『경향신문』 1972년 7월 22일〉

1980년대에 이르면 안양관광호텔수영장을 비롯하여 만안각, 대형, 제일, 국제, 맘모스, 삼양 등 8개 수영장이 운영되었다.⁶



만안각폴장 시설 규모(안양시청 제공)

4. 1979년 유원지 마을 시설물 현황

1) 유원지지부 사무실-별장여관-객실(방갈로) 구간 시설물

유유산업을 지나자마자 주차장으로 향하는 다리 부근에 유원지지부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었다. 별장여관과 사무실은 유원지 내 대로 오른쪽에 있었고, 그 옆 산능성이를 따라 흔히 '방갈로' 불리는 객실이 22채가 있었다.

〈표 2〉 안양유원지 초입(유원지지부 사무실-별장여관-객실) 시설물

소재지	시설명	면적(㎡)	소재지	시설명	면적(㎡)
안양동 산5	유원지지부 사무실	8.28	안양동 산5	소형 객실	35.09
안양동 산5	별장여관	45.36	안양동 산5	안내실	29.46
안양동 산5	사무실	9.68	안양동 산5	대형 객실	43.56
안양동 산5	소형 객실	35.88	안양동 산5-9	대형 객실	43.56
안양동 산5	소형 객실	35.09	안양동 산5	대형 객실	43.56
안양동 산5	소형 객실	35.09	안양동 산5	대형 객실	43.56
안양동 산5	소형 객실	30.17	안양동 산5-10	대형 객실	43.56
안양동 산5	소형 객실	27.18	안양동 산5	대형 객실	43.56
안양동 산5	소형 객실	35.09	안양동 산5-11	대형 객실	43.56
안양동 산5	소형 객실	35.09	안양동 산5	대형 객실	43.56
안양동 산5	소형 객실	35.09	안양동 산5	대형 객실	43.56
안양동 산5	소형 객실	35.09	안양동 산5	대형 객실	43.56
안양동 산5	소형 객실	35.09	안양동 산5	대형 객실	43.56

유원지지부 사무실(8.28㎡)은 유원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입구 인근에 배치되어 전체 시설의 관리, 출입 통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하였다. 별장여관(45.36㎡)은 점포 1개에 방 2개가 달린 구조이다. 별장여관 사무실(9.68㎡)은 투숙객 관리 및 예약, 접객 업무를 담당한 관리동이다. 안내실(29.46㎡)은 안흥사 방향에서 진입하는 관광객을 맞이하는 안내 공간으로, 대형 객실의 숙박시설 안내, 주변 관광지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객실은 면적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소형 객실은 27.18~35.88㎡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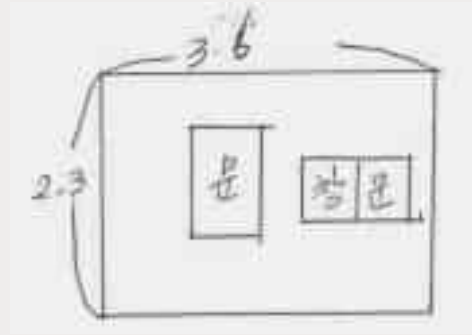


유원지지부 사무실-별장여관-객실(방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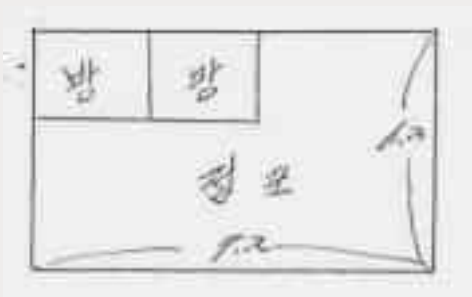
규모로 대부분 35.09㎡이며, 이 시설의 소유자가 별장여관 소유자와 동일한 것으로 볼 때 별장여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형 객실은 43.56㎡로, 소유자가 각각 다른 사람들이었다. 소형 객실은 방 2개, 마루(현관) 1, 욕실 1개로 구성되어 있고, 대형 객실은 방 2개, 마루(현관) 1, 욕실 1개, 부엌 1개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단위 또는 단체 이용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동일 설계의 객실이 개별 건물 형태로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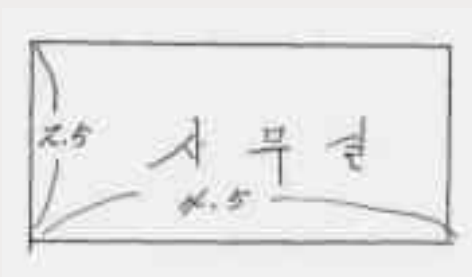
유원지지구 사무실



별장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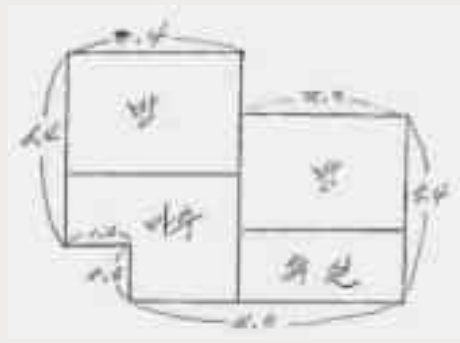


별장어관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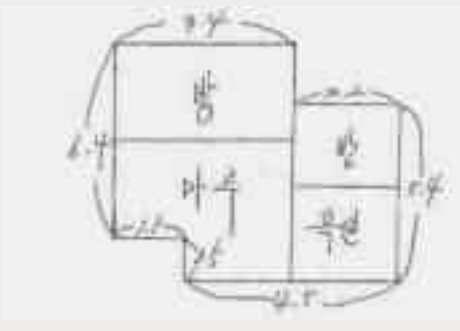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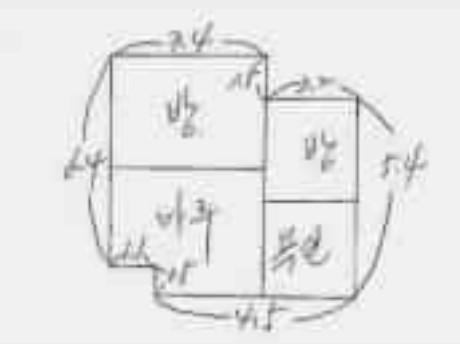
소형 객실



소형 객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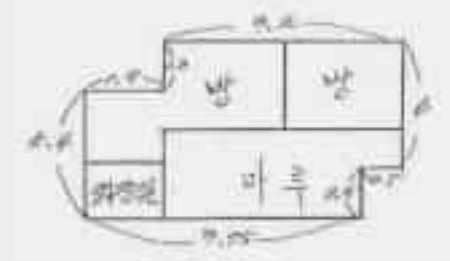


소형 객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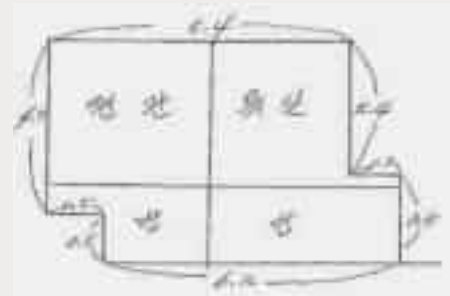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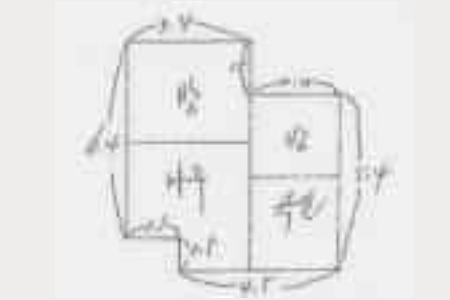
소형 객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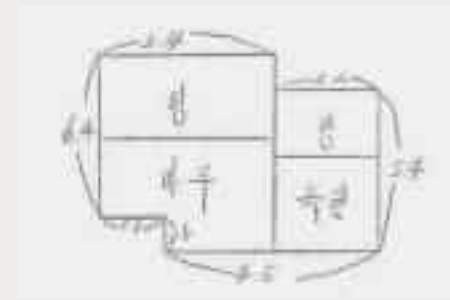
소형 객실



소형 객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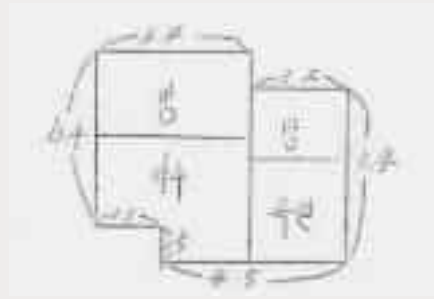


소형 객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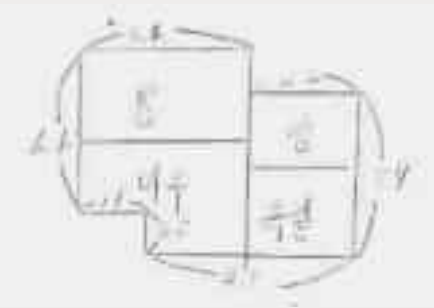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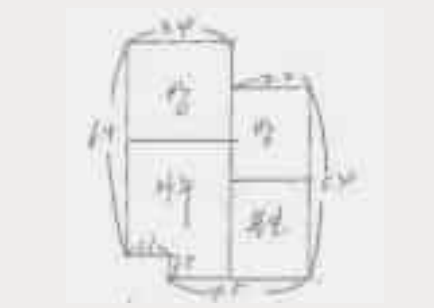
소형 객실



소형 객실



소형 객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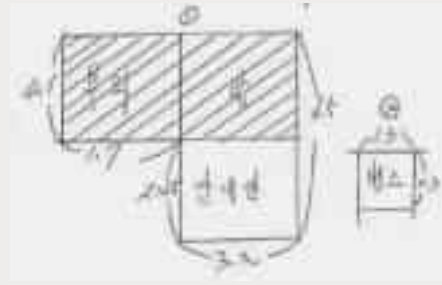


소형 객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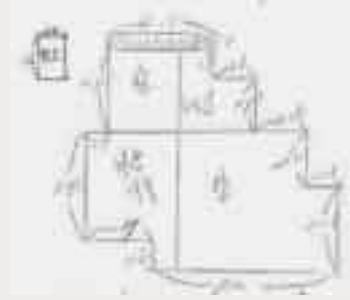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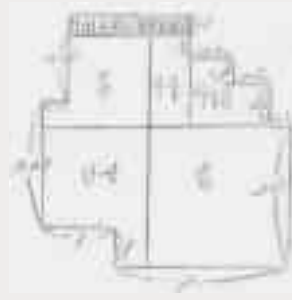
안내실



대형 객실



대형 객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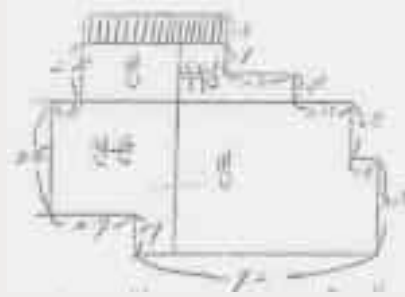


대형 객실





대형 객실



대형 객실



대형 객실



대형 객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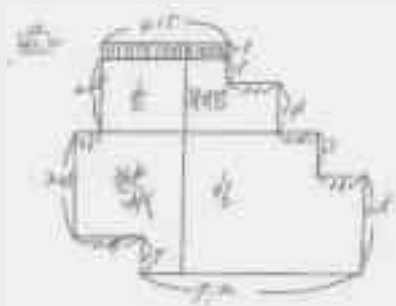
대형 객실



대형 객실



대형 객실



대형 객실



2) 안양풀장 앞 시설물

안양풀장(안양유원지 입구) 전면부, 즉 ‘별장여관 진입로’와 ‘안흥사 진입로’ 사이의 대로변 상업지대를 구성했던 주요 시설물이다. 1960~1970년대 안양유원지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여름철 피서지로, ‘안양풀장’은 그 중심 시설이었다. 유원지 입구 대로변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접근하는 길목으로, 숙박과 매점을 겸한 건물들이 연속적으로 자리하였다. 이 구역은 소규모 매점, 다방(주류)형 휴게시설, 상회 및 객실 복합시설, 숙박시설, 놀이시설(롤러스케이트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안양풀장 앞 시설물

소재지	시설명	면적(㎡)	소재지	시설명	면적(㎡)
안양동 산5	미상	90.49	안양동 산5	미상	151.51
안양동 산5	동양여관	258.4	안양동 산5	진서상회	66.1
안양동 산5	선암상회	72.36	안양동 산5	내쇼날연쇄점과 삼안식품	104.96
안양동 산5	미상	132.34	안양동 산5	미상	84.48
안양동 산5	밤나무집	108.09	안양동 산5	유원지 롤러스케이트장	51.67
안양동 산5	휴게실캠퍼스	61.2			



안양풀장 앞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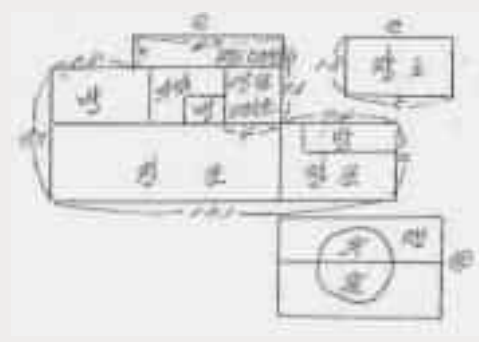
미상



동양여관



선암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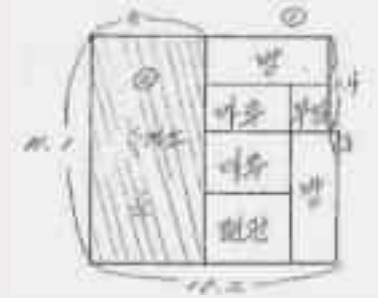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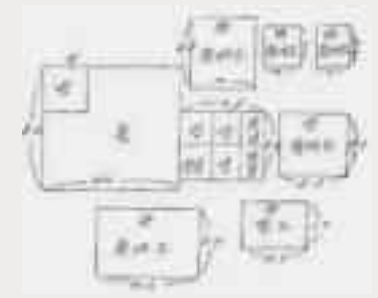
밤나무집



휴게실캠퍼스



휴게소





진서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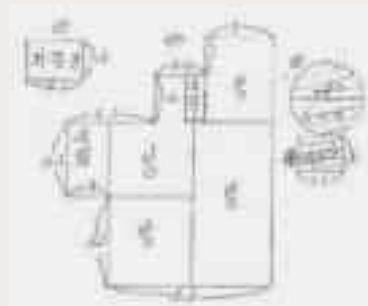
내소날연쇄점과 삼안식품



미상



여관과 유기장과 매표실



3) 안흥사 진입로 북쪽-대형폴장 구간 시설물

이 지역은 안양유원지 대형폴장 진입로 남측과 안흥사 진입로 북측 사이에 해당한다. 이곳은 폴장 이용객과 안흥사 탐방객이 교차하는 유원지 동선의 중심축으로, 대규모 숙박시설보다는 간이음식점, 분식점, 상회, 공중화장실 등 유원지의 '생활 편의시설'이 집중되었다. 특히 도로변에 면한 점포형 상점들이 많았고, 상점의 후면부는 창고 또는 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표 4〉 안흥사 진입로 북쪽-대형폴장 구간 시설물

소재지	시설명	면적(㎡)	소재지	시설명	면적(㎡)
안양동 산5	화장실	14.44	안양동 산5	승리상회	172.17
안양동 산5	미상	177.5	안양동 산5	미상	71.98
안양동 산5	주리상회	101.58	안양동 산5	천안상회	160.29
안양동 산5	낙랑분식	110.78	안양동 산5	화장실	13.44
안양동 산5	학익분식점	122.1	안양동 산5	산수정	284.02
안양동 산5	옛집	157.68	안양동 산5	충남상회	217.57
안양동 산5	미상	208.95	안양동 산5	용산상회	158.81

승리상회(172.17㎡), 주리상회(101.58㎡), 천안상회(160.29㎡), 충남상회(217.57㎡), 용산상회(158.81㎡) 등은 모두 유원지형 잡화점 또는 식품점으로, 여름철 피서객을 위한 음료, 과자, 즉석식품, 물품 대여(튜브, 수영복 등) 등을 판매하였다. '승리', '천안', '충남', '용산' 등의 명칭은 업주 출신지나 고향명을 딴 이름으로, 1970년대 안양유원지 상권의 운영주체 중 지방 출신 자영업자가 많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곳의 시설은 150㎡ 이상 대형 점포들이 여럿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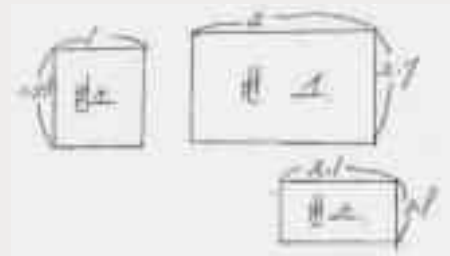
낙랑분식(110.78㎡), 학익분식점(122.1㎡), 산수정(284.02㎡), 옛집(157.68㎡) 등 네 곳은 유원지 중심부의 주요 식음시설로, 당시 '분식점'은 김밥, 라면, 국수, 냉면, 수제튀김 등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대중식당 유형이었다. '낙랑', '학익' 등의 이름은 당대 유행하던 고전적 이미지의 상호였다. 특히 산수정(284.02㎡)은 넓은 규모로, 일반 식당의 두세 배에 해당한다. 이는 단체 피서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식당 또는 회식용 음식점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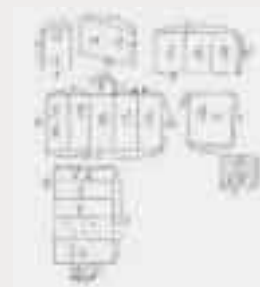
안흥사 진입로 북쪽-대형풀장 구간 시설물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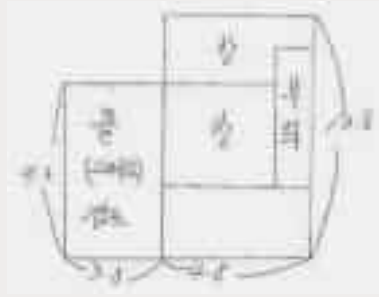


숙박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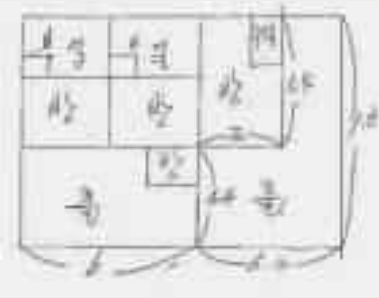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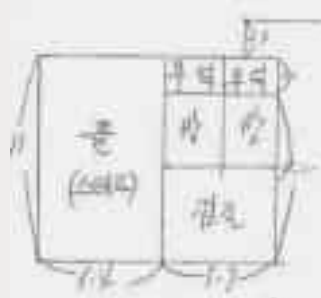
주리상회



낙랑분식



학익분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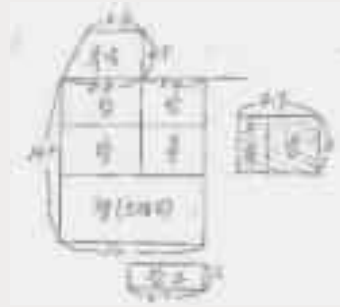


옛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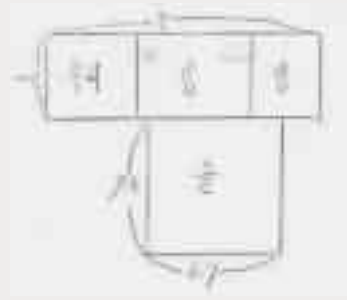
미상



승리상회



미상



천안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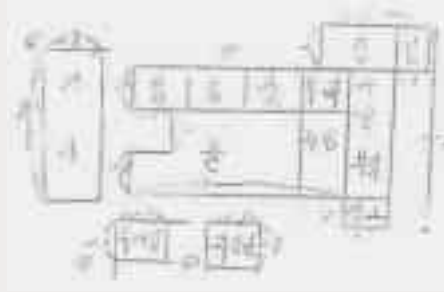




화장실



산수정



충남상회



용산상회



4) 대형플장 앞 시설물

대형플장 앞은 차량 접근이 용이한 대로변에 형성된 상업지대로 상회류, 식당·분식·다방형 유흥시설, 숙박시설, 공공·행정시설, 유원지 그네장 등이 운영되고 있었다. 간이우체국과 이동파출소가 같은 구간에 있다는 점에서, 이곳이 유원지 관리의 핵심 거점이었음을 보여 준다.

〈표 5〉 대형플장 앞 시설물

구분	주요 시설	면적(㎡)	기능
숙박	백수여관	328	대형 여관, 숙박 복합형
식당(분식)	청수장, 록지식당, 석굴암, 초원의집	60~187	식당·분식·휴게형 식음공간
상회류	고향상회, 신광상회, 중앙상회	57~293	식품·잡화·기념품 판매
행정 및 공공	간이우체국, 이동파출소, 화장실	4~17	우편·치안·편의 기능
오락시설	유원지 그네장	-	놀이 및 여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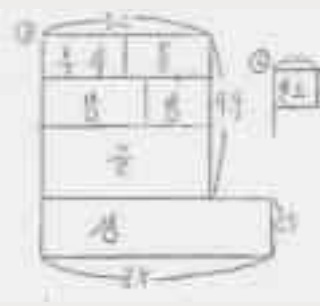
대형플장 앞 시설



고향상회



신광상회



석골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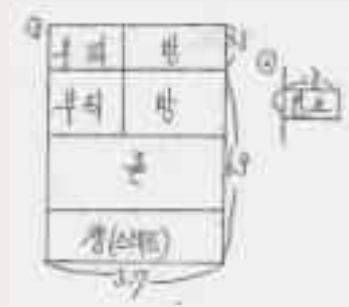


청수장





초원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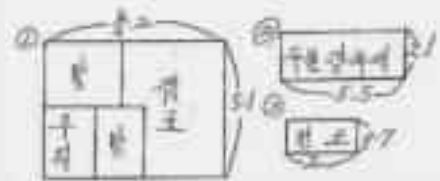
록지식당과 송파어관



백수장과 백수어관



중앙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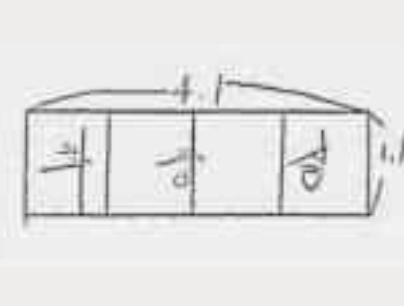
우체국



이동파출소



화장실



유원지 그네장



5) 보트장 일대 시설물

보트장은 대형풀장 인근 수면공간(삼성천 상류 확장부)에 설치된 시설로, 1970년대 중후반 안양유원지의 대표 명소 중 하나였다. 여름철에는 보트·튜브·오리배를 대여하는 공간으로, 그 주변은 자연히 즉석음식점, 음료매점, 간이식당이 밀집한 소비 구간으로 발전하였다. 보트장 일대는 단기 체류형 상업·휴게시설이 집중된 구간이었으며, 보트 대여와 음료 판매, 튜브 수리, 휴식용 평상 대여 등으로 붐볐다.

〈표 6〉 보트장 일대 시설물

시설명	면적(㎡)	기능적 성격
경호상회	135.93	식당 겸 유키장
향화촌 및 777상회	176.52	매점 및 휴게소
솔밭상회	157.39	매점 및 유키장
서울상회	128.13	음료·기념품 매점, 숙박



보트장 일대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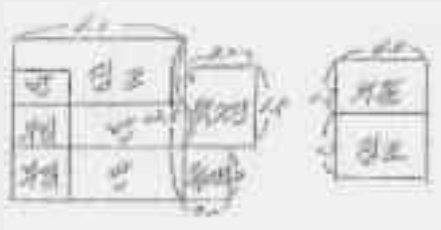
경호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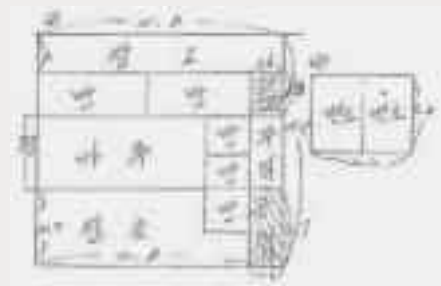
향화촌과 777상회



슬발상회



서울상회



6) 맘모스폴장-안양관광호텔 구간 시설물

1977년 안양유원지의 맘모스폴장에서 안양관광호텔에 이르는 도로변 구간은 그 당시 유원지 전체에서 상업적 밀도가 높고 기능이 복합적으로 얽힌 공간이었다. 이곳은 맘모스폴장의 젊은 피서객과 안양관광호텔을 이용하는 중산층 이상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뒤섞이는 지점이었고, 그만큼 다양한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숙박업, 상회, 식당, 오락시설이 연속적으로 배치된 상권 구조를 보여 준다.

〈표 7〉 맘모스폴장-안양관광호텔 구간 시설물

구분	시설명	면적(㎡)	기능
숙박시설	송파장여관	167	중형 여관
식당/유흥시설	해운대갈비집, 공원정	112~338	음식점, 연회·접객 기능
상회류(상점)	일신상회, 철환상회, 달성상회	108~177	식품·기념품 판매, 일부 식당 병행
오락시설	오락점포, 사격장	79~92	실내 오락·체험형 레저시설
편의시설	화장실	25	공공 편의 기능

송파장여관은 167㎡ 규모의 중형 여관으로, 이 도로변에서 가장 안정적인 숙박 기능을 담당했다. 맘모스폴장의 물놀이 인파와 외지 관광객, 그리고 주말 단체 손님들이 주로 이용했다. 이 여관은 숙박시설이 계곡 방향에 몰려 있던 다른 지역과 달리, 도로변에서도 충분한 숙박 수요가 존재했음을 보여 준다.

숙박시설을 둘러싸듯 다양한 상회(상점)와 식당이 이어졌다. 일신상회, 철환상회, 달성상회 같은 중대형 잡화점들은 100~170㎡ 규모로 나란히 도로변을 차지하며 이 구간의 기본적인 ‘생활 소비 축’을 형성했다. 이 상회들은 과자나 음료분만 아니라, 수영용품·튜브·돛자리 등 피서 관련 물품과 더불어 기념품, 시그널 필름, 담배 등을 고루 갖춰 판매하였다.

이 구간에는 또한 오락·레저 시설이 두드러지게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당시 안양 유원지가 단순 피서지를 넘어 청년층이 몰리는 위락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79㎡ 규모의 오락점포는 초기 당구대, 핀볼 기계 등이 설치된 일종의 실내 놀이공간이었고, 그 근처에 자리한 유원지 사격장은 1970년대 대표적 레저시설로 여름철이면 공기총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인기 장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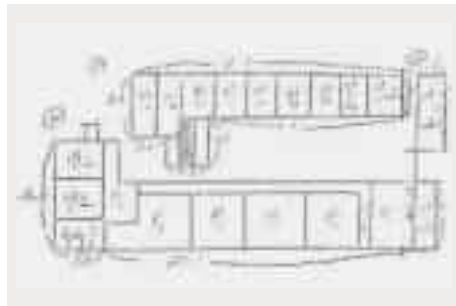
식당들도 이 구간의 중요한 축이었는데 무엇보다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건물은 바로 궁원정이었다. 약 338㎡에 달하는 대형 음식점이었던 궁원정은 단체 연회, 가족 외식, 중산층 고객을 위한 좌식 홀이 갖춰진 고급형 식당으로, 당시 안양관광호텔과 고객층이 상당 부분 겹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 건물의 존재는 도로변 상권이 이미 단순 피서객 상권을 넘어 연회·접객 기능을 포함한 고급 식당지대로 발전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맘스폴장-안양관광호텔 구간 시설물



송파장여관





일신상회



철환상회와 남수장



유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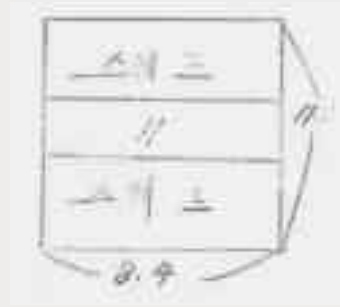


해운대갈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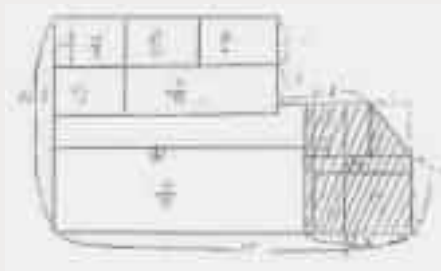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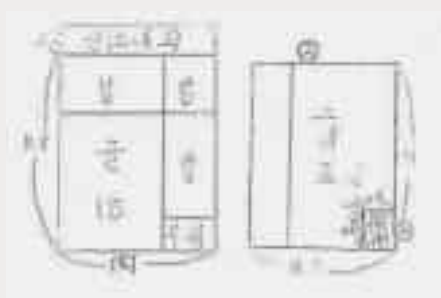
유원지사격장



달성상회



궁원정



화장실



7) 안양관광호텔-서울대수목원 구간 시설물

안양관광호텔에서 서울대학교 관악산수목원(현 안양수목원)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화려한 유희·오락시설이 밀집된 관광호텔 주변 상권을 벗어나 점차 계곡과 숲이 짙어지는 자연지대로 이어지는 전환 구간으로, 상업적 기능과 자연휴양적 기능이 공존하는 특이한 풍경을 이루고 있었다. 도로를 따라 한 줄로 이어진 상점과 식당, 소규모 여관들은 관악산 남사면으로 향하는 등산객과 수목원 방문객, 그리고 계곡 피서객에게 물과 음료·간단한 식사·등산용 작은 물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이 구간의 기본적인 상권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 구간의 상회는 단순한 매점이 아니라 음료·식품·피서용품 등을 취급하였고 식당을 겸하였다. 가장 규모가 큰 점포는 관수상회(208.64㎡)와 영등포상회(233.1㎡)로, 이 두 상점은 이 일대 상권의 중심점이라고 할 수 있었다. 계곡과 수목원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머무는 대형 공급시설이었다. 영등포상회는 휴게소라는 부속시설이 있는데 계곡에 천막을 치고 관광객에게 빌려주는 용도였다. 초원상회·진영상회·대성상회·은하상회·초록상회·금수상회 같은 중·소형 상회들이 줄지어 있었다. 이 상회들은 60~130㎡ 정도의 비교적 아담한 규모로, 라면·떡볶이·과자·막걸리·물·수건 등을 판매하며 등산객에게는 빠른 소비를, 피서객에게는 간단한 휴식과 보급을 제공하였다. 상회를 운영하는 이들 중에는 지방 출신 상인이 많았고, 상호에서도 지역적 색채가 드러났으며, 이는 당시 외지 상인들이 안양유원지 상권에 활발히 진입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산장식당(117.13㎡)은 이 구간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 준다. 산채비빔밥, 닭백숙, 메밀전, 도토리묵 같은 전형적인 산장 음식이 제공되었으며, 계곡이나 숲 전망이 확보되는 위치에 자리하였다. 관광호텔 주변 식당이 주로 고급 갈비나 단체 연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면, 계곡 근처 식당은 훨씬 소박하고 자연친화적인 메뉴를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숙박시설인 약수장여관(278.16㎡)은 안양유원지와 관악산을 찾는 외지 피서객과 등산객을 겨냥해 도로변에 설치된 여관으로, 1층에 객실과 차고, 2~3층에 객실을 둔 일반적인 유원지형 숙박시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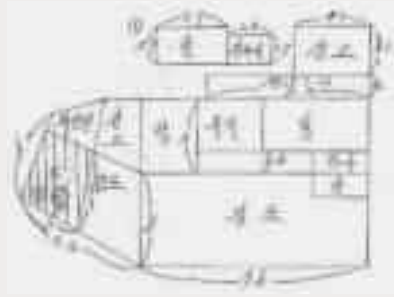
안양관광호텔-서울대수목원 구간 시설물

〈표 8〉 안양관광호텔-서울대수목원 구간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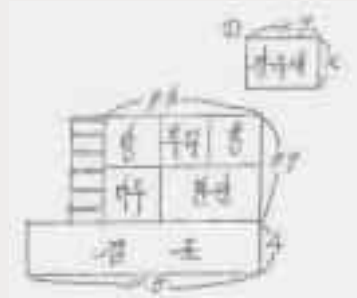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면적(㎡)	기능
대형 상회	관수상회	208.64	잡화·피서용품 판매, 식당
	영등포상회	233.1	잡화·피서용품 판매, 식당
중형 상회	초원상회	126.45	중형 상점, 식음·잡화 판매
	금수상회	123.42	중형 상회
	OO상회	167.34	대형 중형 상회
	무명 상점	101.6	매점·식당 가능
소형 상회	진영상회	67.03/98.55	소형 매점 2개동
	대성상회	64.545	식음·간식 중심
	유O상회	83.91	소형 매점
	초록상회	79.18	계곡형 상점
	은하상회	78.09	소형 매점
숙박	약수장여관	278.16	3층 규모 숙박시설
식당	산정식당	117.13	산채·백숙 중심 식당
교육·관람	관악산수목원	938.31	연구·교육·관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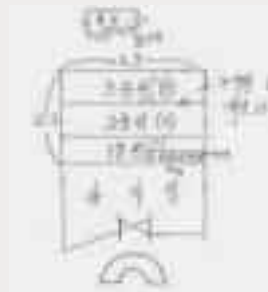
관수상회



초원상회



약수장여관



경학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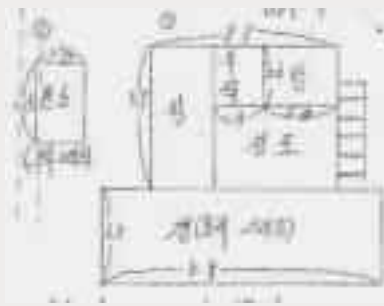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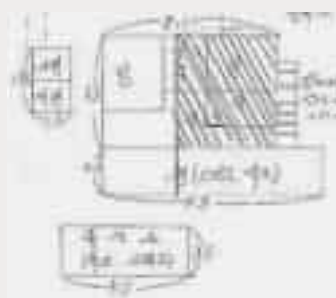
진영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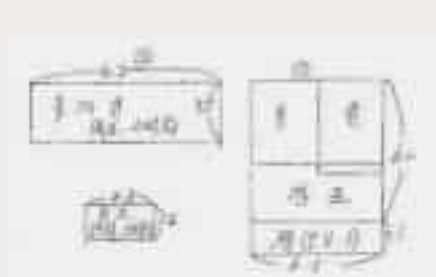
진영상회



대성상회



유ㅇ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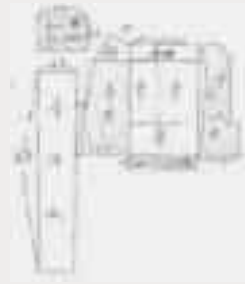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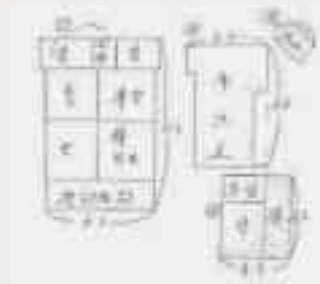
산장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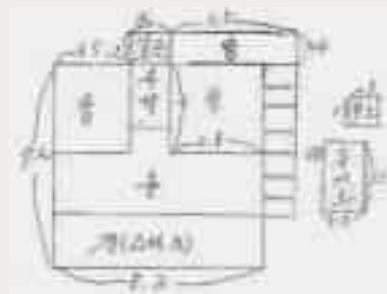
영등포상회



금수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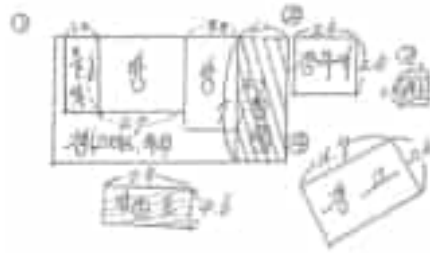


초록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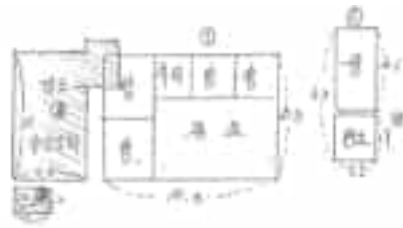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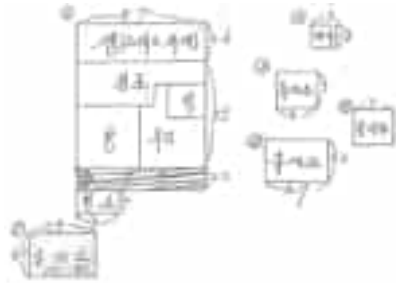
미상



은하상회



미상



관악산수목원



5. 삼성천지구단위계획

삼성천지구단위계획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과 석수동 일대를 포함하는 삼성천 주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도시공간 구조,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기준, 경관 및 환경 관리, 그리고 구역별 성격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세밀한 도시관리계획이다. 이 계획은 1950년대 이후 형성된 하천 변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전면적 철거나 재개발이 아닌 ‘보전형 도시재생’을 목표로 한다. 즉, 기존의 자연취락 구조와 생활권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도시경관과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생활 기반형 정비계획이 본 지구단위계획의 핵심이다.

삼성천지구는 안양천의 지류인 삼성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하천 변 마을로, 낙원마을·삼성천마을·석수동 일대가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은 좁은 도로, 불규칙한 필지, 노후 주택이 혼재된 저밀 주거지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이 오랫동안 숙원이었다. 이에 따라 이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 저층·저밀 주거환경의 보전과 정비의 병행 - 기존 마을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
- 생활 기반시설의 체계적 정비 - 도로, 녹지, 공원, 주차장, 하천, 광장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생활권 단위의 기반 형성
- 경관·문화·생태의 통합관리 - 삼성천 수변경관을 중심으로 한 녹지축과 문화공간의 연속성 확보

이러한 방향은 단순히 물리적 도시계획이 아니라, 주민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 속에서 자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 중심의 공간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지구 총면적은 약 18만 8,464㎡이며, 이 중 약 80% 이상이 주택용지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용지는 14개 생활가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가구는 생활권 단위로 독립된 기능을 지닌다. 가구별 면적은 2,000~1만 2,000㎡로 다양하며, 불규칙한 지형과 도로망, 하천 경계를 반영한 자연적 형태를 유지한다. 토지이용의 기본 원칙은 “자발적 공동개발권장과 개별개발의 병행”이다. 즉, 주민이 인접 필지 간 협의를 통해 통합개발을 추진하면 인센티브(용적률 완화 등)를 부여하고, 단독 필지 개발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관·건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 결정도
(1999년, 안양시청 제공)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이용계획도
(1999년, 안양시청 제공)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
(2009년, 안양시청 제공)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통합지침도
(2009년, 안양시청 제공)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구단위계획-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2024년, 안양시청 제공)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구단위계획-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2024년, 안양시청 제공)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구단위계획-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2024년, 안양시청 제공)



삼성천지구 내 안양워터랜드

축지침을 따라야 한다.

삼성천지구의 기반시설은 교통, 주차, 공원·녹지, 공공공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설은 단독 기능이 아니라 서로 연계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지구 내 주요 도로는 중로 2-2호선, 2-3호선 등 2개 축과, 소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로 폭은 4~15m로, 대부분 생활가로 수준이다. 교통계획의 핵심은 '보행 중심형 도로망' 구축이다. 주요 도로는 차량 통행과 보행이 공존할 수 있는 완화형 도로(Shared Street)로 설계되며,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다. 도로와 하천 변은 연속적인 녹지 및 보행축으로 연결되어, 낙원마을에서 삼성천예술공원, 석수동으로 이어지는 '수변 보행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주차시설은 협소한 도로와 필지 여건을 고려해, 세대당 1대 이상 주차를 의무화하되 필로티형 구조나 공동주차장 형태를 권장한다. 공동개발 구역에서는 공용주차장 확보가 필수이며, 공원 인근에는 방문자용 주차장을 추가 설치한다. 주차장과 도로 사이에는 식재대나 펜스를 설치하여 경관을 보호하고 보행안전을 확보한다.

녹지·공원시설은 이 계획의 가장 중요한 공간 구성요소로, 완충녹지(2,833㎡), 경관녹지(10,811㎡), 공원시설(37,515㎡)로 구성된다. 완충녹지는 주거지와 도로·공공시설



삼성천지구 주거지역

사이의 경계부에 배치되어 소음 및 미관을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경관녹지는 삼성천 수변을 따라 조성되어 생태축과 경관축의 기능을 수행한다. 공원시설은 소공원(993㎡), 문화공원(10,320㎡), 삼성천예술문화공원(33,015㎡)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삼성천예술문화공원은 지구 전체의 중심 녹지축이자 문화활동의 중심지로, 수변과 문화시설이 결합된 복합 공공 공간이다.

건축물 기준은 삼성천지구의 경관과 생활환경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물리적 규제뿐만 아니라 형태·색채·재료·담장·공개공지·보행공간 등 질적 기준을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다. 건폐율은 50~60%, 용적률 130~150%로 설정되었으며, 공동개발 시 최대 180%까지 완화된다. 층수는 3~4층 이하로 제한되어 저층 주거 경관을 유지한다. 건축선은 종로변 2m, 소로변 1m 이상 후퇴해야 하며, 후퇴공간은 보행로나 조경용으로 활용한다.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평지붕으로 제한하며, 지붕색은 암갈색 계열로 통일된다. 외벽 재료는 목재, 벽돌, 스티코 등 자연친화적 재질을 사용하고, 반사율이 높은 밝은 색상은 금지된다. 이는 삼성천 수변 경관의 자연성과 통일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담장은 투시형·저층식으로 제한되며, 최대 높이는 1.5m 이하이다. 불투명 블록담, 금속패널 등은 금지된다. 건축물 전면공지(후퇴공간)는 녹지대, 보행로, 휴식공간으로 활용

해야 하며, 공공보행통로가 포함된 경우 주민 공동 이용이 가능하다. 주차공간은 세대당 1대 이상 주차 확보가 의무이며, 필로티형 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공동개발 부지나 복합건축물은 공용주차장 및 방문자주차면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삼성천지구는 7개의 특성 구역(R1~R7)으로 구분되며, 각 구역은 주거, 문화, 휴양, 상업, 교육 등의 기능이 서로 보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9〉 삼성천지구 특성 구역

구역	기능	내용
R1	유학·편의촌	낙원마을 입구의 생활중심지, 소규모 상가와 편의시설 중심
R2	전원주택·낙원마을	전통취락 보존지구, 단독·다가구주택 중심의 저층 주거지
R3	종교시설지구	기존 종교시설 존치 및 환경정비 중심, 신규 설치 불허
R4	문화·카페촌	수변 문화공간, 카페·공방·예술공간 중심의 복합문화지대
R5	휴양촌	게스트하우스, 음식점, 자연친화형 주거지, 생태적 휴식공간
R6	음식촌	지역 음식문화 중심의 상업지구, 전통음식점 및 소규모 상가 집중
R7	연수·수련시설지구	교육 및 환경학습 중심의 공공복합시설지대

이러한 구역별 설정은 하천-공원-주거-문화-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적 생활환경체계를 구축한다. 각 구역은 기능적으로 차별화되어 있으나, 공공공간(도로, 녹지, 광장)을 매개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통합된 마을 구조를 형성한다.

삼성천지구의 경관관리는 “자연과 건축의 시각적 일체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삼성천 수변을 따라 형성된 경관녹지와 공원, 건축물의 높이와 색채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관지침은 다음 세 가지 원칙을 따른다.

- 시각적 연속성 - 하천, 녹지, 건축물의 선형 연계
- 색채 통일성 - 지붕·외벽의 자연색조 통일
- 공간 개방성 - 보행자 시선이 막히지 않는 투시형 담장과 저층부 개방형 입면

또한 환경관리 측면에서는 우수(빗물) 재활용, 저영향개발(LID) 기법 도입,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이 권장된다. 하천변에서는 생태녹지대를 확보하여 수질정화 및 미기후 조절 기능을 강화하였다.

삼성천지구단위계획은 전통적 주거지 보존과 도시환경 개선을 병행한 복합형 도시재

생 모델로 평가된다. 단순히 노후 주거지를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일상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생활기반 중심의 정비계획이다. 이 계획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보전형 도시계획 : 기존 취락의 물리적·사회적 구조를 존중하며 점진적 정비 유도
- 생활권 중심의 공간설계 : 도로, 공원, 주택이 생활 동선 단위로 조직됨
- 경관 통합관리 : 색채·높이·재료 통일을 통해 마을 전체의 시각적 일체성 확보
- 공동체 기반의 개발방식 : 주민 주도의 공동개발권장구역 설정 및 행정지원체계 마련
- 생태·문화 융합형 도시모델 : 삼성천 수변을 중심으로 한 자연경관, 예술문화, 주거공간의 통합

결과적으로 삼성천지구는 “하천-녹지-공원-주거-문화-교육이 통합된 복합생활환경 지구”로서, 안양시 저층 주거지의 재생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대표 사례이다.

註

-
1. 『대동지지』 권2 경기 시흥(大東地志 卷二 京畿 始興). “三聖 山東十里與果川冠岳連紆石.” 21일.
 2. 과천시지편찬위원회, 『과천시지 2 : 문화유산과 민속』, 2007, 601쪽.
 3. 「안양역 석수동에 수영장을 신설」, 『동아일보』 1932년 7월 21일.
 4. 「안양풀 명(明) 1일부터 개장」, 『동아일보』 1940년 7월 1일.
 5. 「바캉스 절정」, 『조선일보』 1968년 7월 28일.
 6. 「수도권 수영장 개장」, 『경향신문』 1988년 7월 2일.

제2장

단일한 공간과 중첩된 시간

: 중초사에서 안양예술공원까지

임동민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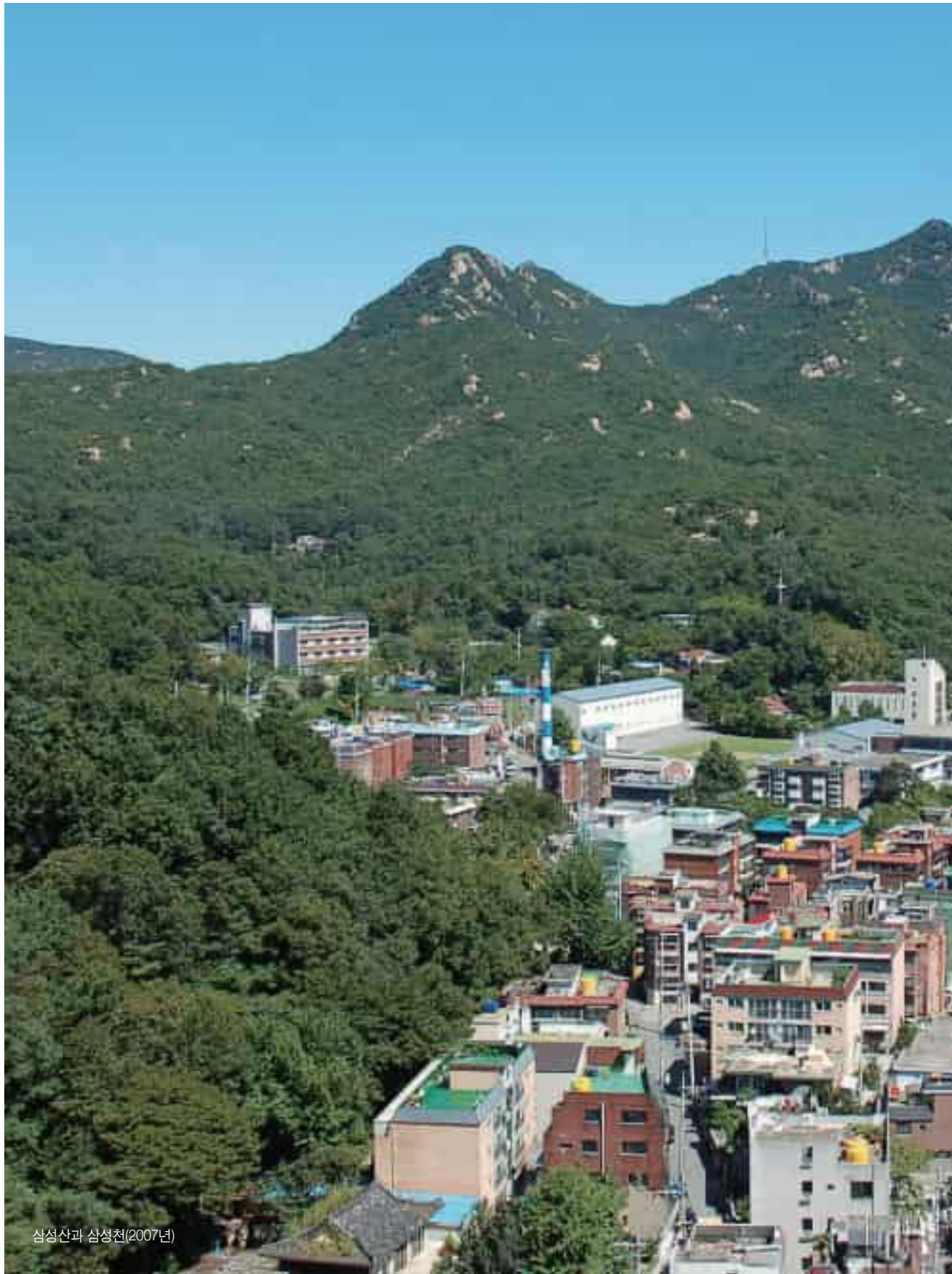
1. 삼성산과 삼성천 일대의 공간성과 시간성

삼성천은 관악산과 삼성산에서 발원하여 안양천에 합류하는 하천으로, 서울대학교 안양수목원 정문에서 안양박물관까지 직선거리로 1.6km 정도 되는 삼성천 구간은 안양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장소이다. 이곳은 예로부터 산세가 수려하여 휴양지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갖추었고, 경부선이나 경수산업도로처럼 남북 방향의 교통로와 연결되는 장점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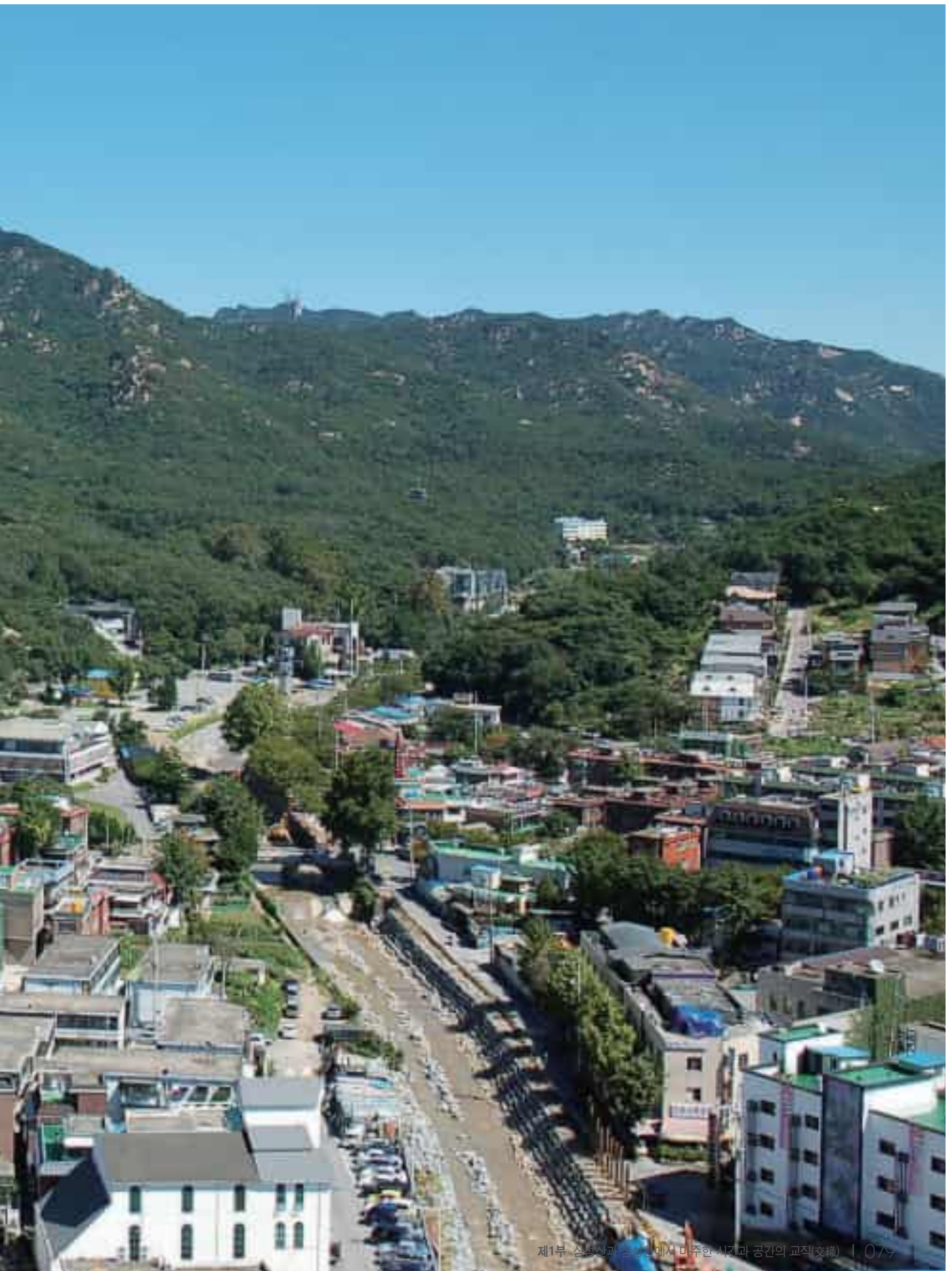
현재 삼성천 일대는 여름철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과 사시사철 관악산과 삼성산을 찾는 등산객들로 붐비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상업시설이 발달하였다. 이와 동시에, 재건축 아파트단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주택이 공존하고 있으며, 옛 안양유원지를 안양예술공원으로 바꾸면서 다양한 예술작품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삼성산을 올라가는 삼성천 초입에는 고대에서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불교 문화유산이 밀집해 있다. 이곳은 고려시대 큰 사찰이었던 안양사의 사역(寺域)으로 추정되는데, 안양사지(경기도 기념물), 석수동 마애종, 안양사 귀부(경기도 유형문화유산), 안양사 부도(안양시 향토문화유산) 등이 남아 있다. 삼성천 상류의 비산동 도요지(경기도 기념물), 안양사지 맞은편의 망해암 석조여래입상(경기도 유형문화유산) 등도 안양사와 연관된 문화유산으로 생각된다. 안양사지(석수동 214번지)에는 1959년 유류산업 안양공장이 들어섰는데, 현재 공장 건물은 안양박물관과 김중업건축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삼성천은 안양사지를 거쳐, 경부선과 경수산업도로 아래를 흘러, 삼막천과 만나 안양천에 합류한다. 삼성천, 삼막천, 안양천이 만나는 지역은 현재 주거단지와 상업시설이



삼성산과 삼성천(2007년)



밀집한 공간으로 변하였는데, 남북 방향 교통로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 교통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은 과거에도 변함없었는데, 정조의 화성 행차를 위해 만든 만안교(경기도 유형문화유산)가 이곳에 여전히 남아 있다.

이처럼 삼성천 구간은 걸어서 왕래가 가능할 정도로 단일한 지역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목원, 유원지, 예술작품, 주거와 상업시설, 불교 문화유산 등이 혼재하여 있어, 다채로운 특성을 보여 준다. 특히, 삼성천 구간 중 석수동 214번지 일대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안양 지역 문화가 복잡하게 중첩된 공간이다. 이곳에는 늦어도 9세기 무렵부터 중초사라는 신라 사찰이 있었다. 중초사의 시간성은 827년 완성된 중초사지 당간지주(보물)의 명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기록한 국내 유일의 당간지주이다.

중초사는 고려시대 안양사로 크게 개창되었다. 안양 지명의 유래인 안양사는 고려 태조에 의해 창건되어, 고려시대에 대형 사찰로 성장하였다. 조선 후기에 폐사되었지만, 2000년대 이후 발굴조사에서 ‘안양사’ 명문기와가 발견되었으며, 고려시대 가람배치 아래에서 통일신라 사찰의 흔적도 확인되었다. 안양사지 주변에는 신라~고려시대 건물지와 불교 문화유산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중초사지 당간지주와 안양사지, 주변의 불교 문화유산은 고대, 고려, 조선시대로 이어진 ‘사찰의 시간’을 상징한다.

근대 이후 이 공간에는 ‘오락의 시간’이 본격화되었다. 일제시기에는 계곡물을 막아 ‘안양풀’을 조성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안양유원지’로 개발되어, 피서지로서 명성을 이어 갔다. 이와 더불어 1959년 안양사 터에는 한국 현대 건축의 1세대인 김중업이 설계한 (주)유유산업 안양공장이 들어섰다. 이를 통해 삼성천 일대에 새롭게 ‘건축의 시간’이 펼쳐졌다. 이와 동시에, 이곳에는 ‘주거의 시간’도 축적되었는데, 서울 접근성이 탁월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1970~1990년대 이후 ‘오락의 시간’은 점차 쇠퇴하였고, 2000년대에는 유유산업 공장이 이전하면서, ‘건축의 시간’도 위기를 맞았다. 안양시에서는 안양유원지를 리모델링하여 ‘안양예술공원’으로 바꾸고, 새롭게 ‘예술의 시간’을 시작하였다. 쇠락한 유원지에는 예술작품이 들어섰고, 발굴조사를 통해 안양사지의 역사가 새롭게 밝혀졌으며, 김중업 설계의 건물은 안양박물관과 김중업건축박물관으로 탈바꿈하였다. 이와 동시에 노후화된 ‘주거의 시간’도 다양한 형태로 재건축되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상의 서술을 요약하자면, 삼성산과 삼성천 일대는 고대부터 조선까지 사찰의 시간, 근현대 이후 오락의 시간, 건축의 시간, 주거의 시간, 예술의 시간이 중첩되어 남아 있

다. 다음에서는 각각의 시간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단일한 공간에 중첩된 시간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정리하도록 하겠다.

2. 사찰의 시간

1) 고대 중초사지 당간지주의 시간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안양사지 서남쪽 초입에 위치하며, 높이 약 3.5m의 동·서 지주와 지대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¹ 서쪽 지주 바깥면에는 6행 123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당간지주 명문²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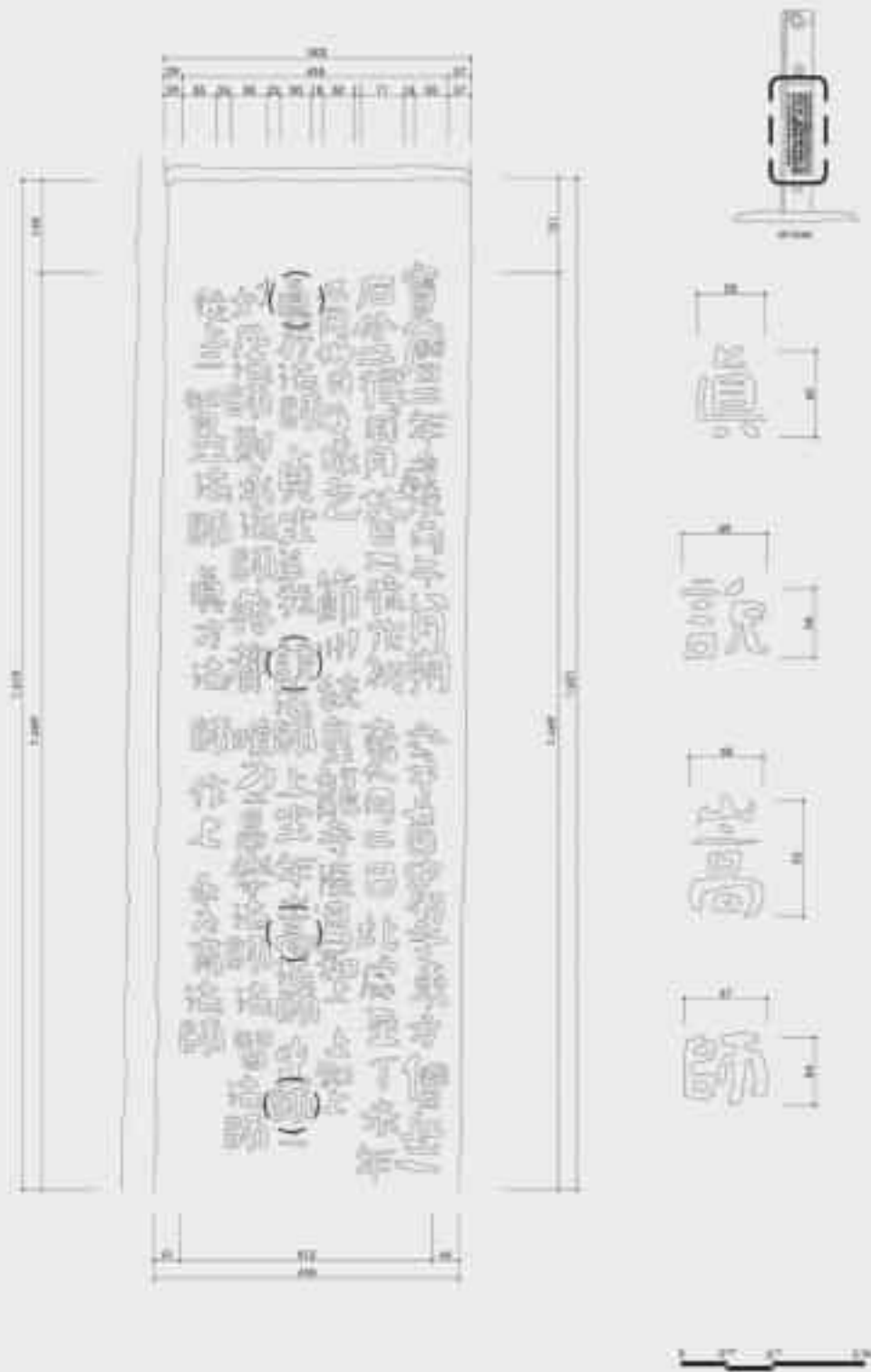
寶曆二年歲次丙午八月朔六辛丑日 中初寺東方僧
 岳一石分二柱³ 同月廿八日二徒作⁴初 奄⁵九月一日
 此處至 丁未年二月卅日了成之 節州統皇龍寺恒昌
 和上 上和上眞行法師 貞坐義說法師 上坐年嵩法師
 史師二妙凡法師則永法師 典都唯乃二昌樂法師法
 智法師 徒上二智生法師眞方法師 作上秀南法師

보력 2년 병오(826) 8월 6일 신축일에 중초사 동쪽 승약에서 돌 하나가 두 기둥으로 나뉘었다. 같은 달 28일에 두 무리가 일을 시작하여, 9월 1일에 이곳에 이르렀고, 정미년(827) 2월 30일 완성하였다. 절주통 황룡사 향창화상, 상화상 진행법사, 정좌 의설법사, 상좌 연승법사, 사사 2명 묘범법사, 칙영법사, 전도유나 2명 창약법사, 법지법사, 도상 2명 지생법사, 진방법사, 작상 수남법사이다.



중초사지 당간지주(국가기록원 제공)

중초사지 당간지주 명문에는 826년, 827년, 중초사, 황룡사 향창화상 등의 기록이 남아 있어, 언제, 누가, 어떻게 당간지주를 만들었는지 생생히 알려 주고 있다. 이에 따



중초사지 당간지주 명문상세도(안양시, 『안양사지 : 문화재(경기도 기념물) 지정신청을 위한 학술연구 보고서』, 2022, 104쪽)



당간지주 전경(안양시청 제공)

르면 신라 중초사가 먼저 있었고, 827년 당간지주를 만들었으며, 나중에 고려시대 안양사로 개칭되었던 흐름이 확인된다.⁶ 그런데 최근에 ‘중초(中初)’를 풀어서 해석하여, ‘신축일에 처음, 절 동쪽 승악에서’라고 보는 연구가 제출되었다.⁷ 중초의 불교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견해는 의미 있는 지적이다. 다만, 중초를 풀어서 본다면 오히려 두 글자를 생략하는 편이 자연스럽고, 신라 하대 금석문에서 사찰명을 명기한 사례도 있으므로, 사찰 이름일 가능성과 풀어서 볼 가능성은 모두 남아 있다. 앞으로 『중초사지 당간지주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연차별 발굴조사가 계획되어 있으므로,⁸ 향후 이 문제를 밝혀 줄 자료가 발견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고려시대 안양사에 앞서 있었던 신라 사찰의 이름을 잠정적으로 ‘중초사’로 추정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신라의 변방인 안양 지역에, 경주 황룡사의 승려가 당간지주를 만들 정도로 중요한 사찰이 왜 세워졌을까? 중초사의 창건 배경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김헌창과 김범문의 반란 이후, 변방 민심을 수습하여 집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 승려를 파견하여 교종 계열 사찰을 창건하였다고 보았다.⁹ 여기에 더하여, 안양 지역의 지정학적 이점도 주목된다. 삼성천 유역은 안양천을 따라 이어지는 남북 방향 교통로에 연결되며, 실제로 주변에 서울 금천 호암산성,¹⁰ 독산동 도로유적¹¹ 등의 신라 유적이 확인되었다. 중초사의 창건은 신라 북방의 중요한 교통 요충지였다는 점과도 관련될 것이다.



안양사지 일대 유물·유적(안양시, 『안양사지 : 문화재(경기도 기념물) 지정신청을 위한 학술연구 보고서』, 2022, 92쪽)

2) 고려~조선시대 안양사의 시간

안양유원지 공간은 고려시대 안양사로 활용되면서, 본격적인 사찰의 시간을 맞이하였다. 안양사는 고려~조선시대 기록에 큰 규모의 사찰로 등장하였다. 안양사가 문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고려 태조가 능정을 만나 안양사를 만들었던 시점으로,¹² 이 무렵 중초사가 안양사로 개창된 것으로 보인다.¹³ 대각국사 의천도 안양사에서 능정 진영을 참배하였으므로, 안양사의 위상과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¹⁴ 그 이후 안양사는 고려시대 주요 사찰로 언급되는데, 특히 고려 말 최영 등에 의한 대대적인 중수 기록은¹⁵ 안양사에 관한 관심이 끊이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조선 전기 기록에는 한양 외곽의 유희처, 탕목처로 언급되고 있어서,¹⁶ 안양사가 여전히 남북 방향의 교통로에서 사세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천과 안양천의 합류 지점 인근에 조선시대 만안교가 위치한 것도, 안양사 일대가 남북 방향 교통로에서 갖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게 해 준다. 하지만 만안교를 세운 조선 후기에는 이미 안양사가 쇠락하여 터만 남았던 것으로 보인다.¹⁷ 최근 안양박물관에서 공개한 19세기 『삼성기유첩



삼성산 일대 사찰·사지 현황(안양시, 『안양사지 : 문화재(경기도 기념물) 지정신청을 위한 학술연구 보고서』, 2022, 18쪽)

(三聖記遊帖)』에 따르면, 안양사의 모습은 찾기 어렵고, 당간지주 1기와 삼층석탑 2기만 남아 있다.¹⁸

해방 이후 기록에 남아 있는 고려~조선 시대 안양사의 위치는 현대에 새로 지은 안양사와 혼동되기도 하였으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루어진 유유산업 안양공장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안양사’ 명문기와를 비롯하여 전탑-금당-강당으로 이어지는 가람배치가 확인되어, 안양사지의 명확한 실체가 규명되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안양사지는 2023년 경기도 기념물로 신규 지정되었다. 또한 강당지 등의 하부에서 일부 통일신라 층위가 확인되어, 신라 사찰에서 고려 안양사로 변화한 모습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졌다.



안양사 명문기와

이러한 안양사의 사역은 상당히 넓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변의 여러 유적에서도 통일신라~고려시대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또한 안양사 주변에는 여러 불교 문화유산이



안양사 위치 추정도(안양사, 『안양사지 : 문화재(경기도 기념물) 지정신청을 위한 학술연구 보고서』, 2022, 54쪽)

남아 있다. 먼저, 안양사지 동쪽의 석수동 마애종은 자연 암반에 범종과 종 치는 모습을 새긴 고려시대 마애종으로, 안양사의 사역이 현재 안양예술공원 공영주차장 일대까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안양 석수동 마애종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주변 정비와 발굴조사 계획을 마련하였으므로,¹⁹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된다. 또한 마애종 동쪽의 현대 안양사에는 귀부와 부도가 남아 있는데, 고려시대 안양사 관련 고승의 탐비와 탐비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⁰ 안양사지 남쪽으로 마주보는 산에는 고려시대 망해암 석조여래입상이 있는데,²¹ 안양사와의 연관성 속에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안양사에 관한 문헌 기록과 고고 자료를 종합하면, 안양사는 석수동 마애종, 현대 안양사 일대부터 멀리 망해암까지 포괄하는 사역을 갖추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고



안양사 가람배치 추정도(한울문화재연구원, 『구 유유부지 발굴조사 : 안양사지』, 안양시, 2013, 300쪽)

려~조선시대에 이곳은 안양사라는 큰 규모의 사찰이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사찰의 시간’을 지내고 있었다.

3. 오락과 건축의 시간

1) 안양유원지의 탄생, 오락의 시간

사찰의 시간은 조선 후기 안양사의 폐사와 함께 쇠락해 갔다. 물론, 일제의 산림조사, 고적조사 과정에서 석수동 마애종, 중초사지 당간지주 등 ‘사찰의 시간’이 근대적으로 조사되었지만,²² 화려했던 안양사는 터만 남기고 사라지고 말았다. 인간이 만든 건축물은 빠르게 변화하였지만, 자연이 만든 삼성천의 수려한 경치는 큰 변화가 없었다.

安養プール 준공비(2024년 5월 2일, 필자 촬영)



1932년 5월 22일, 서이면장과 지역 유지들이 석수동에 수영장을 설치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²³ 이 수영장은 경부선 안양역 북쪽, 석수동 삼성천 계곡을 인위적으로 막아 만든 것으로, 1932년 안양풀(安養プール) 준공비는 지금도 남아 있다. 1934년 7월 1일 기사에는 안양풀이 '근대식 자연 수영장'으로 도시민의 유희처로 환영받았다는 언급이 남아 있다.²⁴ 이후 안양풀은 여름철 개장 여부가 신문에 전해질 만큼, 피서지로 인기를 끌었다.²⁵ 1935년에는 8월 11일까지 약 2만 8,000여 명이 방문하였고,²⁶ 1940년에는 경성부에서 수영장 시설을 확충하기도 하였다.²⁷ 이러한 안양풀은 식민통치와 근대화를 홍보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의도와 무관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남아 있는 준공비 주변에 아픈 역사를 전하는 안내판이 추가될 필요도 있다.

여름철 피서지로 안양풀이 주목받았던 중요한 배경은 근대의 철도교통이었다. 한국의 철도교통은 '근대화'라는 사회진화론적 포장에 들어 있는 일본 제국의 식민 침략 현상이었지만,²⁸ 이와 동시에 당시 사람들의 시공간 개념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변화였다. 인근의 도시민은 철도 등의 근대 교통을 이용하여 손쉽게 안양풀을 찾아 피서를 즐





1957년 안양여중 신입생 환영 소풍



1960년대 안양풀장(안양보육원 제공)



1970년 안양유원지 풀장과 안양관광호텔(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1977년 홍수로 파괴된 안양유원지(안양시청 제공)

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수요에 따라, 1932년부터 지금의 예술공원지하차도 인근 경부선 철길에 임시 정거장이 운영되었고, 안양풀을 오가는 열차편이 지속 운행되었다.²⁹ 다만, 자료의 부족으로 당시 철도를 타고 안양풀을 방문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계층성이나 피서 방식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생각된다.

해방 이후에도 안양풀의 인기는 계속되었는데, 임시 정거장이나 피서열차도 계속 운영되었다.³⁰ 1969년 1월에는 안양풀 일대를 ‘안양유원지’라는 이름의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였다.³¹ 1970년대 안양유원지는 전성기를 맞이하였는데, 1974년에 풀장 6개소, 주차장 1개소, 숙박시설 24개소 등을 갖추고, 7~8월에만 약 14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³² 자료의 특성과 통계 방식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안양유원지가 ‘오락의 시간’으로 전성기를 맞이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안양유원지는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여가 공간인 동시에, 안양 시민들이 생활하는 터전이기도 하였다. 안양유원지는 학생들의 소풍 공간으로 인기를 끌었고, 상인들의 영업터전이 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주민들이 포도를 가져가 팔기도 하였다.³³

하지만 1970년대 이후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대홍수 피해는 안양유원지의 쇠퇴를 초래하였다. 1971년 안양유원지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고,³⁴ 시설 보수와 신



유유산업 신문광고(『경향신문』 1960년 12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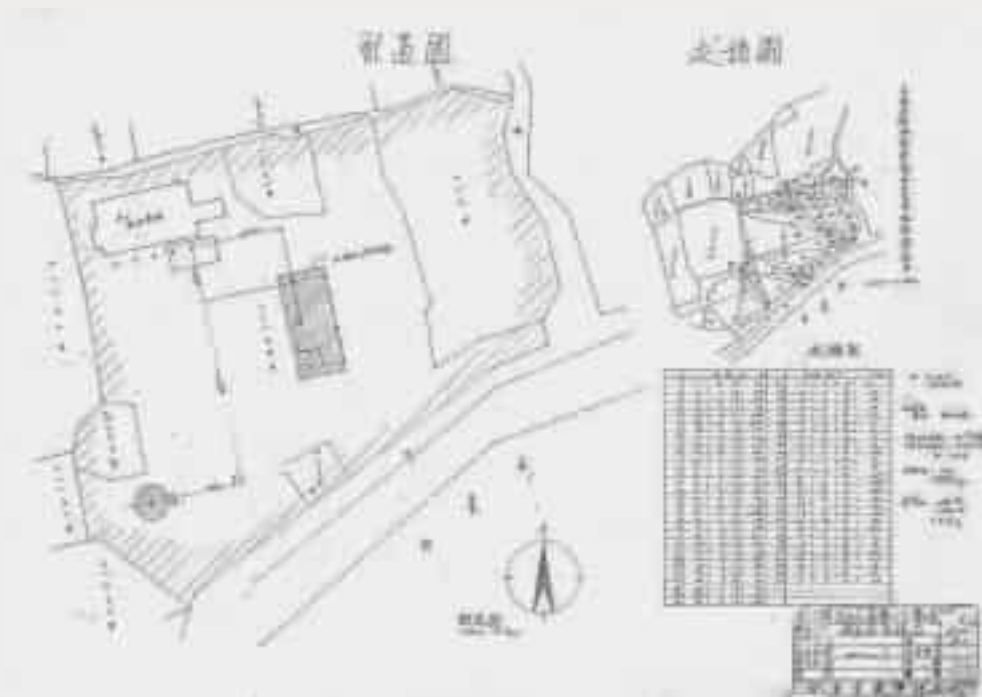
축에 여러 제한을 받게 되자, 노후 시설물로 점차 인기가 줄어들었다.³⁵ 또한 1977년 대 홍수로 대대적인 피해를 보았다.³⁶ 이에 경기도와 안양시에서는 수해 복구 및 신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³⁷ 1978년에는 숙박시설 12개소, 풀장 4개소와 식당 25개소 등이 다시 운영되어 관광객의 숫자도 회복세를 보였다.³⁸ 하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이루어진 무분별한 작업,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따른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결국 안양유원지는 1984년에 국민관광지에서 해제되고,³⁹ 안양시 조례로 관리하는 비지정관광지가 되었다. 1990년대에는 제도적 규제와 자본 유치의 문제로 안양유원지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여 방치되었다.⁴⁰

안양유원지의 쇠퇴를 가속한 배경에는 현대 교통의 변화도 있었다. 1960~1970년대 기차 속도의 증가, 1980년대 이후 이른바 ‘마이카’ 시대의 시작 등은 피서객을 더욱 멀리 있는 해수욕장으로 이끌었다. 안양유원지는 도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잠깐의 여가를 즐기거나, 음식을 먹는 목적에서 방문하는 공간으로 점차 변화하였다.

2) 유유산업과 김중업의 만남, 건축의 시간

안양유원지의 발전 배경이었던 경부선 등 남북 방향 교통로의 발달은 ‘오락의 시간’ 외에 다른 시간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해방 전후로 경부선을 따라 안양 일대에도 다양한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과거 안양사가 있었던 넓은 대지는 1959년 (주)유유산업의 안양공장으로 탈바꿈하였다.

1950년대 유유산업은 ‘비타엠’ 등의 성공으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공장 증설이 필



유유산업 인양공장 배치도(김중업건축박물관 제공)



유유산업 인양공장 연구동 입면도(김중업건축박물관 제공)



유유산업 안양공장



유유산업 안양공장



유유산업 안양공장



유유산업 안양공장



유유산업 안양공장 입면도(김중업건축박물관 제공)



유유산업 안양공장 작업장 증축 입면도(김중업건축박물관 제공)



1960년대 유유산업(닐 미살로프 촬영)



2024년 유유산업 건물을 활용해 건립된 김중업건축박물관과 안양박물관

요하였다. 당시 독특한 회장은 안양유원지 입구의 땅을 매입하여, 건축가 김중업에게 공장의 설계를 의뢰하였고, 완성된 건물에는 다양한 예술작품을 설치하였다. 유유산업 안양공장은 건축과 예술 분야에 관한 관심 속에서 만들어진 건물이었다.⁴¹

그래서인지 1960년 유유산업 신문광고를 보면 안양공장 건물이 전체 광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유유산업 안양공장은 당시부터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한 건물로 관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김중업의 초기작인 동시에 현재까지 잘 보존되고 활용되고 있는 보기 드문 근현대 산업유산으로 가치가 크다.

다만, 안양공장 건물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안양사지의 일부 터가 훼손되었고, 안양박물관 동북쪽 모서리에 있었던 증초사지 삼층석탑은 1960년에 증초사지 당간지주 북쪽으로 이전되었다.⁴² 이러한 변화는 ‘건축의 시간’에 밀린 ‘사찰의 시간’을 상징한다.

그런데 최근 안양박물관에서 구입한 19세기 『삼성기유첩』에 따르면, 당간지주 1기와 더불어 삼층석탑 2기가 그려져 있다. 안양사지에는 본래 전탑을 중심에 두고 양쪽에 2기의 석탑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연차별 발굴조사를 통해, 석탑의 원위치와 사찰의 구체적인 가람배치가 선명하게 확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축의 시간’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유유산업의 성장에 따라,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유유산업은 유유제약으로 사명을 바꾸고, 2006년에 새로 지은 제천공장으로 안양공장을 이전하였다. 이에 안양시에서는 안양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쇠락한 안양유원지 일대를 예술공원으로 탈바꿈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장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찰의 시간’이 드러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발굴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안양시에서는 안양공장의 여러 건물 가운데 김중업 설계작을 일부 남겨서, 2014년 김중업건축박물관, 2017년 안양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건축의 시간’은 ‘사찰의 시간’과 공명하게 되었다.

4. 예술과 주거의 시간

1) 쇠락한 유원지의 변신, 예술의 시간

안양유원지는 1970~1980년대 점차 쇠락하여 1990년대 이후 거의 방치된 상황이었





〈은하수〉(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전망대〉(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안양 사원〉(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뿌리〉(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안양예술공원 예술작품 <전망대>, <리볼버>, <나무 위의 선으로 된 집>(2019년 필자 촬영)

다. 이에 안양시에서는 쇠락한 유원지를 문화예술공간으로 리모델링하였다. 특히 2005년 시작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는 새롭게 ‘예술의 시간’을 시작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안양시 전역에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예술작품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로, 2023년 제7회까지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 과정에서 안양 유원지 일대에 다양한 예술작품이 설치되었다.

안양시는 2006년 안양유원지라는 명칭을 안양예술공원으로 변경하였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 2009년 수도권 전철 1호선 관악역에 ‘안양예술공원’이라는 부역명이 부기된 사건은 안양유원지로 대표되는 ‘오락의 시간’이 안양예술공원으로 대표되는 ‘예술의 시간’으로 전환되었음을 극적으로 보여 주었다.

2019년 안양시에서는 『안양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르면 안양예술공원은 주로 50~60대 이상이 여가, 위락, 휴가, 등산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상 이미지로는 휴식 공간, 관광지에 이어 문화예술 전시공간이 18%를 차지하였다.⁴³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안양풀과 안양유원지가 지녔던 ‘오락의 시간’이 ‘예술의 시간’과 서서히 접목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안양예술공원 부근 삼성천지구 철거 직전 주택(2018년 11월 26일, 필자 촬영)



아파트단지 건설 현장(2022년 1월 12일, 필자 촬영)

2) 교통 편하고 경치 좋은 공간, 주거의 시간

안양유원지는 경치가 좋고, 서울과 연결되는 남북 방향 교통로의 요충지에서 발전하였다. 이러한 발전 조건은 살기 좋은 주거의 조건과 동일하였다. 안양의 도시화는 대체로 1905년 경부선 개통 이후, 안양역 주변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50년대 안양유원지 초입에 공장이 들어서고, 아래쪽에 미군 부대가 자리 잡으면서, 주변으로 약간의 민가가 들어섰다. 안양유원지 일대는 서울, 수원 방향으로 쉽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주거의 공간으로도 유리하였다.

1966년부터 1970년대의 항공사진을 보면, 지금의 예술공원로를 따라 안양유원지 일대에 민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실제로 1976년 안양유원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유원지 일대의 주민은 총 260가구, 850명 정도였는데,⁴⁴ 1978년의 인구는 1,4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⁴⁵ 이러한 변화는 구술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안양유원지의 오래된 식당 가운데 하나인 봉암식당 2대 사장의 2023년 구술에 따르면, 1968년 무렵 부모님이 안양유원지에 거주하면서 식당을 시작하였고,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영업이 점차 활성화되었다고 한다.⁴⁶

1974년 수도권 전철 1호선이 개통하면서, 안양유원지에서 직선거리로 1km 정도 떨어진 관악역도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 무렵 경수대로(경수산업도로)도 새로 개통되어 안양유원지 앞을 지나갔다. 역사적으로 안양유원지 일대는 남북 방향의 교통로에서 중요한 요충지였으며, 그 속에서 사찰, 오락, 건축의 시간을 맞이하였다. 현대의 도시화와 교통의 변화 속에서, 교통 요충지였던 안양유원지 일대는 자연스럽게 ‘주거의 시간’으로 변모하였다.

이에 따라 1970~1980년대 안양유원지 초입부터 상류까지 점차 주택이 늘어갔다. 이러한 흐름은 2000~2010년대 본격화된 안양유원지(안양예술공원) 일대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통해 역설적으로 확인된다. 20~30년 이상 ‘주거의 시간’을 견뎌 온 건물의 노후화로, 새로운 개발의 수요가 분출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안양사지 맞은편, 안양유원지 초입에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서, 주변 경관을 대폭 바꾸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재건축 과정에서 안양유원지의 오래된 건축물 다수가 별다른 기록을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거나,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다.

5. 단일한 공간과 중첩된 시간의 의미

안양예술공원(구 안양유원지) 일대는 걸어서 왕래가 가능할 정도로 단일한 공간이다. 이러한 단일 공간에 고대부터 고려, 조선을 거쳐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간성이 중첩되어 있다.

고대에는 신라 중초사가 '사찰의 시간'을 시작하였다. 특히 사찰 입구에 세워진 중초사지 당간지주의 명문은 9세기라는 명확한 시간성을 보여 준다. 고려시대에는 새롭게 안양사로 개칭하면서, 전탑, 석탑, 금당, 강당 등을 대대적으로 조영하였다. 당시 안양사가 지녔던 '사찰의 시간'은 주변 지역에 폭넓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안양시 지명의 유래가 고려시대 안양사에서 비롯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사찰의 시간'은 조선시대 들어와 쇠락하였고, 조선 후기에는 완전히 폐사되었다.

'사찰의 시간'이 기억 저편으로 지나간 뒤, 일제시기에는 새롭게 안양풀의 이름으로 '오락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안양풀은 경부선 철도 등 근대 교통의 변화와 맞물려,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지로 인기를 얻게 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이곳의 인기는 유지되어, 1960년대 안양유원지는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고, 숙박시설과 수영장, 식당 등이 성황을 이루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대홍수의 피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 그리고 1990년대까지 이어진 교통의 발전과 여가문화의 변화는 안양유원지가 지녔던 '오락의 시간'을 쇠퇴하게 하였다.

안양유원지의 단일한 공간에는 '오락의 시간'과 더불어 '건축의 시간'도 이어졌다. 1959년, 안양유원지 초입에 (주)유유산업 안양공장이 들어섰다. 이 공장은 한국 건축의 1세대로 불리는 김중업 건축가의 설계로 만들어져서, 건축사적 의미가 있다. 그런데 2000년대 접어들어 공장이 떠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건축의 시간'도 소멸의 위기를 맞았다.

2000년대 안양시에서는 안양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안양유원지 일대를 안양예술공원으로 탈바꿈하는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였다. 이를 통해 안양유원지의 공간에는 새롭게 '예술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지금의 안양예술공원은 시원한 계곡에서 피서를 즐기는 오락의 공간인 동시에, 예술작품을 통해 여가를 즐기는 예술의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남북 방향의 경부선, 경수산업도로가 통과하는 안양유원지의 장점은 '주거의 시간'이라는 또 하나의 시간성으로 이어졌다. 해방 이후부터 점차 안양유원지 일대에 민가가 들어섰고, 1970~1980년대부터 다양한 형태의 주거 건물이 늘어났다. 2000년대 이후에



안양박물관과 김중업건축박물관 일대(2024년)



는 이러한 ‘주거의 시간’이 노후화하면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었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안양유원지의 단일한 공간에는 고대부터 고려, 조선시대까지 ‘사찰의 시간’이 축적되었고, 근현대에는 ‘오락의 시간’, ‘건축의 시간’, ‘예술의 시간’, ‘주거의 시간’이 복합적으로 중첩되었다.

그런데 좁은 공간에 다양한 시간의 층위가 중첩되면서,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가령, ‘사찰의 시간’은 현재 대한민국 법률로 보존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지만, ‘주거의 시간’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개발의 걸림돌로 인식되기 쉽다. ‘예술의 시간’은 쇠락한 ‘오락의 시간’을 대신하여 축적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여름철 계곡에서의 피서를 위해 이 공간을 찾고 있다. 아울러 ‘사찰의 시간’, ‘건축의 시간’ 위에 들어온 ‘예술의 시간’이 과연 중첩된 시간성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안양시에서는 증초사지 당간지주, 석수동 마애종 등 ‘사찰의 시간’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다른 시간과 공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발굴조사를 통해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고, 새롭게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통해 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안양사지, 망해암 석조여래입상 등을 새롭게 경기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면서, ‘사찰의 시간’이 갖는 중요성을 잊지 않고 있다.

이와 동시에 안양예술공원이 갖는 ‘예술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안양시에서는 ‘건축의 시간’을 보존하기 위해, 김중업 설계작인 (주)유유산업 안양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중요한 건물을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여 건축사적 의미를 보존하는 동시에,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이 지역의 ‘주거의 시간’과도 공명하는데, 노후화된 건물들이 다양한 형태로 재건축·재개발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안양유원지의 단일한 공간은 안양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담고 있는 곳이다. 현재 안양 지명의 유래가 되는 역사적인 공간인 동시에, 깨끗한 자연과 아름다운 문화예술, 그리고 시민들의 주거생활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단일한 공간에 많은 시간의 층위가 중첩되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였지만, 이곳의 중첩된 시간성을 잘 보존하고 활용한다면 미래를 위해 소중한 공간으로 가꾸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1. 이 글의 내용은 다음의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임동민, 『석수동 214번지의 역사, 단일한 공간과 중첩된 시간』, 『사학연구』 149, 한국사학회, 2023; 『안양유원지 공간에 얽힌 시간의 역사(824-2023)』, 『2023 안양박물관 연구사업 학술연구용역』, 안양박물관, 2023; 『근현대 교통의 변화와 안양유원지 공간에 쌓인 시간의 역사적 의미, 오락, 건축, 예술, 주거의 시간을 중심으로-』, 『2024 안양박물관 전시도록』, 안양박물관, 2024).
2. 명문 판독에 활용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정병삼, 『中初寺 幢竿石柱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1992; 김복순 등 편저, 『韓國古代金石文集(14)』, 2012; 최연식, 『삼성산 안양사지 <중초사지 당간지주명문>과 <안양사탑비>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진단학보』 136, 진단학회, 2021).
3. 得(정병삼), 柱(최연식).
4. 作(정병삼), 往(김복순).
5. 庵(정병삼), 去(최연식).
6. 엄기표, 『안양 中初寺址와 安養寺址의 유적 유물에 대한 고찰』, 『동악미술사학』 26, 동악미술사학회, 2019.
7. 최연식, 『삼성산 안양사지 <중초사지당간지주명문>과 <안양사탑비>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진단학보』 136, 진단학회, 2021.
8. 안양시-한강문화재단연구원,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종합정비계획』, 2020.
9. 엄기표, 『안양 中初寺址와 安養寺址의 유적 유물에 대한 고찰』, 『동악미술사학』 26, 동악미술사학회, 2019.
10. 호암산성 관련 조사 연혁은 다음의 최근 보고서에 자세하다(한강문화재단연구원, 『서울 호암산성 제2유물지 및 주변 건물지 내 유적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2).
11. 거례문화유산연구원, 『서울 독산동 유적』, 2015.
12. 『陶隱集』 권4, 『衿州安養寺塔重新記』.
13. 엄기표, 『안양 中初寺址와 安養寺址의 유적 유물에 대한 고찰』, 『동악미술사학』 26, 동악미술사학회, 2019.
14. 최연식, 『삼성산 안양사지 <중초사지당간지주명문>과 <안양사탑비>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진단학보』 136, 진단학회, 2021.
15. 『陶隱集』 권4, 『衿州安養寺塔重新記』.
16. 『慵齋叢話』 권1; 『太宗實錄』, 권22.
17. 『東國輿地志』 권2, 경기좌도 금천; 『箕宇攷』 금천.
18. 『三聖記遊帖』 南紫霞.
19. 안양시-한겨레건축사사무소, 『석수동 마애종 종합정비계획』, 2022.
20. 엄기표, 『안양 中初寺址와 安養寺址의 유적 유물에 대한 고찰』, 『동악미술사학』 26, 동악미술사학회, 2019; 최연식, 『삼성산 안양사지 <중초사지당간지주명문>과 <안양사탑비>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진단학보』 136, 진단학회, 2021.
21. 황이연, 『安養 望海庵 石造如來立像 研究 - 銘文과 樣式의 編年不一致를 中心으로』, 『문화사학』 56, 한국문화사학회, 2021.
22.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엄기표, 『안양 中初寺址와 安養寺址의 유적 유물에 대한 고찰』, 『동악미술사학』 26, 동악미술사학회, 2019; 임동민, 『석수동 214번지의 역사, 단일한 공간과 중첩된 시간』, 『사학연구』 149, 한국사학회, 2023).
23. 『安養驛 石手洞 水泳場을 設置』, 『동아일보』 1932년 5월 22일
24. 『安養풀 公開 七월-일부터』, 『동아일보』 1934년 7월 1일.
25. 『安養풀 開場』, 『동아일보』 1935년 8월 16일; 『安養풀 明-日부터 開場』, 『동아일보』 1940년 7월 1일.
26. 『安養풀 開場』, 『동아일보』 1935년 8월 16일
27. 『安養풀 明-日부터 開場』, 『동아일보』 1940년 7월 1일.
28. 박우현, 『식민통치의 혈관을 놓다- 교통으로 본 일제 강점기』, 동북아역사재단, 2021.
29. 安養에 水泳場 假停車場設置, 『동아일보』, 1932.8월 12일; 『仁川川과 安養에 日曜臨時列車』, 『동아일보』, 1935년 8월 10일.
30. 『安養 풀 入口에 臨時로 停車場』, 『조선일보』, 1954.7월 14일; 『전국 7개線에 30개 避暑列車』, 『동아일보』, 1968년 7월 11일.
31. 교통부 공고 제2336호(1969년 1월 22일), 『관보』 제5155호, 1969년 1월 24일.
32. 안양시 북지 1530-328호(1974년 6월 1일), 『유원지 유료화 승인신청』(안양시 내부문서).
33.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제5차 안양 근현대사 구술자료 녹취록』, 『이야기로 듣는 안양근대사 I』, 2006, 211쪽.
34. 건설부 고시 제447호(1971년 7월 30일), 『관보』 제5913호, 1971년 8월 2일.
35. 『안양 유원지 60년대 가족나들이객-미팅족 북적』, 『동아일보』 1997년 11월 18일.
36. 水害(수해)로 사라진 安養(안양) 유원지, 『조선일보』 1977년 7월 15일.
37. 경기도 운수1530-2798호(1977년 7월 21일), 『안양유원지 개발조정계획 수립지시』(경기도 발신문서); 안양시 문공1530-53호(1978년 2월 25일), 『안양유원지 개발 계획 승인 신청』(안양시 발신문서).
38. 안양시 문화예술과(1978년 2월 5일), 『안양유원지 현황』.
39. 교통부 공고 제19호(1984년 11월 30일), 『관보』 제9906호, 1984년 11월 30일.
40. 안양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양시 산업발전계획』, 1996.
41. 유승필, 『아이러브유유』, 학교재, 2019, 199-205쪽.
42. 문화 제3622호(단기 4293년 9월 9일), 『국보 제7호 중초사지 3층석탑 이건허가 신청에 관한 건』.
43. 안양시 플랜이슈,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2019.
44. 문공1700호, 『1976년 안양유원지 현황』, 『안양유원지 특별육성계획(안)』; 『1976 안양유원지 현황(알찬복지 새안양건설)』(안양시 내부자료).
45. 안양시 문화예술과(1978년 2월 5일), 『안양유원지 현황』.
46. 아이라이크픽처스, 『2023 안양박물관 학술연구사업 - 구술채록 및 영상촬영 완료보고서』, 안양문화예술재단-안양박물관, 2023.



제1장

경성 근교 관광지로 부상한 관악산과 안양풀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1. 근대 도시민의 출현과 여가

일제강점기 경성에는 새로운 양식의 건물, 새로운 교통수단, 새로운 복장을 한 사람들이 등장하였고 도시의 풍경도 변화하였다. 또한 생산시설과 기반시설, 상업시설들이 확충되면서 경성은 각종 공장, 은행, 신문사, 기업, 대형 관공서가 밀집한 곳이 되었다. 당연히 이곳에서 일하는 관리, 상인, 노동자의 수도 급증하였으며 교통운수, 토목 건설, 기타 분야의 노동자,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 도시를 찾아온 실업자의 수도 크게 늘었다. 1920년 경성의 인구는 25만 명 정도였는데, 1940년에는 인구가 약 95만 명에 달하여 20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¹

1920년 이후 경성 및 주변 지역에 관공서와 사업체들이 대거 들어섰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도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에는 일요일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일요일에 쉬는 주휴제도는 관리와 학생층을 위주로 시행되었다가 1920년대 이후 경성과 부산 등 대도시에 설립된 회사들에서 주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회사원들에게로 범위가 확대되어 갔다. 식민지시기 극작가 이서구(李瑞求)는 중년 시절에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경험하면서 일요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세상에 난 지 40년 만에 인생에게 일요일이 얼마나 즐거운 날인 줄을 요사이야 분명히 알았다. (중략) 이렇게 물리고 저리 찢기고 하는 동안에 일요일이 온다. 아 내일은 참 일요일이지 우선 늦잠이나 좀 자야지. 생각만 하야도 가슴이 시원해진다. 낮이나 되어서 기지개를 켜고 유유히 일어나는 기분도 좋거니와 가스난로 앞에 담요를 푸근푸근히 깔고 앉아서 실과나 먹으며 레코드나 틀고 조간(朝刊)을 뒤적여리는 맛은 월급쟁이가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일요일 풍경이다. 한나절이 지나서 목욕을 겸해서 세수를 하

고, 거뜬해진 몸매다 새로 빨아놓은 내의를 갈아입고 아침 겸 점심을 먹으러 거기로 나설 때의 기분이란 또한 이때까지 나는 모르고 살아오던 새 경지이다. 아침을 먹고 친구나 만나 멋처럼 주렸든 깍다점(喫茶店) 순례나 하게 되면 인생에게 일요일이 이렇게도 즐거운가를 절실히 깨닫게 된다.

〈'즐거운 일요일', 『매일신보』 1938년 2월 18일〉

늦잠 자고 일어나 음악을 들으면서 신문 보고,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찻집에서 친구를 만나는 일요일, 요즘과 너무 흡사한 풍경이다. 1920년대 도시인이 휴일을 보내는 방법으로는 활동사진(영화)이나 연극 구경이 있었다. 1920년대 중반까지도 영화 관람료는 1~2원으로 가격이 비싼 편이었다가 192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20~30전으로 대폭 인하되면서 영화와 연극 구경은 대중화되었다. 공원은 영화에 비해 더 보편화된 나들이 장소였는데, 일제가 박물관과 동·식물원으로 개조한 창경궁은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벚꽃 구경의 명소로 이용되었다. 조선시대만 해도 왕족이나 고관대작이 아니면 보기도 힘들었던 왕궁을 쉽게 구경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일반인들에게는 큰 매력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1920년대 경성 거리(『半島の翠縁』, 朝鮮山林會, 1926)
조선은행 앞 광장의 모습으로 경성우편국의 일부와 조선상업은행 등의 건물이 드러나 있다.
노면은 마카담롤러(아스팔트 공법)로 전부 포장한 상태이다.





경성 사람들(『별건곤』 제4권 제6호, 1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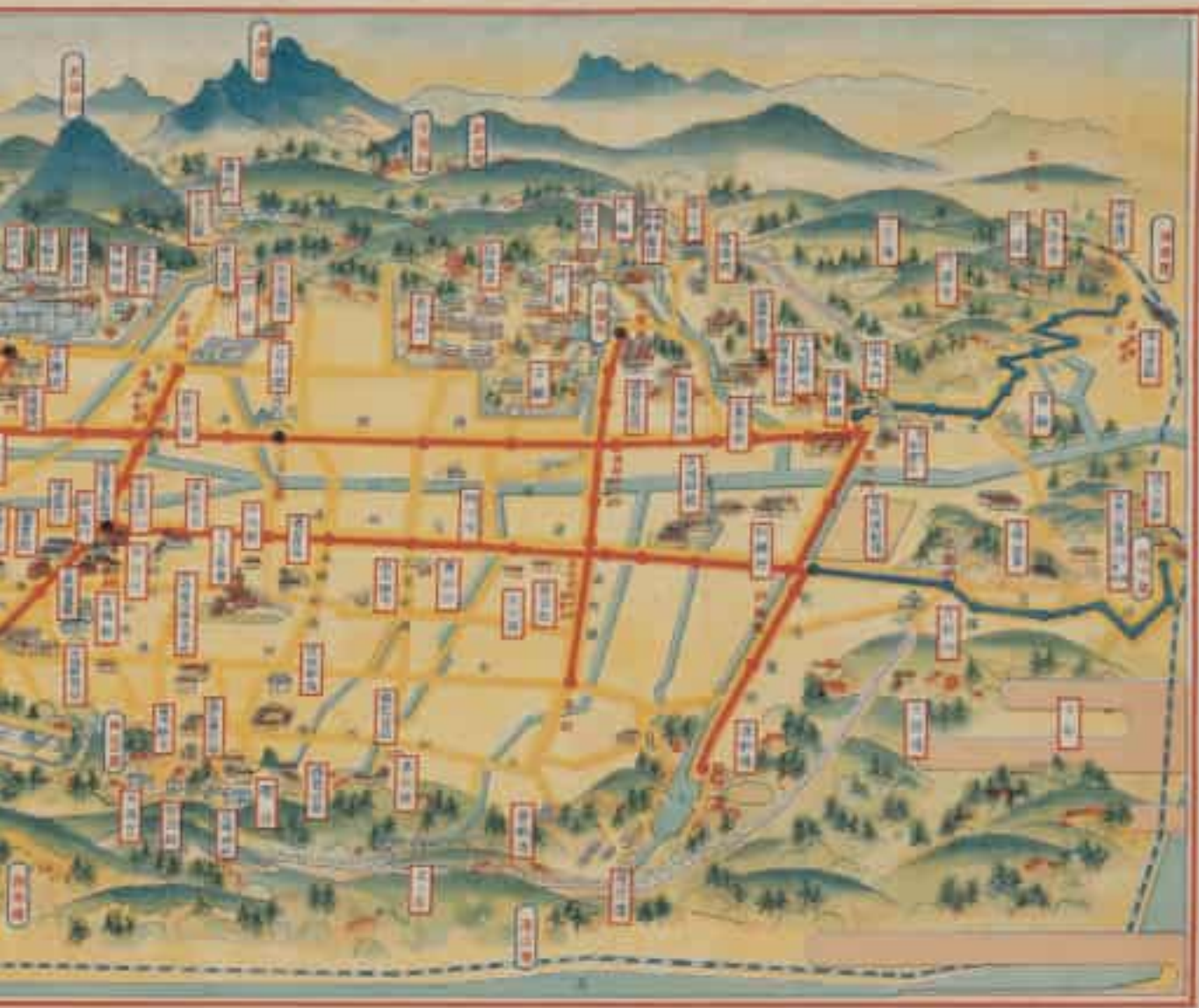
한편, 1930년대에는 일요일을 가족과 함께 즐기므로써, 남성들에게 친절한 남편, 사랑 많은 아버지의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런 경향은 19세기 말 서구사회에서 일요일이 가족의 날로, 아버지가 집에 있는 날로 정착되기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근대 사회에서 일요일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힘든 노동 중 휴식이 필요해지고, 동시에 일요일의 활동들이 풍성해지면서 도시인들에게 일요일은 중요한 시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으레 이듬해의 달력을 보면서 노는 날이 며칠인지를 세였다. 거기다가 축제일과 일요일이 연달아 있는 연휴가 많은 해는 “샐러리맨들의 운이 터진 해”로 여겨졌으며, 연휴를 “유익미하게 보내기 위하여 그 푸란(플랜)을 세우기에 골몰”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²



1920년대 제작된 경성유람안내도(서울역사박물관 제공)

서울의 4대문 안과 용산 등 신시가지 모습을 조감도처럼 그리고, 그 안에 전차노선과 기차역·총독부·경성부·조선신궁·은행·공원·군사령부 등 주요 시설과 지명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 놓았다.





동아일보사가 안양에서 개최한 제1회 전국부인 밤 즐기기 대회 행사 그림(『동아일보』 1933년 10월 4일)

2. 경성 근교 하이킹 코스로 각광받은 관악산과 삼성산

식민지시기 경성 도심과 인근에서는 많은 연중행사가 열렸다. 당시 전차를 운영한 경성전기주식회사는 전차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성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를 조사했는데, 이에 따르면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한 시기는 꽃놀이 계절인 봄의 4월과 5월, 그리고 가을이 깊어 가는 9월과 10월로 나타났다. 경성전기주식회사가 정리한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경성 사람들은 4월에 도심의 창경원과 남산공원(왜성대) 등에서 벚꽃 놀이를 하였고, 5월에는 각종 운동경기, 9월과 10월에는 경성 근교에 있는 산에 오르거나 단풍놀이를 즐겼으며, ‘고기 낚기나 밤 즐기기’를 하러 교외 산책에 나섰다.³ 특히 안양에서 동아

! へ外郊き深秋

クツニクビの樂團と康健

今年も安養で
栗拾と芋掘の會

廿九日(日) 午後二時
開演 五時 閉演

金八十五圓
小人金五十圓

主催 京城日報社
毎日申報社



秋の佳節に當り、郊外に於て、栗拾と芋掘の會を開催す。是れは、健康増進の爲め、且つ、秋の味を満喫する爲め、最も適当な行事と爲す。是れを以て、本年も安養で、栗拾と芋掘の會を開催す。是れは、健康増進の爲め、且つ、秋の味を満喫する爲め、最も適当な行事と爲す。是れを以て、本年も安養で、栗拾と芋掘の會を開催す。

경성일보사와 매일신보사가 안양에서 개최한 밤 줍기 대회(『경성일보』 1935년 9월 27일)

일보사, 조선일보사, 경성일보사와 매일신보사가 개최한 밤 줍기 대회와 근우회 경성지부가 개최한 밤 줍기 행사가 큰 인기를 끌었다.

이와 함께 신문에서는 근래에 하이킹이 유행하고 있음을 알리며, 청추(淸秋)의 좋은 시절에 “산에 나서 한껏 맑고 깨끗한 공기를 쏘이면서 대자연의 품속에 안겨 청한한 하루를 소창한다는 것은 도회지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얻지 못할 유쾌한 일”이므로 “한가한 하루를 만들어서” ‘하이킹’을 할 것을 권하고 있다.

때는 청추(淸秋)입니다. 하늘은 한없이 맑고 높고 들판에는 오곡이 무르익어서 사람의 감정을 자연히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좋은 시절에 집안에만 들어앉았다는 것은 얼마나 적정한 일입니까? 그럼으로 요사이의 ‘하이킹’이라는 것이 부쩍 유행을 합니다. 육식을 등에 지고 가벼운 차림으로 야외로 나가거나 산에 나서 한껏 맑고 깨끗한 공기를 쏘이면서 대자연의 품속에 안겨 청한한 하루를 소창한다는 것은 도회지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얻지 못할 유쾌한 일입니다. 건강상으로 보아도 그러하거나와 정신상으로 보



「산악은 젊은 조선을 부른다」의 삼성산 하이킹 코스 소개(『동아일보』 1936년 6월 4일)

더라도 나날이 바쁘게 쪼들리고만 지나다가 이러한 한가한 하루를 만들어서 모든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고 기쁘게 하루를 지낸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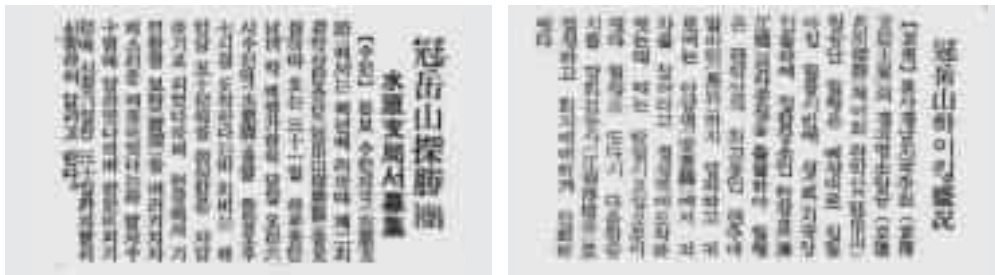
〈「청추라 조흔시절 들노리 가사이다」, 『조선일보』 1936년 10월 9일〉

1930년대 하이킹이 보편화되면서 당시 신문들은 경성 근교의 하이킹 장소와 코스, 도보거리와 소요시간, 비용 등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1936년 『동아일보』는 「산악은 젊은 조선을 부른다. 경성 근교편」을 ‘내 향토의 하이킹 코스 순례’라는 부제와 함께 6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여기서 추천하는 ‘하이킹’ 장소는 북한산과 오봉, 도봉산, 천축사, 망월사, 회룡사, 화산(華山)과 용주사, 광릉, 소요산, 삼성산, 관악산, 불암산, 수락산 등이었다.⁴

이처럼 1930년대에 관악산과 삼성산은 경성 근교에서 인기 있는 하이킹 코스 중 하나로 각광받았다. ‘경기의 금강’이라 불릴 정도로 그 풍광이 빼어났던 관악산은 도시 생



근교 행락지로 관악산 코스를 소개하고 있는 기사(『동아일보』 1937년 9월 30일)



관악산 탐승단 및 하이킹 성황(『동아일보』 1936년 5월 27일; 『조선일보』 1936년 5월 12일)



관악산 탐승 모집(『조선일보』 1936년 5월 7일; 『조선일보』 1936년 5월 8일; 『조선일보』 1932년 5월 3일)

활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자연 속에서 휴식을 찾으려는 경성부민들에게 이상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하였다.⁵ 관악산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신문기사들은 이 산이 단순히 등산 장소를 넘어 역사적·문화적인 의미를 가진 공간이었음을 보여 주었다.



관악산 연주암을 찾은 하이커들(수원박물관 제공)

관악산은 경성에서 약 40리 거리에 위치하며, 과천과 안양을 중심으로 산세가 웅장하게 펼쳐져 있다. 관악산은 화산(火山)으로 여겨지며 조선왕조와 관련된 다채로운 전설을 간직한 곳이었다. 조선 태조가 경성에 도읍을 정할 때 국운을 안정시키기 위해 연주암과 원각사를 세웠다는 이야기는 관악산의 신비로운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켰다.⁶

관악산의 주요 명소 중 하나인 연주대는 등산객들에게 최고의 하이라이트로 손꼽혔다. 연주대에 올라서면 서쪽으로는 인천과 강화의 바다가, 북쪽으로는 한강과 경성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특히, 대양처럼 펼쳐진 바다와 맑고 푸른 하늘이 맞닿아 이루는 경치는 자연의 장엄함을 만끽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이 외에도 관악산 연주암, 삼성산 삼막사, 염불암과 같은 고즈넉한 사찰들은 등산객들에게 산행 중간의 쉼터이자 마음의 평온을 제공하는 장소로 사랑받았다. 1930년대 신문기사들은 관악산과 삼성산의 하이킹 코스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⁷



동아일보사 수원지국 주최 관악산 탐승 남녀 단원(『동아일보』 1936년 6월 3일)

- 안양풀→염불암→삼막사→상불암→연주암→연주대→삼성암→불성사
- 시흥역→삼성산 삼막사→염불암→안양풀→안양역
- 시흥역→삼성산 삼막사→삼성령 고지→시흥대지→호암사→시흥역
- 한강전차종점→남태령→연주암→불성사→석수동→안양역

이 코스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등산로로 설계되었으며, 곳곳에 급경사가 있어 도전 정신을 자극하기도 했다. 기사에서는 관악산과 삼성산의 산세가 하이커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자연의 경이로움을 체험하게 하는 동시에, 도심 속 답답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제공한다고 강조하였다.⁸

이처럼 하이킹이 대중들에게 근대적 여가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관악산과 삼성산의 인기도 높아 갔다. 경성과 가까운 위치 덕분에 관악산과 삼성산은 철도와 도로를 이용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는 점이 큰 매력이었다. 당시에는 왕복 50전의 비용으로 하이킹을 즐길 수 있었는데, 이는 등산이 대중적인 취미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



경기 금강 관악산 일대 유원지 계획(『조선일보』 1936년 6월 4일)

이런 인기에 힘입어 1930년대 후반 관악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계획이 추진되었으나, 여러 현실적인 제약으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36년 4월부터 경성부의 면적이 133.9㎢로 확장(1911년 36.18㎢)되고 인구가 63만여 명에 이르게 되면서, 경성부민을 위한 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인구 백만을 목표로 대경성의 부세가 지난 4월 일로써 단행되자 명실이 상부한 이상적 공원이 점점 통절이 느끼게 되어 모모 민간 유력자들은 사재 30만 원을 기우려 가지고 금춘 이래 관악산 남태령 관은사를 중심으로 전 조선의 제일가는 일대 유원지를 건설코저 목하 공사에 착수하여 도로의 수축과 식목을 하는 중이고 풀도 안양의 그것에 비하여 약 5배나 큰 규모로 계획하여 명년 가을에 준공토록 착착 진행 중인데 시흥군 산림계에서는 이 사업을 철저히 후원하기 위하여 근일 중 산주 기타 관계자를 초치하고 관악산보승회를 조직하여 기본금을 조성하고 회유도로의 신설계획과 절다특마수한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사쿠라나무 신이화나무 등을 많이 심어서 산의 미화공작을 도모하는 동시 장래에는 목재 채취의 취체를 더욱 엄중이 실시하여 따라서 하이킹코스과 케이블카 등도 만들어서 일대 유원지를 만들어 그야말로 지상낙원을 일굴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한다.

〈「경기 금강 관악산 일대 유원지를 계획」, 『조선일보』 1936년 6월 4일〉

이에 민간 주도의 관악산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는데, 당시 유력자들은 사재를 들여 관악산과 남태령 일대를 유원지로 조성하고, 안양풀보다 5배 더 큰 규모의 수영장(풀)을 만들 계획도 세웠다. 또한 관악산보승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산림 보호와 미화작업을 추진하고,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뽕나무와 같은 다양한 나무를 심어 산의 미관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 외에도 등산로를 정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케이블카 설치 계획도 논의하였다. 이들은 관악산을 대규모 유원지로 발전시켜 ‘지상낙원’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한편 관악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등산객 증가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였다. 소나무와 진달래 같은 관상초목이 훼손되거나, 화재와 같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심지어는 식목된 나무를 도굴하여 경성으로 운반해 판매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시흥군은 경찰서와 협력하여 산림 보호를 위한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하였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산림 관리 직원이 순찰을 돌며 위반자를 처벌하기도 했다.

경성 근교 하이킹 코스로서 유명한 시흥군 관악산 일대는 요사이 일기가 따뜻해짐을 따라 이에 비례하여 매일 같이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는 중인데 그들 중에는 사방공작물을 파괴한다는 자 혹은 소나무 진달래 등 관상초목을 절손 채굴하며 또 화기를 남용하는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심한 자는 식목한 나무를 도굴하여 밤이나 새벽을 이용해서 경성 방면에 운반해다 파는 자가 있기 때문에 치산치수상 그 피해가 막심하므로 시흥군에서는 영등포경찰서 용산경찰서 시흥 안양역 관악산 사방현장계원의 협력을 얻어 앞으로는 자기요소 계 직원을 배치하고 일층 취체를 철저히 하게 되었다.



1938년 10월 과천 부녀자들의 연주암 방문 기념(과천문화원 제공)

1. 시흥역 부근 2. 안양역 부근 3. 안양풀 4. 남태령 5. 노량진 철교 부근 6. 관악산 사방공사현장
이상 취체에 당하는 삼림주사와 삼림주사보는 정복을 착용하고 토요일 일요일 축제일에는 주야겸행으로 순시를 하여 위반자를 발견하는 대로 용서 없이 처벌하리라 한다.

〈「관악산 중심으로 산림을 엄중감시」, 『조선일보』 1939년 4월 15일〉

1939년 관악산의 등산로를 확장하는 대규모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6개의 주요 경로를 정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악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주요 경로는 과천, 안양, 봉천, 사당 등 인근 지역에서 연주암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⁹

1930년대 관악산과 삼성산은 도시 근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이킹 명소로, 현대적 레저문화의 초기 모습을 보여 주는 동시에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공간이었다. 특히 안양풀은 1930년대 관악산 하이킹 코스의 주요 지점 중 하나로, 관악산과 안양역을 연결하는 코스의 출발점 혹은 종착점 역할을 했다. 안양풀은 관악산 하이킹 코스의 자연경관을 즐기며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당시 많은 등산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였다. 관악산의 여러 코스를 통해 산행을 마친 뒤 안양풀로 내려와 안양역을 통해 귀가하거나, 안양풀에서 출발해 관악산으로 오르는 경로가 많이 이용되었다.

3. 경성부민의 피서지, 안양풀의 조성 and 운영

안양풀은 1932년(소화 7)에 삼성산 골짜기에 조성된 자연적 수영장으로, 조성 당시에는 길이 60m, 폭 20m, 깊이 1.8m의 근대식 시설을 갖춘 공간이었다.¹⁰ 당시 안양역장이었던 혼다 사다고로(本田貞五郎)는 철도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풀장을 만들면 좋겠다는 구상을 한 후, 야마다(山田) 시흥군수, 조한구 서이면장과 협의하여 안양풀을 만들었다고 한다.¹¹

서이면장 조한구 씨 외 지방유지 제씨는 석수동에다가 면적 약 2,000평에 총공비 3,000원으로 3단에 1대 수영장을 설치할 계획이라 한다. 18일 산전(山田) 시흥군수가 실시답사까지 마쳐 급진적으로 착수할 터이란다.

〈「안양역 석수동에 수영장을 설치」, 『동아일보』 1932년 5월 22일〉



안양역 석수동에 수영장이 설치되고 있음을 알리는 기사『동아일보』 1932년 5월 22일

근래 지방의 발전을 따라 지방유지 제씨들은 석수동에다가 일대 수영장 설치를 계획하고 지난 10일부터 해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그 수영장의 위치는 우에 말한 바와 같이 천연의 경색이 풍부한 외에 근소한 공비로도 이상적 일대 수영장을 할 수 있다는바 총공비 1,500원으로 장은 60m, 광은 20m 길이는 1.8m에 세메트 콘크리트로, 공사는 늦어도 7월 내로 준공할 예정이라 한다.

〈'안양 석수동에 수영장을 신설,' 『동아일보』 1932년 7월 21일〉

안양풀 설치는 1932년 경기도에서 실시한 시흥군 서이면 제1호 구역과 동면 제9호 구역 사방공사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¹²

경기도에서는 사방공사를 시행해 오던 것을 이용하여 안양에 풀을 만들어 경성의 피서객을 1년에 3만여 명씩이나 흡수해 드리게 되었는데 철도국에서는 대승적 입장에서 이번 여름에는 대대적으로 이를 확장하기로 되었다 한다.

〈'대규모로 확장하는 경성 근교 안양풀,' 『매일신보』 1937년 7월 1일〉

사방공사는 산지 사면과 계류(溪流)의 황폐화를 막고, 불안정한 사면을 고정하여 산사태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토목공사이다. 1932년 『사방공사실행보고』를 보면 석곡지공(石谷止工, 돌구곡막이 또는 돌골막이)이 실시된 것을 알 수 있는데,¹³ 이는 비탈면에 생긴 구곡(gully)에 돌을 사용하여 침식 방지용 사방댐을 만드는 것이다. 안양풀은 사방공사로 정비된 하천에 시멘트 콘크리트 공사를 실시해 조성되었다. 그리고 물막이 독을 만든 후 하천에 놓인 바위에 '安養プール 昭和七年 八月 竣工 松本誠書'(안양풀, 소화 7년 8월 준공, 마츠모토 마코토 씀)라는 큼직한 글씨를 남겼다. 이

1932年 7月 2日 至 1932年 9月 21日
 第一號區域工事實行報告
 第一號區域工事實行報告

工事種類	計 画				實 行				備 考	
	十	百	千	圓	十	百	千	圓		
道路工事	1,200	20	21,000	1,100	20	20,000	1,100	20	19,000	
水路工事	1,200	20	21,000	1,200	20	22,000	1,200	20	22,000	
河川工事	1,200	20	21,000	1,200	20	22,000	1,200	20	22,000	
堤防工事	1,200	20	21,000	1,200	20	22,000	1,200	20	22,000	
橋梁工事	1,200	20	21,000	1,200	20	22,000	1,200	20	22,000	
其他工事	1,200	20	21,000	1,200	20	22,000	1,200	20	22,000	
計	1,200	20	21,000	1,200	20	22,000	1,200	20	22,000	

工事種類	計 画				實 行				備 考	
	十	百	千	圓	十	百	千	圓		
道路工事	1,200	20	21,000	1,100	20	20,000	1,100	20	19,000	
水路工事	1,200	20	21,000	1,200	20	22,000	1,200	20	22,000	
河川工事	1,200	20	21,000	1,200	20	22,000	1,200	20	22,000	
堤防工事	1,200	20	21,000	1,200	20	22,000	1,200	20	22,000	
橋梁工事	1,200	20	21,000	1,200	20	22,000	1,200	20	22,000	
其他工事	1,200	20	21,000	1,200	20	22,000	1,200	20	22,000	
計	1,200	20	21,000	1,200	20	22,000	1,200	20	2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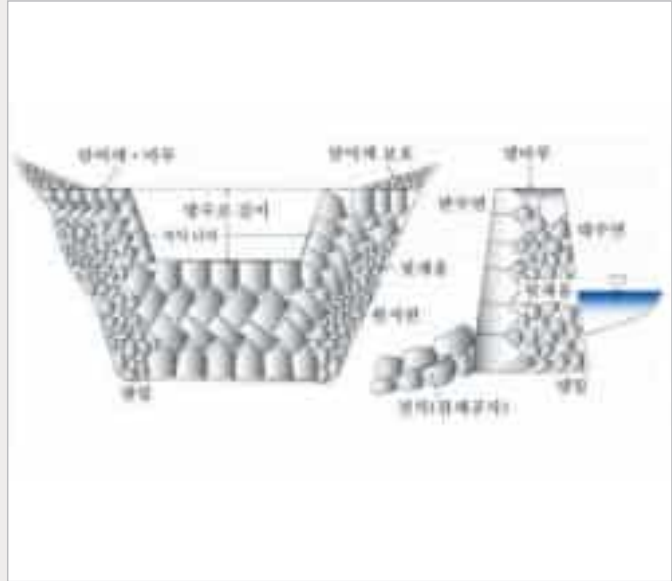
141

1932년 경기도에서 작성한 「사방사업실행보고」 중 서이면 제1호 구역 공사내역(국가기록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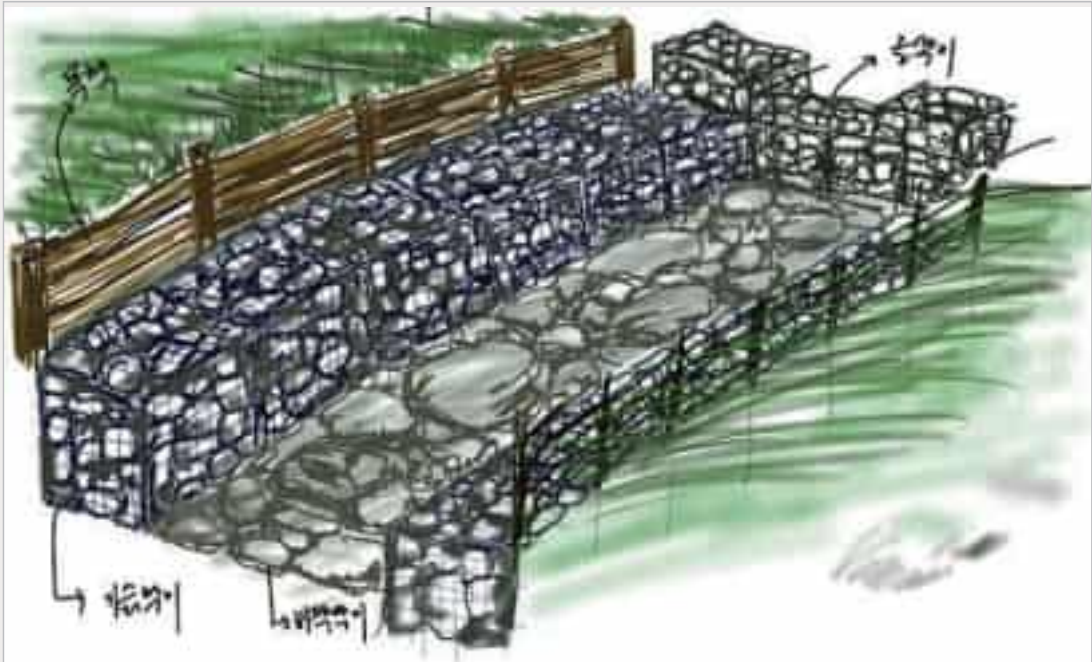
글씨를 쓴 마츠모토 마코토는 당시 경기도지사(1931년 9월 23일~1934년 11월 5일 재임)였고,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8년 동안 조선제련 사장을 거쳐 조선금융조합연합회 회장을 지내는 등 조선총독부 고위 관료 출신이면서 재계(財界)의 거물로 군림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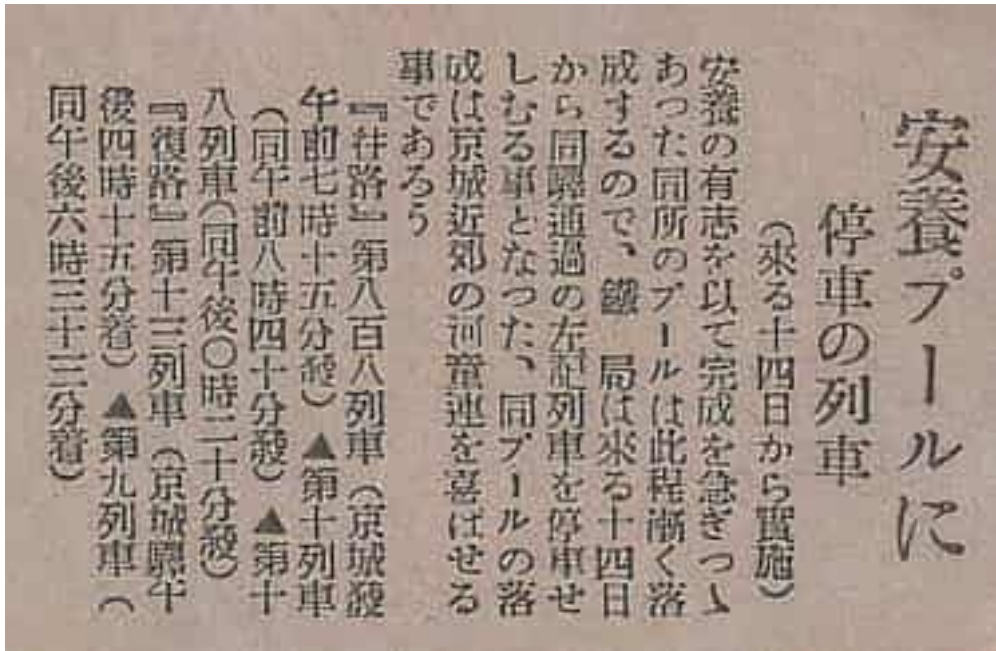
서이면 제1호 구역과 동면 제9호 구역



돌골막이 개념도



사방공사에서 실시되는 골막이와 기슭막이, 바닥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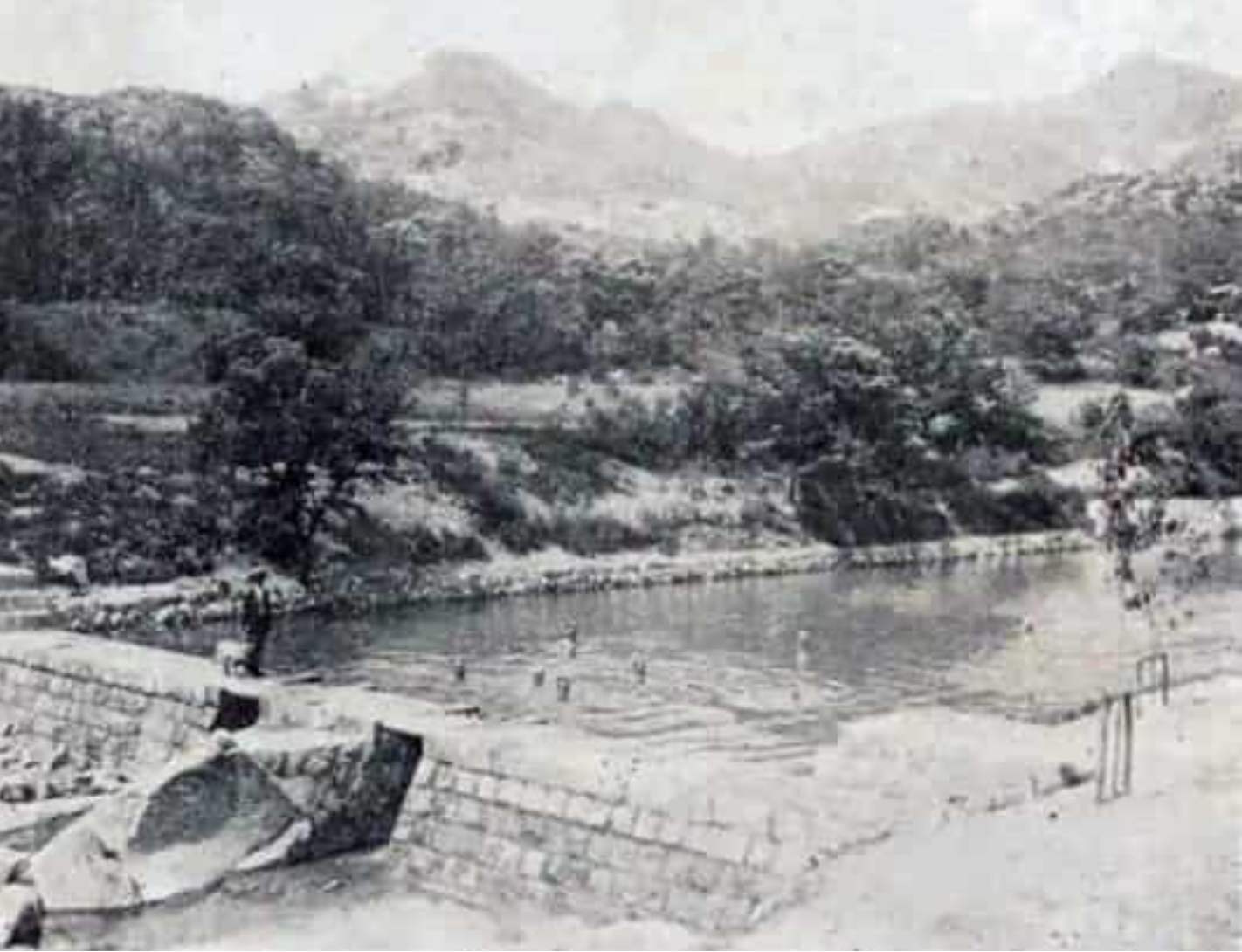


안양풀에 열차 정차(『조선신문』 1932년 8월 11일)

물이었다.¹⁴

한편, 삼성산과 관악산이라는 명산을 배경으로 자연적인 아름다움과 근대적인 시설이 조화롭게 갖춰진 안양풀은 경성의 도시민들에게 여름철 피서를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경성 근교에서 접근성이 좋은 안양의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였는데, 철도국에서는 1932년부터 안양풀로 향하는 임시 정거장을 설치하여 여름철 안양풀 방문 편의를 높였다.¹⁵

소금강의 별명을 듣는 고려시대로부터 유서 있는 시흥군의 관악산맥의 하류를 막아 안양의 유지 등으로 조직된 안양협회의 혼신 노력으로 조성된 천연적의 안양풀은 신비를 극치한 과천 관악산의 산곡에서 흘러내리는 청량한 물을 석축으로 막아서 3m 수심을 보지(保持)케 한 도회인의 동경의 초점이 되어 있다. 그리고 당지는 고래로 포도, 이(梨, 배), 서과(西瓜, 오이)의 명산지로 유명한 만치 이 신선한 청취를 맛보며 천연의 충치를 극한 천연욕장에서 〇塵口洗〇하는 흥취는 참으로 백퍼센트이다. 아직 선전이 부족하여 세간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나 그래도 객하에는 경성시내 각 학교에서 1만여 명의 탐승객이 있어 철도당국에서는 본전(本田) 안양역장의 주선으로 가정차장까지 설치되었는데 금년에도 벌써 각 방면의 인기는 집중되어 지난 4월 용산원정소학교의 하촌, 길〇양 훈도가 내양하여 시찰한 결과 절



1933년 안양풀(경기도, 『京畿地方の名勝史蹟』, 1937)
1933년 7월 8일자 『매일신보』에 실린 사진이다.

경을 □□하고 즉시 오는 21일부터 1주일간 200여 명의 학동을 인솔하고 입욕하기로 되었는데 이와 같이 인기가 집중되는 것을 본 본전 역장은 동년도 가정차장을 설치하는 동시에 경성 영등포역에서 임시열차를 운전케 할 계획을 세워 철도국 영업과에 교섭 중이라 한다.

〈「관악산의 승경에 안양풀 대변창, 철도당국에서는 가정차장 설치, 경인간의 청진경」, 『매일신보』 1933년 7월 9일〉

천연적인 풍경과 더불어 신식 수영장 시설을 갖춘 안양풀에는 1935년 여름 한 달 동안 2만 8,7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는데, 이는 안양풀의 대중적 인기를 잘 보여 준다.¹⁶ 이렇듯 안양풀은 ‘신비적 환락경’으로 평가받으며, 점차 경성 근교에서 단연 돋보이는 여름 피서지로 자리 잡았다.¹⁷



안양풀을 찾은 경성의 일본인들(『경성일보』 1933년 6월 24일)



안양풀장(『경성일보』 1934년 8월 24일)

〈표 1〉 안양풀보존회 회원 변화

연도	성명	직위
1935	오노 마사후미(小野雅文)	안양금융조합 이사
	오키이 마쓰요시(沖井松吉)	안양오키이농장
	다나카 요시미네(田中義峰)	안양공립보통학교장
	혼다 사다고로(本田貞五郎)	안양역장
	마쓰모토 스키조(松本杉藏)	안양농장
	조한구	서이면장
1936	다나카 요시미네(田中義峰)	안양공립보통학교장
	오노 마사후미(小野雅文)	안양금융조합 이사
	혼다 사다고로(本田貞五郎)	안양역장
	마쓰모토 스키조(松本杉藏)	안양농장
1937	혼다 사다고로(本田貞五郎)	안양역장
	오노 마사후미(小野雅文)	안양금융조합 이사
	다나카 요시미네(田中義峰)	안양공립보통학교장
	마쓰모토 스키조(松本杉藏)	안양농장
	후지타 요시오(藤田義雄)	안양과수원
1938	이기선	서이면장
	마쓰모토 스키조(松本杉藏)	안양농장
	오키이 마쓰요시(沖井松吉)	안양오키이농장
	후지타 요시오(藤田義雄)	안양과수원
	이광순	삼광자동차주
1940	혼다 사다고로(本田貞五郎)	안양역장
	오노 마사후미(小野雅文)	안양금융조합 이사
	이기선	서이면장
	다테 다케오(伊達武男)	안양공립보통학교장
	고세 쿠라키치(古瀬倉吉)	안양역장
	구리하라 지로(栗原次郎)	안양역우편소장
	오키이 마쓰요시(沖井松吉)	안양오키이농장주
	박준영	삼창상회주
마쓰모토 스키조(松本杉藏)	안양목장주	
이시자키 코지로(石崎幸次郎)	안양금융조합 이사	



자료 : 『조선신문』 1935년 1월 9일; 『경성일보』 1936년 1월 3일; 『조선신문』 1937년 1월 7일; 『조선신문』 1938년 1월 5일; 『조선신문』 1940년 1월 7일.

안양풀보존회는 매년 경비를 들여 설비를 보수하고, 안양풀 수불식(修祓式)을 수천궁(水天宮)에서 거행한 후 안양풀 개장을 알렸다. 수불식은 부정을 없애고 신과의 교류를 준비하는 신도(神道, しんとう)의식으로, 수천궁은 해양신을 모신 일본의 신사이다.¹⁸

1935년 안양폴보존회 회원은 안양공립보통학교 교장 다나카 요시미네(田中義峰), 안양 금융조합 이사 오노 마사후미(小野雅文), 안양역장 혼다 사다고로(本田貞五郎), 안양농장주 마쓰모토 스키조(松本杉藏), 안양오키이농장주 오키이 마쓰요시(沖井松吉), 서이면장 조한구 등이었다.¹⁹ 1937년에는 안양과수원주 후지타 요시오(藤田義雄)와 신임 서이면장 이기선이 교체되어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1938년에는 삼광자동차주 이광순과 안양 금융조합 이사 오노 마사후미(小野雅文)가 신입 회원으로 입회하였다. 1940년에는 오키이 마쓰요시를 제외한 6명이 교체되었는데, 안양유원지 조성과 운영에 큰 역할을 했던 안양역장 혼다 사다고로도 명단에서 사라지고 신임 안양역장으로 교체되었다. 이때 안양폴보존회 신입 회원은 안양공립보통학교장 다테 다케오(伊達武男), 안양역장 고세 쿠라키치(古瀬倉吉), 안양역우편소장 구리하라 지로(栗原次郎), 삼창상회주 박준영, 안양목장주 마쓰모토 스키조(松本杉藏), 안양금융조합 이사 이시자키 코지로(石崎幸次郎)였다.

경성에서 불과 30분~1시간 거리라는 접근성과 함께, 당시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낮은 비용 정책은 일본인 또는 중산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안양폴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실제로 1937년에는 기차 왕복 비용이 60전으로 책정되었으며, 수영장 입장은 무료로 개방되었다. 이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가족 단위 또는 친구들과 함께 피서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였다.

경성서 일요일을 이용하여 하루 동안 왕복할 수 있는 유원지는 여러 곳이 있으나 모두 경비가 많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설비가 불완전하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개장한 안양폴은 설비가 이 방면에서 제일 좋은 곳이며 기차도 할인을 하여 왕복 60전이면 족하고 풀은 무료로 개발되어 있으니 하루의 행락에는 알맞은 곳이다.

〈『일요행락지』, 『조선일보』 1937년 7월 18일〉

철도국은 안양폴이 경성 근교의 대표적 휴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였다. 안양폴의 성수기를 고려하여 경부선 안양폴 어구에 임시 정거장을 설치하고 열차를 정차시켜 수영객과 유람객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1938~1939년에는 수영 시즌과 단풍철을 중심으로 특별 열차를 운행했으며, 왕복 할인승차권을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중의 방문을 독려했다. 임시 열차 운행은 수영장 이용객뿐만 아니라 10월에 삼성산과 관악산 등의 유람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제공하였다.²⁰



『경성일보』 1936년 7월 3일자에 실린 안양풀장



『경성일보』 1936년 7월 25일자에 실린 안양풀장



『경성일보』 1938년 8월 14일자에 실린 안양풀장



『조선신문』 1941년 7월 9일자에 실린 안양풀장



安養풀

1937.45

1937년 안양풀을 찾은 안양 주민
이기원, 이상필, 조남천(이은섭 제공)



1938년(소화 13) 안양소학교 1학년 원적기념



1940년(소화 15) 안양풀을 방문한 장로4교회



1941년 안양풀을 찾은 안양 친구들(이한수 제공)

〈표 2〉 1935년 8월 철도국 안양풀 입구 임시 열차와 임시 정거

임시 열차	경성발→안양풀 입구착	안양풀 입구발→경성착
	오전 9시 8분→9시 40분	오후 3시 58분→오후 4시 43분
임시 정거	오전 8시 45분(수원행)/오후 0시 30분(대전행)	

자료 : 「인천과 안양에 일요일열차」, 『동아일보』 1935년 8월 10일.

〈표 3〉 1938년 10월 철도국 안양풀 입구 임시 열차

임시 열차	경성발→안양풀 입구착	안양풀 입구발→경성착
	오전 7시 2분→오전 8시 10분	오후 2시 11분→오후 3시 12분
	오전 8시 2분→오전 9시 10분	오후 5시 19분→오후 6시 5분

자료 : 「근교 가승강장 휴일마다 정차」, 『조선일보』 1938년 10월 1일.

1937년 안양풀을 포함한 경기도 내 수영장은 일제히 위생검사를 받았다. 당시 위생 문제는 여름철 전염병 확산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었다. 경기도 위생과는 수

영장의 설비와 수질, 변소의 소독 상태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비위생적인 요소가 발견될 경우 개선 명령을 내리고, 필요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다.²¹ 이러한 조치는 안양풀의 위생적 신뢰를 높였다.

또한 1938년 국민보건운동의 일환으로 안양풀의 설비를 더욱 충실히 하고자 추가 공사를 진행한 후 7월 3일에 개장식을 거행하였다. 개장식 행사로 철도국 수영부의 모범경기와 성대한 연회가 개최되었고, 안양풀 설립의 공로자인 혼다 사다고로(本田貞五郎)를 기념하기 위한 창덕비 제막식도 열렸다. 또한 이 해에는 안양풀에 전기등도 가설되었다.²² 이처럼 설비가 개선되면서 안양풀은 매년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인기 있는 명소가 되었다.



혼다 사다고로

경기도의 명승지로써 경기 금강(金剛)의 별명이 있는 관악산 산간 청류를 막아서 설치한 안양풀은 소화 7년 당시 안양역장 본전정오랑(本田貞五郎) 씨를 위시하여 관민 유지 제씨의 협력으로 창설된 것인데, 그 후 안양풀보존회를 조직하여 이래 매년 설비를 개선하여 오게 되어 지금에는 경성을 중심으로 한 이용자가 매년 10만 명을 넘는 현상으로 당시 발전상 공헌한 바 적지 않았는데 금년은 특히 사변하의 국민보건운동상 일반 이용자를 위하여 설비의 충실을 도모하고자 제반 준비를 진행 중이던바 요즘 완성을 보게 되어 오는 3일 오전 10시 반 성대한 풀 개장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당일에는 안양풀 설립의 공로가요 동시에 안양 발전의 은인인 본전(本田) 씨의 공적을 영구히 기념하기 위하여 창덕비 제막식이 있을 모양이며 철도국에서는 금년에도 예에 의하여 여름 동안은 풀 앞에 가역(假驛)을 만들어서 일반 이용자의 편의를 보게 되었다 한다.

〈「관악산하 안양풀 3일, 개장식 거행 준비」, 『조선일보』 1938년 7월 2일〉

당시 안양은 작은 정거장과 논밭이 이어지는 시골 풍경이 흐르는 소박한 공간이었으나,²³ 안양풀을 통해 근대적 여가문화가 유입되었고, 안양 주민들도 이 문화에 익숙해졌다. 안양풀과 조선직물주식회사의 성장으로 안양역은 하루 평균 4,000명 이상의 승객이 왕래하는 중요한 교통 허브로 성장하였다. 승객 증가로 기존 역사가 협소해지자, 1938년 4만여 원의 거액을 들여 총건평 88평의 목조 콘크리트 방식으로 안양역사가 신축되었다.²⁴

철도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안양풀의 지속적 개선은 안양풀이 경성 근교의 주요 관광지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고 수만 명의 방문객은 지역 상권과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 안양 유지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안양풀 입구 지도도 설치, 하수구 정비, 하천 개수 등의 문제를 당국에 청원함에 따라 1940년 안양풀 경영 문제가 안양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되는 등 지역사회에서 안양풀의 중요도가 커졌다.²⁵

4. 전시동원을 위한 훈련 공간으로 활용된 안양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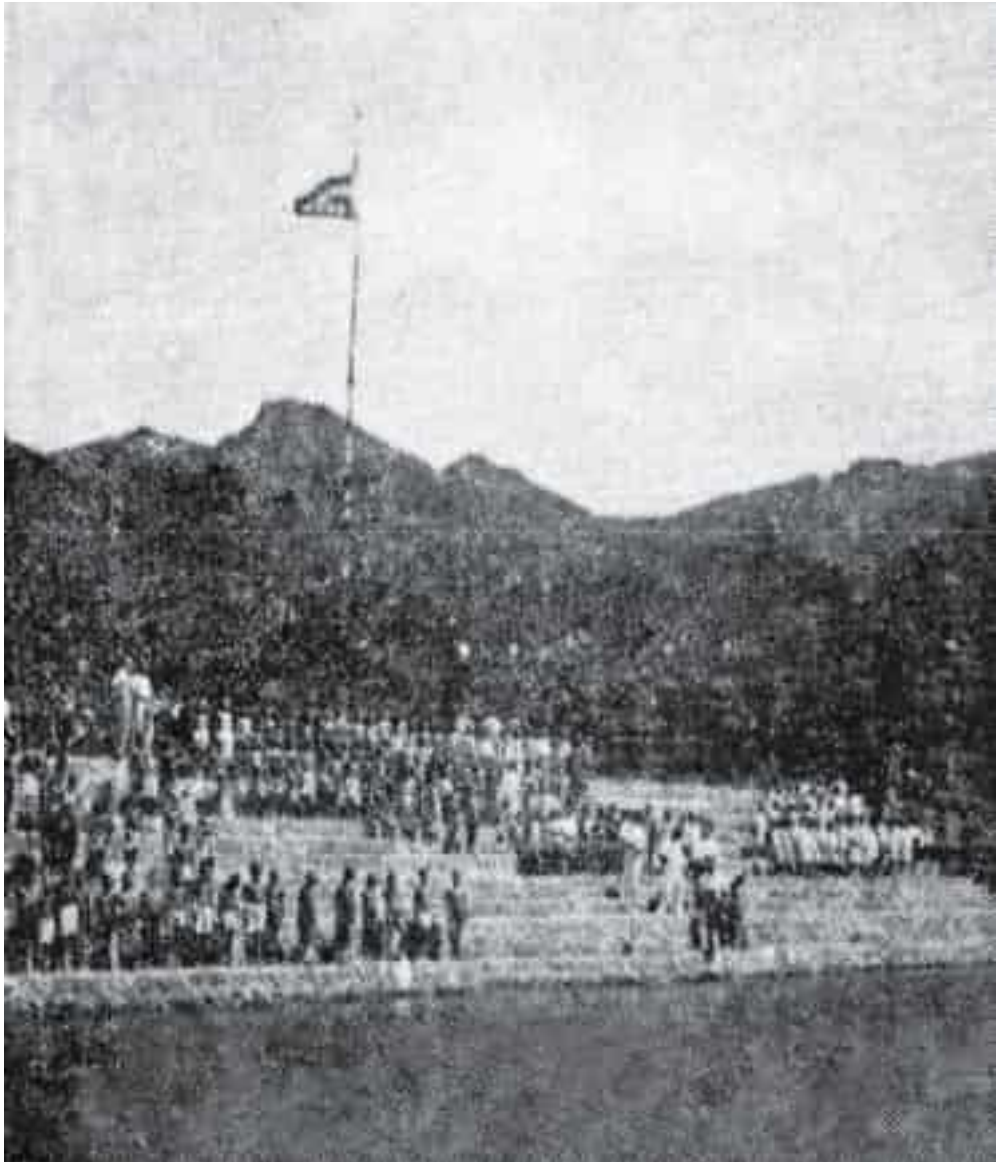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중반에 안양풀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체력 단련과 훈련 등 전시동원을 위한 주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임간학교(林間學校) 운영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력 증진, 단체생활 훈련, 애국심 함양”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졌다.

1939년 8월 경성건아단에서 개최한 임간학교에는 경성부 소속 40개 공립소학교에서 선발된 5~6학년 학생 519명과 각 학교의 교사 64명이 참가하였다.²⁶ 임간학교는 안양풀 근처 숲속에서 열렸으며,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체력 단련과 규율 생활을 훈련시켰다. 1940년 8월에는 경성부 소학교 5학년 이상의 학생 567명이 참여했으며, 한 반을 8명 이내의 소규모 그룹으로 구성하여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다. 왕복 차비(31전)와 식비 등의 참가비는 참가자가 부담하도록 했다.²⁷

안양풀에서 개최된 임간학교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단체생활을 통해 규율과 조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임간학교는 황군(일본군)의 고생을 상기시키고, 이를 통해 인내와 협력정신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즉 임간학교는 일본 제국주의가 강조한 ‘황국신민화’와 ‘근로보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직된 교육 활동이었다.

경성건아단에서는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열하루 동안 시흥군 안양면 안양풀 상류 수풀 속에 캠프촌을 만들고 임간학교(林間學校)를 개설하여 황군 장사의 고생을 생각하며 규율 있는 여러 가지 훈련을 하여 인고 단련, 협력 일치, 근로보국정신을 함양하는 동시에 체력 증강을 도모하기로 되었다.

〈「안양에 임간학교」, 『조선일보』 1939년 8월 4일〉



안양풀에서 개최된 수원 각 소학교 아동 임간학교와 수영대회(『조선일보』 1939년 8월 19일)

이 시기에 임간학교는 아동과 청소년의 여름방학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 교육전략에 따라 식민지 조선에서 국민동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1939년 동아일보사 수원지국이 주최한 수상 임간대회에서 잘 나타나 있다.



안양풀에서 개최된 경성건아단 임간학교(『경성일보』 1940년 8월 7일)

본사 수원지국 주최의 수원 아동 수상(水上) 임간대회(林間大會)를 8월 16일 안양풀에서 개최한다는데 안양은 경기 금강이라 일컫는 과천 관악산 아래에 있는 산자수려한 장쾌한 곳으로 어린이에게는 다시 없는 낙원지일 것이다. 비상시하에 처한 제2세 국민의 체위 향상과 황군 장병의 인고와 단련을 생각하며 위대한 자연을 배우고 공동생활의 훈련을 목적으로 하여 풀에서는 수영대회가 있고 그윽한 임간에서는 임간체조와 보탐대회가 있으리라는데 일반가정에서는 이런 기회에 귀여운 자녀들의 건강을 위하여

훈련을 위하여 총동원시키기를 바라는 바이다.

〈「본보 수원지국 주최 소학생 임간학교」, 『조선일보』 1939년 8월 8일〉

임간학교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데, 수영 훈련, 임간체조, 등산, 단체 식사, 그리고 보물찾기와 같은 활동이 포함되었다. 임간학교 운영은 지역유지와 사회기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지역유지들은 물질적 지원과 기부를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후원하였으며, 이는 조선의 상층 계층이 일본 식민지 체제에 협조한 단면을 보여준다. 그 예로, 수원의 유지와 상점들이 수상(水上) 임간대회를 지원한 것은 식민지 체제와 지역경제 간의 연결성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²⁸

경성부는 임간학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940년 7월 6,000원을 기부하여 안양풀 시설을 넓혔다. 이에 기존 수영장의 규모가 길이 40m, 폭 20m로 확대되었고, 우물 한 곳과 야외 교육시설이 추가되었다. 임간학교 시설도 기존 50평에서 62평으로 확장되었다.²⁹ 1940년 7월 10일에는 경성부윤과 관계 각 과장이 참석하여 안양풀 개장식이 성대하게 치러졌다.³⁰ 이는 경성부가 안양풀 활용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경성부는 안양풀을 피서지의 기능을 넘어 교육과 훈련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한편 일제는 1943년 해군으로 징병제를 확대해 갔는데, 시흥군은 전시동원에 발맞춰 국민총력시흥군연맹, 시흥군체육진흥위원회, 안양풀보존회와 함께 수영훈도지도강습회를 안양풀에서 개최하였다.

반도 젊은이들의 해군특별지원병제 실시를 목강에 두고 그들에게 7대양을 제압할 투지를 배양시킴에는 무엇보다도 수영을 보급시킴이 계간사(契緊事)임에 비추어 시흥군에서는 이의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총력군연맹, 군체육진흥위, 안양풀보존회 공동 주최하에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수석이 명미한 보건도장인 안양풀에서 수영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모인 강습회원은 학교훈도, 면직원, 체육진흥회 역원 등 35명으로 먼저 국민의례가 있던 다음 군수대리 영목(鈴木) 시학(視學)의 간단한 인사와 강사로 초빙된 경성제1고녀 교수 상전엄(上田嚴) 씨로부터 수영에 대한 주의설명이 있던 후 순서에 따라 유영법, 수난급구법, 인공호흡법 등 실지 지도를 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후 의의 있는 장정 수영훈도지도강습회를 동 오후 6시경 성황리에 종료하였다.

〈「수영지도 강습 안양풀에서 개최」, 『매일신보』 1943년 7월 27일〉



안양풀에서 개최된 수영훈도지도 강습회(『매일신보』 1943년 7월 27일)

이는 학교 훈도, 면 직원, 체육진흥회 직원들에게 수영 훈련을 시켜 수영 지도자로 육성한 후, 이들이 다시 학생들과 일반 대중에게 전쟁 수행 기초 능력인 수영을 가르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처럼 임간학교나 수영훈도지도강습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안양풀은 여름철 행락지일 뿐만 아니라 대중적 교육

과 체력 강화, 그리고 황국신민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일제는 이러한 공간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동원하고 훈련함으로써 식민체제에 순응하는 국민을 양성하려는 의도를 실현하였다. 안양풀은 일본 제국주의의 전시동원정책이 자연과 여가문화를 매개로 강화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1 김중근, 「제4장 인구증가와 주민구성」, 『서울 2천년사 26 : 경성부 도시행정과 사회』, 서울역사편찬원, 2015, 195~197쪽
- 2 「월급쟁이 만세 나를 계속해 논다」, 『매일신보』 1938년 10월 12일.
- 3 당시 동대문 밖에는 영도사와 청량리, 멀리 소요산과 자재암의 단풍이 유명하였고, 의정부의 회룡사와 망월사, 동소문 밖의 신흥사와 청암사, 화계사의 밤 줍기와 창익문 밖의 조망 절기로 이름난 승가사, 서대문 밖의 금화산, 양화도, 서진관(西津寬)의 수석과 단풍, 남대문 밖 멀리 영등포에서의 뉘시와 안양의 밤 줍기, 수구문 밖의 한강리와 봉은사, 선·정릉의 단풍구경, 그리고 독섬 등은 소문난 곳이었다(「근교소개」 하로에 왕복할 수 있는 산책지는 어대어대?), 『동아일보』 1932년 10월 15일).
- 4 『동아일보』는 「山嶽은 젊은 朝鮮을 부른다. 경성 근교편」을 1936년 5월 29일부터 1936년 6월 7일까지 연재하였고, 다음 해인 1937년 『동아일보』는 「近郊行脚地」라는 제목으로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10회에 걸쳐 '하이킹 코스'를 소개하였다.
- 5 「관악산탐승 수원지국에서」, 『동아일보』 1935년 5월 8일.
- 6 「산악은 젊은 朝鮮을 부른다 (5) 경성근교편」, 『동아일보』 1936년 6월 5일.
- 7 「관악산탐승 수원지국에서」, 『동아일보』 1935년 5월 8일; 「산악은 젊은 朝鮮을 부른다 (4) 경성근교편」, 『동아일보』 1936년 6월 4일; 「산악은 젊은 朝鮮을 부른다 (5) 경성근교편」, 『동아일보』 1936년 6월 5일.
- 8 「산악은 젊은 朝鮮을 부른다 (5) 경성근교편」, 『동아일보』 1936년 6월 5일; 「조망과 행로가 다 조흔 신비경관악 코—쓰」, 『조선일보』 1937년 9월 26일.
- 9 「관악산의 험로에 탐승로 6개선을 수선」, 『조선일보』 1939년 6월 1일.
- 10 「안양풀 공개 7월 1일부터」, 『동아일보』 1934년 7월 1일.
- 11 「安養풀開き, 二十日盛大に舉行」, 『조선신문』 1935년 7월 22일.
- 12 「1976 안양유원지 현황」(안양시 내부자료).
- 13 「경기도 시흥군 서이면 제1호 구역」, 『사방사업실행보고』(CJA0011026), 1932; 「경기도 시흥군 동면 안양리 제9호 구역」, 『사방사업실행보고』(CJA0011026), 1932.
- 14 이순우, 「일본인 도지사의 휘호로 새겨진 안양풀 바위 글씨(1932년)」, 『민족사랑』 2024년 4월 24일, 민족문제연구소.
- 15 「安養풀—to 停車の列車(來る十四日から實施)」, 『조선신문』 1932년 8월 11일.
- 16 「안양풀 개장」, 『동아일보』 1935년 8월 16일.
- 17 「안양풀 개장」, 『조선일보』 1936년 7월 14일.
- 18 「안양풀 수불식」, 경성일보 1939년 7월 3일
- 19 「광고 근하신문, 안양풀보존회」, 『조선신문』 1935년 1월 9일.
- 20 「근교산책지 각역 임시승강 취급」, 『조선일보』 1938년 3월 20일; 「근교 가승강장 휴일마다 정차」, 『조선일보』 1938년 10월 1일; 「근교산책에 대비 십구일부터 가역에 정차」, 『조선일보』 1939년 3월 17일.
- 21 「풀의 위생설비조사」, 『동아일보』 1937년 7월 23일..
- 22 「안양풀에도 전등」, 『매일신보』 1938년 2월 10일..
- 23 「망부석」, 『조선일보』 1935년 6월 27일. “용산역을 떠난 지 불과 30분 내의 서울서 엮어지면 코 닿을 데지만 안양은 시골티가 조르르 흐르는 곳이었다. 게딱지처럼 납작한 때 문은 정거장. 자갈을 깐 신작로가 조각지(조개) 엮어 놓은 듯한 집들, 그나마도 몇 발자국 안 걸려서 툭 끊어지고 평퍼짐한 들이 열리었다.”
- 24 「공비 사면여원으로 안양역 신축착공」, 『동아일보』 1938년 8월 6일.
- 25 「시흥군청 이전과 중대사항을 진정」, 『조선일보』 1937년 10월 23일; 「안양발전책 토의」, 『조선일보』 1940년 2월 18일.
- 26 「안양에 임간학교」, 『조선일보』 1939년 8월 4일.
- 27 「경성건아단 합동야영」, 『조선일보』 1940년 7월 16일.
- 28 「기달기는 16일 본보 수원지국 주최 아동 수상, 임간대회」, 『조선일보』 1939년 8월 15일.
- 29 「안양풀 명(明) 1일부터 개장」, 『동아일보』 1940년 7월 1일.
- 30 「확장된 안양풀 10일에 개장식」, 『조선일보』 1940년 7월 10일.

제2장

안양유원지 전성시대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1. 해방 후 시흥군보승회의 결성과 안양유원지의 시설 확충

안양풀은 해방과 한국전쟁이라는 정치·사회적 격변을 거치면서도 그 인기가 시들지 않았으며, 서울 및 수도권 시민들에게 자연 속에서의 여유를 제공하는 피서지로 기능하였다. 1947년 이후 운송부에서는 안양풀 개장에 맞춰 특별 열차 및 버스를 운행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1949년 조선여행사는 안양풀에서 피크닉 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1949년부터 안양풀 내에 있는 서울시 소유 수영장을 개수 공사한 후 허약 아동을 위한 요양 및 신체 단련시설로 활용하였는데, 서울시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동안 윤번제로 안양풀을 이용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다.¹

서울시 내에는 약 7,000여 명의 몸이 쇠약한 학생들이 있는데 시에서는 이들을 위하여 시외 안양에 있는 풀을 150만 원 수리하여 몸이 쇠약한 학생들의 보건 풀로 이용하도록 하리라 한다. 그런데 이 풀은 목하 수리 중이므로 하기방학 안으로는 완성될 것이므로 각 학교 지원학동에 한하여 3일간씩 윤번제로 사용케 하게 되었다.

〈「허약한 아동 위해 안양풀을 개방」, 『경향신문』 1949년 7월 3일〉

1950년대에 안양풀은 여러 차례 복구와 확장을 거듭하였는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시흥군보승회였다. 시흥군보승회는 시흥군 내 관악산, 안양풀, 단군전 등의 고적과 명승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1949년 5월 11일 결성되었다.

시흥군에는 소금강의 별명을 듣는 영봉 관악산을 비롯하여 안양풀 단군전 등 허다한 고적과 명승이 있



1948년 안양풀에서 개최된 조선맥주주식회사 야유회(김진영 제공)



1948년 안양풀에서 개최된 조선맥주주식회사 आयु회(김진영 제공)



시흥군보승회 결성(『경향신문』 1949년 5월 22일)



안양풀 개장(『조선일보』 1949년 7월 16일)

으나 아직까지 이를 보호유지할 만한 기관이 없던바 금번 김건열 군수, 김원식 서장, 구연창 씨 등의 발기로 지난 11일 군회의실에서 각계 유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군보승회를 결성하였는데 안양풀 개장을 앞두고 동회 활동에 기대가 자못 크다고 하며 피선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건열 부회장 김원식 구연창

〈『명승고적 탐승』, 『경향신문』 1949년 5월 22일〉

시흥군보승회는 조직되자마자 안양풀의 관리와 개장 준비를 담당하였는데 총공사비 40여 만 원을 들여 안양풀을 수리하고, 경기도지사 등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1949년 7월 15일 개장식을 거행하였다.²



1950년 4월 안양풀을 찾은 안양 주민(인형수 제공)

그러나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며 안양풀 운영은 중단되었는데, 전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인 1952년 7월 고주현 보승회장과 확인영 안양역장의 주도로 다시 개장되었다.³ 이어 1953년에는 국립도서관에서 하기사업으로 안양풀 옆 서울피난민학교 교실에 임간문고를 설치하여 독서열 함양을 꾀할 정도로 전쟁 상황을 극복하고 활성화되었다.⁴

하지만 1953년 여름, 홍수를 겪으며 안양풀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수영장을 비롯한 주요 시설이 파괴됨에 따라 1954년 홍정기 시흥군수와 이학룡 안양경찰서장, 그리고 보승회 회원들이 힘을 모아 수영장과 골프장, 유희장, 운동경기장 등을 설치하였다.⁵ 이 시기를 기점으로 안양풀은 ‘안양유원지’로 불리기 시작하였는데, 수영장뿐만 아니라 골프장과 각종 유희시설을 갖춘 유원지로 발전하면서 ‘안양유원지’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각종 보건시설과 오락기관을 완비한 안양유원지(풀) 개장식이 지난 13일 하오 2시 이익흥(李益興)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내빈 다수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는데 동 식상에서 동 유원지 복구에 공로가



1950년대 안양풀과 다리(국가기록원 제공)



1956년 안양풀장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는 아동들(박봉득 제공)



1955년 미군과 한국군의 지원으로 신설된 대형풀장
(1958년, 박봉득 제공)

수영대회를 개최하였다.

많은 흥정기 시흥군수와 이학룡 안양경찰서장에 대하여 공로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안양풀 개장식」, 『조선일보』, 1954년 6월 19일〉

이때 시흥군은 안양유원지 개원을 기념하여 제1회 전 시흥 직장대항 배구대회를 유원지 배구장에서 개최하였는데,⁶ 시흥군 군관민의 친목을 도모하는 장소로 유원지를 활용함으로써 수영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을 갖춘 장소로 알려 나갔다. 시흥군보승회는 그 후에도 안양유원지 시설을 계속 확충해가는데, 1955년 안양에 주둔하고 있던 미 440부대와 한국군 제1201건설공병단의 지원을 받아 정규 풀장 1개소를 더 신축하고,⁷ 개장에 맞춰 신설기념

안양유원지에 정규의 풀이 신설되어 3일 상오 11시부터 그 개장식을 거행하리라 한다. 시흥군보승회에서는 유원지로서 알려진 안양풀이 규모가 작음으로 이번에 새로 길이 50m 폭 25m의 정규 풀을 신설해서 3일 상오 11시에 개장을 거행하고 이어 풀 신설기념 수영대회를 개최한다.

〈「안양에 정규풀」, 『조선일보』 1955년 7월 2일〉

이듬해인 1956년 6월 19일에 시설보수를 마치고 개장되었는데, 이때에도 미 440부대와 국군 제1201건설공병단이 공사를 담당하였다.⁸ 이해에는 경기용 정규 풀장을 위시하여 대인용, 소인용, 아동용 등 총 4개의 풀장이 운영되었다.

관악산록의 수려한 풍치를 자랑하는 당시 안양유원지의 풀은 금년에도 동 유원지운영위원회의 활약으



1990. 7. 27
약담기념 촬영

1957년 안양풀장에서 찍은 약혼기념 사진(인형수 제공)

로 200만 환의 경비를 들여 경기용 정규 풀을 위시하여 대인용 소인용 아동용 등 4개 풀과 각종 운동경기장 각종 유희장 등 완전 수리하고 19일 상하 12시 내빈 다수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성대히 거행하는 동시 수영대회도 개최하였다.

〈‘안양유원지 개원’, 『조선일보』 1956년 6월 22일〉

시흥군보승회는 1956~1957년에 각각 200만 환의 예산을 들여 안양풀을 보수하였는데,⁹ 이러한 지속적인 시설 보수와 확충을 거쳐 안양유원지는 수도권을 대표하는 유원지로 자리를 잡아 갔다.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과 산수화 같은 자연풍경, 맛 좋은 포도, 현대적 시설에 교통까지 편리한 안양유원지는 도시민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곳이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을 막아 만든 안양풀은 주위의 자연풍경을 배경 삼아 마치 산수화를 그린 병풍을 두른 듯한 곳이다. 여름에는 유명한 포도가 미각을 돋구어주며 서울에서 교통도 가장 편하고 가족 동반의 하루로서는 알맞은 곳이다. 수시로 다니는 시외버스와 합승기차의 편의가 있고 자가용차로도 좋은 드라이브 코스로서 많은 사람을 이끌고 있다.

〈‘즐거운 하룻길 (9) 안양풀’, 『조선일보』 1959년 6월 13일〉

이 고을에서는 맛 좋은 포도가 다량으로 생산되어 앞으로는 포도주 양조장을 세워 외화 획득에 힘쓰겠다니 포도야말로 이 지방민의 충분한 생활토대가 될 만한 것이다. 또 서울시민을 상대로 봄, 가을로 공급하는 잠실리의 채소 그것과 함께 안양의 유원지는 4개의 풀을 가지고 주위에 포도원과 시원한 풍치가 있어 도시민들에게 매력적인 추파를 던지면서 주민들의 생활을 단단하게 꾸려 주고 있다.

〈‘활발한 공업·농업’, 『조선일보』 1959년 5월 31일〉

한국전쟁과 홍수로 시설이 파괴되는 위기를 맞았지만, 보승회의 노력과 미군 및 한국군의 지원을 통해 안양유원지는 전쟁 피해와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유원지로 자리 잡았다. 또한 안양유원지는 수도권 시민들에게 여가와 보건을 제공하는 공간이자, 전후 한국 사회가 회복과 안정을 되찾아 가는 모습을 읽을 수 있는 현장이었다.



1963년 안양유원지 입구(안양문화원 제공)

2. 1960년대 국민관광지로 성장한 안양유원지

안양유원지는 읍·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안양읍에서 관리하기 시작하였는데, 안양읍은 1957년 11월 23일 국가로부터 국유림 6만 3,270평을 대부받고 안양유원지 조례를 제정하여 1958년부터 운영해 나갔다. 그러나 1961년 시·군 지방자치제로 전환됨에 따라 안양유원지 관리 주체는 다시 시흥군으로 변경되었는데, 시흥군은 1961년 10월 1일 안양유원지가 자리하고 있는 국유림을 안양읍에게서 인수받았다.¹⁰

그 후 시흥군은 1962년 안양유원지번영회에게 안양유원지를 관리하도록 위탁하였다가 1966년부터 안양읍에게 관리를 맡겼으며, 1967년부터 유원지 관리사무를 안양읍에 위임하였다. 이어 시흥군은 1967년 9월 13일 안양유원지 국유림을 국가로부터 매수하였고, 1967년 3월 14일 2,460평의 국유림을 대부받았다가 1968년 3월 30일 매수하였다.¹¹

시흥군은 안양유원지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유원지에 호텔, 음식점, 산정, 매점, 탈의실, 주차장, 오락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 사용료

〈표 1〉 1963년 안양유원지 시설물 설치 지역

소재지	면적	소재지	면적
안양읍 안양리 산1번지	1정 2반 2묘	안양읍 안양리 산21번지	7정 4반 8묘
안양읍 안양리 산2번지	7정 5반 3묘	안양읍 안양리 산33-8번지	1정 2반 7묘
안양읍 안양리 산4번지	6묘	안양읍 안양리 산33-9번지	3반 0묘
안양읍 안양리 산5-1번지	9정 7반 4묘	합계(7개소)	82,800평

자료 : 「시흥군 안양유원지 조례」(1963년 3월 11일).

〈표 2〉 1963년 안양유원지 설치 가능 시설물 및 사용료

시설	개소수	사용료	위탁 시 사용료
호텔	1개소	여관협회에서 관의 인가를 받아 제정한 요금의 상당액	매년 군수가 정하는 입찰 가격 이상의 상당액
음식점	5개소	식업조합에서 관의 인가를 받아 제정한 요금의 상당액	점포당 4,000원 이상
산정(방갈로)	10개소	여관협회에서 관의 인가를 받아 제정한 요금의 상당액	1개소당 4,000원 이상
매점	20개소	매입원가의 1할 5부 이내를 가산한 액의 상당액	1점포당 2,000원 이상
탈의실	2개소	1인 1척당 10원, 단 귀중품은 20원 이하	1개소당 2,000원 이상
주차장	1개소	차 1대당 20원, 단 고급승용차 및 대형 트럭은 1대당 30원 이하	10,000원 이상
오락장		1인당 입장료 1시간 5원	1,000원 이상

자료 : 「시흥군 안양유원지 수가조례」(1963년 3월 11일).

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960년대 안양유원지는 서울 근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피서지 중 하나로, 여름철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더구나 1964년 1월 11일부터 서울 시내버스(삼양여객)가 안양까지 연장 운행을 시작하면서,¹²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에 한강, 송도해수욕장, 제주 천제연폭포 등과 함께 전국의 주요 피서지로 소개될 정도로 각광받았으며,¹³ 1960년대 후반에는 많을 때 하루에 4만~10만 명이,¹⁴ 연간 평균으로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명소가 자리 잡았다.

관악산 기슭 서울 근교 안양유원지에는 하루 평균 4만여 명의(일요일은 10여 만) 피서객이 모여들고 있다. 서울에서 당일 코스 40원이면 왕복할 수 있고 특히 시내좌석 버스가 운행되며 기차도 매시간 유원지 입구에서 정거, 피서객들을 위해 서비스하고 있다. 서울역에서 유원지까지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



1969년 안양유원지 전경(경기도청 제공)

는 안양유원지는 대소형 풀이 3개, 피서객들의 수영실력에 따라 물놀이를 즐길 수 있으면 산장(방가로) 과 어린이 놀이터, 골프장 등이 완비되어 있다. 더욱이 안양의 명물인 포도는 피서객들의 구미를 돋우어 줄 것이다.

〈「하루 평균 4만여 안양유원지에도」, 『매일경제』 1967년 7월 29일〉

다양한 여가 및 휴양시설들이 갖추어진 안양유원지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았다. 안양유원지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고, 산림욕과 피크닉 공간이 있어 피서객들은 수영을 마친 후 그늘진 곳에서 포도를 먹으며 여유를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관악산에 이르는 등산코스의 입구이기도 한 유원지는 신록이 우거져 아주 시원하다. 10만 명까지 놀 수 있는 이 유원지 계곡에는 여관, 호텔, 음식점, 상점, 풀장, 사격장, 회전그네, 방갈로, 카바레, 주차장 등 시설이 있다. 지난 주일에는 약 3천 명 정도의 휴양객이 몰려들었다는 안양은 점점 손님들이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안양까지의 차편은 서울역에서 평균 5분 만에 1대씩 있고 서울시청 앞에서 안양까지 가는 급행버스가 4분 만에 1대씩 떠난다.

〈「안양유원지」, 『조선일보』 1968년 5월 30일〉

호텔과 음식점 등이 늘어나면서 어린이날, 약혼식, 회갑연과 같은 가족 행사도 이곳에서 치러졌다. 1962년 5월 대통령이 되기 전,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려 하였는데, 이때 가족과 함께 찾은 곳이 가족 단위 위락시설로 인지도가 높았던 안양유원지였다.

(박정희 의장은) 지난 6일 일요일만 해도 온 가족을 데리고 불고기와 냉면을 잡수러 시내 음식점을 찾고, 다시 안양유원지로 향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 등 어린이와 어머니날을 앞뒤로 한 가정주간에 베풀 장군의 섬세한 서비스는 듣는 이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 준다.

〈「과목 속에 감춰진 어짐」, 『조선일보』 1962년 5월 10일〉

『조선일보』는 ‘바캉스 절정’이라는 제목으로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피서지를 소개하였는데, 서울에서 택시로 30분, 버스로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안양 유원지도 포함되었다.



1968년 안양유원지 풀장에서 수영을 즐기는 개구쟁이들(경기도청 제공)



1968년 안양유원지 제1폴장(경기도청 제공)



1968년 안양유원지 제2폴장(경기도청 제공)



1966년 안양유원지 제3폴장(국가기록원 제공)



1968년 안양풀장에 진열되어 있는 수영복과 튜브(경기도청 제공)



1968년 안양유원지 대형풀장과 탈의장(경기도청 제공)



1968년 대형풀장(경기도청 제공)

가족 동반으로 무더운 일요일의 한때를 즐길 수 있는 서울 주변의 간이 피서지를 살펴보면-안양풀 서울에서 택시로 30분, 버스로 40분 거리. 안양유원지 주차장에서 200m쯤 올라가면 어린이 풀이 있고, 여기서 또 100m쯤 올라가면 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안양풀, 그리고 다시 50m 오르면 장모 씨가 800만 원을 들여 올여름 개장한 맘모스풀이 나타난다.<「바캉스 절정」, 『조선일보』 1968년 7월 28일>

안양유원지는 개인적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행사가 치러지는 장소로도 인기가 높았는데, 안양 인근에 소재한 회사나 조합, 학교, 군부대, 교회 등의 단체 행사와 각종 친목 모임 및 체육 행사가 이곳에서 개최되었다. 1960년 7월 6일에는 전국 각지의 화학회사 노동자 대표들이 모여 '화학노조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서는 삼덕제



1968년 개장한 맘소풀장(경기도청 제공)

지회사의 박영성 위원장이 개최사를 진행했으며, 새로운 전국위원장으로 김병균이 선출되어 노동자 복지를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¹⁵ 이를 통해 안양유원지가 노동자 연대와 단합의 장소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 7월 22일에는 육군 제505병기단 306대대 주최로 수영대회가 열렸다.¹⁶ 가톨릭 의과대학 학생회는 1962년 10월 14일, 100여 명의 학생과 교수진이 참가한 사이클 하이킹 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서울 성모병원에서 출발한 이들은 용산-노량진을 지나 안양유원지까지 사이클을 타고 도착했으며, 유원지에서 점심과 여흥을 즐기며 피로를 풀었다.¹⁷

전국 단위 피서지였던 안양유원지에는 여러 편의시설이 제공되었다. 1962년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국립도서관이 주최한 ‘임간문고’가 안양유원지에 설치되었다. 약 800권의 도서가 무료로 제공되었으며, 피서객들은 수영과 산림욕을 즐긴 후 독서를 통해 지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첫날부터 156명의 독서가들이 찾았으며, 대부분이 방학을 맞아 놀러 온 서울 지역 중·고등학생과 초등학생들이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64년 7월에도 안양유원지에 임간문고를 다시 한 번 설치하였다.¹⁸ 또한 체신부는 1966년 7월 안양유원지를 비롯하여 전국 13개 해수욕장과 관광지에 우체국 임시출장



안양유원지에 설치된 임간문고(『경향신문』 1962년 7월 27일)



안양우체국 안양유원지 임시출장소 스탬프

소를 설치하여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¹⁹

한편, 1960년대 정부는 외국 관광객 유치로 국제수지의 개선과 민간외교의 증진을 기하고, 국민의 건전한 정신 함양을 밑받침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개발에 획기적인 계기



1969년 맘소풀장(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1969년 맘모스풀장(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1969년 3월 신축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안양관광호텔(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를 가져오기 위해 전국 각 지방의 관광자원개발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안에는 기존 시설 확장·개량, 관광도로 건설, 관광호텔 증설, 청소년 숙박시설 개발 등이 포함되었고, 이 계획에 따라 관광사업5개년계획이 작성되었다.²⁰ 이에 정부는 1967년부터 관광개발 정책을 추진하며, 안양유원지 주변에 관광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총연장 300km의 장기 관광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제2차 5개년계획 기간 중 193km를 완성할 계획이다. 제2차 5개년계획 기간 중 착수할 중요지역은 다음과 같다. 안양유원지 2km, 대천해수욕장 10km, 경포호·오죽헌 5km, 경주 6km, 석굴암·불국사 12km, 범어사 4km, 주문진 1.5km.

〈「도로근대화 미개발상태의 우리 길」, 『경향신문』 1966년 11월 26일〉

1967년 법무부는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수들을 대상으로 한 갱생건설단을 조직하여 매일 200명씩 안양유원지 도로 확장공사에 투입하였다.²¹ 이러한 노력으로 안양유원지는 더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1967년 교통부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광지 지정제도를 마련한 후 각 시도로부터 관광지 지정 신청을 받았다. 10월 26일 교통부 관광국은 전국 관광지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정리하고, 관광지 미화를 통한 종합개발을

위해 교통부가 세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광지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교통부에 신청해 온 관광지 지정 희망지역은 무주 구천동, 설악산, 강릉, 광주 무등산, 여수 오동도, 청평유원지, 안양유원지, 인천 송도, 부산 태종대, 동래 금강공원이었다.²²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에는 투자·용자 혜택과 정책적인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이에 1968년 12월 27일에는 제4차 관광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국 20개 지역을 관광지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의결하였는데, 그 관광지에 안양유원지가 포함되었다.



지정관광 위치도(『경향신문』 1972년 12월 12일)

제4차 관광정책심의위원회가 27일 기호조정실 상황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우량관광업체에 대한 포상제도를 새로 마련할 것과 전국에 20개 지역을 관광지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개발하기로 의결했다

관광지로 선정된 지역

부산 - 태종대공원, 동래 금강공원

경기 - 안양, 송도, 청평 유원지

강원 - 춘천, 설악산, 강릉

충북 - 속리산, 수안보온천, 단양팔경

충남 - 부여, 대천해수욕장

전북 - 내장산, 무주 구천동, 변산반도

전남 - 무등산, 오동도, 백양사

경남 - 해인사

〈『우량업체 포상키로 관광심의위 의결』, 『매일경제』 1968년 12월 28일〉

이어 1969년 교통부 고시 제2336호에 따라 안양유원지는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안양유원지가 전국 단위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지녔음을 인정받은 것이었다. 국





1970년 개장식 날 안양풀장에서 바라본 안양관광호텔(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1930년 개장일에 안양관광호텔 풀장과 맘모스풀장에 모인 피서 인파(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1970년 피서 인파로 가득한 안양풀장(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민관광지 지정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리를 받게 됨으로써 안양유원지는 관광 인프라 개선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연중 관광객이 찾는 종합 휴양지로 발돋움하고자 했다.

1969년 국민관광지 지정과 1970년 안양관광호텔 개장은 안양유원지의 전성시대를 알리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국가가 지정한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안양유원지에 고급 관광시설인 안양관광호텔이 개장함으로써 안양유원지 발전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는 한층 더 높아져 갔다. 이처럼 두 계기를 전후로 한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는 안양유원지 역사에서 가장 많은 피서 인파가 몰렸으며, 그 명성을 전국적으로 떨쳤다.

3. 1950~1960년대 일탈공간으로서의 안양유원지

안양유원지는 서울 및 수도권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대표적 휴양지로 자리 잡았지만, 다양한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는 현장이기도 했다. 일상에서 벗어난 공간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일탈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의 부족, 전후 혼란기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를 반영하는 사건 등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다. 1950~1960년대 안양유원지에서 발생한 사건과 사고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① 안전사고 ② 패싸움과 폭력사건 ③ 강·절도사건과 도주범 ④ 자살 및 사고사 ⑤ 교통사고와 자연재해이다.

안양유원지는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한꺼번에 수만 명이 몰리는 곳인데다가 안전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당시의 환경 탓에 익사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1959년 8월 15일 서울 마포구 거주자인 이진순이 안양풀에서 수영 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즉사한 사건이 일어났다.²³ 1962년 8월 2일에는 안양유원지 수영장에서 서울 송실고등학교 학생이 심장마비로 익사하였다. 이 해에 여름철 피서객이 대거 몰린 8월 13일에 안양풀에서 총 4명의 남녀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1968년 6월 23일에도 안양유원지에서 서울 광희중학교 학생이 수영 중 익사하였다.²⁴

안양유원지에서는 불량배 간의 패싸움, 절도 및 강도 사건 등이 발생하며 치안문제도 나타났다. 1955년 5월 6일 안양유원지에서 술을 마시던 두 여성이 싸움을 벌이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까지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²⁵ 또한 1956년 9월 8일 안양유원지에서 소풍 중이던 해병대원 8명이 미군 트럭 운전수를 납치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당시 미군과 한국군 간의 갈등과 치안 문제를 보여 주는 사례로, 사건의 경위는 사소한 언쟁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던 안양풀장(경기도청 제공)

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치안국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지난 8일 하오 3시경 경기도 안양유원지에서 한국 해병대원 8명은 인천 월미도 주둔 미군 813부대 소속 트럭 운전수 김채 씨를 납치하여 갔는데 9일 정오 현재 그 행방을 모른다고 한다. 그런데 김씨가 납치된 경위는 유원지에 소풍차 갔던 해병대원 8명이 때마침 같은 곳에 놀러 온 미군 4명과 언쟁이 벌어졌는데 그 후 미군들이 돌아가기 위하여 대기시키고 있는 트럭에 탔을 때 해병대원들이 차에다 돌팔매질을 하여 차의 유리창이 깨어져 운전수 김씨가 하차하자 미군들은 김군을 남겨둔 채 그 차를 운전하여 도망하였고 그 후 해병대원들은 김군을 용남버스에 강제 승차시키고 영등포 방면으로 가버린 것이라고 한다.

〈「운전수 한인을 납치」, 『동아일보』 1957년 9월 10일〉

1958년 7월 28일 유원지에 출입 금지된 차량을 몰고 들어가려던 기관원들이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집단 폭행하여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하였는데,²⁶ 이 사건은 군대나 권위적 기관들의 폭력과 횡포가 만연하던 전쟁 직후의 사회상을 보여 준다.

1962년 8월 6일에는 안양풀에서 캠핑하던 사람들이 탁구 요금 400환을 두고 싸움을 벌여 서로에게 중상을 입혔다. 그 후 1965년 5월 16일에는 안양유원지 풀장에서 지역 불량배들 간에 패싸움이 벌어졌는데, 유재철 일당 12명과 윤경로 일당 16명이 돌팔매질을 하며 싸워 소년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²⁷ 이러한 예상치 못한 폭력사건으로 주말을 맞아 유원지에 온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유원지에서는 강·절도사건도 자주 일어났다. 1959년 5월 10일 안양유원지에서 안양 거주 학생들이 서울에서 놀러 온 학생들을 단도로 위협하여 현금 5,200환을 강탈한 사건이 발생하였다.²⁸ 경찰의 빠른 대처로 가해 학생들이 체포되었지만, 청소년문제와 치안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1962년 6월 10일 서울 경기고등학교 3학년생 4명은 안양풀에서 캠핑을 하던 중 강도를 당하였는데, 범인 박충근은 도끼와 과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뒤, 수통 외 14점을 강탈하여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었다.²⁹ 또한 1963년 8월 17일 절도 조직인 '심종갑 일당' 12명이 안양풀 근처에서 캠핑하며 유람객들의 물건을 도둑질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 세칭 '똥바가지파'로 알려진 이들 소년절도단은 2년간 서울 대방동과 신길동 일대에서 활동한 조직으로, 절도 장부를 통해 최소 60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유원지 내 집단폭행사건(『동아일보』 1957년 9월 10일; 『동아일보』 1958년 7월 30일)



안양유원지 내 절도사건(『경향신문』 1962년 6월 21일; 『동아일보』 1963년 8월 17일; 『경향신문』 1967년 6월 1일)

17일 상오 5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대는 안양풀 근처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 심종갑을 두목으로 하는 절도나 12명을 일망타진하고 문초 중이다. 이들 일당 12명은 2년 전부터 주로 서울 대방동과 신길동 일대에서 도둑질을 해 왔었는데 요즘 안양풀에 집단적으로 옮겨 두 개의 텐트에 나누어 자취를 해 가면서 유람객들의 주머니를 털곤 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도둑질을 한 날짜와 지출을 명기한 장부를 갖고 있었는데 장부에 기재된 도둑질만도 60여 회에 달하고 있다.

〈『피서객 털기 60회』, 『조선일보』 1963년 8월 18일〉



1970년 안양유원지 오락장(경기도청 제공)

1967년 9월 29일 초등학교 학생들을 이용한 절도단이 안양유원지에서 활동하는 것이 적발되었다. 절도단 두목 주영범과 김용수 등이 20명의 어린이들을 꺾어 피서객을 상대로 도둑질을 시키는 방식이었다.³⁰

이 외에 1958년 5월 25~27일 범행 후 탈출한 탈옥범 박설원이 안양유원지와 주변 산악지역을 은신처로 삼아 며칠간 숨어 있다가 검거되었고,³¹ 1967년 6월 1일 영등포상업은행 강도사건 용의자를 안양유원지에서 검거하기도 하였다.³² 이는 유원지가 도피처로 활용될 만큼 교외이고 치안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보여 준다.

한편으로 유원지는 개인의 극단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기도 했다. 1961년 9월 한 여성이 안양유원지 수영장에서 자살을 시도하였다. 그녀는 남편이 사망한 후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또한 1962년 7월 16일 안양읍 안양리의 풍미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약혼자와 함께 안양유원지를 방문한 후 귀가하여 음독자살하였다.³³

안양유원지 주변에서는 차량사고도 종종 발생하였고 자연재해로 인사사고가 나타나기도 했다. 1962년 9월 8일 밤 10시 40분경 안양유원지 입구 국도에서 육군본부 관리참모부 소속 지프차가 대형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제7헌병대 소속 김택규 병장이 즉사하고, 이수준 병장과 동승자가 중상을 입었다.³⁴ 또한 1968년 8

월 22일 안양유원지 내 상점이 산사태로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³⁵

이렇듯 1950~1960년대 안양유원지는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다양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여름철 익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며, 치안이 불안한 시기에는 폭력사건과 절도 범죄가 빈번하였다. 또한 유원지에서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며, 유원지로 가는 도로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양유원지는 접근성이 좋은 서울 근교 휴양지로서 많은 방문객을 끌어모았고, 관광지의 위상도 강고하였다.

註

- 1 안양요양소에 허약아를 교대 수용, 『조선일보』 1949년 6월 6일.
- 2 「안양풀 개장, 『조선일보』 1949년 7월 16일; 안양풀 개장 임시열차도 운전, 『경향신문』 1949년 7월 20일.
- 3 「안양풀 개장, 『조선일보』 1952년 7월 8일.
- 4 「안양에 임간문고 국립도서관에서, 『조선일보』 1953년 7월 26일.
- 5 「안양풀 개장 확장 각종 경기장도 신설, 『조선일보』 1954년 6월 13일.
- 6 「유원지 개원을 기념 직장대항배구대회, 『조선일보』 1954년 7월 10일.
- 7 「안양에 새로운 풀 설치, 『조선일보』 1955년 5월 23일.
- 8 「19일 개원식 안양풀 유원지, 『동아일보』 1956년 6월 20일.
- 9 「안양유원지 개원, 『조선일보』 1956년 6월 22일; 「안양풀 보수 공사, 『경향신문』 1957년 5월 7일.
- 10 「1976 안양유원지 현황(안양시 내부자료).
- 11 「1976 안양유원지 현황(안양시 내부자료).
- 12 「안양까지 연장 시내버스 운행, 『조선일보』 1964년 1월 11일.
- 13 「포도로 이름 높은 안양풀의 수환(水歡), 『조선일보』 1963년 8월 4일.
- 14 「남녀 넷 익사, 『동아일보』 1962년 8월 13일; 과열 지대 피서열도 최고, 『경향신문』 1964년 7월 27일.
- 15 「안양유원지에서 화학노조연차대회, 『조선일보』 1960년 7월 6일.
- 16 「수영대회 성료, 『조선일보』 1960년 7월 27일.
- 17 「단풍 든 가도를 누빈 은륜행렬(銀輪行列), 『경향신문』 1962년 10월 15일.
- 18 「안양유원지에 임간문고(林間文庫) 설치, 『동아일보』 1963년 7월 17일; 무료 임간문고 국립도서관서 안양유원지에, 『동아일보』 1964년 7월 23일.
- 19 「임시우체국을 마련 해수욕장 및 관광지, 『매일경제』 1966년 7월 6일.
- 20 이경원, 『한국 행정 60년 : 관광행정의 변천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한국행정연구원, 2008, 6쪽.
- 21 「형기 1/2치르고 잔형 2년 미만의 모범수 건설사업에 투입, 『조선일보』 1967년 3월 22일; 「건설사업 등에 동원, 『조선일보』 1967년 3월 22일.
- 22 「도로근대화 미개발상태의 우리 길, 『경향신문』 1966년 11월 26일.
- 23 「수영하다 처녀 익사, 『동아일보』, 1959년 8월 18일.
- 24 「안양풀서 익사, 『경향신문』 1962년 8월 3일; 「중학생이 익사, 『경향신문』 1968년 6월 24일.
- 25 「색연필, 『조선일보』 1955년 5월 6일.
- 26 「순경에 집단폭행, 『동아일보』 1958년 7월 30일.
- 27 「탁구요금으로 격투, 『경향신문』 1960년 8월 6일; 「안양서 패싸움, 『조선일보』 1965년 5월 18일..
- 28 「학생이 단도로 공갈, 『조선일보』 1959년 5월 18일.
- 29 「흥기들고 물건강탈, 『경향신문』 1962년 6월 21일.
- 30 「도둑질 강요 국민교생 20명 피어, 『경향신문』 1967년 9월 30일.
- 31 「살인간첩 박 드디어 체포, 『조선일보』 1958년 5월 31일.
- 32 「상은(商銀) 갱, 범인물(犯人乙)과 비수 용의자 1명 검거, 『경향신문』 1967년 6월 1일.
- 33 「홍은동에 일가족 집단자살, 『동아일보』 1961월 9월 21일; 식모가 음독자살, 『동아일보』 1962년 7월 18일.
- 34 「두 사병 사상 동승했던 여인 중태, 『동아일보』 1962년 9월 10일.
- 35 「경인서 26명 압사 중부 일원에 집중폭우, 『동아일보』 1968년 8월 23일.

제3장

1970년대 안양유원지 운영계획과 개발계획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1. 1970년대 안양유원지 운영계획

서울 남쪽 약 25km 지점, 삼성천 일대에 위치한 안양유원지는 1969년 1월 21일(교통부 공고 제2336호)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1971년 7월 1일 안양유원지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국민관광지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조치였으며, 이후 유원지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73년 안양읍이 시로 승격되었고, 안양시는 안양유원지 운영과 개발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새롭게 정비해야 했다.

시 승격을 바로 앞둔 안양 일대는 시로의 탈바꿈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이었다. 안양유원지의 개발도 주민들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관악산 밑 1백84만평의 안양유원지는 69년 국정관광지로 지정됐으면서도 71년 7월 서울 그린벨트 고시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버려 사실상 개발이 중단돼 있는 상태. 서울 등 인근 도시에서 등산객, 관광객들이 몰릴 전망이 크지만 현재의 시설로는 도저히 이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어떻게 돼갑니까. 르포 독자들의 내 고장 궁금증을 푼다 안양', 『조선일보』 1973년 6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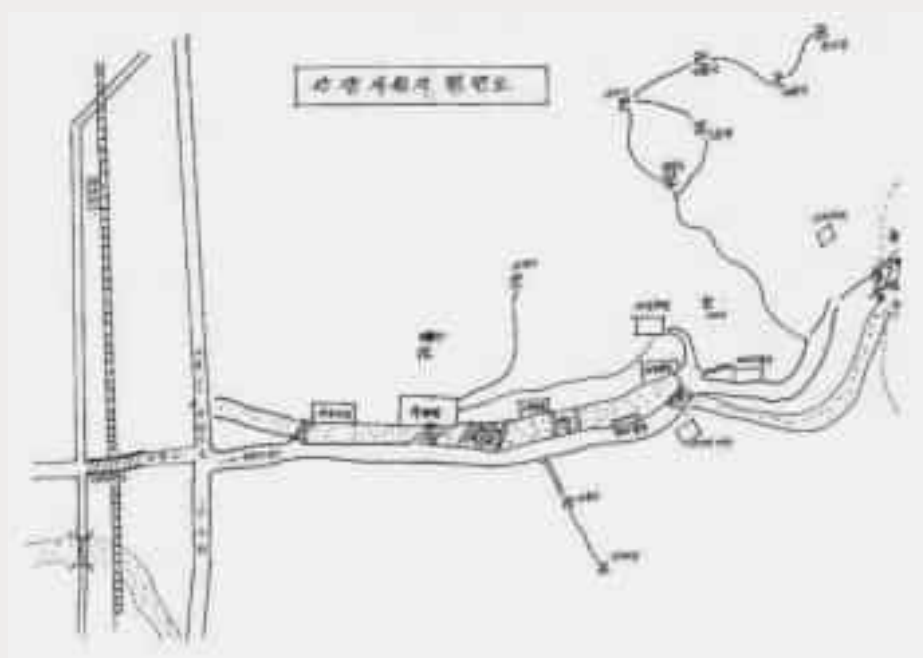
교통부장관이 국민관광지로 지정 고시한 안양유원지 구역은 안양시 석수동 산241번지와 안양2동 산5번지 일대 6.45㎢이다. 이 구역 내 관광자원은 보트장(2개소)과 풀장(4개소), 사찰(11개소) 등이고, 관광시설은 호텔(1개소), 여관(13개소), 방갈로(1개소), 카바레(1개소), 식당(36개소), 매점(76개소), 유기장(12개소)이었다.



1970년대 안양유원지 입구(최창선 제공)



1970년대 안양유원지 출구(최창선 제공)



①

②

① 1976년 안양유원지 평면도(안양시청 제공)

② 1974년 안양유원지 현황도(안양시청 제공)

1974년 현황도에는 안양폴장이 폴장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1976년 평면도에는 보트장으로 표기되어 있다.





1970년대 안양유원지 전경(이정범 제공)



1970년대 안양유원지 도로(이정범 제공)



1970년대 안양관광호텔 수영장과 만안각 수영장 진입로(이정범 제공)

〈표 1〉 안양유원지 개발계획 면적

(단위 : m²)

계	전	임야	잡종지	대지	비고
315,000	10,000	178,000	65,000	62,000	교통부고시 면적 6.45km ²

자료 : 『안양유원지 개발계획(1978)』(안양시 내부자료).

〈표 2〉 안양유원지 관광자원

시설	수량	비고
보트장	2개소	유원지보트장, 은하수보트장
풀장	4개소	관광호텔, 만안각, 대형, 맘모스
사찰	11개소	안양사, 염불암, 삼막사, 상불암, 망월암, 보장사, 망해암, 천인암, 수도사, 극락암, 안흥사

자료 : 『안양유원지 특별육성계획(1976)』(안양시 내부자료).

〈표 3〉 안양유원지 관광시설

(단위 : 개소)

계	호텔	여관	방갈로	카바레	식당	매점	유기장
140	1	13	1(15동)	1	36	76	12

자료 : 『안양유원지 특별육성계획(1976)』(안양시 내부자료).

안양시는 안양시 관광유원지 조례를 제정하였고, 안양유원지 관리를 경기관광협회 안양유원지 특별지부에 위탁하였다. 사단법인 경기관광협회 안양유원지 특별지부는 “관광지 개발을 촉진하며 효과적인 선전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국책 시행에 기여하며 관광지 개발과 운영의 합리화를 기도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¹⁾으로 1967년 설립되었다. 회원은 “안양유원지에서 관광적인 상대로 영업을 경영하는 자, 안양유원지 내에서 토지 또는 시설을 소유한 자, 안양유원지 내에서 관광사업에 관련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지부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안양유원지 내에 거주자”²⁾로 규정되어 있다.

1976년 경기관광협회 안양유원지 특별지부의 지부장은 박영호, 부지부장은 이응성이었고, 개발위원회 위원 김기준, 한헌교, 박태진, 권수창, 정화위원회 위원은 이관식, 문홍석, 이종덕, 민현국, 녹화위원회 위원은 심현진, 신민용, 이극복이었다.³⁾ 경기관광협회 안양유원지 특별지부는 관광유원지 조례에 따라 유원지 시설을 사용료, 점용료 등을 징수하여 유원지를 관리하였다.

안양시는 안양유원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 1976년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안양유원지 종합운영계획은 유원지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단기·



1970년대 안양유원지 사무실(이정범 제공)

중기·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지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운영 방식에서도 시 직영과 공공단체 위탁 운영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안양유원지의 운영계획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단기 계획에서는 기본적인 시설 정비와 관리체계 구축에 집중하며, 중기 계획에서는 본격적인 편의시설 확충과 관광 활성화 전략이 추진되었다. 장기 계획에서는 유원지를 사계절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단기(1년 이내), 중기(5년 이내), 장기(10년 이상)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하였다. 각각의 단계에서는 시설 확충, 환경 정비, 관광 콘텐츠 개발 등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유원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1970년대 대형풀장(이정범 제공)



1970년대 맘모스풀장(이정범 제공)



1970년대 인양관광호텔풀장(최창선 제공)



1970년대 만안각풀장(이정범 제공)



유원지보트장(이정범 제공)



은하수보트장(안양시청 제공)



유원지보트장(이정범 제공)



은하수보트장(이정범 제공)

〈표 4〉 안양유원지 단기 운영계획(1년 이내)

시설명	사업량	소유액(천원)	비고
공중화장실	5개소	2,000	
가로등 설치	20개소	1,000	
철조망 및 철주	3.5km	20,000	유원지 한계를 전부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3.5km 설치
경외 주차장 설치	3,000평	별도 예산	산업도로로부터 100m 이내 설치
공중전화	5개소	150	
유원지 정문 설치	1개소	1,000	현 유원지 입구 표시된 곳
관리사무실	1개소	3,000	유원지 경내 주차장 내
전망대 설치	1개소	1,000	유원지 내에서 제일 높은 곳
꽃 박스	5개소	250	
간이급수시설	5개소	1,000	
가로수 식재	120본	600	
산지 식수	200본	600	보기 좋은 곳에 집중 식수
벤치 설치	20본	200	
하수도공사	480m	2,000	각 풀장 및 인근 업소
진입로 보수	5개소	4,000	유원지로 들어오는 모든 통로
하천 보수	2km	3,000	농대림부터 제2보트장 간
건물 보수	70동	비예산	경내 허가된 건물(소유주 부담 보수)
매표소 설치	20개소	600	
스케이트장 설치	2개소	비예산	현 2개 보트장
계곡 물 처리	10개소	2,000	경내 각 계곡에서 흐르는 물 처리
잡상인 및 무허가 건물 정비	20개소	1,000	각종 공작물 및 무허가 잡상인
유원지 관리인 인건비	43인	9,240	소장, 경비원, 매표인
수용비		4,000	매표 인쇄 및 기타사무비
계		56,040	

자료 : 『안양유원지 특별육성계획(1976)』(안양시 내부자료).

단기 계획의 핵심 목표는 기본적인 시설 정비와 운영·관리체계 구축에 있었다. 이를 통해 유원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중기 운영계획(5년 이내)에서는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었다. 편의시설과 레저시설이 대폭 확충되며, 유원지의

종합적인 관광 매력이 강화되도록 구성되었다. 중기 계획에서는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오락시설과 휴게시설을 확충하고, 좀 더 체계적인 환경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표 5〉 안양유원지 중기 운영계획(5년 이내)

시설명	사업량	비고
순환도로 포장	2km	유원지 경내 주차장과 유유산업 뒤로 뚫린 도로(별도계획 수립 시행)
휴게소 설치	9개소	경내 설치
각종 오락시설	10개소	민간자원 유치 설치
조경사업	20개소	도로변 및 공터 일체(별도계획 수립 시행)
주차장 포장	2개소	경내 및 경외 주차장
사찰 출입도로 신설	3개소	경내 각 사찰 진입로 신설(별도계획 수립 시행)

자료 : 「안양유원지 특별육성계획(1976)」(안양시 내부자료).

장기 운영계획(10년 이상)은 안양유원지를 사계절 관광지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대규모 관광 인프라 개발이 포함되었다. 장기 운영계획에는 유원지를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기 위한 전략적 개발이 포함되었는데, 케이블카·스키장·저수지 등의 시설 설치와 도로 포장이 계획되었다.

〈표 6〉 안양유원지 장기 운영계획(10년 이상)

시설명	사업량	비고
케이블카 설치	1개소	전망대로부터 농대림 입구 자연상회 앞
사찰 출입도로 포장	3개소	
스키장 설치	1개소	망해암 뒤로부터 적지조사 설치
저수지 설치	1개소	농대림 상류지역을 선정 추진

자료 : 「안양유원지 특별육성계획(1976)」(안양시 내부자료).

운영방식에서는 안양시가 직접 운영할 경우와 공공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에 발생하는 각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도 검토되었다. 결과적으로 공공단체 위탁 운영을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 마련한 안양유원지 운영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재원이 확보되어야 했고, 그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 설정에 따른 개발 제한을 해결해야 했다.

〈표 7〉 안양유원지 운영방식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구분	문제점	대책
시 직영 운영 관리	단기 계획에 의한 시설 투자가 어려움(단기계획에 의한 시설비는 본 조례 시행 이전에 투자되어야 시행 가능)	자금을 많이 보유한 공공단체와 협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조건하에 자금을 당년에 투자 개발(개발에 투자된 금액은 연차적으로 상환)
	경외 주차장이 없으므로 사고 미연 방지 어려움	공공단체에 시설 위탁
	유원지 관리 공무원 배치 어려움	공무원법에 의거 정원 요청 배치
	경내 사유지 소유자의 자체 개발능력 없음	대지 소유자의 대지 및 임야를 담보로 융자금 알선
	경내 무질서한 주택의 정비 어려움	주민과 협의 건물 및 대지를 담보로 융자 알선
	임대 계약된 사항의 변경이 어려움	계약자에게 취지를 인식시켜 협의
	출입자 통제가 어려움	주민에게 사전교육, 시장이 발행한 증명서 휴대케 함
공공 단체 위탁 운영 관리	위탁 운영이 가능한 공공단체 물색에 어려움 (충분한 자금과 인력을 갖춘 공공단체가 적음)	안양시 관내 제 단체를 우선 물색하되 없을 경우 경기도 내 전 단체를 대상으로 물색
	위탁경영할 시 주민과 협의 결여 우려	시장에 위탁 경영자와 주민과의 사이에서 조정 처리
	임대 계약된 사항의 변경이 어려움	시장이 조정 타결
	출입자 통제가 어려움	주민에게 사전교육 및 관계자를 조사, 시장이 발행증명서를 휴대케 함

자료 : 『안양유원지 특별육성계획(1976)』(안양시 내부자료).

2. 1970년대 안양유원지 입장료 징수

안양유원지는 서울에서 가까운 국민관광지로 지정되면서 1970년대 초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였다. 그러나 관광객 증가에 맞게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또한, 유원지 운영을 위한 인력과 관리비용이 증가하면서 무료입장 체제로는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1974년 관광진흥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유원지를 유료화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였다. 이에 1974년 6월 1일 안양시장은 경기도지사에게 안양유원지 유료화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신청서에 따르면 유료화 추진의 주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유원지 환경보호 및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관광객 증가에 따라 시설 노후화가 가속되었고, 이를 보수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였다. 입장료를 징수함으로써 시설 관리 비용을 확보하고, 관광지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관광지의 체계적인 개발 및 운영을 촉진하는 것이다. 입장료 수익을 활용하여 조경사업, 공중화장실 확충, 도로 정비, 하수도 및 조명 설치 등의 인프라 개선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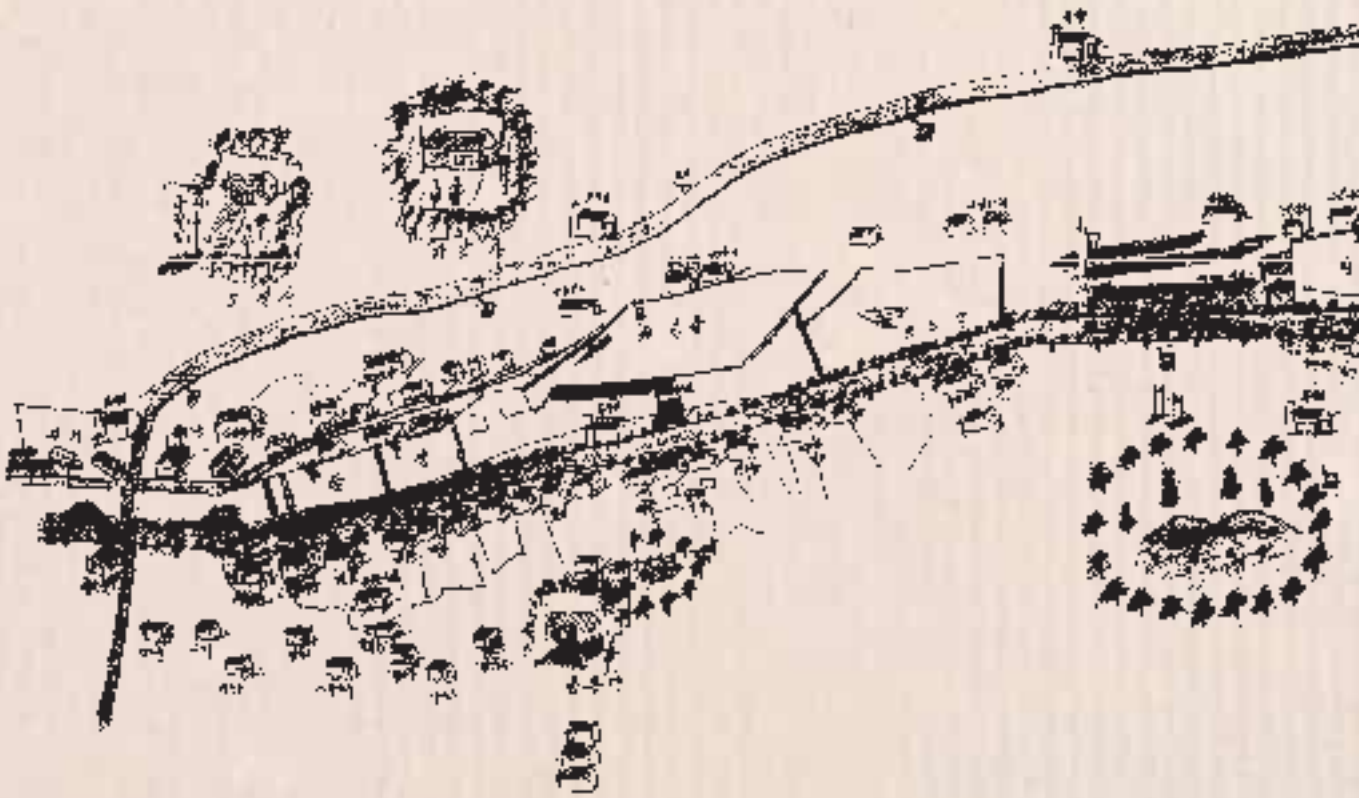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 세수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유료화는 단순한 입장료 징수를 넘어, 관광산업과 연계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이었다. 유원지 내 식당, 숙박시설, 오락시설 등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입장료 징수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지역사회 공공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1974년 6월 1일자로 작성된 유료화 승인 신청서에는 유료화 추진의 목적과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승인 요청사항도 명시되었다. 입장료 징수 계획에 따르면 매년 4~10월(7개월간) 안양유원지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에게 대인 30원, 소인 20원을 징수하되, 징수된 입장료 수익은 시설 개선과 공공시설 확충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원지 유지·관리 및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안양시의 안양유원지 입장료 징수 승인 신청에 대해, 1974년 6월 12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완을 요청하였다.

- ① 유원지 현황도 및 개발 조감도 제출 :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시설 확충계획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 개발이 포함된 조감도를 요구
- ② 수입·지출 계획의 특별회계 운영 필요성 : 입장료 수익은 특별회계로 운영해야 하며,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입장료 수익이 별도의 재정 운용방식으로 관리될 것을 요구
- ③ 입장료 징수를 위한 사전 시설 계획 필요 : 입장료를 징수할 매표소 및 검표소 설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유원지 내 매표소·검표소 설치계획 제출 요청
- ④ 연차별 관광객 유치 및 수입 계획 요구 : 유료화 후 관광객 감소 가능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과 예상 수입계획을 제시해야 함
- ⑤ 유료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마련 요구 : 관광객 반발, 현지 주민 출입문제, 등산객 입장료 부과 문제 등 해결 방안을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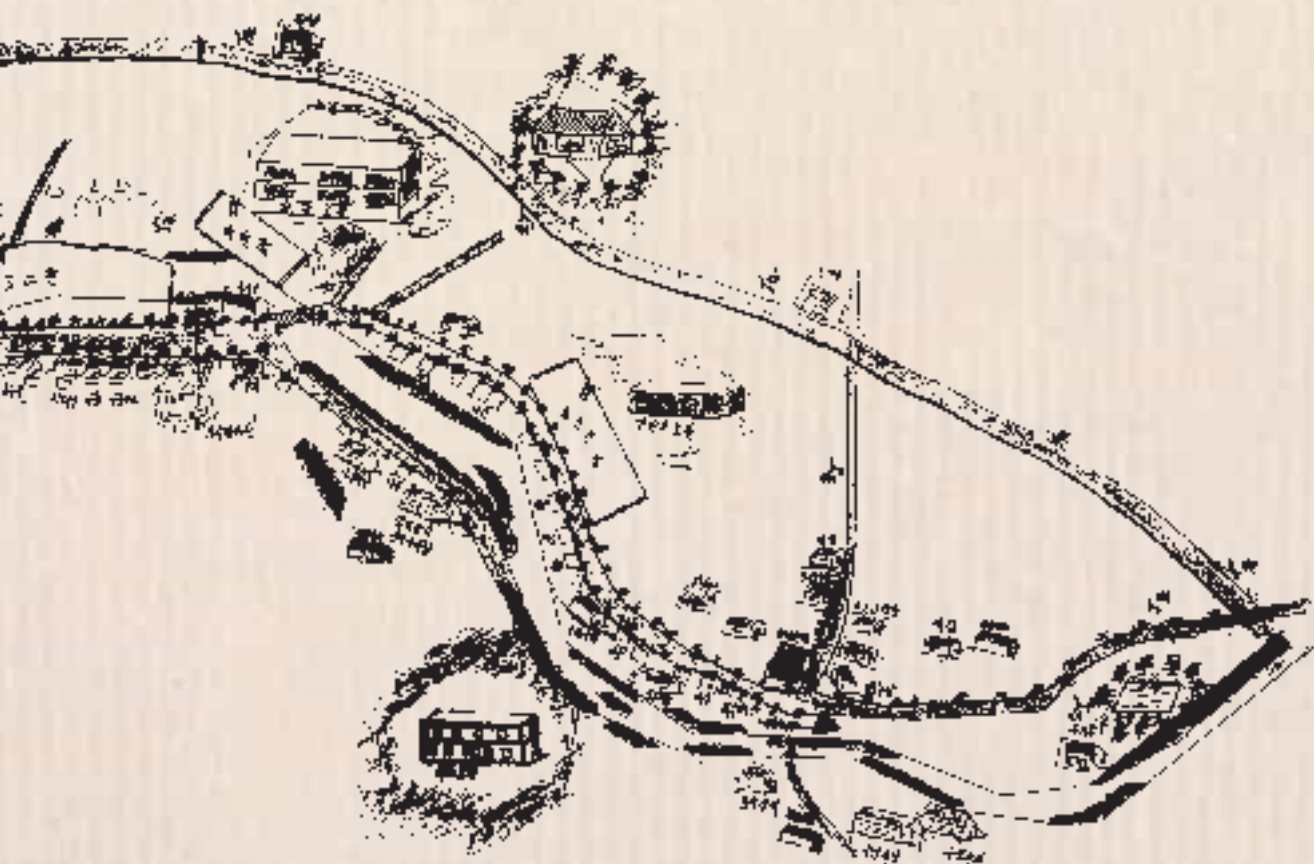
안양유원지



1974년 안양유원지 개발조감도(안양시청 제공)

개발조감도

1:1200



경기도의 보완 요청에 따라, 안양시는 1974년 6월 12일자로 보완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때 제출된 연도별 수입 및 지출 계획과 유료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표 8> 및 <표 9>와 같다.

<표 8> 연도별 안양유원지 수입 및 지출 계획

연도	예상 관광 인원(명)	수입(원)	지출(원)
1974	1,591,050	38,185,200	28,809,210
1975	1,943,831	56,027,930	46,228,766
1976	1,943,831	56,451,104	54,378,766
1977	1,043,832	48,724,218	47,378,766
1978	2,002,466	49,396,992	49,396,992
1979	2,022,210	48,533,040	48,533,040
1980	2,082,210	49,673,040	49,973,040

자료 : 『유원지유료화승인신청(1974)』(안양시 내부자료).

<표 9> 안양유원지 유료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대책
개발제한구역 설정으로 제반 시설 투자 못함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의
유료화에 따른 종사원 문제	종사원 증원 요청
유료화에 따른 제반 시설(부대시설) 설치 예산	일반예산에서 차용하고 회기말에 상환
상주하는 주민에 대한 입장료 문제	상주 주민에게 출입증 발급
등산객에 대한 입장료 문제	등산코스는 유원지 코스와 삼막마을 코스가 있는데 거리로 보아 유원지 입구에서 삼막 코스가 가까우므로 삼막 코스로 돌린다.

자료 : 『유원지유료화승인신청(1974)』(안양시 내부자료).

안양유원지 유료화 승인 신청 과정은 단순한 입장료 부과 결정이 아니라, 관광지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이었다. 이를 통해 안양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관광진흥법 및 시행규칙을 근거로 입장료 징수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입장료를 통해 운영 재원을 확보하고,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연차별 관광객 유치 계획과 시설 확충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관광객과 시설 확충 목표를 설정하였다. 넷째, 주민 출입증 발급, 등산객 출입 경로 조정 등 유료화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1970년대 후반 안양유원지 매표소(이정범 제공)

이후 1976년 경기도의 입장료 징수 준칙 시달과 1977년 안양시의 조례 제정을 거쳐 입장료 징수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안양시는 경기도의 준칙에 따라 1977년 2월 18일 안양유원지 입장료 징수 조례를 제정·공포하였다. 이어 1977년 4월 20일 안양시는 경기도 관광협회 안양유원지 특별지부에게 입장료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4월 29일부터 입장료 징수를 개시하였다.

- 징수 금액을 어른 30원, 학생 및 어린이 20원으로 책정
- 징수된 입장료는 유원지 운영 및 유지·보수에 사용
- 징수액의 30%를 협회에 교부금으로 지급
- 입장료 징수 시간 오전 8시~오후 9시
- 차량 운전자와 탑승자는 별도로 입장료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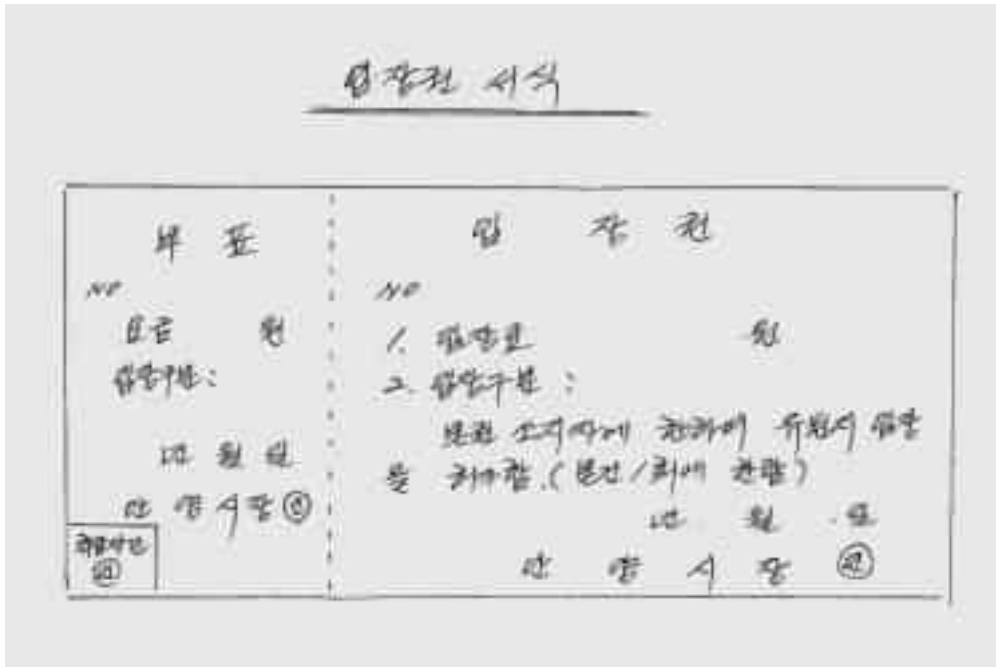
안양유원지는 1977년 4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입장료 징수는 유원지의 시설 유지·보수와 운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지만, 시행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첫째, 유원지 내에 위치한 관광호텔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유원지를 출입할 때마다 입장료를 내야 하는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다. 특히 호텔 투숙객과 일반 관광객을 구분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방문객들은 호텔 이용을 빙자하여 무료입장을 시도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둘째, 유원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유원지를 출입할 때마다 입장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특히, 생활권 내에 포함된 유원지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셋째, 등산객들이 유원지를 지나 삼막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입장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등산객들의 불만이 높아졌으며, 일부 등산객들은 입장료를 피하기 위해 다른 경로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넷째, 경기도 관광협회가 입장료 징수를 위탁받아 운영하였으나, 징수액의 30%를 협회에 교부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일부에서는 이 방식이 과도한 지급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경기도 감사원에서 서도 교부금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다섯째, 매표소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관광객 출입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혼잡이 발생하였다. 또한, 호텔 이용객과 일반 관광객을 구분하여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였다.

입장료 징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양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관광호텔 이용객의 입장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였다.

- 제1안 : 관광호텔 이용객에게 무료 출입증을 발급하여 출입 시 별도의 입장료를 받지 않는 방안
- 제2안 : 기존 매표소 외에 제2매표소를 설치하여, 관광호텔을 방문하는 고객과 일반 관광객을 구분하여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
- 제3안 : 입장료를 먼저 징수한 후, 호텔 투숙객에게 체크아웃 시 환불하는 방안
- 제4안 : 호텔 이용객에게 처음 입장할 때는 입장료를 징수하되, 장기 체류하는 경우 출입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

둘째, 유원지 인근 거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상주 주민들에게 출입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셋째, 등산객들이 유원지를 거치지 않고 삼막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체 등산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등산객들이 입장료 부담 없이 기존의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넷째, 기존에 경기도 관광협회가 징수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징수 금액의 30%를 협회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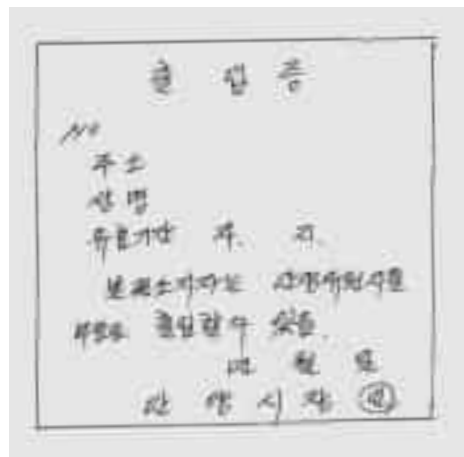


안양유원지 입장권 양식(안양시청 제공)

었다. 그러나 과도한 지급이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교부금 비율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다섯째, 매표소 위치를 재조정하여 관광객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또한, 관광호텔과 일반관광객을 구분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매표소 운영방식을 조정하고자 했다.

안양유원지의 입장료 징수는 유원지의 유지·보수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었으나, 시행 초기에는 관광객 감소, 지역 주민 반발, 호텔 이용객 입장료 문제 등 여러 가지 시행

착오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 대체 등산로 개설, 관광객 유치 전략 마련, 매표소 운영방식 조정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검토되었다.



안양유원지 출입증 양식(안양시청 제공)

3. 1970년대 안양유원지 개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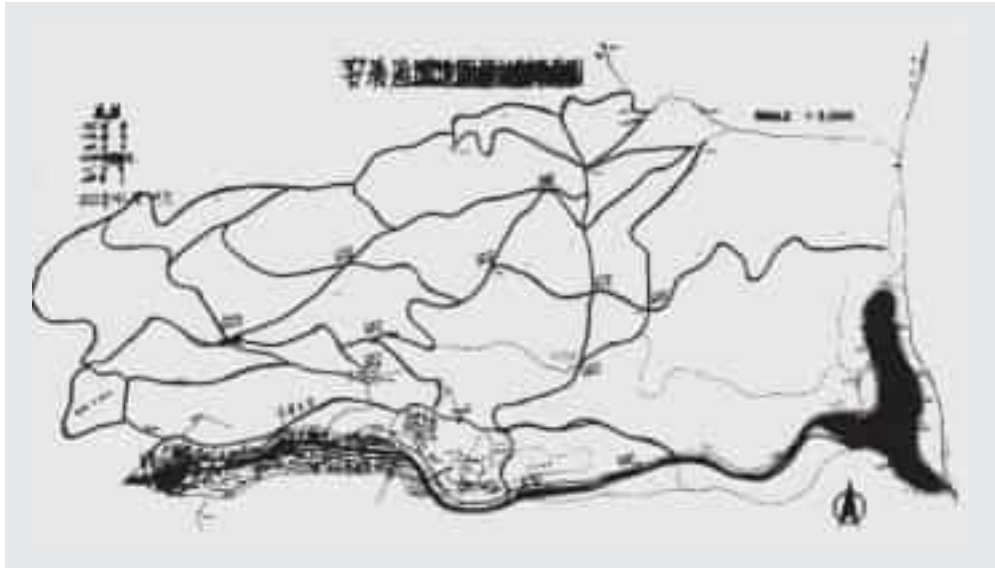
정부는 1971년 6월 2일 국토 미화와 관광지 개발을 목적으로 한 제1차 지정관광지 개발조성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관광자원에 대한 정부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최초의 시도로, 단지계획의 일종인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청와대에 관광개발계획단이 설치되기도 했다. 이때 관악산 및 유원지 개발과 관련하여 숙박시설과 주차장시설 등을 마련하고, 불량건물을 철거하며 벚꽃과 장미 등을 심어 꽃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추진되었다.⁴

1972년 2월에는 청와대 관광개발계획단이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1973년 2월에 계획이 확정되었고, 그해 8월에 설악산권 개발계획이 완성되었으며, 1974년 5월 보잉보고서(정부와 미국 보잉 회사 간에 작성된 한국관광개발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교통부가 제시한 관광진흥장기계획이 보완됨으로써 이듬해 청와대 주최 관계관회의에서 최종 개발계획이 완성되었다.⁵

1975년에 정부는 국제관광 진흥의 기본방향을 경제개발계획에 포함시켜 국가의 주요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시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관광기본법(1975.12.31.)을 제정하였고, 체계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촉진법(1975.12.31.)을 제정하였다.⁶ 또한 1977년 7월 13일 정부는 경주 보문지역, 설악산, 제주 중문지역, 한려수도 등 관광개발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안양유원지와 같이 관광지로 지정된 33개소에서는 도로, 상하수도 건설 등 지원시설 외에 단지 내에 건설될 각종 숙박시설, 오락시설의 경우에도 필요할 때에는 개인의 토지 및 권리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하였다.⁷

한편 1977년 6월 경기도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5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안양시에 지정관광지 장기국토종합개발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안양시는 유원지 개발계획 조감도와 개발투자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표 10).

이어 경기도는 안양유원지 개발조성계획 수립을 지시하였고, 안양시는 1977년 12월 16일 안양유원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송도유원지와 안양유원지는 도지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승인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는 1978년 2월 20일 안양시에게 안양유원지 개발계획 승인을 다시 받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안양시는 1978년 2월 25일 경기도에 안양유원지 종합개



1977년 6월 17일 안양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안양유원지 개발계획 조감도(안양시청 제공)

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이때 개발계획보고서, 시설결정조서, 토지지목별, 시설별, 소유별 현황, 집단시설계획도, 토지이용현황도, 토지소유별 현황도, 기본계획도 등이 제출되었다.

〈표 10〉 안양유원지 개발투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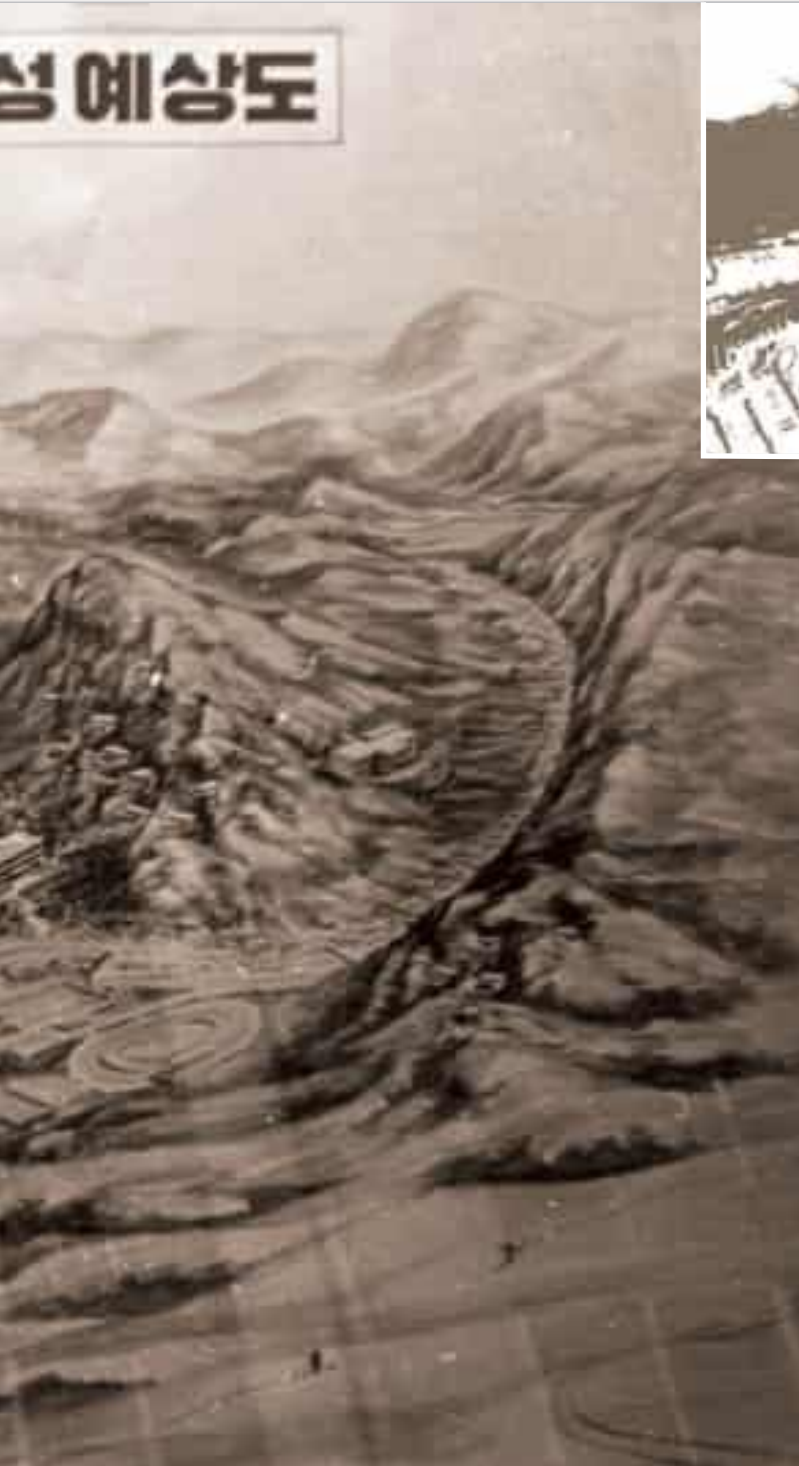
명칭	면적	계획기간	사업비(천만원)
도로 확장	폭 16m, 연장 3km	1978~1985년	41
우회도로 건설	폭 8m, 연장 1.7km	1978~1985년	32
하천 개수	연장 1.2km	1978~1985년	4.8
야계 사방	전 지역 2,400ha	1977~1985년	1
인도 개설	연장 10km	1980~1990년	100
계			178.8

자료 : 『안양유원지 종합개발계획(1977~1978)』(안양시 내부자료).

안양유원지 종합개발 완성



성예상도



1978년 2월 25일 안양시에서 경기도에 제출한 안양관광지 개발 조감도(안양시청 제공)

1970년대 작성된 안양유원지 종합개발 완성 예상도 (안양시청 제공)

정확한 제작 경위는 알 수 없지만 1970년대 후반 안양유원지 개발 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면이다.

〈표 11〉 안양유원지 종합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결정조서

용도	면적(㎡)	비율(%)	용도	면적(㎡)	비율(%)
총시설구역	315,000	100.0	숙박시설	25,000	7.9
공공시설	46,000	14.6	위락 및 운동시설	32,000	10.2
상업시설	13,600	4.3	조경 및 녹지시설	198,400	63.0

자료 : 『안양유원지 종합개발계획(1977~1978)』(안양시 내부자료).

〈표 12〉 안양유원지 종합개발계획 도로결정조서

종류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위치	
						기점	종점
중로	2	1	15	1,000	15,000	서쪽 구역계	소 3-1 기점 안양동 1-31 대
중로	1	1	10	260	2,600	소 3-3 석수동 산33-33임	대형물장 산30-1 임
소로	3	1	6	100	600	중 2-1 종점 안양동 1-3 대	관광호텔 입구 석수동 241-43 대
소로	3	2	6	380	2,280	소 3-1 석수동 241-48 임	놀이터 입구 석수동 241-48 임
소로	3	3	6	100	600	중 2-1 안양동 1-74 임	소 4-1 석수동 241-9 대
소로	3	4	6	1,160	6,960	서쪽 구역계 석수동 239-3 전	관광호텔 석수동 241-43 대
소로	4	1	3	350	1,050	중 1-1 종점 안양동 1-31 대	동쪽 구역계
소로	4	2	3	250	750	소 3-2 석수동 241-43 임	북쪽 구역계 석수동 산20 임
소로	5	3	3	50	150	중 2-1 안양동 1-74 대	남쪽 구역계 안양동 1-161 대

자료 : 『안양유원지 종합개발계획(1977~1978)』(안양시 내부자료).

〈표 13〉 안양유원지 종합개발계획 시설결정조서

구분	구분	위치	규모(㎡)
공공시설 결정조서	공공건물	안양동 1-3번지 일대	500
	주차장	석수동 239, 산33, 안양동 2번지 일대	14,000
	분수대	안양동 2-3번지 일대	1,500
상업시설 결정조서	상업시설	석수동 산2, 안양동 1-9, 안양동 1-38, 안양동 1-67번지 일대	13,600

구분	구분	위치	규모(㎡)
숙박시설 결정조서	호텔	석수동 241-43	6,000
	여관	석수동 241, 석수동 33번지 일대	9,000
	방갈로	석수동 산30-1, 석수동 산20번지 일대	12,000
위락 및 운동시설	놀이터 및 운동장	석수동 산20번지	13,000
	풀장	석수동 241-41, 석수동 47, 석수동 산30-1	19,000
조경 및 녹지시설	휴식공간	석수동 산 20번지	22,000
	시설녹지	삼성천과 도로 및 각 시설물 주변	56,400
	자연녹지	석수동 산21번지, 석수동 24-4번지, 석수동 30-1번지 일대	82,000
	하천	삼성천변	36,000

자료 : 『안양유원지 종합개발계획(1977~1978)』(안양시 내부자료).

〈표 14〉 안양유원지 종합개발계획 토지이용현황조서

구분	계획면적(㎡)	토지이용(㎡)				
		대지	전	임야	기타	
도로시설	30,000	500	960	7,050	21,490	
공공시설	공공건물	500		500		
	주차장	14,000	3,548	9,715	390	347
	분수대	1,500	902	424	174	
상업시설	13,600	11,387		2,056	157	
숙박시설	호텔	6,000	6,000			
	여관	9,000	5,100		3,900	
	방갈로	12,000			12,000	
위락 및 운동시설	놀이터 및 운동장	13,000			11,500	1,500
	풀장	19,000			13,195	5,805
조경 및 녹지시설	휴식공간	22,000			22,000	
	시설녹지	56,400	25,016		24,362	7,022
	자연녹지	82,000			82,000	
	하천	36,000			1,000	35,000

자료 : 『안양유원지 종합개발계획(1977~1978)』(안양시 내부자료).

〈표 15〉 안양유원지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당시 협의사항

시기	발신-수신	내용
1977년6월 10일	경기도-안양시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5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지정관광지 장기국토 종합개발 자료 제출 지시 · 조감도와 개발투자계획 제출
1977년6월 17일	안양시-경기도	- 장기국토종합개발 자료 제출 · 유원지 개발계획 조감도, 유원지 개발투자계획
1977년 7월 21일	경기도-안양시	- 안양유원지 개발조성계획 수립 지시 · 보고서, 조감도, 종합계획도, 기본계획도, 집단시설계획도, 토지이용현황도, 토지 소유별 현황도, 토지 지목별, 시설별, 소유별 현황조사
1977년 12월 16일	안양시-경기도	- 안양유원지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요청 · 개발계획서 송부
1977년 12월 24일	경기도-안양시	- 안양관광지 조성계획안 조정 승인 · 조성계획 조정내역 : 만안각 풀장 앞 하천 건너편에 상가시설 추가, 13번 지역 녹지시설 보완
1977년 12월 28일	경기도-안양시	- 관광개발 측량설계가 완성되어 보고서 인쇄, 납품 검수요망
1978년 2월 20일	경기도-안양시	- 안양유원지 개발계획 승인절차 변경지시 · 송도유원지와 안양유원지는 국무회의에서 도지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토록 지시 · 안양유원지 개발계획 7가지 서류 첨부하여 도 승인 받을 것
1978년 2월 25일	안양시-경기도	- 안양유원지 종합개발계획 승인 신청 · 개발계획보고서, 시설결정조사, 토지지목별, 시설별, 소유별 현황, 집단시설계획도, 토지이용현황도, 토지소유별 현황도, 기본계획도 첨부
1978년 3월 7일	경기도-안양시	- 안양유원지 개발계획 결정 및 용도 지역 고시
1978년 3월 16일	안양시-경기도	- 개발제한구역 내 유원지 종합개발계획 승인 요청 · 안양유원지 종합개발계획 결정에 따라 용도지역 고시통보 · 동 개발지구 지적고시 승인 협조 요청
1978년 3월 23일	경기도-안양시	- 개발제한구역 내 유원지 종합개발 승인 신청 반려
1978년 6월 8일	경기도-안양시	- 국민관광지 개발계획지구 지적고시 촉구 지시
1978년 6월 14일	내부결재	- 안양유원지 개발계획에 따른 지적고시 측량설계 의뢰
1978년 6월 27일	경기도-안양시	- 안양유원지 관광개발 지적고시 용역계약
1978년 9월 15일	경기도-안양시	- 지정 및 국민관광지 개발계획 지적고시 측량에 따른 지시
1978년 10월 4일	경기도-안양시	- 집단시설지구 지적고시 측량설계 용역기간 연기
1978년 10월 6일	내부	- 안양유원지 개발계획 용도지역 변경 건의
1978년 11월 8일	경기도-안양시	- 관광지 개발 지적고시 용역사업 타절 준공 · 교통부 종합재정비계획 수립 후에 안양유원지 종합개발계획 활용 재추진 통보

자료 : 『안양유원지 종합개발계획(1977)』, 『안양유원지 개발계획(1978)』(안양시 내부자료).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1978년 3월 7일 국민관광지 개발계획이 결정되고 용도지역 고시가 확정되었다. 이어 1978년 3월 16일 안양시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내 유원지 종합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1978년 3월 23일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유원지 종합개발 승인 신청을 반려하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1978년 11월 8일 경기도는 교통부에서 종합재정비계획 수립함에 따라 재정비계획 수집된 이후 안양유원지 종합개발계획의 활용을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안양시가 수립하였던 안양유원지 종합개발계획은 실행되지 못하였다.

註

-
- | | |
|--|---|
| 1 「사단법인 경기도 관광협회 안양유원지 특별지구 규정」, 1967. | 5 이경원, 「한국해정 60년 : 관광행정의 변천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한국행정연구원, 2008, 7쪽. |
| 2 「사단법인 경기도 관광협회 안양유원지 특별지구 규정」, 1967. | 6 이경원, 「한국해정 60년 : 관광행정의 변천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한국행정연구원, 2008, 7쪽. |
| 3 사단법인 경기관광협회 안양유원지 특별지구, 『관광회보』 제1호, 1976년 2월 1일, 1쪽. | 7 「호탤용지 등 수용 가능케」, 『매일경제』 1977년 9월 13일. |
| 4 「지정관광지 개발 착수 경기·서울근교」, 『경향신문』 1971년 6월 3일. | |

제4장

안양의 산업화·도시화와 안양유원지의 쇠락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1. 1970년대 안양유원지의 자연 기반 상실

1970년대 초반 안양유원지는 서울 근교의 대표적 휴양지라는 명성을 지니고 있었다. 봄, 여름, 가을철마다 수많은 행락객이 몰려들었으며,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인파가 몰려드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 예로 1970년 5월 17일에는 전국 유원지 중 안양유원지에 약 7만 명의 시민이 몰려들었고, 8월 9일에는 약 15만 명의 피서객이 찾았으며, 1972년 6월 4일에는 전국에서 8만 명이 방문하였다. 1973년 6월 17일에도 8만 2,700 명이 방문하는 등 여름철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표 1〉 1970년대 초반 행락철 안양유원지 방문객¹

(단위 : 명)

일자	전국	안양유원지	일자	전국	안양유원지
1970.05.03.	900,000	30,000	1972.06.04.	600,000	80,000
1970.05.17.	1,400,000	70,000	1972.07.23.	1,500,000	50,000
1970.07.26.	1,000,000	100,000	1972.08.14.	830,000	21,000
1970.08.02.	1,710,000	120,000	1973.05.27.	1,006,000	25,000
1970.08.09.	1,400,000	150,000	1973.06.17.	400,000	82,700
1971.08.01.	2,000,000	150,000	1973.06.24.	200,000	15,000
1972.04.23.	1,140,000	20,000	1976.07.25.	1,500,000	60,000

유원지 내에는 대규모 풀장, 매점, 오락시설 등이 갖춰져 있었으며, 물놀이를 즐기기 위한 피서객들이 주로 찾았다. 1970~1971년은 안양유원지에 최대 인파가 몰리던 시기



1970년 안양유원지(경기도청 멀티미디어 제공)





안양과 수원 일대의 포도밭과 딸기밭(『조선일보』 1970년 8월 8일)

였는데, 다음 글은 1970년 8월 안양유원지와 안양 포도농원이 시너지를 내며 방문객 유입을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을 담고 있다.

안양의 포도는 맛과 대량생산으로 옛날부터 이름난 명물, 재배면적 65만여 평에서 매년 1,400여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중 150여 톤이 포도주로 소비된다. 특히 유명한 포도원은 안양유원지 내의 밀양농원과 충남포도원, 그리고 읍내에서 약 1km 떨어진 안양포도원과 동주농원, 풍년원 등 5군데 모두 서울에서 시내버스로 50분~1시간이면 갈 수 있다. 택시로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면 약 30분, 요금은 600원 정도, 기차편은 서울역에서 경부, 호남선 등의 완행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소요시간은 약 40분이며, 요금은 25원이다. 포도값은 아직 철 이른 탓으로 약간 비싼 편, 대부분의 농원이 지금은 경남 김해와 경북 김천에서 올라온 포도를 진열하고 있는데 근당 80~100원 선, 상등품은 150원까지 부른다. 서울보다는 20원쯤 싸다. 그러나 앞으로 1주일만 지나면 근당 50원선까지 크게 내려가리라는 상인들이 전망이다.

안양포도원과 동주농원, 풍년원 등은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큰 포도밭이지만 벤치, 그늘 등 유원지의 시설이 없어 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대개 주인집 마루에 걸터앉아 포도맛만 보고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안양유원지 내 밀양농원과 충남포도원은 가까운 곳에 4개의 풀장이 있고 숲이 좋아 피서에도 적격, 관악산과 삼성산의 계곡에서 모여드는 찬물을 막아 만들어진 이곳 풀은 국제 규모로 주위에는 카바



안양의 포도원(『조선일보』 1971년 7월 17일)

레, 오락장, 매점 등이 늘어서 있다. 입장료는 3개의 일반 풀은 어른 100원, 어린이 50원씩. 안양관광호텔 내 정수시설이 있는 풀장은 길이 60m, 폭 23m로 입장료는 300원~200원씩. 유원지 경내에는 아마 튜어를 위한 베비 골프장도 마련되어 있어 포도뿐만 아니라 하루를 골고루 즐길 수 있다.

〈『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조선일보』 1970년 8월 8일〉

1970년 안양 포도의 재배면적은 65만여 평에 달했으며, 매년 1,400여 톤의 포도가 생산되었다. 이 중 150여 톤은 포도주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나머지는 신선한 상태로 시장에 공급되었다. 안양에는 5곳의 주요 포도원이 존재했는데 안양유원지 내에는 밀양농원과 충남포도원이, 도로변에는 풍년원, 안양포도원, 동주농원이 있었다.

안양 포도산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던 이 포도원들은 위치와 시설의 차이에 따라 고객의 패턴이 달랐다. 밀양농원과 충남포도원은 숲속 피서공간, 풀장, 오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보유한 안양유원지 내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관광객 유입 효과가 컸다. 이에 비해 안양포도원, 동주농원, 풍년원은 시설의 규모는 컸으나 유원지 시설이 없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이 짧고 포도 시식 후 바로 귀가하는 경향이였다.

주목할 사실은 안양 지역에서 판매되는 포도가 안양 내에서 직접 생산한 물량과 경남 김해, 경북 김천 등 외부에서 공급된 포도가 함께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관광객을 통해서 판매되는 물량이 많다 보니 안양 내 포도원에서 생산하는 포도로 이를 모두 소화할 수 없어 외부에서 포도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은 안양의 포도 경작지가 사라지면서 더욱 심해졌는데, 1966년 218정보였던 안양 포도밭은 해마다 20%씩 줄어들어 1973년에는 109정보에 그쳤다. 즉 안양 지역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공장과 주거지는 확산되어 갔고 포도밭은 사라져 갔다.

포도의 계절. 서울 근교의 포도밭이 한창 제철에 들어섰다. 안양은 66년까지만도 218정보의 포도밭을 일궜으나 올해는 공장 유치 등으로 반이 줄어든 109정보에 그치고 있다. (중략) 안양은 땅속에 자갈이 많아 배수가 잘되어 포도가 잘 자라는 곳이다. 주로 미국계의 캠벨과 유럽계 품종인 갑주로 갑주는 전 생산량의 90%를 차지한다. 유원지가 있는 석수동에 포도밭이 제일 많은데 시내에만 약 109정보에 513개의 포도원이 있다. 이중 국도변에 자리한 서울농원, 동주농원, 풍년농원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서울에서 시내버스가 다녀 인파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서울 반입보다 현지에서 더 많이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안양 포도밭은 50년 전 일본인 오기(小木) 씨가 북부동 안양시민관 인근에 포도원을 개발한 것을 시초로 66년도에 피크를 이루었으나 해마다 20%꼴로 공장부터 주택가로 침식당해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

〈탐스런 “미각”에의 유혹, 『조선일보』 1973년 8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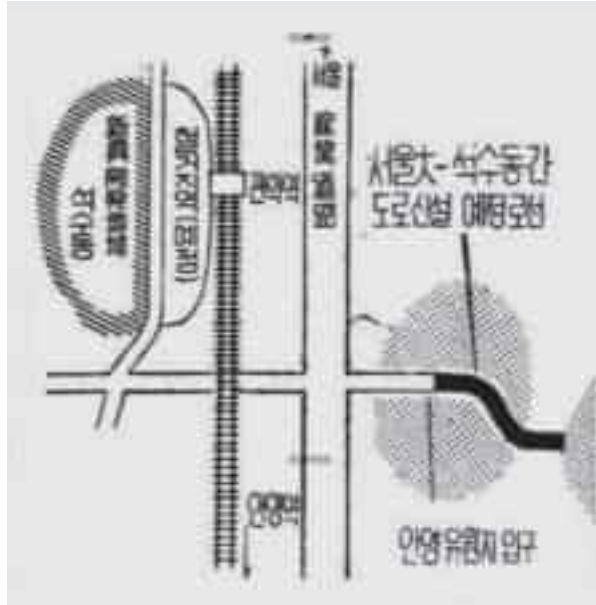
1973년 11월 21일 경수산업도로 중 서울-수원(한일타운) 구간의 개통으로 안양유원지 주변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서울에서 안양까지의 이동 시간이 15분 이상 단축되면서, 안양이 수도권 거주지로 크게 주목받기 시작하였다.² 안양유원지 주변이 주거지역 및 상업지구로 변모하며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은 안양유원지의 본래 장점이었던 자연경관과 청정한 환경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전까지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이던 석수동 유원지 입구와 비산, 호계, 양지동 일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등 종전 공업지구의 68%가 주거 또는 상업지구로 바뀌자 땅값이 최고 3배까지 올라 매매가 활발하다.

〈의욕 부분 개발공사에 박차, 『동아일보』 1973년 8월 1일〉

더욱이 1974년 8월 15일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고 안양유원지 주변에 관악역이 설치되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택 개발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유원지와 맞닿은 지역인 관악역 주변은 주거지로 개발되면서 급격하게 도시화되어 갔다.

전철 개통에 따라 기존 안양역 외에 관악, 명학 등 2개의 전철역이 신설, 주민들은 전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중략) 관악역은 안양시 석수동 260번지



신흥 개발지역으로 부상한 관악역 일대(『매일경제』 1974년 6월 13일)

에 세워지는 신설역으로 유원지 입구에 위치하고 경수산업도로변에서 50미터 떨어져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이 일대의 부동산값은 재작년 유원지입구에 있던 미군부대의 철수로 하락세를 보였다가 요즘은 택지값이 평당 3~5만 원선으로 올랐다. (중략) 역 주변과 유원지 입구는 상가가 들어설 수 있어 평당 5만 원선에 거래되고 인접한 주택지는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을 호가한다. (중략) 새 구획정리지구로는 안양시민들이 1급택지로 꼽고 있는 구 유원지 입구에서 기독교육원에 이르는 일대의 17만평. 이 일대는 안양시가지를 굽어볼 수 있는 관악산 기슭 녹지대에 자리잡고 있어 주거지로서는 환경이 좋다.

〈『각광의 여울따라-전철역 주변 부동산 가이드-③ 안양지구』, 『조선일보』 1974년 3월 12일〉

안양시 석수동 260 관악역은 서울에서 20km, 안양유원지와 경수산업도로 변에 위치하고 있어 안양 주변에서 주택지로는 최상급. 부근 20여만 평이 주택지로 조성됐는데 70%가 남아 있다. 평당가격은 지난 2만~3만 원에서 3만~5만 원으로 경총 뛰었는데 계속 오를 기미이다. (중략) 그 바람에 안양 명물로 이름 높았던 포도밭이 점점 줄어들어 이제 안양 명물 포도가 사라질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안양 시내 포도밭은 10년 전인 64년에 총 26만 평이었는데 70년 말까지 4만 평으로 71년 4월 전철 착공 때까지 유지해 왔으나 현재 2만 평밖에 남아 있지 않다.

〈『경수선 집 내놓기가 무섭게 팔려』, 『경향신문』 1974년 8월 8일〉



1974년 안양동과 석수동 일대 도시화(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안양 하천을 오염시키는 공장들(『동아일보』 1975년 9월 18일)

이처럼 1970년대 중반 이후 석수동 일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안양 유원지 주변 자연경관은 크게 훼손되었고, 포도밭과 산림이 사라져 갔다. 또한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와 생활하수 유입으로 안양천과 삼성천·학의천 등 안양 유원지 주변 하천의 환경이 악화되어, 청정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던 시절과는 큰 대조를 이루었다.

60년대 초에만 하더라도 땅값이 싸고 안양천 수질이 좋았다. 그래서 63년경부터 공장부지로 각광을 받기 시작. 지금은 안양과 시흥군 내에 섬유, 화공, 제지, 기계 등 330여 개의 대소공장이 들어서 있다.

이중 182개소가 경기도로부터 공해공장

이란 딱지가 붙어졌고 낮이면 하동들이 물장구치고 놀고 밤이면 햇불을 켜두고 고기를 잡았다는 일명 옥류천인 안양천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에 '폐수천'이란 별명까지 붙었다. 안양은 공장이 많은데도 다른 지역과는 달리 대기오염은 거의 없으나 안양천이 크게 오염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략) 안양 유원지에서 시작되는 삼성천 관악산 계곡에서부터 흐르는 삼막천도 천변의 삼양펄프, 대륙석면 등에서 쏟는 폐수를 대교 쪽 안양천으로 흘려보낸다. 대교 아래서도 삼아알루미늄, 현대양행, 제일피혁 등 10여 개 공장에서 계속 폐수를 쏟는다.

〈'맑은 내일을 위하여 (9) 제1부 오염의 실태 안양', 『동아일보』 1975년 9월 18일〉

이에 더해 1970년대 후반 이후 유원지 내 음식점과 오락시설이 증가하면서, 과거의 자연경관을 즐기던 분위기에서 상업적 소비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유원지 내부에 유흥업소와 숙박업소가 급증하면서 가족 중심적 관광지보다 유흥 중심지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렇듯 안양유원지 내 환경이 악화되면서 자연친화적인 관광지에서 유흥업소가 번성하는 곳으로 변질되었다.



1970년대 안양유원지 도로변 음식점(이정범 제공)



1970년대 안양유원지 계곡에 설치된 천막(이정범 제공)



안양관광호텔 카바레 광고(『경향신문』 1977년 3월 25일)

또 안양, 송추, 일영 등 근교 유원지에는 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최고 가격제는 아랑곳없이 가격표시조차 않고 제멋대로 비싼 값을 부르고 있다.

〈유원지 먹칠하는 바가지 협정요금〉, 『경향신문』 1976년 7월 13일

대낮에 돌고 도는 탈선 카바레가 늘어간다. (중략) 서울 강남구 반포동 주부피살사건으로 탈선의 온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카바레 현장을 돌아본다. (중략) 12일 하오 4시 경기도 성남시 수진동 성남 시장 안 지하N카바레는 300여 명의 남녀가 붐비고 있었다. (중략) 한쪽 구석에 마련된 휴게실에는 50여 명의 중년 남녀가 파트너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20~30명의 여인들이 짝을 찾아 서성거리고 있었다. 안양유원지 내의 W카바레와 A호텔 4층 카

바레도 똑같은 정경이었다.

〈「서울 위성도시로 춤바람 원정...탈선 대낮 카바레」, 『경향신문』 1977년 8월 13일〉

2. 1970년대 여가시설의 다변화와 안양유원지의 경쟁력 약화

1970년대 한국은 경제개발과 함께 전국적으로 도로망이 확충되면서 주요 관광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서울-부산)와 영동고속도로(서울-강릉) 개통으로 부산과 강원도 지역의 주요 관광지가 활성화되었다.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이동 시간이 4시간 30분으로 단축되었고 부산 관광지의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³ 이로써 부산의 주요 관광지가 급부상하였으며, 특히 해운대, 광안리, 태종대, 금강공원 등 해변과 자연관광지가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다. 1972년 7월 23일 해운대에는 하루 45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방문하는 피서지로 자리 잡았다.⁴ 1970년 중반 이후에는 부산과 인근 해안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며, 서울시민들도 부산 여행을



쉽게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서울 근교 관광지였던 안양유원지는 상대적으로 방문객 수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부산은 해양 관광과 휴양지로 각광받으며, 서울 및 수도권 시민들이 주말 또는 휴가철을 이용해 찾는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해운대, 광안리, 송정 등 주요 해변은 안양유원지와 같은 하천형 유원지보다 훨씬 더 큰 자연경관과 피서 환경을 제공하였다. 또한, 부산의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등 관광지와 연계된 경제 활성화 효과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단순한 근교 유원지였던 안양유원지와 차별화된 요소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부산이 전국적인 관광지로 떠오르면서, 안양유원지와 같은 수도권 근교 유원지들은 경쟁력을 잃어 가게 되었다.

서울과 강릉을 연결하는 영동고속도로는 1971년 12월 1일 서울-횡선 구간이, 1975년 10월 4일 강릉 구간까지 개통됨으로써 강원도 지역의 관광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었다.⁵ 개통 이전에는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 데 승용차로 6~8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고속도로 개통 이후 3~4시간 내로 단축되면서 강원도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었다.



1974년 해운대 해수욕장(국가기록원 제공)

이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시민들의 여행 패턴이 변화하였으며, 강원도의 대표적인 자연관광지인 설악산, 속초, 경포대, 대관령 등이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서울에서 가까운 안양유원지는 강원도 지역의 자연경관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약해지기 시작하였다. 설악산은 1970년대 후반부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관광 개발이 본격화되었고, 가을철 단풍철에는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들었다. 경포대, 속초, 주문진 등의 해변도 여름철 피서지로 급부상하면서, 안양유원지와 같은 계곡 및 수영장을 찾는 관광객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특히, 강원도의 자연관광지는 수도권 근교 유원지보다 훨씬 넓은 공간과 다양한 관광 옵션을 제공하였다.

안양유원지는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울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근교 유원지였으나, 계곡과 하천 중심의 관광지가 고속도로 개통으로 상대적으로 매력이 감소하였다. 여름철 피서지로서 강원도 해변 및 부산 해운대 등과 경쟁하기 어려웠으며, 봄과 가을 관광지로서도 설악산과 같은 대규모 국립공원과 비교할 때 관광객 유치력이 낮아졌다.



1975년 영동고속도로 준공(국가기록원 제공)

이에 안양유원지는 가족 단위의 짧은 나들이 공간으로만 남게 되었고, 장거리 관광을 선호하는 흐름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개통은 관광객들이 좀 더 먼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교통 혁신이었으며, 서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안양유원지는 더 이상 '가장 좋은 선택지'가 아니게 되었다.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충청도 및 부산, 경상도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해졌고,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춘천, 강릉, 속초 등 강원도 지역으로도 쉽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관광객의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안양유원지를 찾는 사람들은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 안양유원지는 자연 친화적인 유원지에서 상업화된 공간으로 변화하면서, 도심 속 오락시설처럼 변질되었고, 서울시민들에게 더 이상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비해 강원도와 부산 등은 대규모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안양유원지보다 훨씬 더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추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현대적인 유흥시설과 새로운 피서지가 대거 등장하면서, 시민들의 여가 생활 패턴이 변화하였다. 한강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독섬 유원지, 여의도 한강공원 등 서울시 내에 공원이 정비되고 시설이 확충되었다. 1973년 이후 서울시는 독섬, 반포, 여의도, 이촌 등 한강 주변 유원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시



1972년 어린이대공원 기공식(서울역사박물관 제공)



1977년 롯데호텔 건설(서울역사박물관 제공)



1978년 서울대공원 기공식(서울역사박물관 제공)



1981년 여의도 체육공원 조성공사(서울역사박물관 제공)

작하였다. 특히, 독섬유원지는 서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대규모 풀장과 놀이시설을 갖춘 종합 휴양지로 변모하였다. 독섬, 망원, 여의도 등에 수영장과 각종 편의시설이 조성되면서, 시민들은 굳이 안양유원지까지 가지 않아도 도심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서울 도심에는 대형 호텔, 백화점, 극장, 나이트클럽 등 현대적인 유흥시설이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소비 패턴이 변화하였다. 롯데호텔, 조선포텔, 신라호텔 등 대형 호텔이 들어서면서, 서울 도심에서도 레저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명동, 종로, 이태원 등지에는 나이트클럽과 디스코장이 늘어나면서 젊은 층이 도심 유흥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에 따라, 안양유원지의 유흥시설은 서울도심의 경쟁력 있는 유흥업소들과 비교했을 때 점차 매력을 잃어 갔다.

1970~1980년대 서울과 경기권에는 현대적인 놀이공원과 테마파크가 들어서면서, 안양유원지와 같은 전통적인 자연 기반 유원지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1973년 서울광진구에 개장한 어린이대공원은 동물원, 식물원, 놀이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을 끌어들이면서 안양유원지의 대체재 역할을 하였다.⁶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1978년 용인 자연농원 주차장을 가득 메운 행락 차량(국가기록원 제공)

권에서도 관광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수도권 시민들의 관광 패턴이 변화하였다. 1976년 경기도 용인에 자연농원(현 에버랜드)⁷⁾이 개장하면서 안양유원지와 같은 전통적인 근교 유원지와 경쟁하게 되었다. 자연농원은 동물원, 놀이공원, 식물원 등을 결합한 종합 레저공간으로 개발되었으며, 서울 및 수도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규모 관광지로 자리 잡으며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1984년 개원한 서울대공원은 안양유원지에서 멀지 않은 청계산 자락에 설립되었는데, 동물원, 식물원, 놀이공원(서울랜드), 캠핑장, 야구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종합 생태문화공원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안양유원지는 본래 자연을 기반으로 한 계곡과 녹지공간이 매력적인 유원지였지만, 경수산업도로 개통과 수도권 전철 관악역 설치 이후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주변 자연경관이 점차 훼손되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유원지 주변이 상업화되면서 술집과 유흥업소, 오락시설이 증가하였고, 가족 단위 관광객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1984년 서울대공원 개원일에 모인 관광객(서울대공원 제공)

결과적으로 안양유원지는 유흥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점차 관광지 매력이 감소하였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안양유원지 일대는 기존의 자연 친화적인 유원지 이미지가 사라져 갔다. 이에 반해, 서울과 경기권의 새로운 관광지는 대규모의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면서, 관광객의 발길이 점차 안양유원지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3. 1977년 대홍수와 안양유원지의 파괴

1977년 7월 8~9일 안양에는 단 하루 만에 467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안양천과 삼성천 등의 하천이 범람하여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였고, 관악산과 삼성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산에서 쏟아져 내린 거대한 바위와 다량의 토사가 안양유원지를 덮쳤다. 이는 안양유원지 역사상 최악의 재해였다.

수해로 사라진 안양유원지 토사에 휩쓸린 계곡 풀-보트장 돌더미로 새 단장엔 최소한 6개월 걸릴 듯

서울시민들이 즐겨 찾던 안양유원지가 이번 수해로 폐허가 됐다. 유원지 남쪽 산등성이에서 사태가 나 암석과 토사 수만 톤이 계곡을 덮쳤기 때문, 석간수가 넘실대던 보트장은 집채만 한 바윗덩이와 모래와 묻혀 흔적조차 없어지고 계곡 옆 풀장은 엉뚱하게 수로로 바뀌었다. 교각만 남은 6개의 다리.

급류에 씻겨 벼랑까지 패여 들어간 관광도로는 지프 한 대 빠져나갈 수도 없다. 8일 오후 7시쯤 일어난 산사태는 순식간에 계곡 및 숙원여관과 벽수장여관을 비로 쓸 듯이 밀고 내려가 박재화 씨의 보트장을 메웠다. “사태가 나기 직전 폭우로 계곡의 물이 붓고 사방에서 탁류가 밀어닥쳐 주민들 대부분이 대피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적었으나 여관 손님 몇 명은 토사에 묻혔거나 탁류가 휩쓸렸을 겁니다.”

보트장 숙소에 있다가 가까스로 몸만 빠져나온 보트장 주인 박씨는 사태가 난 순간을 이렇게 말했다. 보트 32척, 매점 3개소, 보트장 600여 평을 휩쓴 사태 더미는 탁류와 함께 바로 밑 안양풀장을 덮쳐 그 위로 수로를 냈다. 이 일대는 유원지의 각종 레저시설이 몰려 있는 중심부로 200여 미터의 좌우 산비탈에 기묘한 바위가 울창한 수림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만물상이라 불리던 곳이다, 이곳의 사태는 계곡 위 안양관광호텔도 고립시켜 호텔 측은 외국인 장기투숙자 24명을 서둘러 서울로 옮기도록 했다. 이 밖에 16개소의 소규모 사태와 침수는 고지대 복숭아밭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유원지 입구의 새마을농원 딸기밭 800여 평은 30cm 높이의 토사에 뒤덮여 새로 모종을 해도 내년 봄 수확은 바라볼 수 없는 형편이다.

지난봄 1,200여 만 원을 들여 완공했다 흔적조차 없이 씻겨내려 간 하천공원 자리를 가리키며 인근 주민 강전우 씨는 “무리한 하천부지 매립이 불러들인 재앙인 것 같다.”며 이를 허가해 준 안양시 당국을 나무랐다. 이번 수해로 인해 서울 중심지에서 20km 거리밖에 안 돼 연간 250만 명이 찾아들던 이 유원지는 옛 모습을 찾기 어렵게 됐으며 유원지 기능을 살리는 데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계곡을 끼고 좌우로 펼쳐진 128개소의 각종 휴양시설 중 건물 도괴 21동, 침수 50동이 피해를 입었으며 교량 파손 6개소, 제방유실 3,600여m에 진입로마저 바위덩이로 막혀 안양시는 아직 복구작업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한 주민은 시설이 제대로 복구된다 해도 봄 딸기 여름 복숭아 가을의 포도로 서울과 안양시민들의 입맛을 돌아 주던 유원지의 옛 모습이 되살아날지는 의문이라면서도 다시는 이런 불행이 없도록 면밀한 사전조사 속에 계속성 있는 복구작업을 빨리 해 명소로 가꾸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해로 사라진 안양유원지」, 『조선일보』 1977년 7월 15일〉

안양유원지 내 주요 시설은 계곡을 따라 조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7년 폭우로 삼성천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며 강물이 유원지를 덮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유원지 내 매점, 수영장, 주차장, 오락시설 등이 급류에 휩쓸리며 파괴되었다. 특히 안양풀



1977년 삼성산 산사태(이정범 제공)



1977년 안양유원지 대형돌장 수해(이정범 제공)



1977년 범람하는 삼성천(안양시청 제공)



1977년 파괴된 보트장(안양시청 제공)



1977년 안양2동 수해(안양시청 제공)



1977년 파괴된 안양풀장(안양시청 제공)



1977년 수해복구 공사(이정범 제공)



1977년 수해복구(안양시청 제공)



1977년 수해복구(이정범 제공)



1977년 수해복구(이정범 제공)

장과 대형풀장의 피해가 매우 심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피해로 안양유원지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며, 이후 복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수해 발생 직후, 정부와 안양시는 유원지 복구를 위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발표하였다. 1977년 하반기부터 도로 정비 및 유원지 내 시설물 복구작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복구 우선순위는 피해가 더 심각했던 도시 인프라 및 주거지역이었기 때문에, 안양유원지 복구는 상대적으로 지연되었으며, 완전한 원상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수해 이후 시설 파손 및 미완성된 복구작업으로 안양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은 점차 줄어들었고, 새롭게 부상하는 서울 및 수도권의 다양한 관광지에 비해 경쟁력을 잃어 가게 되었다. 이처럼 1970년대 후반 이후 안양유원지는 자연 기반 유원지의 특성을 잃고, 도심 공원과 일부 유흥시설이 혼재된 공간으로 변화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본격적인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4. 1980~1990년대 안양유원지의 쇠락

1980년대 안양유원지 내 설치된 수영장은 여전히 수도권 주민들이 찾는 피서지로 이용되었지만, 대다수 시설은 노후화되어 유원지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졌다. 안양시는 1983년 3월 경기도도시 제110호에 의거하여 안양유원지를 비산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였다. 그 후 수도권 일대에 많은 공원 및 휴식공간이 생기면서 비산공원의 유원지 기능이 미약해지자 교통부는 1984년 11월 국민관광지 지정을 취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비산공원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1985년 5월 건설부고시 제229호에 의거하여 건설부장관에게서 공원조성계획 결정 승인을, 그해 10월 경기도지사에게서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에 시는 공원 조성을 본격화하기 위해 경기도에 1987년 6월 개발제한구역 내 행정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경기도는 1988년 12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민자 유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⁸

결국 1980년대에는 무궁화동산 조성, 꽃길 조성, 주차장 설치, 출렁다리 설치, 진입로 확장과 같은 일부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쳤다. 또한 1980년대 안양유원지는 삼성천 하류보다는 상류 지역이 좀 더 활성화되었다. 삼성천 하류에 위치한 안양풀장이



1981년 안양유원지 무궁화 묘목 식재(이정범 제공)



1982년 안양유원지 주차장 조성(이정범 제공)



경기도고시 제1985-207호 삼성천지구종합계획도(안양시청 제공)





비산공원으로 바뀐 안양유원지(이정범 제공)



옛 모습을 잃어버린 1980년대 안양폭장(이정범 제공)



1984년 무궁화 식재(안양시청 제공)



1985년 꽃동산 조성(안양시청 제공)



1985년 꽃동산 조성(안양시청 제공)



1985년 꽃길 조성(안양시청 제공)



1985년 꽃길 조성(안양시청 제공)



1986년 안양유원지 진입로 확장공사(안양시청 제공)



제1교 출렁다리(이정범 제공)



제2교 출렁다리(이정범 제공)



1980년대 안양관광호텔 풀장(이정범 제공)



1988년 대형풀장(김종수 제공)





1980년대 맘모스풀장(이정범 제공)



1990년대 만안각풀장(이정범 제공)



1980년대 안양유원지 만안각풀장, 안양관광호텔 풀장, 맘모스풀장(이정범 제공)

1977년 수해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데다가 주택 개발 등으로 하류 지역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상류에 위치한 계곡이나 맘모스풀장, 안양관광호텔풀장, 만안각풀장 등을 주로 이용하였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해 개발이 원활하지 않았던 안양유원지는 이 시기에 시설 노후화로 관광객의 불만을 샀다. 1983년 4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안양유원지와 북한산유원지의 화장실을 조명하며 위생문제를 지적하였다.⁹ 1988년 8월 4일에는 안양유원지를 비롯한 수도권 유원지들의 편의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며, 행락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신문에 실렸다.¹⁰

관광객들이 몰리는 계곡 주변에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나와 돛자리를 깔고 장시간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유원지 내 정식으로 지정된 휴식공간이 부족해 많은 사람들이 계곡 주변의 불법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피서객 증가에 따른 시설 부족문제는 유원지 이용객들에게 지속적인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와 함께 안양유원지의 심각한 문제는 악덕 상인들의 바가지요금이었다. 1983년 8월 4일과 8월 24일 신문기사에서는 안양유원지 내에서 물가가 시중보다 두 배 이상 비



안양유원지 여름경찰서(안양시청 제공)

싸게 책정되고 있으며, 일부 상인들은 가격표조차 붙이지 않고 임의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¹¹

얼마 전 휴일에 모처럼 친지와 함께 인근 안양유원지를 찾았다. 계곡에 마련된 파라솔 밑에 자리를 잡고 음식을 청했다. 휴식의 즐거움도 잠시일 뿐 계산서에 적힌 터무니없는 비싼 음식값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시중 소매가격이 1천 원씩 하는 술 삼바25가 3천 원, 한 쪽에 5백 원씩 하는 빈대떡은 두 쪽들이 한 접시에 2천 원, 낙지볶음은 한 접시에 무려 5천 원을 받고 있었다. 시중보다도 다소 비싸리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갑절 이상씩 더 받는다는 것은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닌가 싶다.

〈유원지 악덕상훈 단속하라〉, 『동아일보』 1983년 8월 4일

1984년 7월 28일 소비자연맹이 관광지의 물가를 조사한 결과 안양유원지에서는 음료수 한 병이 시중가보다 2배 비싸게 팔리고 있었다.¹²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상점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는데,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던 ‘○○상회’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고, 안양세무서가 부당요금을 세금으로 환수하도록 조치되었



1984년 행락질서 촉진대회(안양시청 제공)

다.¹³ 하지만 바가지요금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관광객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남아 있었다.

안양유원지는 피서철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로도 악명이 높아졌다. 특히 1984년 6월 29일, 법원에서 탈주한 범죄자가 안양유원지에서 숨어 있다가 경찰에 검거된 사건이 발생하였다.¹⁴ 이 사건은 유원지 내 안전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1988년 4월 28일에는 한 회사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강도들에게 납치되어 안양유원지로 끌려가 4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차량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하였다.¹⁵

이러한 문제들은 이후 1990년대에 들어 더욱 심각해졌으며, 안양유원지가 쇠락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990년 8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유원지 내 대형 수영장과 풀장에서 사용하는 하천 물을 사용하였는데, 하천에는 행락객들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와 오물이 쌓여 악취가 나고 있었으며, 수영장에서도 피부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이는 수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사례였다.

안양유원지 내 수영장과 풀장 대부분이 오염된 인근 하천의 물을 끌어들이며 영업을 하고 있어 수인성 전염병과 피부병 등의 유발이 우려된다. 6일 행락객과 주민들에 따르면 안양유원지 내 4개 대형 수영장 하천가 음식물들이 콘크리트 등으로 만든 20~30㎡ 규모의 50여 개의 간이풀장 대부분이 당국의 수질 검사를 거친 지하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터 펌프 등을 이용해 인근 관악산 계곡으로 흐르는 하천의 물을 수영장 풀장에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하천의 물은 유원지를 찾는 행락객과 하천 상류 주변에 몰려 있는 캠핑족 등이 버리는 각종 음식찌꺼기와 쓰레기 등으로 오염돼 있다. 유원지 내 10수영장의 경우 양수기를 동원, 하천물을 채우고 있으며 7수영장은 모터펌프로 1일 700톤의 물갈이를 하고 있어 간이풀장 7개의 계단식으로 시설한 8상회는 모처를 이용해 하천물을 끌어올려 고객들에게 수영복을 대여해 주고 먹음 감도록 하고 있으나 당국이 모른 채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영장 오염 하천물 영업 성행」, 『한겨레』 1990년 8월 7일〉

이처럼 안양유원지는 1990년대 내내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1994년 7월 31일 보도에서는 행락객들이 남긴 쓰레기가 유원지 계곡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¹⁶ 1980~1990년대 안양유원지에서는 수많은 단체가 자연보호 캠페인을 실시하였지만,¹⁷ 일회성 행사에 그쳐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거의 없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환경문제는 계속 악화되었다.



1979년 2월 24일 안양코스모스산악회의 안양유원지 자연보호활동(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1979년 2월 24일 안양유원지 자연보호활동(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1980년 5월 3일 자연보호 정화운동(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1988년 10월 8일 안양유원지에서 개최된 자연보호현장 선포식(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1988년 10월 8일 안양유원지에서 개최된 자연보호활동(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1988년 10월 8일 안양유원지에서 개최된 자연보호활동(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1970년대 안양유원지 자연보호 캠페인(안양시청 제공)



1970~1980년대 안양유원지 자연보호 캠페인(안양시청 제공)



1980년대 유원지사거리(이정범 제공)

‘줍기 전에 안 버리기 자연사랑 나라사랑’, ‘주말은 가족과 함께 행복은 건전하게’라는 구호와 단독주택 분양 간판, 아파트 신축 조감도는 이 시기 안양유원지가 처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또한 1990년 8월 12일 경기도경찰청은 안양유원지를 포함한 수도권 40개 유원지에서 폭력배들이 관광객들에게 자릿세를 강요하며 폭력을 행사한 사건을 단속하였다.¹⁸ 또한 1995년 5월 9일 보도에서는 ‘관악산 다람쥐’라는 별칭을 가진 강도가 안양유원지에서 여성 등산객과 행락객을 대상으로 강도 및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범죄자는 1993년부터 활동했으며, 1995년까지 8건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이 수사를 강화했지만, 신고되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었다.¹⁹ 다음 기사는 1990년대 안양유원지가 직면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곳(안양유원지)은 자연스럽게 유원지로 발전해 지난 84년에는 국민관광지에서 비산공원이라는 도시 공원으로 이름도 바뀌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1km 남짓한 계곡 양쪽에 식당과 상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어 조용히 쉬기 위해 물가를 찾아온 이용객들에게 짜증만 더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원지 안에는



1990년대 안양유원지(이정범 제공)

여관이 10여 개나 들어서 있어 젊은 아베크족이나 탈선 중년 남녀들이 쉬어 가는 곳이 됐다. 이곳은 계곡이 가파르고 바위가 많아 물이 자주 마르는 편인데도 폭이 20m도 채 안 되는 계곡에 버젓한 물막이 시설이 없다. 그나마 물에 가까이 가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하천부지에 상인들이 천막을 쳐서 마련해 높은 장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상인들은 물 가까이에서 술을 마시고 싶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돌이나 마대를 동원해 개울 곳곳을 제멋대로 막고 독을 쌓아 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곳에는 복잡한 도시생활을 잠시 잊고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별다른 위락시설도 없는 실정이다. 공원 안에 개인이 운영하는 수영장과 오락장이 고작이어서 이제는 자연을 마주하는 휴식공간이 전혀 되지 못하고 다만 술 마시고 노래하는 유흥장으로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안양유원지는 어른 한 사람에 300원씩 입장료를 받고 있다. 작년의 경우 이곳을 찾은 49만여 이용객들 거의가 안양시민이거나 인근 도시의 주민들이었을 뿐이다.

안양시는 이에 따라 오래전부터 서울랜드처럼 안양권 100만 명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위락시설로 모습을 바꿀 계획을 추진했다. 하지만 그린벨트라는 법률상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 88년 결정한 개발계획은 시청 도시과의 캐비닛 속에서 잠만 자고 있다.

안양시의 당초계획은 공원용지 중 관악산 삼림지역을 제외한 6.65km²에 대해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 휴게소, 노인정, 야외극장, 온실과 같은 유희, 휴양, 교양시설을 고루 갖춘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공원 조성 면적의 70%나 되는 사유지의 토지매수에만 65억 원이나 들고, 시설 비용을 포함하면 모두 19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게다가 그린벨트 지역이라 민자 유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 자체의 힘만으로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안양시는 77년부터 거둬 온 입장료 수입을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유원지의 기반시설의 확충에만 사용해 왔다. 안양시청 계장은 비산공원은 그린벨트에 있는 탓으로 20여 년이나 된 판잣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공원 내 입주 상인들도 증개축이 안 돼 유원지가 더욱 쇠락하고 있다며 민자유치가 가능하도록 건설부에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건의해 놓고 있으나 실현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안양유원지 "짜증난다"〉, 『조선일보』 1991년 8월 28일〉

비산공원 개발 시도는 1990년대에도 이어졌는데, 1995년 안양시는 안양유원지 6만 3,000여 평의 부지에 269개 건물이 난립해 있는 유원지 전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 무허가 건물 양성화와 함께 유원지 전체를 현대식으로 정비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²⁰ 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여러 난관에 부딪혀 곧바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였다.

이처럼 1980~1990년대에는 유원지 시설 부족과 노후화, 환경오염과 쓰레기 문제, 바가지요금과 상업화 문제, 치안문제, 개발제한구역 규제와 행정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안양유원지는 단순 유희지 또는 방치된 공간으로 전락하였고, 2000년대에 이르러 관광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 1 「신록 찾아 90만 인파, 『경향신문』 1970년 5월 4일; 어제, 서울선 42만…올해 최고 높이 인파 145만, 『경향신문』 1970년 5월 18일; 「복종의 휴일 피서인파…1백만, 『매일경제』 1970년 7월 27일; 「피서인파 최고기록, 『경향신문』 1970년 8월 3일; 「피서 초만원 전국에 140만, 『동아일보』 1970년 8월 10일; 피서인파 60만, 『매일경제』 1972년 6월 5일; 「일요 대서 피서 절정, 『조선일보』 1972년 7월 25일; 「8월 두 번째 휴일 막바지 피서객 전국서 83만명, 『매일경제』 1972년 8월 14일; 「초하인파 백만여명 유원지 강변 등에 몰려, 『경향신문』 1973년 5월 28 일; 「피서인파 40만명 17일 폭섬 15만명이 최고, 『매일경제』 1973년 6월 18일; 「진주-대구는 33.3도 무더운 휴일, 전국서 익사 17명, 『경향신문』 1973년 6월 25일; 「방학 첫 휴일 피서 인파 150만, 『동아일보』 1976년 7월 26일.
- 2 「고속화도로로 경수간 15분 이상 단축, 『동아일보』 1973년 11월 23일.
- 3 「경부고속도로 개통, 『동아일보』 1970년 7월 7일.
- 4 「일요 대서 피서 절정, 『조선일보』 1972년 7월 25일.
- 5 「영동고속도로 개통, 『경향신문』 1971년 12월 1일; 영동-동해 고속도로 개통, 『경향신문』 1975년 10월 14일.
- 6 「어린이 대공원에 인파 60만, 『조선일보』 1973년 5월 6일.
- 7 「450만평에 펼친 파노라마 18일 개장될 용인자연농원, 『매일경제』 1976년 4월 8일; 용인자연농원 개장, 『경향신문』 1976년 4월 19일.
- 8 「안양유원지, 시민이 앞장서 개발하자, 『안양저널』 제7호, 1991년 11월 6일, 19-20쪽.
- 9 「식사시간에 불결한 곳 비취 혐오 감춘 질서캠페인, 『동아일보』 1983년 4월 18일.
- 10 「행락지 편의시설 낙제, 『동아일보』 1988년 8월 4일.
- 11 「유원지 악덕상혼 단속하라, 『동아일보』 1983년 8월 4일; 「아무리 유원지라도 바가지요금 받다니, 『경향신문』 1983년 8월 24일.
- 12 「소비자연맹 조사 유원지에 물가폭염, 『경향신문』 1984년 7월 28일.
- 13 「유원지 악덕상인 조치 당국의 처리 결과, 『동아일보』 1983년 9월 8일.
- 14 「법원 탈주범 잡혀, 『동아일보』 1984년 6월 30일.
- 15 「취객 상대 금품 털어, 『동아일보』 1988년 4월 28일.
- 16 「부끄러운 휴가철 산-바다 쓰레기 병, 『조선일보』 1994년 7월 31일.
- 17 「자연보호 캠페인, 『조선일보』 1990년 11월 5일.
- 18 「유원지 자릿세 강요 폭력배등 23명 입건 경기도경, 『동아일보』 1990년 8월 12일.
- 19 「여 등산객-불교신도 성폭행 강도 '관악산다람쥐' 다시 출몰, 『동아일보』 1995년 5월 9일.
- 20 「안양유원지 일대 전면 개발된다, 『안양저널』 제92호, 1995년 12월 20일, 8쪽.

제1장

그 여름, 우리는 안양유원지에 갔다

정명림 작가



1. 안양유원지로 놀러 갈까?

이른 아침 안양역 플랫폼에 열차가 멈추자, 칸마다 승객이 빼곡히 들어찬 열차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내려왔다. 한적한 플랫폼이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다. 북적이는 기차 안에서 시달리며 왔어도 여행 기분에 들떠서인지 내리쬐는 피약볕 아래서도 한껏 밝은 얼굴들이다.

양쪽에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출렁출렁 걷는 아이를 데리고 가는 이들은 아마도 가족,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은 여자와 멋들어진 셔츠를 입은 이들은 연인일 것이다. 길을 가면서도 재잘재잘 수다가 끊이지 않는 무리는 방학을 맞아 물놀이를 나선 학생들이일 터였다. 그런가 하면 허연 수영에 한복을 입은 어르신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주머니들도 눈에 띈다. 차림도 인원 구성도 다양각색인 일행이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가는 목적지는 바로 안양유원지이다. 버스는 버스대로 안양역에 내린 사람들을 유원지로 한가득 실어 나른다. 안양역 앞 광장에는 유원지로 가는 버스를 타려는 사람이 늘 넘쳤다. 더디 운행되는 버스를 기다리지 못하고 안양역부터 걸어오는 사람들도 많았다.

‘안양유원지’라고 쓰인 커다란 아치를 뒤로 하고 유원지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물결은 한여름 유원지 입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말 그대로 국민유원지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는 장관이었다. 안양유원지는 서울에서 가까우면서도 자연경관이 강원도 깊은 산골 못지않은 수려함을 자랑하였다. 우뚝 솟은 바윗돌이 멋들어지게 늘어서 있고 울창한 숲이 계곡을 감쌌다. 수량도 풍부해서 물놀이 하기에든 최적이었다. 그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점은 서울에서 가깝다는 점이 아니었을까. 1959년 6월 13일 『조선일보』에 ‘즐거운 하룻길(9) 안양풀’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를 보자.



버스에서 내려 안양유원지로 향하는 행락객(닐 미살로프 촬영)





1970년대 안양유원지 입구 관리사무소(최창선 제공)





입구 관리사무소를 지나 계곡으로 향하는 피서객(최창선 제공)





삼성산 주변 사찰과 궁술장 위치를 알리는 맘모스폴장 앞 이정표(닐 미살로프 촬영)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을 막아 만든 안양「풀」은 주위의 자연풍경을 배경 삼아 마치 산수화를 그린 병풍을 두른 듯한 곳이다. 여름에는 유명한 포도가 미각을 돋구어 주며 서울에서 교통도 가장 편하고 가족 동반의 하루로서는 알맞은 곳이다. 수시로 다니는 시외「버스」와 합승 기차의 편의가 있고 자가용차로도 좋은 「드라이브」 「코스」로서 많은 사람을 끌고 있다.

〈즐거운 하룻길(9) 안양풀〉, 『조선일보』 1959년 6월 13일

이와 같이 안양풀 개장 소식과 유원지를 소개하는 기사는 꾸준히 실렸다. “안양유원지 풀에는 1만여 명이 몰려 와글와글, 서성대기만 하는 정도”였고,¹ “안양관광호텔 풀의 경우 정원은 566명이었으나 2,000여 명이 몰려 콩나물시루를 연상케 했다.” 는 기사를 통해서 안양유원지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²

여름 성수기에는 그야말로 물 반, 사람 반이었을 터였다. 1967년 7월 여름 “안양유원지에는 하루 평균 4만여 명(일요일 10만)의 피서객이 몰렸다.”³ 고 하는데, 과연 안양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양산을 든 부녀자들(닐 미살로프 촬영)

원지를 다녀간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 수만كم 안양유원지에서 여가를 보낸 경험들이 수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2. 계곡 따라 넘쳐나던 놀이와 웃음

여름이 가장 성수기이기는 했지만 봄과 가을에도 유원지를 찾는 나들이객들이 많았다.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그때는 어머니날), 부처님 오신 날 등 휴일에 봄나들이 오는 손님들이 많았는데 가족이나 데이트족뿐만 아니라 주변 학교에서 소풍을 오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 야유회나 동네 부녀자들 계모임 등에서 단체로 오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이에 관해서 1970년대에 유원지에서 사진사로 활동했던 이정범(1948년생)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정범은 1968년에 안양유원지로 이사를 와서 살던 그 시절 유원지



울긋불긋한 풍선을 잔뜩 매단 풍선 장수(닐 미샬로프 촬영)

의 산증인이다. 이정범은 유원지 사진사로 활동하는 동안 유원지 곳곳의 풍경들을 사진에 담았는데 상당수가 1977년 안양대홍수 때 떠내려갔다고 해서 안타까웠다.

안양유원지 입구에 들어서면 울긋불긋한 풍선을 잔뜩 매단 풍선 장수와 아이스크림 장수가 아이들을 유혹하였다. 유원지 나들이에 부풀었을 아이들 마음 같은 풍선과 리어카만 보아도 시원하고 달콤하게 느껴지는 아이스크림이 유원지다운 분위기를 보여 주었다.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음식점도 있고 물놀이용품을 대여해 주는 가게들도 있고 총 쏘기나 공 던지기 놀이를 하는 가게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어서 나들이객의 발길을 붙잡고는 했다.

계곡을 따라 더 올라가 지금의 파빌리온이 있는 벽천광장 자리에는 그네장이 있었다. 누구나 그네를 타면 춘향이 된 듯했다. 한복을 곱게 입은 아주머니도 원피스를 멋들어지게 빼입은 아가씨도 그네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였다. 요령껏 밧을 굴러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올라탔을 때는 그네가 쉬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뒤에서 누군가 힘껏 밀어주면 이내 날 듯이 바람을 갈랐다. 그네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구경꾼들 고개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재미있었다. 여자들만 그네를 탔던 것은 아니다. 남자들은



안양유원지 그네장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이 모여 있는 놀이장(닐 미살로프 촬영)

호기롭게 그네에 올라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오르려고 경쟁적으로 발을 굴렀다. 보기에다 아찔하게 높이 올라가면 아래에서 구경하던 이들은 가슴을 졸이며 지켜보기도 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그네를 타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그네 기둥과 거의 수직이 되도록 높이 올라가는 그네를 보고 아버지가 떨어질까 봐 조마조마했던 마음을 기억하는 이도 있다. 까르르 웃음소리, 그네가 오르고 내리는 리듬에 맞춰 지르는 환호성으로 그네장 주변은 늘 시끌벅적했다. 지금으로 치면 바이킹을 타는 풍경과 비슷했을 것 같다. 보는 이들에게는 자칫 위험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네를 타는 이들은 그넷줄에 매달려 바람을 가르며 날아오르는 그 순간만큼은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 가슴이 땡 뚫리는 해방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네장 주변에는 활쏘기장과 탁구장도 있었다. 또 맞은편에는 작은 자동차를 줄줄이 엮어 놓은 꼬마기차를 타는 곳도 있어서 제법 놀이동산 분위기를 풍기기도 했다. 오늘날 크고 화려한 놀이동산과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그런 시설이 흔치 않던 당시에 아이들에게는 꿈동산 놀이터였을 것이다.

또 유원지에는 대개 강가나 큰 호수에서 볼 수 있는 보트장이 있었다. 숲속의 낭만적



숲속 낭만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보트장(안양상공회의소 제공)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보트장은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다. 보트장은 겨울이면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기도 해서 어린 손님들에게는 또 다른 놀이터가 되었다.

안양유원지에 대한 기억이 카바레와 호텔로 남아 있는 이들도 있겠다. 유원지는 수려한 자연 풍광과 물 좋은 계곡으로 유명했지만, 카바레와 관광호텔로도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어쩌면 공기 좋고 풍광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더 인기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카바레는 두 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안양에서 최초로 생긴 것이라고 한다. 카바레에는 서울의 영등포 등지에서도 손님이 모여들 만큼 성업을 했다. 유원지 안쪽으로 쪽 들어가면 1970년에 개장한 안양관광호텔이 있었는데, 야외에 수영장도 있고 나이트클럽도 갖춘 1970~1980년대 안양에서는 최고의 시설이었다. 나이트클럽에서는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사랑과 평화’처럼 TV에서나 보던 국내 최고 밴드들의 공연이 열렸기 때문에 대중문화를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다.

숲과 계곡뿐만 아니라 이런 다채로운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안양유원지의 매력이었다. 가족, 연인, 친구, 이웃사촌, 회사 동료 등 다양한 관계의 사람들이 유원지에서



1969년 안양유원지 제1폴장(날 마살노프 촬영)
조금 큰 아이들은 깊이가 있는 제1폴에 호기롭게 들어가곤 했다.

저마다의 추억을 만들었다. 외지에서 나들이 오는 아이들은 주로 가족과 함께 왔지만, 안양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유원지가 동네 놀이터였다.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그때의 기억을 모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될 것이다.

건이는 학교 끝나고 안양풀에 놀러 갈 생각에 들떠 있었다. 오늘부터 풀장을 연다고 했다. 지난해에는 수영을 못 배워서 얇은 풀에서 물장구만 치고 놀았는데 이제는 제대로 배워 볼 참이었다. 사실 수영은 못 해도 괜찮았다. 물놀이하고 게임장 구경만 해도 오후 해가 짧았다. 벌써 몇몇 아이들은 무리를 만들어 함께 안양풀에 가기로 약속을 하는 모양이었다.

봄에는 소풍도 다녀왔다. 하지만 그때는 물에 들어갈 때가 아니었다. 보물찾기를 하고 장기자랑을 하고 도시락을 먹고 놀다가 왔다. 어서 여름이 왔으면 했다.

건이가 안양풀에 가려면 제법 먼 길을 걸어가야 했다. 땀병에 견느라 온몸이 땀과 흠뻑이 되어있지만 물놀이를 할 생각에 그저 신이 날 뿐이었다. 걷다가 나무 그늘이 나오면 쉬기도 하면서 그렇게 갔다.



1969년 깊이가 얇고 바위가 많은 제3폴장(닐 미살노프 촬영)
제3폴장은 인공적으로 만든 곳이 아니라, 제2폴장 위 자연 계곡의 물웅덩이이다.

그래도 건이는 안양에 사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평일에도 학교 끝나면 언제나 풀에 놀러 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일요일에는 서울이나 주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로 미어터져서 물 구경을 하기도 힘들지만, 평일에는 마음껏 풀을 차지할 수 있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평일에도 사람들이 몰려들 테니 그 전에 하루라도 알뜰하게 놀아야 했다.

대신 그때는 물놀이는 잘 못했지만 사람 구경은 실컷 했다. 서울에서 온 아이들은 얼굴이 보얀 것이 때 갈부터 달라 보였다. 차림새도 생김새도 다른 사람들 구경하는 재미도 제법 쏠쏠했다.

어제 건이 형은 고무신 한 짝을 잃어버렸다고 엄마한테 야단을 맞았다. 고무신으로 배를 띄우고 놀았는데 어느 순간 가라앉은 고무신 배가 아무리 풀장 바닥을 뒤흔어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며칠 전에는 옆집 형이 수영하느라 벗어 놓은 뿔도리가 없어졌다고 한참 찾으려 다닌 적도 있었다.

신발도 잃어버리고 옷도 잃어버리지만, 유원지 풀에 놀러 가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조금 큰 아이들은 깊이가 있는 제1폴에 호기롭게 들어가곤 했다. 그러다 자칫 깊은 곳으로 가 허우적거리고 나면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다이빙을 한다고 뛰어드는 아이들도 많았는데 깊이가 얇고 바위가 많은 제3



안양유원지 제2풀장과 진로 포도주 광고(닐 미살노프 촬영)



주류 집회를 판매하는 동양매점(닐 미살노프 촬영)



대형풀장과 탈의장(닐 미살노프 촬영)

풀에서는 바위에 머리를 부딪치곤 했는데 깨진 머리에서 피가 나와 물을 빨갛게 물들였다. 그래도 아이들은 끊임없이 물에 뛰어들었다.

물놀이하다가 지치면 간혹 유원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구경을 했다. 돈이 없어서 게임을 자주 할 수는 없었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있었다. 특히 물방개 게임이나 도깨비 터널이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공 던지기, 총 쓰기도 재미난 오락거리였다.

해가 저물도록 놀다가 집에 갈 때가 되면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절로 났다. 하루 실컷 놀고 난 아이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다.

기차나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안양유원지를 다니던 이들은 흙먼지 뒤집어쓰고 걸었던 길을 기억하였다.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가 만난 안양풀이 얼마나 반가웠을지 어렴풋이나마 짐작이 간다. 방학이면 하루에 두 번씩 수영하러 다닌 일, 배가 고프면 주변 밭에서 참외나 수박 서리를 해서 먹던 일, 옷을 입은 채 수영을 하고 젖은 옷을 대충 짜서 입고 집에 돌아가던 일도 어린 시절 소중한 추억이다.

더러 안양에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아이들이나 제법 먼 동네 아이들이 놀러 오기도 했다. 안양시 공식 블로그에 ‘골목길’이라는 노래로 알려진 가수 이재민의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 안양유원지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한 대목을 보면 당시 안양유원지의 명성을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안양에서 가장 재미있던 기억은 초등학교 4~5학년 무렵이에요. 제가 어릴 때 서울 충정로에 살았는데 동네 친구들이랑 안양유원지에 자주 놀러 갔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죠. 꼬맹이 녀석들이 버스를 한 시간 반 타고 가서 신나게 놀다가, 배가 고프는 때가 되면 척척 집으로 돌아와서 밥을 먹고 했으니까요. 야외 수영장에서 노는 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어요.

〈1985 그 골목길에 순정남이 있었다. 가수 이재민, 2014년 5월 30일, 『도시락』 6월호(안양시 공식 블로그)〉

3. 소풍, 미팅, 야유회는 안양유원지에서 ……

1) 소풍은 안양유원지로!

안양 주변 초중고등학교에서 안양유원지는 단골 소풍지였다. 봄과 가을이면 유원지에는 여러 학교에서 소풍을 왔다. 알록달록 사복을 입거나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유원지를 가득 메운 진풍경이 펼쳐졌다. 소풍 때 찍은 사진 속 아이들 얼굴은 모처럼 나들이에 신이 나 보인다. 학교를 벗어나 ‘놀러(선생님들은 소풍은 수업의 연장이라고 말씀하신다)’ 가는 날인데다가 소풍 가방에는 평소에 먹기 힘든 김밥에 삶은 달걀과 사이다가 들어 있고 과자도 봉지째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날이었을 테니 말이다.

오후가 되면 흩어진 아이들을 찾는 함성이 여기저기서 들려 유원지가 떠들썩했다. 한바탕 소란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소풍 온 아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갑자기 유원지가 텅 비어 고요해졌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유원지야?’ 하며 식상하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잠을 설치며 기다린 첫 소풍의 설렘은 나이가 들어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있지 않을까.



1959년 안양국민학교 입학기념 소풍(김성수 제공)



1980년대 안양유원지로 소풍 온 중학생들(이정범 제공)

1959년 안양국민학교 학생들이 입학기념으로 안양유원지로 소풍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이 남아 있다. 아이들이 푹푹뽀뽀한 눈을 빛내며 앉아 있고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뒷자리를 차지한 모습이 인상적인 사진이다. 사진을 보고 있자니 이제는 나이 많은 어른신이 되었을 그 아이들이 경험한 첫 소풍의 기억은 어땠을지 궁금해진다.

비단 안양뿐만 아니라 안양과 접하고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도 한 번쯤은 유원지로 소풍을 다녀온 기억이 있을 것이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에 있는 중고등학교가 주로 많이 왔다. 군포, 의왕, 과천 등 시흥 군내 지역에서는 두세 시간을 걸어서 가기도 했다고 한다. 1964년 평택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소풍 사진으로 보면 꽤 먼 지역에서도 소풍을 왔던 것 같다. 이정범의 기억으로는 중등고등학교에서도 온 적이 있다고 한다. 그 당시에 중등고등학교가 서울시 종로구에 있었으니 소풍지 치고는 멀리 온 셈이다.

유원지에서 사진을 찍었던 이정범은 학교 소풍 사진에 관해 남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반별로 단체 사진을 찍기도 했지만, 개인 사진은 무작위로 찍어서 현상을 한 뒤 학교 앞에 가서 팔았다는 것이다.

그냥 막 찍는 거예요. 찍어 달라고 하면 다 찍어 주는 거예요. 사진을 뽑아서 학교 앞으로 가. 찍 늘어놓고 사진 찾아가라고 하지요. 500 장 찍었으면 300장 정도 팔려요. 그래도 (이문이) 남아. 그걸 한 5일 동안을 학교 앞으로 가서 팔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남는 것은 사진뿐일 듯하다. 그렇게 찍힌 사진들이 오래전 안양유원지로 소풍을 갔던 추억을 담은 채 많은 이들의 앨범에서 잠자고 있을 것이다.

2) ‘진짜’ 미팅, ‘가짜’ 미팅

“안양유원지 60년대 가족나들이객-미팅족 ‘복직’”⁴이라는 기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1960년대 안양유원지는 포도의 계절이면 대학생 미팅 장소로 애용되었다. 이런 유원지에서 기상천외한 사건이 있었으니 이른바 ‘안양유원지 쌍쌍파티’이다. 1971년, 당시 대학가는 민주화 시위로 휴교와 휴강으로 학사 일정이 마비되다시피 했다.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던 학생운동 지도부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와 구속, 수배로 분위기가 삼엄한 때이기도 했다.

그해 6월 어느 날, 이런 분위기와는 상관없다는 듯 안양유원지에서는 쌍쌍파티가 열렸다. 스무 명 남짓한 남녀가 잔디밭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모임을 즐기고 있었다. 게임도 하고 담소도 나누는 모습이 여느 미팅과 다름없어 보이는 이 광경은 사실은 학생운동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 모인 위장 쌍쌍파티였다.

이런 위장 모임을 하게 된 까닭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의 모임을 당국에서 항상 예의 주시하며 감시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학생들이 섞여 있는 모임은 경찰의 눈길을 피하기가 쉬웠다. 더욱이 모임 장소가 젊은이들의 미팅 장소로 유명한 안양유원지라 의심의 눈초리를 쉽게 떨쳐 버릴 수 있었으니, 가히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겠다.

‘안양유원지 쌍쌍파티’는 민주화운동에서 ‘남녀 공조’가 이뤄진 출발점이라고 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안양유원지 모임은 학생운동사에서 최초로 전국 규모 대학의 ‘단일대오’를 성사시킨 점에서도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안양유원지 모임은 여러 조직과 노선의 차이를 수렴, 전국학생연맹(전학련)이라는 하나의 조직체로 통합하는 결론을 이끌어낸 이벤트였다. 초여름 메마른 저수지 위 잔디밭에서 열린 쌍쌍파티는 겉표지만 예로물인 시대극이었다.



안양유원지에서 데이트를 하는 젊은이들(닐 미살로프 촬영)

〈신동호, 「문화 속 시대 읽기-안양유원지 쌍쌍파티」, 『웹진 민주주의』 2008년 12월 23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렇듯 학생운동을 하는 대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이용할 만큼 안양유원지는 철마다 젊은이들이 미팅 장소로 유명한 곳이었다. 도시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숲과 계곡의 낭만이 있는 유원지만의 분위기가 많은 젊은이들을 불러들였을 것이다.

봄에는 딸기밭에서 여름이 지날 무렵에는 포도밭에서 미팅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이렇게 만나 연인이 된 이들이 여름이면 풀장으로 보트장으로 데이트하러 오지 않았을까. 그야말로 ‘사랑이 꽃피는 유원지’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듯하다.

3) 야유회도 안양유원지로!

안양유원지는 학교 소풍 못지않게 회사나 친목계 모임 등에서 야유회 같은 단체 모임을 하기에도 좋았다. 1960년 6월 29일 안양유원지 풀에서 전국 각 화학회사 노동자대표



안양관광호텔과 나이트클럽(안양상공회의소 제공)

대의원 29명이 참석, 제2차 연차대회를 개최하였고,⁵ 현대양행 안양기계제작소(이후 만도기계) 직원들도 1965년 5월 3일에 안양유원지에서 야유회를 개최하고 사진을 남겼다.⁶

회사 야유회가 봄이나 가을처럼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에 몰렸다면, 평소에는 주변 회사에서 회식하러 많이 왔다. 회식 때는 식당에서 잡아 놓은 물가에서 먹거나 식당에서 모여서 먹었다. 구멍 송송 뚫린 불고기 판에서 구운 불고기, 닭이나 오리백숙, 도토리묵, 빈대떡 등이 주요 메뉴였다. 적당히 배를 채우고 나면 식당에 딸린 족구장에서 족구 시합을 하기도 했다.

봉암식당 사장 유정례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그 당시 회식의 분위기를 살짝 엿볼 수가 있다. 한꺼번에 들이닥친 회식 손님에 맞아 정신없이 분주했을 식당 분위기가 가히 짐작이 간다. 과연 그때 그 사람들은 봉암식당에서 먹은 백숙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유정례 삼부토건이라고 있어요. 토목공사 하는 사람들. 그때 그거는 진짜 잊어버리지 않아 영계백숙을 한 70~80마리 시켰는지 했는데 그때는 불도 시원치 않잖아요. 지금은 가스 불도 있고 삶는 것도 좋잖아요. 영계백숙을 하는데요. 한쪽에서는 먹는데 한쪽에서는 날 거야 삶아내지 못하니까 한쪽에서는 먹고 한쪽에선 빨리 안 가지고 온다고 난리를 치는데, 불 때서 하는 거라 속도 코지 않고, 그때 그



장구를 치고 춤도 추며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녀자들(닐 미살로프 촬영)

거 생각이 난다니까 빨리 달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먹는 사람이 있는데 한쪽에는 날 닭이 있어 숲에 들어가지 못한 닭도 있어. 하여간 많이 왔어요.

〈안양박물관, 『굴뚝 도시 안양의 기억』, 2017〉

유원지 안에 있던 유유제약은 어땠을까. 유유제약에 다녔던 최원균 말에 따르면 회식 장소를 유원지 아닌 다른 곳으로 잡곤 했다고 한다. 유유산업에서는 포도철이 되면 포도밭에서 포도를 사 먹으며 회식을 했고,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유원지에서 삼막사까지 등반대회도 했다고 한다.

최원균 여기 안양유원지 주변에서 많이들 야유회를 했지만 우리는 매일 출근하는 곳이니까 다른 곳들로 갔죠. 서울대 수목원 안에 가면 잔디밭이 있어요. 서울대 의사들이나 교수들이 와서 이용하는 잔디밭인데 아주 잘 조성되어 있어요. 그 안을 빌려서 야유회도 했고요.

〈안양박물관, 『굴뚝 도시 안양의 기억』, 2017〉



부녀자들의 친목계(닐 미살로프 촬영)

계곡 안쪽으로 들어가면 기아연수원 건물(구 안양관광호텔)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신입사원들이 연수를 받았다. 연수원 안에서 생활했을 터라 유원지를 얼마나 이용했는지 모르지만, 신입사원들에게 안양유원지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설렘과 함께 기억되어 있지 않을까. 또 회사에서 사원복지 차원에서 안양유원지를 가족 휴양지로 지정한 경우도 있었다. 유한양행에서는 안양관광호텔 풀장을 사원과 그 가족들이 주말이나 휴가 기간에 이용토록 입장료 일부를 회사가 부담해 주고 무료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다.⁷

친목계 모임은 또 어떤가. 주로 여자들 모임인 친목계는 어머니날에 많이 왔는데 남아 있는 사진들을 보면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자들이 장구도 치고 춤도 추며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늘 집안에 갇혀 살림만 하던 주부들에게 하루 동안의 유원지 나들이는 일상을 벗어난 탈출구였으리라.

여행이 쉽지 않던 그때 여자들 현실에서는 서울에서 당일 나들이가 가능한 유원지가 안성맞춤이었겠다. 여자들만의 시간 속에서 춘향이처럼 그네도 타고 술 한 잔, 노래 한 자락에 덩실덩실 춤까지 추고 돌아가면 새로운 활력이 생겼을 것 같다.

4. 도시락과 백숙, 아이스케키 …… 그리고 포도

소풍 하면 도시락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연관 기억일 만큼 안양유원지에 대한 기억에서 먹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다. 집에서 싸가는 도시락이야 별다르지는 않았겠지만, 유원지라는 장소가 주는 분위기가 평범한 도시락도 특별한 맛으로 기억되게 만들었을 듯하다.

학교 소풍이든 가족 나들이든 나들이를 가기로 하면 점심 도시락 준비가 기본이었다. 찬합이라 했던 도시락통에 김밥이나 흰밥, 달걀말이, 불고기, 김치 등을 층층이 담아 갔다. 거기에 삶은 달걀과 사이다도 필수였다. 계곡 옆 그늘에 돛자리를 깔고 앉아 도시락을 먹으면 꿀맛이었을 것이다.

도시락을 싸 가서 먹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계곡에서 해 먹거나 음식점에서 사 먹는 이들도 있었다. 캠핑용품이 없던 시대에는 냄비, 양푼, 주전자, 밥공기를 바리바리 싸 가지고 가서 밥을 지어 먹었다. 계곡에서 닭백숙이라도 해 먹을 요량이었는지 솥단지까지 갖고 가기도 했다. 공기 맑은 숲속에서 밥을 짓고 고기를 구워 먹는 재미가 쏠쏠했을 것이다.



도시락을 먹고 있는 가족(닐 미샬로프 촬영)



안양유원지 아이스케이크를 사먹고 있는 아이들(닐 미샬로프 촬영)

식당에서 계곡에 잡아 둔 자리에서 불고기 같은 것을 시켜 구워 먹기도 했는데, 지금처럼 캠핑 문화가 없던 시절에 겪은 경험이라 각별한 기억이 아닐까 한다.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주메뉴는 단연 백숙이었다. 지금이야 흔히 먹을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유원지 하면 백숙을 떠올릴 정도로 백숙은 유원지에 특화된 음식이었다. 닭이나 오리백숙에 도토리묵 무침, 빈대떡, 막걸리 등은 유원지에 가면 으레 있어야 할 메뉴였다.

이정법이 들려준 웃지 못할 일화가 있다. 한때 쌀 부족을 이유로 정부에서 혼분식 관련 규제를 했던 기간이 있었다. 1967~1976년에 모든 음식점은 밥에 보리쌀이나 면류를 25% 이상 혼합하여 판매하도록 해서 이를 위반한 음식점은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유원지 음식점에는 종종 단속반이 혼식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러 다녔는데 이때 음식점뿐만 아니라 단속반원들이 나들이객 도시락까지 검사하고 다녔다고 한다. 한참 흥에 겨워 도란도란 모여 앉아 식사하던 사람들이 단속반을 만나면 먹던 밥알이 목에 걸리거나 앓았을는지. 위반 사항이 있어도 별다른 조치는 없이 계도 정도만 했다고 하니 다행이긴 하지만 시대가 낳은 어처구니없는 에피소드가 아닐 수 없다.

유원지 분위기를 달달하게 만들어 준 아이스크림도 기억나는 먹을거리 가운데 하나



계곡에서 물장난을 치고 있는 아이들과 상인들이 처 놓은 차양에서 더위를 피하며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넬 미살로프 촬영)





유원지 입구에서 팔고 있는 안양 포도(닐 미살로프 촬영)

다. 시원해 보이도록 파란색으로 페인트칠한 몸체에 빨간 글씨로 ‘아이스크림’이라고 쓴 리어카 주변은 늘 아이스크림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한편 커다란 가방에 아이스크림을 넣고 돌아다니면서 파는 장수도 있었다. 어떻게 팔든 아이스크림은 더위를 한 방에 가시게 해 줄 인기 만점 간식이었다. 아이스크림 장수가 ‘아이스케키’하고 외치는 소리는 물놀이 정경과 함께 익숙한 유원지의 풍경으로 남아 있다. 이정범이 기억하기로는 그때 유원지에 해태 아이스크림 대리점이 있었는데 여기서 아이스크림을 받아다가 파는 장사가 스무 명 남짓 있었다고 했다. 아이스박스로 된 가방에 아이스크림을 넣고 유원지 곳곳에 돌아다니며 팔았는데 다니다가 사진 찍기 좋아 보이는 모임을 보면 친한 사진사에게 와서 알려 주기도 했다고 한다.

유원지 먹을거리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포도이다. 안양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포도밭으로 많이 놀러 왔다. 그 당시에 안양 포도는 너무나 유명해서 포도철이면 신문에 기사로 소개되곤 했다.

안양포도 일제-60년대, 당도-육질 명성

주말엔 10만 인파, 미팅장소로도 인기

중년 이상이라면 「안양포도」를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중략) 지난 63년 홍콩에서 열린 동경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연락관 회의 때 북측 대표의 첫 인사가 “안양 포도는 요새도 맛이 있소?”라고 물었을 정도. (중략) 서울에서 친구들과 포도를 먹으러 안양에 자주 들렀다는 김한조 씨는 “달콤한 첫 맛과 시큼한 뒷맛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회상했다.

〈「안양포도」, 『조선일보』 1997년 3월 9일〉

유원지 입구부터 길가에 나무 상자를 위에 포도를 담아 늘어놓고 팔았다. 포도가 유명한 만큼 포도주도 많이 만들어 팔았다. 유원지나 인근 동네 아이들은 포도 서리를 하던 기억을 많이 이야기하였다. 밤마다 지키는 자와 서리하는 자들의 숨바꼭질이 치열했을 법하다. 그 시절 유원지 근처에 살거나 유원지에 왔던 사람이라면 유원지와 더불어 안양 포도에 대한 기억도 알알이 맺혀 있을 것이다.

5. 기억의 조각들

안양유원지에서는 종종 수영대회나 행사 등이 열려 구경거리가 생기곤 했다. 안양풀에서 열린 수영대회는 유원지를 방문하는 이들에게는 색다른 볼거리였다.

석수동에는 1957년에 세운 영화촬영소가 있었는데 가끔 안양유원지에서 촬영을 하곤 했다. 그럴 때면 배우도 보고 영화 촬영하는 것도 보려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1962년에는 유원지 계곡에서 김지미, 김진규, 박노식 같은 배우가 출연했던 '진시황제와 만리장성'을 촬영하였다. '충무공 이순신' 같은 영화는 안양풀장에 모형 배를 띄워 촬영을 했다. 그때 현장을 구경했던 이는 촬영 현장을 볼 때는 미니어처가 장난감처럼 보였는데, 영화에서 보니 웅장하게 보여 "신기하기도 하고 속은 것 같았다."고 한다.

봉암식당을 운영하는 문병철은 그때 당시에 유원지에 연예인도 많이 왔다고 기억하였다. 가까이 영화촬영소도 있는데다가 카바레나 나이트클럽 같은 유흥지가 다른 곳

에는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다. 최무룡, 한혜숙, 염복순 같은 배우들은 봉암식당에도 왔었다고 한다.

1974년 8월 안양유원지에서는 KBS에서 하는 '젊음의 행진' 프로그램을 녹화하였다. 대부분 1980년부터 시작한 '젊음의 행진'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 전에 가수 윤행주가 진행한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한다.⁸ 당시 여름 특집으로 안양유원지에서 방송 녹화를 할 만큼 유원지의 명성이 높았던 것이다.

남아 있는 기록들로 보면 안양유원지에서 갖가지 행사들이 치러졌다. 이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모두 찾을 수는 없었지만, 그때 그 시간을 경험했던 이들의 마음속에는 안양유원지에 대한 기억의



안양유원지에서 촬영된 영화 '진시황제와 만리장성'의 포스터

조각들이 반짝이고 있을 것이다.

기억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아마도 소풍을 가기 전날부터, 안양유원지로 가는 기차와 버스를 타면서부터가 아닐까. 일상을 벗어난다는 기대와 쉽게 만나지 못했던 놀이시설들에서 느낀 즐거움과 푸른 자연과 물놀이의 시원한 기억들. 폭 삶아낸 백숙과 계곡에서 돛자리 펴고 먹었던 도시락도 기억의 한편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안양유원지는 많은 이들의 가슴에 멎진 추억을 심어 준 명소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을 것이다.

註

- 1 「시외로 물린 인파 안양-인천에 4만」, 『경향신문』 1964년 7월 20일.
- 2 「폭서 주말...33도 5분」, 『조선일보』 1976년 7월 27일.
- 3 「하루 평균 4만여 안양유원지에도」, 『매일경제』 1967년 7월 29일.
- 4 「안양유원지 60년대 가족나들이객-미팅족 '복적」, 『동아일보』 1997년 11월 18일.
- 5 「안양유원지에서 화학노조 연차대회」, 『조선일보』 1960년 7월 6일.
- 6 한라그룹, 『한라그룹 오십년사』, 2013.
- 7 「사원 복지시설 늘어나」, 『경향신문』 1975년 7월 23일.
- 8 「안양유원지 녹화」, 『조선일보』 1974년 8월 3일.

제2장

안양유원지, 그곳에 사람이 살아요!

정명림 작가



1. 유원지 마을 가는 길

흔히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면 산 좋고 물 맑은 동네를 떠올린다. 울창한 숲이 있으니 맑은 공기는 텀이리라. 도시와는 거리가 먼 두메산골 마을에나 가능한 입지 조건이다. 도심에서 멀지 않으면서 이런 조건을 두루 갖춘데다가 예술적인 분위기까지 물씬 풍기는 마을이 있으니, 지금은 안양예술공원으로 이름이 바뀐 안양유원지 마을이다.

안양이라고 하면 바로 유원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안양유원지는 안양을 상징하는 곳이었다. 안양예술공원으로 이름이 바뀐 지 제법 오래되었는데도 그 시절을 겪은 이들에겐 유원지라는 이름이 익숙해 아직도 안양유원지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대개 유원지나 놀이동산과 같은 관광시설은 마을과는 동떨어진 별개의 공간인 경우가 많다. 이와 달리 안양유원지는 외부 사람들에게는 놀이가 있는 곳, 일상을 벗어나 쉬는 곳, 관광지이지만 그 안에는 일상을 살아가는 마을을 품고 있다. 유원지 마을은 안양유원지가 조성되기 전부터 이재신(1964년생)처럼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들과 이경희(1958년생)처럼 외지에서 살다가 들어온 이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마을이다.

서울에서 수원 방향으로 쪽 뻗은 경수대로를 따라가다가 석수동에 이르면 예술공원 고가차도 왼편에 안양예술공원이 나온다. 지금은 10차선 대로에 고가차도가 있고 고층 건물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안양예술공원 입구를 차지하고 있지만 예전 안양유원지 입구는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다.

유원지 마을의 풍경은 주변이 개발되면서 산과 개천 말고는(심지어 산과 개천까지도) 지금까지 계속 바뀌어 왔다고 하겠다. 또 마을 밖에서 바라본 풍경뿐만 아니라 유원지 마을 안 모습도 유원지의 부침에 따라 많이 바뀌어 왔다.



해안도로(만안로)

경수산업도로(국도1호선)

경부철도

유원지
지하차도

미군부대터

아랫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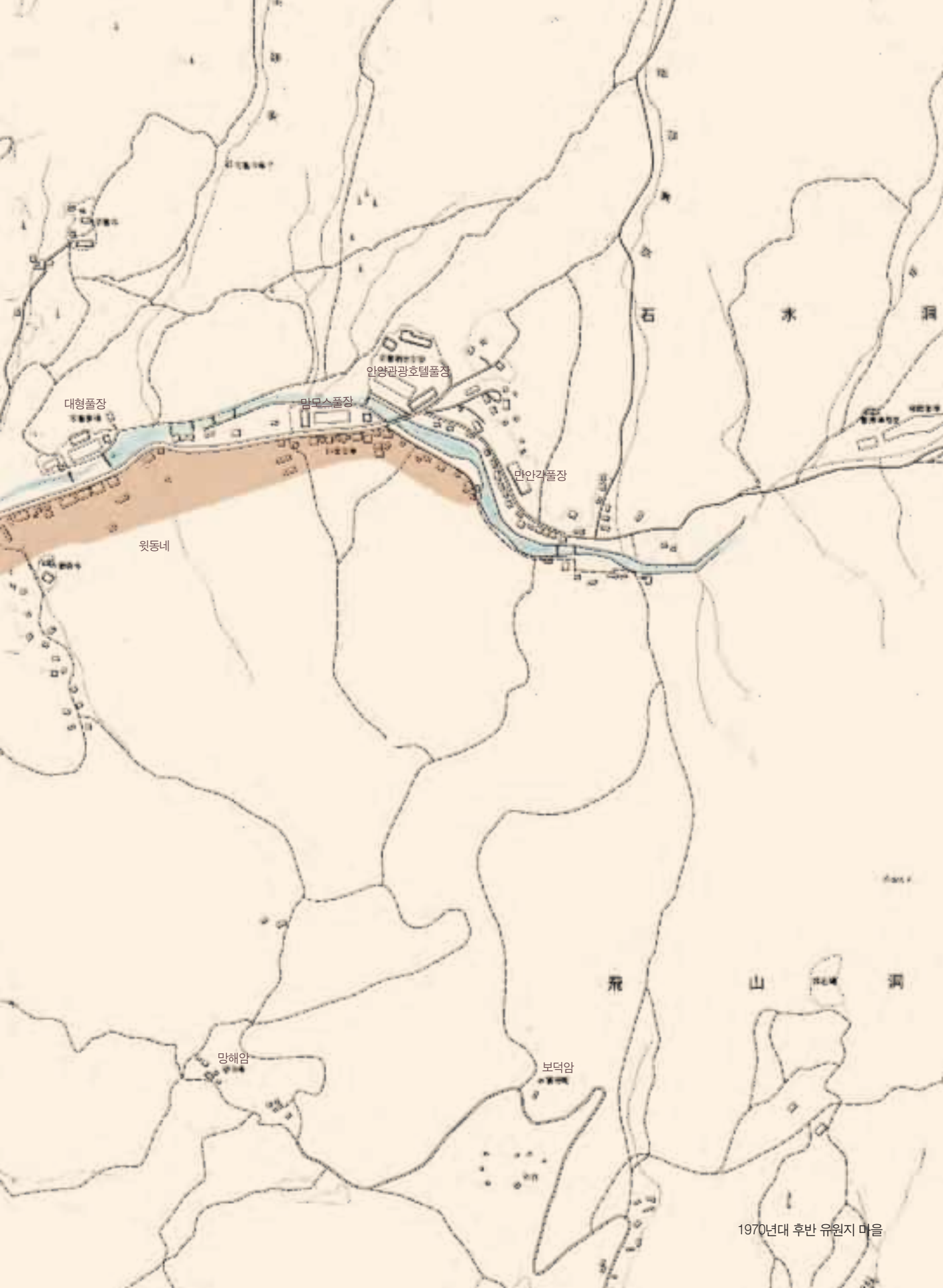
산동네

유유산업

보장사

금강사

안양플장



대형폴장

인양관광호텔폴장

맘모스폴장

민안각폴장

윗동네

망해암

보덕암

지금은 자동차로 안양예술공원으로 가려면 예술공원고가차도 옆길에서 좌회전해서 갈 수 있다. 하지만 경수대로가 없던 1960~1970년대 초반에는 유원지로 가는 길 입구는 지금 예술공원지하차도가 있는 철길 부근이었다. 경수대로가 개통하기 전까지는 철길 쪽에서 개천을 따라 유원지로 올라갔다.

당시엔 서울로 가는 길은 1번 국도 하나였는데 철도 옆으로 나란히 뻗은 1번 국도를 따라 버스가 다녔으니 버스나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유원지로 가려면 철길 건널목을 건너서 갔다. 유원지지하차도는 1975년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수대로와 지하차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유원지로 가려면 철길을 건너야 했다.

유원지 마을 입구로 들어서면 양옆으로 포도밭과 딸기밭·수박밭이 펼쳐져 있었고 개천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개천 왼편에 유유산업 공장이 보였다. 오른편에는 마을 집들이



1969년 안양유원지 입구(최창선 제공)

모여 있고 개천 가장자리에 죽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다. 제대로 된 건물도 있었지만, 천막으로 된 가게들도 많았다.

개천에는 일제강점기에 독으로 막아 만들어 놓은 제1폴과 제2폴, 제3폴이 있었는데 무료 폴장이었다. 이 때문에 안양유원지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는 이곳을 안양폴장이라고 했다. 무료인 안양폴장 말고도 대형폴장, 맘모스폴장, 안양관광호텔폴장, 만안각폴장 등 유료 폴장이 들어서 물놀이 유원지로서의 진면목을 갖추게 된다. 만안각폴장 뒤로는 피서객들이 쉬어 갈 수 있는 방갈로가 여러 채 있었다. 대형폴장 옆에는 보트장이 있었고 겨울에 물이 얼면 스케이트장으로 운영되었다.

지금 유원지 주도로를 기준으로 개천 건너편에는 왕실카바레가 있었는데, 카바레는 영등포나 시흥 등에서 온 서울 사람들이 주된 손님이었다고 한다. 카바레 아래쪽에 간이골프연습장이 있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지금 파빌리온 자리에 그네장이 있었고 그 뒤는 소나무 숲이었다.



1964년 안양유원지로 가는 길과 유유산업 건물(임구강 제공)



1969년 안양풀장 앞(최창선 제공)



1979년 안양유원지 롤러스케이팅장(안양시청 제공)



1982년 안양유원지 그네장(이정범 제공)



1956년 안양풀장(박봉득 제공)

2. 윗동네, 아랫동네, 산동네

이 마을이 ‘유원지 마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196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외부 사람들에게 유원지 마을은 같아 보였겠지만, 마을 안에는 조금씩 서로 다른 작은 마을들이 있었다. 지리적으로 집들이 모여 있는 구역에 따라 윗동네, 아랫동네, 산동네(낙원마을)라 불렸다. 아랫동네와 윗동네는 매표소를 기준으로 나뉘었고, 산동네는 나중에 낙원 마을로 불렸다.

아랫동네는 이재신 집안인 성주 이씨, 창녕 조씨 같은 토박이들이 살던 마을이었다. 성주 이씨의 경우에 이재신이 10대이니 무려 300년 동안 세거한 것이고, 창녕 조씨도 400년이 넘게 이 마을을 지켜온 터줏대감이다. 또 아랫동네에는 포도밭과 딸기밭과 수박밭 등이 있었다.

윗동네는 외지에서 들어와 하나둘씩 집을 짓고 터를 닦은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들어온 이들은 주로 장사를 했다. 초기에 들어와 천막을 치고 장사를 시작한 이들도 있고 이경희네처럼 어느 정도 상권이 만들어진 뒤에 가게를 인수에서 들어온 이들도 있었다.



유유산업

안양플장

윗등네

산등네

아랫등네



1966년 유원지 마을(국토지리정보원 제공)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기 이전에 번듯한 건물을 갖추고 장사를 하던 가게로는 안양회관, 백제식당, 용산상회 등이 있었다. 윗동네 이경희 가족이 유원지에 들어와 장사하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경희 : 초등학교 2학년 때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유원지가 집값이 싼어요. 땅이 나라 땅이고 건물만 지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땅 사용료를 1년에 한 번씩 냈어요. 부모님이 장사를 했어요. 유원지에서 장사는 거의 비슷해요. 주로 빈대떡 부쳐서 막걸리 팔고 그랬어요. 쪽 집이 있으면 연탄 화덕을 내놓고 빈대떡을 부쳐 놔요. 나 어릴 때는 등산이나 산악회가 없어서 유원지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토요일 일요일 그때만 조금 있었어요. 여흥방학 때 엄청 많이 왔었어요. 여흥 한 철 장사해서 사계절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지요. 유원지 마을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 토요일에 학교 갔다 오면 큰 다라이에 맷돌로 녹두를 갈아 놔요. 그럼 학교 갔다 와서 내가 다 부쳐 놓는 거야. 그럼 일요일에 데워서 손님들한테 팔고 그랬지. 막걸리도 팔고.



1970년대 급증한 유원지 마을 주택(1974년,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1970년대가 되면 유원지 마을 일대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 유원지 초입에 외지인들의 가옥이 대거 조성되었다. 1974년 항공사진을 보면 안양유원지 지하철도에서 유원지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오다 보면 동쪽 산자락에 30여 채의 가옥이 자리하고 있다. 1959년경 박정원과 안학순 부부가 집을 짓고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초기에는 주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살았다. 막노동이나 낱팜팔이를 하며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한 우물을 쓰고 함께 명절을 지내며 한 가족인 듯 끈끈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며 살았다. 산동네는 ‘낙원마을’이라고도 불렸는데, 안양시에서는 1999년 이곳을 전통마을로 지정한 후 공동체 문화가 계승 및 활성화되는 마을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원래 시 소유 임야였던 낙원마을 터가 2000년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면서 주민들에게 불하되자, 주민들은 모두 땅을 팔고 이주해 갔다. 그 후 옛집들이 모두 사라지고 새로 땅을 산 사람들이 들어와 고급 주택을 지었다. 지금은 40여 채의 주택이 모여 있는 전원주택단지가 되었다.

또한 산동네 옆 논자리에는 1970년대 초반에 건축업자가 20여 채의 주택을 지어 분양하였는데, 이 주택들은 마을의 경관과 분위기에 큰 변화를 주었다. 주택의 건평이 20평 정도 되는 작은 집도 있었지만, 정원을 크게 잘 꾸며 '정원집'이라 알려진 대지 150평 정도의 큰 저택도 있었다. 이 구역에 지은 집들은 대부분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살았고 유원지 사람 가운데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사서 들어와 살았다. 소위 말하자면 부자 동네였다.

이재신 : 거기 살던 사람들은 다 직장에 다녔어요.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 사람들은 인사를 안 하고 다녔어요. 옷부터 달랐어요. 바로 옆에 산동네가 있었지만, 이 주택단지 사람들은 산동네 사람들과는 아는 척을 안 했어요.

마을은 아니지만 산속에는 별장여관 객실이 있었는데 개천 쪽에 사무실은 따로 있고 산 위로 방이 하나씩 띄엄띄엄 있는 형태였다. 산속에 있어서 물지게로 물을 져 나르기도 했고 가을 겨울이면 연탄도 지게로 져 올렸다. 동네 아이들이 용돈벌이로 물이나 연탄 배달을 하기도 했다. 어른들이 여관 주변에 가지 못하게 했지만, 호기심 많은 남자 아이들은 몰래 가서 여관 지붕에서 거꾸로 매달려 훑쳐 보곤 했다고 한다.



1970년대 윗동네 상가와 별장여관 객실(이정범 제공)

3. 함께 살아가던 마을의 풍경

유원지 마을의 명절은 어느 도시의 마을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어울려 살았기 때문에 작은 시골 촌락처럼 함께 명절을 보냈다. 다채로운 행사로 마을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명절을 즐겼다.

설날 가래떡을 뽑으러 방앗간에 길게 줄을 서던 풍경은 1960~1970년대에는 서울에서도 흔히 보던 풍경이었다. 하지만 마을 어른들에게 세배하러 다니는 아이들 모습은 한 집안처럼 지내던 시골 마을에서 볼 수 있던 장면이었다. 아이들은 세배하고 떡국이나 과일을 얻어먹고 더러 세뱃돈도 챙겼다.

설보다 큰 명절은 대보름이었다. 대보름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동네 잔치날이었다. 대보름 전날 마을 두레패가 팽과리를 두드리고 농악을 울리며 마을을 돌면서 찬조금을 걷으러 다녔다. 그렇게 걷은 돈으로 지금의 공영주차장 자리에서 돼지를 잡아 고기를 굽고 국을 끓였다. 주로 아랫마을 사람들이 주도한 행사였지만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이들도 불러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대보름 당일에는 옷놀이, 줄다리기, 널뛰기를 하며 하루를 즐겼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즐기던 시절이었다. 밤에는 아이들 세상이었다. 밤이 되면 아이들은 깡통에 불을 넣어 돌리다 개천으로 던지고 놀았다. 개천에 던지면 떨어지는 모양이 불꽃놀이처럼 예뻐했다고 기억한다. 아이들은 얼굴에 까맣게 숯칠하고 깡통을 두드리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오곡밥이며 나물 등 음식을 얻어다 큰 양푼 가득 비벼먹고는 했다. 깡통을 두드리며 돌아다녀도 시끄럽다고 하는 이가 없던 시절이었다.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인 만큼 마을의 안위를 위해 산고사를 지내는 일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른다. 더욱이 호랑이도 나왔다는 옛 기록을 보면 유원지 마을 산고사는 산의 기운을 빌어 마을이 풍요롭고 안녕하기를 바라고 호랑이로부터 마을을 지키려는 마을 사람들의 염원을 담은 중요한 행사가 아닐 수 없다. 산고사 지낸 지 360여 년이 되는데 원래 조씨 집안에서 하다가 이재신한테 넘겨주었다고 한다.

산고사는 마을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인 만큼 그 준비 과정부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정성을 들였다. 먼저 안당주(앞은당주)와 선당주를 정한다. 제주라는 말 대신 앞은당주와 선당주라고 했다. 동네 토박이가 주관을 했는데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피를 본 사람은 참여할 수 없었다. 산고사 당일에는 남자들만 산으로 올라가서 고사를 지냈고 여자들은 산 밑에서 기다렸다.

제사에 쓸 음식과 상차림 비용은 마을에서 곡식이나 현금을 추렴해서 마련했다. 음식도 남자가 했는데 한 달 동안 금욕을 해야 했다. 예전에는 음식을 할 때 말을 하지 못하게 대나무를 입에 물고 했다고 한다. 쌀도 일일이 깨진 쌀을 골라내어 고삿밥을 지었다.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고사용 돼지머리를 베어 놓고 지금의 공영주차장에서 국을 끓이고 고기도 굽고 시루떡도 찌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누어 먹었다. 그야말로 동네잔치였다.

유원지 마을에는 우물이 여럿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산동네 뒤에 있던 우물이 가장 크고 물이 많았다. 수도시설이 없던 시절에 우물은 마을 사람들의 젖줄이니 우물이 오염되지 않고 마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 큰일이었다. 집집마다 펌프를 설치해 물을 길어 올리고 자가 수도가 생기면서 산동네 우물은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지금은 쓰레기로 가득 차 우물 흔적만 남아 있다고 한다.

이재신은 어릴 때 산동네 우물 옆 밤나무에 색색의 천을 걸고 무당이 굿을 하며 우물제를 지내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해마다 각 우물에서 지내던 우물제는 1985년부터는 마을에서 합동으로 지내게 되었다. 1996년에 우물 이름을 화심천이라고 짓고 보존에 힘썼다. 1999년에 낙원마을이 전통마을로 지정되면서 우물제를 용왕제라 칭하게 되었다. 화심천용왕제는 2001년에 경기도에 의해 안양시 세시풍속전통회(경기등록 제363호)로 등록되기도 했다. 그러나 낙원마을 일대가 개발되면서 결국 2004년 5월 28일 용왕제를 끝으로 화심천용왕제는 전승이 끊겼다.

4. 우물물 길고 장작불 때던 시절

개천을 바라보며 줄지어 늘어선 가게는 대개 살림집이 딸린 구조였다. 살면서 가게 뒤쪽으로 슬금슬금 칸수를 늘려 가기도 했다. 그러던 중 1973년 안양시로 승격된 후, 무허가라도 집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1년 동안 주택 등기를 내주었다고 한다. 무허가 건물로 장사를 하고 있던 가게들이 많았는데 특히 윗동네 가게들이 많이 등기를 받았다. 무허가로 집을 짓고 장사하던 이들에게는 천금 같은 기회였을 테니 하룻밤에 집 한 채가 들어섰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재신 : 하룻밤에 집이 한 채씩 들어서. 거짓말 안 보태고, 벽 쌓고 지붕만 올리면 되니까. 아니면 금 한 대로 나무 네 개로 기둥만 세워 놓고 지붕만 씌워 놔요. 그걸 다 무마해 줬어요.

이경희의 기억으로는 안양관광호텔이 신축된 1970년에 유원지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고, 그전에는 호롱불이나 등잔불을 켜고 살았다고 한다. 집집마다 화장실도 없어서 동네에 하나 있는 공중화장실을 썼다고 하니 그 시절을 살았던 이들에게 오늘날의 주거환경은 세월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게 하는 큰 요인일 듯하다.

수도가 보급되기 전에는 물은 우물에서 길어다 먹거나 집 마당에 펌프를 설치에 퍼올려서 먹었다. 펌프가 없는 가정에서는 우물물을 썼을 테니 가정집은 물론이거니와 음식점을 하던 가게에서는 물을 길어 나르는 게 큰일이었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개천에 넘쳐나는 물은 물놀이장일 뿐만 아니라 유원지 마을 사람들에게는 생활용수였다.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솔단지를 걸어 놓고 빨래를 삶기도 했다. 평소에 열무 같은 김치거리도 씻고 김장철에는 절인 배추도 씻었다. 군부대에서 트럭에 배추를 싣고 와서 씻었다고 하니 김장철 삼성천에 펼쳐진 진풍경이라 하겠다.

그때만 해도 겨울 난방은 아궁이에 나무를 때는 집이 많았다. 1970년대 초쯤부터 부잣집에서는 연탄을 쓰기는 했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아궁이에 장작을 때서 난방을 했다. 땀감은 주변 산에서 부러진 나뭇가지나 솔방울 같은 것들을 주워 왔다. 꺾이거나 부



주로 가게들로 이루어진 윗동네(1977년, 안양시청 제공)





계곡물로 빨래하는 유원지 마을 사람들(1970년대, 이정범 제공)

러져 땅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줍는 일은 아이들의 몫이었다. 안양사 계곡 쪽과 삿꼭산에서 많이 해 왔다고 한다. 어른들은 주워 오는 나뭇가지로는 성에 차지 않아 나무를 베곤 했는데 산에서 나무를 베는 것은 금지였기 때문에 주로 한밤에 작업을 했다고 한다.

이재신 : 밤에 똥곰지가 되면 12시에 나갔어요. 밤에 나가서 새벽까지 나무하고 그랬어요. 밤 되면 도끼질 소리가 들리고. 단속이 심해서 걸리기도 많이 했어요. 단속원에게 걸리면 벌금을 내거나 벌금이 없으면 징역을 살아야 했어요. 실제로 걸려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도 있었죠.

이재신이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 이야기를 들은 기억으로는 안양역과 향아리골에서 장작을 팔아서 리어카로 사다 썼다고 한다. 파는 장작을 사서 써야 했지만 집 뒷산에 널려 있는 땔감을 두고 없는 살림에 돈으로 장작을 사서 쓰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듯하다.

연탄이 들어오고 나서는 나무를 때던 아궁이를 개조해서 연탄이 든 화덕이 드나들도록 아궁이 속을 넓히고 앞에 문을 달았다. 연탄에 맞게 아궁이를 새로 만들어야 했지만,

아쉬운 대로 개조해서 쓴 것이다. 그 때문에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은 아궁이에서 가스가 스며들어 연탄가스 중독을 일으켰다. 겨울철이면 마을에서는 여기저기서 연탄가스 중독사고 소식이 많이 들렸다.

5. 마을의 사계절과 아이들의 풍성했던 유년

유원지는 도심에 가까이 있었지만, 산이 있어서 그 어느 마을보다 사계절을 뚜렷이 느낄 수 있는 마을이었다. 봄에는 진달래가 지천으로 피고 여름에는 질푸른 녹음이 병풍처럼 마을을 감쌌다. 가을이 되면 단풍으로 곱게 물든 풍경을 선물했고 겨울엔 뽕뽕 언개천이 아이들에게 겨울 놀이터를 만들어 주었다.

유원지는 안양풀장으로 인식되어 대개 물놀이를 연상하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다. 유원지 입구에는 딸기밭이 있어서 봄부터 나들이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나 데이트하는 연인들이 즐겨 찾았다. 어린이날이면 아이들을 동반한 나들이객들로 붐볐다. 유원지 계곡을 따라 각종 휴양시설이 있어서 요즘으로 치면 규모는 작으나마 놀이공원 같은 역할을 했다.

유원지가 계곡인 만큼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는 시기는 단연 여름이었다. 여름방학이면 엄청나게 붐볐는데, 그때는 유원지 전체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풀장은 풀장대로 계곡은 계곡대로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빈틈이 없을 지경이었다.

안양 포도와 풀장 소식은 그 무렵 단골 기삿거리였다. 신문마다 물놀이 피서지로 소개하거나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렸는지 따위 기사를 내보냈다. 안양 포도는 전국에서도 유명해서 포도철이면 종종 신문에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포도밭 주인들은 서리하는 아이들을 지키느라 눈이 바쁜 시기이기도 했다. 단순히 재미로 따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한다.

이재신 : 다 동네 아이들이었지요. 아는 아이들. 뭉텅이로 따갔어요. 포도주 담그려고. 유원지 장사들이 나무로 된 빈 사과 상자를 얹어 놓고 만든 포도주를 팔아요. 올해 담가서 내년에 팔아. 그래서 포도를 다 서리해 가. 기억하기로는 길가에 죽 늘어놓고 팔았어. 맛이 좋았지.

개천을 따라 줄줄이 늘어선 가게는 저마다 분주하였다. 가게 앞에는 연탄 화덕 위 철판에는 빈대떡이 지글지글 익어 가고 찬물을 가득 채운 대야에는 막걸리병이 담겨 있었



1970년 안양유원지 내 포도밭(최창선 제공)

다. 계곡에 자리 잡은 손님에게 빈대떡이며 막걸리를 나르는 식당 종업원들의 발길이 부산스러웠고 꼭대기까지 막걸리 담은 말통을 12개나 실은 양조장 짐자전거가 휘청휘청 하며 지나다녔다.

그때 유원지에는 또 하나의 풍경이 있었다.

이경희 : 무슨 모임인지 여러 명이 유원지에 놀러 오면서 개들을 한 마리씩 데리고 왔어.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지금도 내가 개고기를 못 먹어요. 개 잡는 것도 많이 봤지. 개 목에 줄 매달아서 때려 죽으면 불로 그을리고 개울가에 솥 걸어놓고 삶아서 먹고 술도 먹고 놀고 가고 그랬지. 야만적이었어. (웃음)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지금과는 180도 다른 풍경이니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음을 실감하게 하는 일화이다. 어린 마음에 자기네 집 앞 놀이터를 외지인들에게 빼앗겨 아쉬웠을 법도 한데 이경희는 부모님 가게 장사가 잘되어 신이 나기만 했다.

유원지 마을 사람들에게는 일 년 살이를 책임질 주 수입원이 여름 장사였으니 이들에게 여름은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렇듯 분주한 여름이 지나면 다른 계절에는

어떻게 지냈을까. 장사는 일 년 내내 했지만 가게는 주로 여자들이 운영했고 남자들은 성수기가 지나면 한가하게 보냈다고 한다.

이경희의 기억으로도 겨울에 남자들은 모여서 마작 같은 노름을 했다고 한다. 더러 식사 때 아버지를 모시러 가면 창문을 담요로 가려놓고 상에 둘러앉아 마작을 하는 모습을 봤다.

이재신 : 남자들은 그러면서 시간 보냈지. 엄마들은 장사하고 살림하고 애들 키우고 그랬지. 유원지 남자들은 한량이야. 옛날에.

유원지 아이들에게 마을 주변 산과 개천은 놀이터였다. 그 가운데 으뜸은 그 이름도 유명한 안양풀이다. 유원지 계곡에는 물도 많았다. 제1풀, 제2풀, 제3풀은 자연풀이었으니, 날이 더워지면 바로 뛰어들기만 하면 됐다. 풀에서 익사사고가 많았기에 동네 사람들이 수문을 열고 닫으며 어른 허리 높이 정도로 수위를 조절하였다. 제1풀은 깊이가 제법 되어서 주로 어른들이 이용했고 제2풀과 제3풀은 아이들 차지였다.

깊이가 깊었던 제1풀에서는 익사사고가 종종 일어났고 제3풀에서는 깊이가 얇아 다 이빙 사고가 잦았다.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물속 바위에 머리가 깨져 피가 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고 한다. 비가 와서 물 많이 불면 못 들어가게 했다. 수영 이야기가 나오자 “유원지 아이들은 수영 못 하는 아이가 없었”다는 자부심 넘치는 이재신의 대답이 바로 돌아왔다.

이재신 : 우리 집안은 큰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수영부 출신이에요. 아버지는 1풀에서 경기도 도배 할 때 사진도 있어요. 우리 집안에서 한국 신기록을 두 번 깼어요. 접영에서 이재철이가.

집 앞이 풀장이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듯도 싶었지만 대대로 수영부 출신에 신기록 보유자 수영선수까지 배출한 정도면 수영에 관해서 남다른 자부심을 가질 법도 했다. 이경희도 수영은 개천에서 놀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수영으로 유명한 삼성초등학교 수영부에 유원지 아이들이 많았다. 삼성초등학교 수영장은 1971년 8월 15일에 개장했는데 이경희가 학교 다닐 때 돌을 주워 나르고 웅덩이를 파고 돌을 쌓았다고 한다.

타지에서 일부터 놀러 오는 유원지가 아이들에게는 앞마당이었으니 풍성한 유년 시



1960년대 안양유원지 제1풀장에서 다이빙하는 아이(안양의집 제공)

절을 보냈으리라고 짐작하고도 남는다. 여름에는 주변에 널린 포도밭, 수박밭에서 서리를 했던 일도 그 시절 아이들의 기억을 차지하고 있다. 해가지면 아이들은 별거송이인 채 몰래 밭에 들어가 포도며 수박을 서리해 왔다. 그렇게 따 온 포도는 그냥 먹기도 했지만, 집에 가지고 가면 포도주를 담갔다고 한다. 아이들이 서리를 해 온 포도로 포도주를 담가 팔기도 했다. 지금은 엄연한 불법 행위지만 그 시절에는 잡히면 경을 칠 장난이라 여길 뿐 범죄라는 인식은 희박했던 시절이었다.

안양풀은 여름에만 놀이터가 아니었다. 겨울에는 단단한 얼음장으로 바뀌어 썰매 타는 아이들로 북적였다. 가게가 넉넉한 집 아이들은 스케이트를 갖추고 스케이트를 타기도 했다. 겨울에는 총알을 주워서 소나무를 깎아 팽이를 만들어서 문방구에서 산 낙하산 줄로 팽이를 돌렸다. 퐁퐁 언 유원지 풀장에서 직접 만든 썰매를 타며 놀았다. 물이 얇은 곳은 곳곳에 돌무더기가 튀어나와서 장애물을 피해 다니면서 타는 재미가 쏠쏠했다.

아이들이 놀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장사를 하는 집 아이들은 여름철에 손님이 몰려 들면 부모님 일손을 도와 심부름을 하고 물지게로 우물에서 물을 저 날랐다. 날이 추워지면 산에 땀감을 주으러 다녔다.



1960년대 공공 언 계곡에서 팽이를 돌리며 노는 아이들(안양의집 제공)





1960년대 유원지 계곡에서 썰매를 타는 아이들(안양의집 제공)

이경희는 “그때 시절이 아주 환한 색깔인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봄이면 나물 캐러 다니고, 산에 진달래가 많아 꽃을 따서 집으로 가져가면 할머니가 청으로 만들었다. 진달래 빛깔의 청은 색깔만큼 맛도 좋았다. 꽃을 먹으면 아삭아삭했는데 가끔 발효된 청을 먹고 취하기도 했다. 여름에는 물놀이가 일상이었다.

이경희 : 수영복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입혀 준 팬티 입고 수영하고 놀다가 꼭 짜서 입고 학교 가는 거야. 오후반 때, 학교 가면 벌써 다 말랐어. 그때 그러고 다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책가방 메고 나와서 개천가 바위 하나에 책가방이랑 옷이랑 벗어 놓고 퐁퐁퐁퐁 물장구치고 놀다가 시간 되면 학교 갔어요.

가을에 버섯도 따고 밤도 줍고 도토리도 주웠는데 도토리는 집에 가지고 오면 어머니가 잘 말려서 가루를 내어 도토리묵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팔기도 했다. 겨울에는 뽕감을 주으러 다녔다.



1960년대 유원지 계곡에서 물놀이하는 아이들(안양의집 제공)

이경희 : 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돈 주으러 다녔어. 개천가에 사람들이 놀던 자리를 보면 돈이 떨어져 있어요. 이슬 맞아 축축하게 젖어 있는 지폐를 주워다 두꺼운 전과에 눌러 놓는 거야. 세수하고 그러고는 학교에 갔지. 그래서 돈 많이 주웠어요. (웃음)

어릴 적을 생각하면 물가에서 물장구치고 놀고 버찌 주워 먹어 입이 시켜메서 학교 가고 산딸기 따 먹고 했던 일들이 참 좋았다고 한다. 꽃도 따고 물놀이도 하고 보물 찾기 하듯 물가에 떨어진 돈을 줍기도 하며 보낸 하루하루가 어린 이경희에게는 소풍 같은 날이 아니었을까?

이재신의 어린 시절은 좀 더 유별나다. 5월에 천변 모래사장에 자라가 알을 낳아 놓으면 그 위에 비닐을 덮고 기다리다가 자라가 나타나면 잡았다. 자라가 많아서 '자라천' 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삼성초등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 숙제로 솔방울 주워 오기가 있어서 산에 갔다가 뱀에 물린 적도 있었다. 그때 유유산업에 다니던 아버지가 일본에서 해



1973년 계곡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안양중학교 간부훈련 참가자(안양중학교 제공)

독약을 구해 와서 겨우 살았다고 한다.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산으로 버섯을 따러 다녔다. 그때는 사람들 발길이 없어서인지 산에 가면 버섯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한다. 여름에 비가 온 다음 날이면 망태기 메고 산으로 버섯을 따러 갔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싸리버섯, 송이버섯, 청기와버섯 등 시기에 따라 종류도 다양하였다. 그렇게 따 온 버섯은 물에 데쳐 향아리에 담아 소금에 절여 두었다가 겨울에 먹었다. 소금에 절인 버섯은 쫄깃하고 맛이 좋아 겨울철 군것질거리로 안성맞춤이었다. 고등학교 때까지 따러 다녔는데 등산로가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버섯이 없어졌다고 한다.

또한 마을 주민들은 TV가 이재신의 집마당에 명석을 깔아 놓고 밤마다 연속극이나 김일의 레슬링을 보기 위해 모였다. 온 마을 주민들이 한 식구처럼 지내던 시절의 풍경이었다. 이재신의 어린 시절을 풍성하게 해 준 남다른 기억은 유원지 마을에서만 할 수 있던 경험들이 아닌가 한다.

이재신 : 마을에서 TV가 우리 집에만 있어서 김일 레슬링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오는 거야. 그때 TV가 무거웠어요. 방에 있던 TV를 들고 나와 안테나 맞추고 마당에 멍석 깔고 봤지. 연속극 할 때면 저녁마다 TV를 내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산 쓰기도 봐요. 우산 없는 사람은 비닐을 쓰고.

6. 유원지 마을 옆 미군 부대

유원지 마을 옆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단지 자리에는 한국전쟁 직후에 미군 부대가 들어섰다. 미군들은 유원지에 놀러 오거나 훈련하러 많이 왔다. 평일 낮이나 오후 늦게 사람들이 없을 때면 유원지 제1풀장에서 군장을 메고 수영해서 건너가는 훈련을 했다고 한다. 미군들이 안양풀장의 부서진 부분을 수리하기도 하고 무너진 축대를 쌓기도 했는데 아마도 훈련장으로 쓰고 있어서 보수를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경수대교가 설치되기 전 유원지 마을 아이들은 삼성국민학교로 갈 때 산길로 가지 않으면, 미군 부대까지 내려와서 부대 담장을 지나서 가야 했다.

이재신 : 학교 가는 길에 보면 미군들 하이바(방탄헬멧), 중공군 모자, 탄피 별게 다 있더라고. 해골도 굴러다니고 군화도 널려 있더라고. 한 번은 총알을 뭉텅이로 주웠더니까. 파출소에 갔다 주니 연필 주더라고.

미군 부대 옆에는 이른바 ‘양색시촌’이 있었다. 이경희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더러 길가에 나와 있는 양색시들을 보면 무서웠다고 한다. 학교에는 양색시촌 출신으로 혼혈인 아이들도 다녔지만,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는 못하였다. 양색시 일을 그만두면 유원지에 있는 식당에서 종업원이나 주방에서 일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미군 부대가 철수할 때 같이 따라 다른 지역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은 장구를 배웠다. 유원지에서 손님을 맞아 장단을 쳐주며 여흥을 돋우는 일을 했다.

한편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잔반들을 받아 와 파는 이가 있었다. 당시 동네에서 주먹깨나 쓰던 이였는데 독점으로 받아 유원지 마을 어귀에서 팔았다고 한다. 리어카를 끌고 가서 드럼통 두 개에 가득 받아 나오면 동네 사람들이 냄비나 양푼이나 깡통 같은 것들을 갖고 와서 샀다. 큰 바가지로 담아서 50원, 그보다 작은 바가지는 30원에 팔았다고 한다. 그렇게 사 온 짬밥 찌꺼기에 물을 붓고 고추장이나 김치를 넣어 찌개로 끓여먹기도 했다. 잔반을 쓸어 담아 온 것이라 더러 숟가락이나 포크가 나오기도 하고 은박지, 찻



1970년대까지 석수동에 주둔했던 미군부대(국가기록원 제공)





1966년 미군 부대(국토지리정보원 제공)



1974년 미군 부대(국토지리정보원 제공)

던 껌 같은 이물질이 나오기도 했다.

안양영화촬영소에서도 꿀꿀이죽을 팔았는데 거기서 판 것도 같은 사람에게서 사간 짬밥이라고 했다. 버리는 음식 찌꺼기를 갖다가 돈을 받고 팔았으니 상당히 이권이 달린 ‘사업’이었을 것이다.

이재신 아버지는 유유산업에 다녔는데 영어를 잘해서 주말에 미군 부대에 가서 통역을 했다고 한다. 아버지 덕분에 샌드위치나 초콜릿 등을 많이 먹었다. 아버지가 부대 PX에서 물건을 사 오면, 어머니가 동네 주민에게 팔았다고 한다. 초콜릿, 담배 등이 인기 품목이었다. 그때는 미제물품을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서 종종 단속을 나왔기 때문에 내놓고 팔지는 않았다. 이경희도 커피, 화장품, 비누, 과자 같은 것들을 보따리에 싸서 팔러 다니는 사람들을 기억하였다.

7. 유원지의 쇠락과 마을의 변화

물가 마을에 홍수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크고 작은 물난리가 더러 있어 왔고 장마철이면 으레 물이 불어나려니 했지만 1977년은 달랐다. 엄청나게 쏟아진 빗물은 유원지를 무참히 쓸고 지나가 버렸다. 1977년 7월 8일부터 9일까지 안양에는 무려 기상청 기록 467mm의 비가 내렸다. 이는 기상청 관측 이래 안양 최대 강우량이었다. 시설 피해

는 물론 인명피해도 엄청나 이재민 6만여 명에 사망자와 실종자가 288명에 이르렀으니 말 그대로 안양 대홍수로 기록될 만하였다.

안양 곳곳에서 큰 피해가 있었다. 계곡물이 불어 넘쳐 휩쓸고 지나간 유원지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산에서 흘러내린 흙더미와 바윗덩이들이 유원지 계곡을 덮쳤다. 안양 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개천가에 있던 판잣집들도 쓸려가 버렸다. 그때의 처참한 상황을 보여 주는 기사를 보자.

유원지 남쪽 산등성이에서 사태가 나 암석과 토사 수만 톤이 계곡을 덮쳤기 때문. 석간수가 넘실대던 보트장은 집채만 한 바위덩이와 모래에 묻혀 흔적조차 없어지고, 계곡 옆 풀장은 엉뚱하게 수로로 바뀌었다. 교각만 남은 6개의 다리. 급류에 씻겨 버랑까지 패여 들어간 관광도로는 지프 한 대 빠져나갈 수도 없다.

〈「수해로 사라진 안양유원지」, 『조선일보』 1977년 7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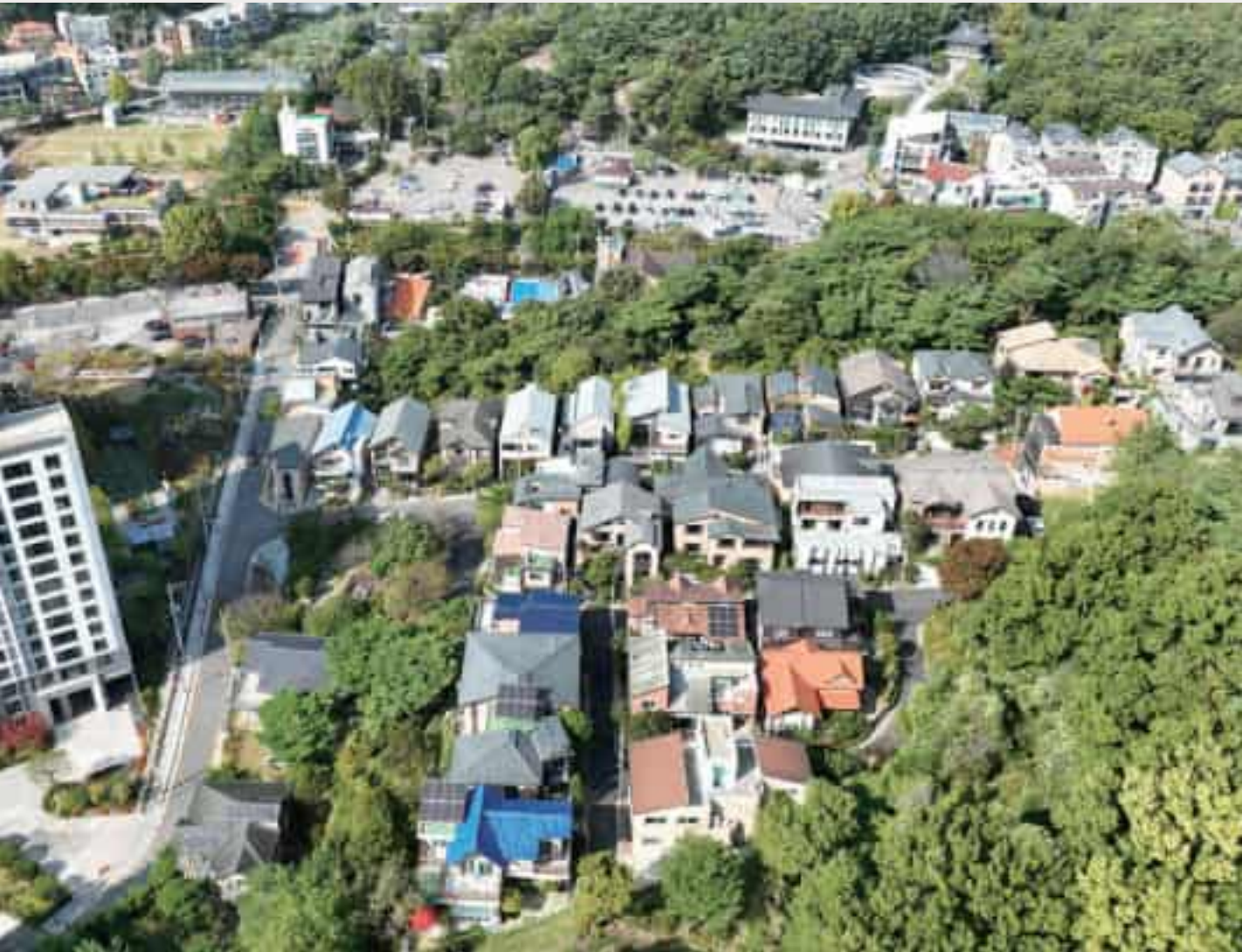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앞 계곡 맨 꼭대기에 있던 가게가 떠내려가고 계곡 양옆에 늘어서 있던 각종 휴양시설과 건물도 쓰러지고 부서져 옛 모습을 찾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또 아랫마을 딸기밭도 흙더미에 파묻히고 지금의 ‘대림e편한세상아파트’ 앞까지 늘어서 있던 개천가 판잣집들도 모두 물에 쓸려가 버렸다. 수해로 안양풀장이 자취를 감춰 버리고 풍부하던 수량도 점점 줄어들자 유원지를 찾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뜸해져 갔다. 유원지는 옛 명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1984년에는 국민관광지 지정이 취소되기에 이른다.

쇠락해 가는 유원지에 새로운 바람이 분 것은 안양시가 벌인 유원지 개발사업(1999~2004년) 때문이었다. 이후 안양시는 2005년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를 통해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명소로 만들었고 이름도 공모를 통해 2006년 ‘안양예술공원’으로 바꾸었다.

이 과정에서 유원지 마을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고 주민 구성원도 바뀌었다. 산동네는 전원주택단지로, 아랫동네는 아파트단지로, 윗동네는 새로운 음식문화거리로 변하여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처럼 마을 풍경은 변하였지만, 마을 안 삶은 자연이 주는 휴식 안에서 안녕하기를 기원해 본다.



1988년 유원지 마을 전경(안양시청 제공)



2024년 산동네 자리에 조성된 전원주택단지



유원지 마을 전경(2024년)



04

자연과 예술이 만나는 공간, 안양예술공원

제1장 자연 위에 펼쳐진 예술의 무대, 안양예술공원
제2장 안양예술공원 APAP 작품 아카이브



제1장

자연 위에 펼쳐진 예술의 무대, 안양예술공원

이재욱 안양예총 회장



1. 안양유원지 개발사업과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안양예술공원은 역사, 자연, 예술을 품은 안양 문화·예술의 보고이다. 과거 안양풀이나 안양유원지로 명명되었던 안양예술공원은 2005년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nyang Public Art Project, APAP) 이후 2006년 시민 공모를 통해 ‘안양예술공원’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1990년대 안양유원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 차원에서 주목받아 왔다. 특히, 1995년 민선시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선거 때마다 유원지 정비과 개발은 주요 공약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1996년 말 안양시는 안양유원지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유원지개발기획단이라는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유원지 개발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1999년 3월부터 2004년 말까지 안양유원지 일대 17만 9,000㎡에 도로, 상·하수도, 하천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안양유원지 상류에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소형댐을 건설하였으며, 하천변 음식점과 주택 등을 말끔히 정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안양유원지에 조성하려던 비산조각공원 조성계획이 안양예술공원 조성사업으로 전환되었다.¹

안양시는 안양유원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비산조각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003년 6월 23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3년 8월 29일 열린 비산조각공원추진위원회에서는 당초 시 소유지 800평에 조각작품을 설치하기로 했던 계획을 넘어, 안양유원지 전역으로 공간을 확장해 공공예술화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 22일, 비산조각공원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실시를 논의하였고, 이듬해인 2004년 4월 29일 계원조형예술대학 이영철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선



2000년대 안양유원지 하천 정비(이정범 제공)



안양유원지 용수 확보 소형댐(이정범 제공)



안양유원지 도로 정비(이정범 제공)

정하면서 사업을 개시하였다. 이영철 교수는 2004년 8월,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추진위원들과 함께 일본 다치카와시의 ‘파레다치카와’와 니가타현의 ‘에치고즈마리 트리에날레’ 등 공공예술 현장을 방문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일본 방문 이후, 안양시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구체화해 나갔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극적인 과정을 통해 탄생하였다. 뜨거운 토론과 다양한 사



2005년 정비사업이 한창인 공사현장(안양시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작품 <물고기의 눈물이 강으로 흐른다> 설치(이정범 제공)



정비가 완료된 하천(이정범 제공)

례 조사, 그리고 발표 과정을 거친 끝에, 신중대 시장은 이미 공원 조성설계가 확정되어 시공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공사 중단이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이후 해외 현장을 직접 방문한 그는 2004년 공공예술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특별조례를 제정하고,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어 2005년 1월부터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실무 기획에 착수하였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건축, 미술, 디자인, 조경이 결합된 넓은 의미의 ‘공공예술’을 국내 최초로 시도한 사례였다. 특히 안양유원지의 환경에 기초하여 지역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작품 설치계획이 수립되었고, 디자이너 안상수는 이 지역의 자연석을 이용한 표지판을 제안하였다.

작품 설치에 다양한 작가와 건축가들의 참여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비토 아콘치는 〈나무 위의 선으로 된 집〉을, MVRDV는 〈전망대〉를, 켈고 쿠마는 〈평상 파빌리온〉을, 천대광은 〈은하수 평상〉을, 사미 린탈라는 〈천상의 다락방〉을 설치하였다. 또한 헤르만 마이어 노이슈타트는 자연영화관을, 예바 하인은 〈거울 미로〉를, 볼프강 빈터는 〈빛의 집〉을, 에코 프라워토는 〈대나무 사원〉을, 클립은 〈동물원 숲길〉을, 헬렌 박은 〈쉼터〉를 조성하였다. 나빈 라완차이쿨은 ‘파라다이스 안양’이라는 주제 아래 대형 영화 간판, 만화책, 불화, 게시판 등을 제작해 설치하였다. 그는 불교적 의미에서 ‘극락정토’를 뜻하는 ‘안양(安養)’에 착안하여, 태국 불교의 극락 이미지와 한국의 이미지를 결합한 현대적 풍속화를 기존 정자를 리모델링해 표현하였다.

건축가 디디에 피우자 파우스티노는 공용주차장 내 관리실 기능을 고려하여 매우 독특한 실험적 건축물인 〈1평 타워〉를 만들었고, 설치미술 작가 호노레 도는 조경 영역에 속하는 하천 분수 〈물고기의 눈물이 강으로 흐른다〉를 설치하였다. 이 분수 작품은 1977년 대홍수 당시 산에서 굴러떨어진 두 개의 거대한 돌 위에 세워진 조형물로, 13개의 노즐에서 다양한 형태의 물줄기가 서로 다른 시간대로 뿜어져 나온다. 또한 왕두는 재건축 개발사업으로 곧 사라질 운명에 처한 152채의 무허가 건물 중 일부를 사진으로 남기고, 이를 흰 대리석에 조각해 1km 길이의 하천 바닥에 띄엄띄엄 설치하였다. 이 대리석 조각들은 각각 무게가 1톤에 달해 쉽게 꺼내려가지 않으며, 물과 바람에 의해 서서히 풍화되어 사라지는 과정을 통해 유원지의 마지막 증인이자 자연스러운 소멸 과정을 작품으로 담아냈다. 이렇듯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모든 작업은 유원지의 지리적 특성 안에서 새롭게 설계되고 실현된 것이었다.²

결과적으로 안양예술공원 조성에는 총 252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공원 조성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우선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노후 불량건물 철거 등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유원지 상류에 소형댐을 만들어 사계절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공원 조성사업으로 인공폭포, 야외무대, 전시관을 비롯해 광장, 산책로, 조명시설을 설치하였고,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예술작품 97점을 설치하였으며, 이 중 52점은 영구작품으로 설치되었다.³

이러한 노력 끝에 2005년 11월 5일 제1회 공공예술프로젝트가 개막되었는데,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후 3시 안양유원지 인공폭포 광장에서 개막식을 가졌다. 짧은 기간에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건축가 디자이너, 작가들의 참여로 국제적 반응이 뜨거웠던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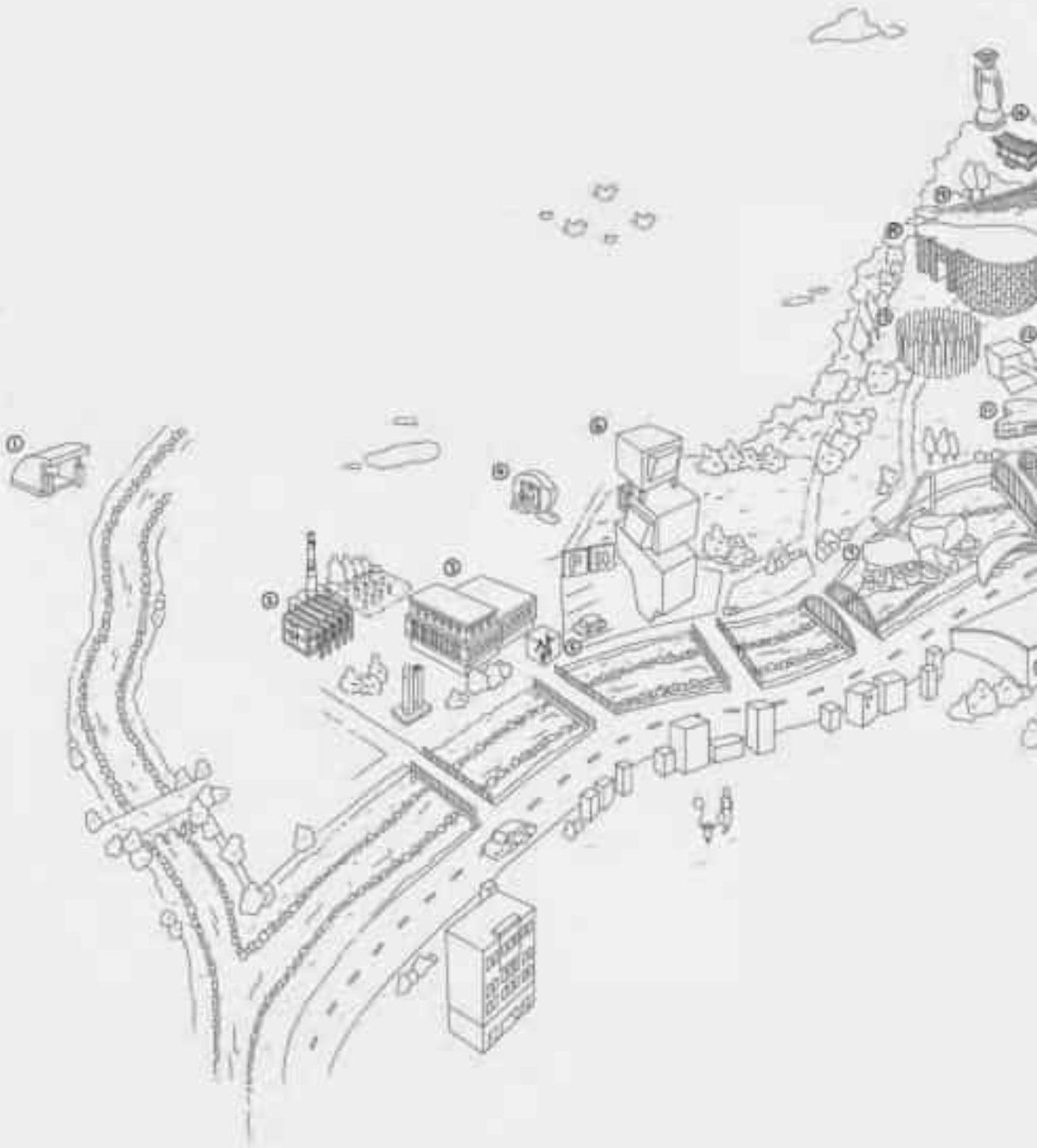
일본의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미술수첩』, 미국의 『뉴욕타임즈』, 네덜란드의 『쿤스트빌』, 프랑스의 『르 몽드』지에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취재해 갔으며, 여러 건축잡지와 미술잡지에서 특집기사로 다루었다. 추진위원회 사무국은 이 프로젝트의 전체 과정을 상세하게 담은 보고서 형식의 책자를 국영문으로 발간했으며,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제작하였다.⁴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가 당초 계획대로 조각공원을 만들거나 다른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행사였다면 건축가들이나 예술가들이 부족한 시간, 적은 예산, 알려지지 않은 한국 소도시의 불확실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안양유원지의 장소적 의미와 역사의 문맥, 도시화와 탈산업화 과정에 소외된 지역을 예술의 개입으로 활성화한다는 사실로 작가들에게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을 만들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영철 감독은 “2005년 안양시의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창안하고 성사시









안양예술공원(안양시청 제공)



1. 관악역
2. 김종업건축박물관
3. 안양박물관
4. 석수동마애종
5. 안양2019
6. 1평타워
7. 물고기의 눈물이 호수로 떨어지다
8. 지상의 낙원

9. 안양파빌리온
10. 벽천광장
11. 잔디휴가중
12. 종이뿔
13. 거울미로
14. 안양상자집
15. 용의 꼬리
16. 안양사

17. 전망대
18. 리.볼.버
19. 낮잠데크
20. 발견
21. 신중생물
22. 안양사원
23. 염불사
24. 로맨스정자

25. 돌꽃
26. 너의 거실
27. 큐브
28. 나무 위의 선으로 된 집
29. 4원소집
30.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켰을 때, 시장을 위시하여 공무원들의 막강한 협력이 있었다.”고 특별한 상황을 회고하였다.⁵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작품의 특징은 건축적 요소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대표작으로 평가되는 〈알바로시자홀〉,⁶ MVRDV 〈전망대〉, 비토 아콘치의 〈나무 위의 선으로 된 집〉 등이 건축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작품이다. 안양시는 2002년부터 ‘안양 아트시티21’⁷ 시책에 따라 ‘건물이 아름다운 도시’, ‘광고물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안양 아트시티21 정책의 중심은 건축이었고, 이러한 배경이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에 건축적 요소가 중요하게 자리 잡게 하였다.

2. 안양예술공원에서 펼쳐진 예술과 문화의 향연

1) 시민들이 선택한 이름, ‘안양예술공원’



안양유원지 명칭 변경 공모를 알리는 플래카드

안양시는 2005년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통해 쇠락한 안양유원지를 단순 휴식공간을 넘어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고 거기에 예술까지 결합된 국제적 명소로 탈바꿈하도록 기획하였다. 이에 안양유원지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2005년 9월부터 안양시는 20세 이상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 대면, 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

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0% 이상이 ‘안양예술공원’을 선택하였으며, 이어 시정발전위원회 회의에서도 ‘예술공원’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 공식 명칭이 ‘안양예술공원’으로 확정되었다.

안양예술공원에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로 설치된 작품 외에도 인공폭포, 벽천광장 등 야외에서 예술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었다. 이 중 안양예술공원의 중심부에 위치한 인공폭포는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주관한 제1회 토목·건축대상 조경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명칭 변경 이후 안양예술공원은 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6년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안양시와 계원조형예술대학이 공동 주최한 ‘아시아 디자인교육네트워크(Design Network Asia, DNA)’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아시아 10개 도시의 10개 예술대학이 참여하였으며, 안양예술공원과 계원조형예술대학을 무대로 전문가, 교수, 학생,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여해 차세대 미술·디자인 대안 교육 및 공동교육을 주제로 다양한 워크숍과 전시를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제1회 안양 공공예술프로젝트에 이어 열린 이 국제적 예술행사는 안양예술공원에 한층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알바로시자홀에서 안양파빌리온으로 : 다양한 전시·공연과 문화행사

2006년 7월 준공된 알바로시자홀에서는 ‘파빌리온’ 용도의 공간을 활용한 실험적인 전시가 개최되었다. 이 공간의 의미는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개최 이후에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발걸음을 안양예술공원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알바로시자홀 개관을 기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알바로 시자가 세계 각국에서 디자인한 대표적인 조형예술 건축물을 국내 최초로 소개한 《건축영상전》을 시작으로, 자연생태 실험과 기록물을 담은 《예술가의 정원 기록전》과 《아이들이 그린 공공예술 프로젝트전》이 열렸다.

공연 이벤트도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코리아콘서트 오케스트라는 11월 17일과 12월 16일, ‘미술관 건축’과 ‘자연’을 주제로 한 클래식 음악회를 열었으며, 11월 4일에는 7080세대를 위한 낭만콘서트가 개최되었다. 또한 ‘세계 현대미술의 동향과 알바로시자홀의 전문적 운영 방향’ 및 ‘안양권 문화예술교육 체험 및 교육’에 대한 심포지엄도 각각 열려, 알바로시자홀의 전문성과 지역 문화예술교육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사진협회 안양지부 회원 35명은 안양예술공원에 설치된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52개 작품을 대상으로 자유롭고 다양한 기획과 연출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새로운 전시 방법과 사진 세계를 보여 주는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지역 예술가들의 관심을 높였다. 또한 2006년 9월 23~24일, 30일과 10월 1일에는 벽천광장에서 클



2007년 알바로시자홀(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래식, 국악, 창작무용, 남한춤과 북한노래 등 다채로운 공연이 열려 시민들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2007년 3월 30일, 알바로시자홀은 《소통-빛-공간-소리전》을 통해 실질적인 개관을 알렸다. 평면, 입체,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 이번 개관전은 알바로시자홀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성 연출이 가능한 작가 8인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참여 작가는 이신자(섬유), 홍순표(사진), 조성묵(조각), 우제길(회화), 오용길(동양화), 전수천(설치), 김혁수(도예), 김창겸(영상) 등 분야별로 엄선된 인물들이었다. 이 전시는 건축물이라는 공간과 작가들의 세계관이 담긴 현대작품이 세계적 건축가 알바로 시자의 조형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주제로 했다. 2007년에는 이웃 간 정이 넘쳤던 1950~1960년대 우리의 생활상을 반영한 인형전 등 다양한 전시가 개최되며, 대중적 전시를 통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안양시 기획전은 저렴한 입장료의 유료 전시로 진행되었으며, 일부 전시는 단체 대관을 통해 시민들에게 폭넓은 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후에도 비중 있는 기획전이 이어졌다. 2008년 8월부터 11월까지 《앤디 워홀과 60년대 아방가르드전》을 통해 세계적 팝아트 거장 앤디 워홀의 작품을 비롯해 팝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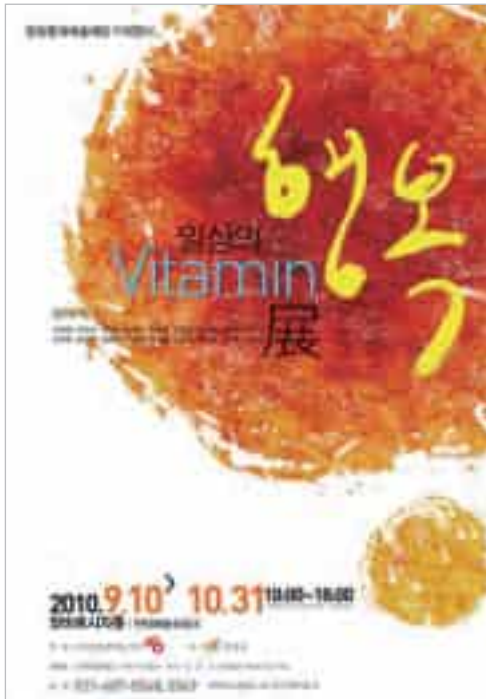


2007년 알바로스자홀에서 개최된 《소통·빛·공간·소리전》(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플럭서스, 대지미술 등 다양한 작품이 소개되었다.

2009년 5월, 안양문화예술재단 출범을 기념하여 기획전 《근현대미술로 보는 해학과 풍자》가 열렸다. 이 전시에는 장승업, 허백년, 박생광, 이남호, 장우성, 김기창 등 근현대 미술의 대표 작가들과 함께 현대미술 작가인 이영수, 신현중, 이종구, 정경연, 최석운, 안윤모, 임택, 주라영, 곽수연 등 작가 30여 명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같은 시기에 열린 《예술가들의 기록》에서는 으젠느 앓제, 만 레이, 브랏사이, 빌 브란트, 주명덕, 호소에 에이코, 이리나 이오네스코 등 세계 각국 사진예술의 대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전시는 시대적 기록 영상을 비롯하여 아방가르드한 흑백예술사진의 고요와 빛의 아름다움을 일곱 작가의 작품세계를 통해 테마별 이야기로 구성해 선보였다.

2010년 4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열린 《실경산수의 색과 향》 전시에서는 한국 화단을 대표하는 실경산수화가 오용길이 풍경 사생을 바탕으로 한 섬세한 붓 터치와 감각적인 작품을 선보였다. 이어 2010년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린 《일상의 행복-비타민(Vitamin)》 전시에서는 조성묵, 전수천, 권여현, 김영주, 전동화, 인효경, 금영보, 최현주, 정소연, 이기일, 김기훈, 김진호, 박상화, 변대용, 노동식, 한석현, 이재욱,



2010년 열린 <일상의 행복 · 비타민(Vitamin)> 전시 포스터



2012년 열린 <길에게 묻다> 전시 포스터

이현희 등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2012년 안양문화예술재단 기획전시로 3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미술관 나들이-현대미술 속으로》가 개최되었다. 이 전시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40점이 소개되며 관람객들에게 현대미술의 다양한 흐름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어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는 야외설치그룹 마감뉴스 20주년을 기념하는 초대전 《길에게 묻다》가 열렸다. 또한 10월 13일부터 12월 9일까지 열린 《트라이 유니티전 (TRI UNITY-Nature+Art+Technology)》에서는 ‘자연, 예술, 테크놀로지의 아름다운 조우’를 주제로 전시가 구성되었다. 미디어아트의 창시자이자 세계적인 예술가인 백남준의 작품을 비롯하여 총 아홉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었으며, 뉴미디어아트와 디지털 사진 등을 통해 작품과 관객이 서로 소통하는 특별한 전시가 펼쳐졌다. 이 전시는 자연과 기술, 예술이 하나로 만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12년 12월 2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기억프로젝트-게이트웨이(Memento project-GATEWAY)》 ‘낮설고도 낮익은 안양의 기억을 만나다’는 안양문화재단과 스톤앤워터가 공동 주최한 전시로, 1950~1960년대 석수동에 주둔했던 미군 부대의 군인 날 미



2006년 한국사진작가협회 안양지부의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사진전(안양시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살로프가 웹페이지에 올린 석수동 빌리지라는 사진첩에서 출발하였다.

알바로시자홀에서는 세계적인 전시뿐만 아니라 지역 미술 활성화에 기여하는 전시도 개최되었다. 2006년 안양미술협회(안양미협) 주관으로 제15회 포도미술제가 알바로시자홀에서 개



2008년 8월 30일 알바로시자홀을 찾은 알바로 시자(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최되었으며, 2007년에는 제32회 안양미협전과 제33회 관악학생미술실기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안양예술공원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열렸다. 2008년 포도미술제는 ‘생활과 여유’를 주제로, 디자인·공예 분과 회원들과 초대 작가들의 작품으로 전시가 이루어졌다. 이 기간에 건축가 알바로 시자가 직접 방문하여 자신이 설계한 알바로시자홀을 처음



2013년 재개관된 안양파빌리온(2021년, 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으로 관람하기도 했다.

미술관이 부재했던 안양에서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자체 기획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미술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며 미술관의 역할을 대신하였다. 또한 한국미술협회 안양지부와 한국사진작가협회 안양지부의 단체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심어 주었고, 안양예술공원을 더욱 자주 찾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2013년 10월 26일, 안양의 ‘알바로시자홀’이 ‘안양파빌리온’으로 이름을 바꾸고 재개관하였다. 이는 갤러리 용도에서 공공도서관 기능을 겸한 공간으로 변화한 것이다.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백지숙 감독은 “자연 속 여가와 휴식을 위해 지어진 개방형 건축물이라는 의미를 담은 이 건물의 원래 취지를 살려, 공공예술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다시 조성한 것”이라며 “안양파빌리온이 국내 유일의 공공예술 전문센터로, 앞으로 국내 공공예술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후 ‘안양파빌리온’에서는 단순히 예술작품을 감상하거나 사진을 찍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술을 읽고, 쓰고, 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안양파빌리온에서 바라본 안양예술공원 거리(2021년, 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2013년 안양파빌리온 개관을 알리는 홍보물

재개관된 안양파빌리온에는 APAP의 중심 허브로, 공공예술 관련 도서 2,000여 권이 구비된 국내 최초 공공예술 전문서가인 ‘공원도서관(ParkLibrary)’이 들어섰다. 여기에는 지난 2005년 이후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진 예술작품 도면, 스케치,



안양파빌리온(2021년, 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APAP 아카이브 상설전시(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작가와의 서신 등 공공예술 관련 모든 기록과 자료들을 한자리에 모은 아카이브도 꾸며졌다.⁸ 2020년 10월 22일부터 1회부터 6회까지 15년 동안 남긴 이야기 모아 ‘APAP 아카이브 상설전시’를 운영하였다.

3) 지역 예술단체의 활동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개최 이후, 지역 예술단체들도 안양예술공원 공간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안양미술협회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미술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아이들이 그린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운영하였다. 10월 28일 공공예술프로젝트 작품을 감상한 후, 알바로시자홀 야외광장에서 각기 다른 화풍의 미술가들에게 지도를 받으며 그룹별로 현장 그림 그리기 활동이 진행되어, 안양예술공원을 찾은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룹별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적용해 나온 학생들의 작품들은 2006년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알바로시자홀에 부스 형태로 전시되어, 안양공공예



2006년 안양미술협회가 운영한 ‘아이들이 그린 공공예술프로젝트’(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술프로젝트와 연계한 새로운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독특한 작품들은 다른 단체에서도 관심을 끌며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교육 방법으로 확장되었다.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한 달간, 건축물과 어린이 창작무용을 통합교육 차원에서 연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예술공원에 위치한 비토 아콘치의 작품 〈나무 위에 선으로 된 집〉을 중심으로, 경기도 소재 유치원생 5명과 초등학생 9명, 총 14명이 참여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건축물 탐방, 공연 계획, 창작무용 제작과 발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 속 공공건축물과 신체 표현활동을 결합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다.

무용이라는 행위적 활동과 공공건축물의 교육적 연계를 통해 감상 중심이었던 기존 공공건축물 인식이 변화되었으며, 신체 표현활동과 문학적 상상이 확장되었다.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글쓰기 발상도 이루어졌고, 환경예술 실천 방법에 대한 인식 또한 함께 이루어졌다. 즉, 공공건축물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신체 표현활동도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독창성을 발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⁹

2007년 5월 26일 알바로시자홀 앞 광장에서 아트마켓이 개장되었다. 회화, 조각 등 400여 점의 미술작품이 전시되었으며, 10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열렸다. 아트마켓에서는 인물화 시연, 물레 시연, 유리공예 시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는 예술공원으로 변모한 안양예술공원에 새로운 문화환경 조성이 필요했던 시기에, 안양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가능했던 일이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행사가 총 6회 운영된 이후 더 이상 지속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후 2016년 5월부터 10월까지의 ‘공원 속 예술시장’이라는 특별한 아트 플리마켓이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열렸다. 이 행사는 안양파빌리온의 주소를 딴 ‘예술공원로 180’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현장에서는 젊은 예술가들의 다양한 창작품을 비롯해 미술작품, 장식소품 등을 만날 수 있었고, 어쿠스틱 밴드의 버스킹 공연이 더해져 복합





2007년 안양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한 아트마켓(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문화 행사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¹⁰ 제5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안양 파빌리온 광장에서 아트마켓이 개최되었다. 이는 2007년 이후 9년 만에 열린 아트마켓이었다.

2018년 7월 23일부터 24일까지는 안양예총 주관으로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아트캠프’가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안양여고가 교육부 ‘지역연계_Smart Art Space’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의 일환이었다. 학교장 추천을 받은 초·중·고 미술부 학생들이 참가해, 도슨트 설명과 함께 안양예술공원 내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작품을 감상하고 이를 재해석해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우리 가락을 학습한 뒤 청각을 시각화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특정 작가의 작품에 대한 감상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재구성한 작품 설명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포장박스를 활용해 병커 구조물을 제작하고, 벽화 방식으로 공동 작업을 하며 창의적인 발상이 자유롭게 펼쳐졌다. 이러한 활동은 안양예술공원 내 작품들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4) 벽천광장과 야외무대가 바뀌어 놓은 풍경

제1회 공공예술프로젝트가 추진되고 벽천광장과 야외무대가 설치되면서 안양예술공원의 모습은 크게 변화하였다. 관악산 등산길을 오가는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공연을 감상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공연들이 이곳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안양예술공원에서는 미술 영역을 넘어 다양한 ‘예술’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 5월 25일, 안양아트마켓이 개최된 날에는 알바로시자홀 앞 광장에서 기타 연주팀 ‘오선지’와 안양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오카리나 연주가 이어졌다. 다음 날인 5월 26일에는 1970~1980년대 음악을 연주한 ‘블루버즈’의 공연이 열려, 하산길에 잠시 발걸음을 멈춘 등산객들과 무더위를 식히러 나온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또한 예술단체들도 벽천광장 무대에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공원의 문화적 활력을 더욱 높였다.

2007년 8월 26일 문화예술발전소¹¹는 <나무위의 선으로 된 집> 야외무대에서 ‘안양 문화벨트 조성 3차_이로운 문화, 즐거운 예술!’로 다양한 분야의 공연을 펼쳤다. 이어 2008~2009년에는 안양예총과 안양문화원이 공동 주최한 ‘안양문화예술제’가 벽천광장 일대에서 개최되었다. 2010~2017년(2014년 제외)에는 안양예총 단독 주최로 안양의 대표적 예술축제인 ‘안양예술제’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었다. 2014년 10월 28일 안양관악



벽천광장(안양시청 제공)

챗터는 창립 13주년을 맞이하여 제5회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¹² 행사를 개최하였다.

2017년 8월 19일,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안양예술공원 벽천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신개념 ‘물놀이’ 행사를 선보였다. 시민 참여형 물총 대결 ‘물놀이’는 워터난타, 해적단 퍼포먼스, 퍼레이드로 이어져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시원함을 선사하였다. 특히 해적단 퍼포먼스는 안양예술공원 삼성천 줄기에 설치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작품인 〈물고기의 눈물이 호수로 떨어지다〉를 빼앗으려는 해적단과, 이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물총 대결 스토리로 구성되어 현장의 흥미를 더하였다. 하지만 벽천광장에서 공연이 무분별하게 이어지면서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후 공연 횟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 행사가 재개되면서 안양문화원의 ‘전통문화한마당’ 공연 등이 오랜만에 다시 열렸다. 이 공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안양예술공원 벽천광장에서 진행되었다.



벽천광장 야외무대 공연(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5) 개인이 운영하는 특색 있는 전시·공연 공간

안양예술공원 내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문화공간들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4월, '아트리에갤러리'가 문을 열어 중저가 미술품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갤러리 카페 '작은 박물관'은 정기적으로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전시와 공연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밖에도 '수목원 가는 길', '채수철갤러리', '올토' 등 갤러리 카페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현재 '아트리에갤러리'와 '작은 박물관'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2018년부터는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 스페이스크리오홀이 조성되어, 음악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연주자들의 공연이 개최되었다. 2018년 11월 3일에는 라이브 드로잉 아티스트 김진규 감독의 <The Drawing Show>, 2019년 3월 12일에는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실내악 5중주>, 같은 해 12월 5일에는 한국 블루스의 거장 김목경 초청 공연이 열렸다. 이 공연장은 회원제 중심으로 정기 공연을 운영하며 국내외 많은 음악 애호가들이 안양을 방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코로나19 이후 2019년 3월부터 정기공연은 중단되었으나, 2021년에는 떠오르는 7명의 오페라 스타들과 함께하는 음악축제 <La Festa>가 개최되었다. 이어 2022년에는 조카 페르피냐과 요탐 실버스타인 등이 참여한 <Voyage Into the World Music> 공연이 열려, 수준 높은 연주자들의 무대가 이어졌다.

또한 2023년, 안양예술공원의 안양사 가는 길 초입에는 ‘두나무 아트큐브’가 개관하였다. 개관 초대전으로 금영보 작가전을 개최한 이후, 국내 수준 높은 작가들을 초청하여 기획전 중심의 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3. 안양예술공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2005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23년 제7회까지 이어져 온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는 국내외에서는 높은 인지도를 얻었지만, 정작 안양시민들 사이에서는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대중성을 확보하면서 예술성을 유지하는 것은 현재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단은 행사 종료 후에도 존치된 건축물과 작품들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작품 투어’이다. 약 1시간 30분 코스로 진행되는 이 투어는, 안양예술공원 내에 설치된 54점의 존치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5명의 도슨트가 관람객 안내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 투어는 안양시민뿐만 아니라 외부 단체에서도 많은 관람 요청을 받고 있다. 안양시는 2020년 12월 23일, 도슨트 활동을 통해 연간 4,000~5,000명 관람객에게 작품 해설을 제공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에는 ‘APAP 오디오 투어’를 개시하여, 모바일로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오디오 안내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APAP 오디오 투어’는 야외 공공예술작품 50점을 전문 성우가 한국어와 영어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작품 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¹³ APAP의 대표적 작품은 안양예술공원 내 작품들이 여전히 그 중심에 있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국내 유일의 공공예술 축제로 자리매김하며, 많은 미술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1회 공공예술프로젝트 당시 설치된 안양예술공원 내 작품들의 가치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18년 12월에는 태국의 인기 록

밴드 ABnormal이 안양예술공원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였고, 이후에도 유명 배우들이 이곳에서 촬영에 나서는 등 태국 연예인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외국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2019년 안양예술공원은 국제적 명소로 떠오르게 되었다. 홍콩 고교 수학여행단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멕시코 등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다. 이러한 흐름은 안양예술공원이 ‘예술’을 매개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보여 주는 사례로, 앞으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삼성천 일대는 숲이 우거지고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는 자연환경 덕분에 시민들의 사랑받는 휴식처로 자리 잡았다. 2017년에는 안양예술공원에 무장애(無障礙) 산책로인 ‘나눔길’이 조성되었다. 나눔길은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을 배려하여 설계된 자연 탐방로로, 휠체어나 유모차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나무 데크로 이어져 있다. 이어 2022년 8월 11일에는 안양예술공원 내 예술작품을 따라 걷는 숲길인 ‘예술 탐방로’가 개통되었다. ‘예술 탐방로’는 전체 720m 구간 중 220m를 우선 조성한 것으로, 자연 속 산책길을 걸으며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 작품들과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양예술공원만의 독특한 매력을 더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은 1971년 대통령령 제5666호에 따라 설치된 한국 최초의 수목원으로 전체 면적이 460여만 평에 이른다. 이 중 약 6만 평에는 1,700여 종, 10만 그루에 달하는 수목이 자라고 있으며, 중앙로, 단풍길, 진달래길, 양생초화관찰로, 유실수원, 수생초원 등의 정원과 낙엽송·잣나무 등이 심어진 인공 조림지가 조성되어 있다. 또



APAP 투어 프로그램



안양예술공원 무장애나눔길(안양시청 제공)

한 자생화목관찰원, 활엽수관찰원, 침엽수관찰원, 특산희귀식물관찰원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측은 수목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입구에 철문을 설치하고 차량 및 인원을 통제해 왔다. 사전 견학 신청을 한 단체나 학교 등 학술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제한해 왔으며, 특히 2002년에는 수목원 주위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4km의 우회 등산로를 개설하면서 예약 방문객 외에는 철저히 통제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기도 했다. 결국 안양시의 노력과 서울대학교의 협조로 2005년 4월 22일부터 관악수목원은 부분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되기 시작하였다.

2023년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개방된 26일 동안 총 7만 9,835명이 수목원을 방문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2024년에는 4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그리고 11월에도 개방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¹⁴ 2024년에는 수목원 입구 연구동 공간을 활용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주관으로 《한·인도 교류전》이 개최되었으며, 이어 11월에는 지역 작가 초대전이 열려 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수목원의 개방이 단순한 등산로 이용을 넘어 예술과의



석수동과 안양예술공원 일대의 문화예술자원(안양시청 제공)

점목이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안양시는 또 다른 문화공간으로 만안각 부지에 주목하게 되었다. 시는 안양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해 2017년 12월, 예산 175억 원을 들여 예술공원 인근 1만 3,000여㎡ 규모의 만안각 부지를 매입하였다. 이후 시는 만안각 부지 활용을 위해 경기도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에 지원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에는 만안각 부지에 공공예술센터 등 관광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주관 넥스트창조 오디션 공모사업에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만안각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기초자료만 확보했을 뿐 실질적인 활용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였다. 2023년에는 다시 한 번 만안각 부지 문화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입지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며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¹⁵

한편 안양시는 2017년 관광진흥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에는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다. 이어 2022년에는 안양예술공원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에서는 ‘안양예술공원 활성화’를 “안양예술공원에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만들어지고 방문객 수가 증가하여 수도권 대표 명소로 발전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당시에는 유원지의 특성상 상인들이 지역 주체를 이루었던 탓에 주민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안양예술공원은 상인뿐만 아니라 여가를 위해 찾는 유람객과 등산객 모두를 포괄하는 지역 공동체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20년부터 안양상권활성화센터 주최, 안양예술공원 상인회 및 석수상인회 주관으로 ‘우리 손으로 예술공원 조성’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2023~2024년에는 관악학생미술실기 대회를 유치하고 보행로 천변 펜스에 인쇄물 작품 이미지를 전시하는 등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양예술공원에서는 이렇다 할 규모의 문화예술 행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안양예술공원은 세계적인 유명 작가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김중업건축박물관, 안양박물관, 문화유산, 그리고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고찰 등 훌륭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다.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문화가 공존하는 이 특별한 공간을 통합적 관점에서 정비하고, 예술공원에 걸맞은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안양예술공원을 고품격 예술특구로 조성하고, 예술인들의 창조적 협업을 통해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註

- 1 안양뚝딱이, 「안양예술공원 초입 안양수영장터 안내표지판 초라하다(2022.11.18.)」(<https://ngoanyang.or.kr/7247>), 『도시사진 기록-골목풍경』, 안양지역도시기록연구소.
- 2 이영철, 「헤테로토피아적 환경에서의 균형찾기(2005.12.19.)」(<https://ngoanyang.or.kr/818>), 『안양지역애기-담론』, 안양지역도시기록연구소.
- 3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2005.
- 4 2005년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사무국 발표자료.
- 5 『경기신문』 2009년 4월 28일.
- 6 알바로시자는 포르투갈 출신의 건축가로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알려진 '프리츠커' 건축상(Pritzker Prize)을 수상하는 등 21세기 모더니즘 건축의 살아있는 거장으로 불리는 인물로 아시아 최초로 안양예술공원에 그가 설계한 작품을 건축하였다. 알바로시자홀은 2013년 '안양파빌리온'으로 그 명칭이 바뀌게 된다.
- 7 「안양예술공원으로 보는 지역건축에 대해서-최승원 건축사(2018.05.)」(<https://kiramonthly.com/150>), 『월간 건축사』 vol.589, 2018년 5월호. 2002년 시작된 '안양아트시티 21'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각종 건축물과 공작물의 외관 형태 등에 예술성을 가미하여 자연환경과 도시미관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수준 높은 문화적 자산을 만들어 국내 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를 가꾸어 나가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 8 「공공 예술을 더 가깝게... '알바로시자홀' → '안양 파빌리온'으로 재개관」(<https://www.ajunews.com/view/20131024000165>), 『아주경제』 2013년 10월 24일.
- 9 이정연, 「공공 건축물과 창작무용 공연을 연계한 어린이 통합교육 사례-안양 예술공원 '나무 위에 선으로 된 집'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5권 제3호, 2015, 563-580쪽.
- 10 「6. 아트 플리마켓 '예술공원로180' 현장속으로!」(<https://tv.anyang.go.kr/contents/1667?page=39>), 『안양뉴스』 제2034호, 2016.6.20.-6.26.
- 11 2006년 3월 1일 33인의 안양-의왕-군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건축, 미술, 음악, 연극등 예술인들의 모임으로 결성되어 지역 문화와 연계한 활동을 했다.
- 12 「안양관악센터 제5회 다문화가족 합동 결혼식」(http://www.ptpkorea.or.kr/home/?mid=notice&page=7&document_srl=441), 국제파플루피플 한국본부.
- 13 「APAP 오디오 투어 서비스 시작(2020.12.23.)」(https://www.apap.or.kr:446/m2/sub1_view.asp?sn=21&page=2&search=&SearchString=&BoardID=0001), 안양문화예술재단.
- 14 「하루 18명에게만 허락된 서울대 관악수목원, '비밀의 숲' 직접 가봤더니」(<https://www.mk.co.kr/news/culture/10468250>), 『매일경제』, 2022년 9월 27일.
- 15 「175억 혈세 들였는데... 안양 '만안각 부지' 6년째 표류」(<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326580082>), 『경기일보』 2023년 3월 26일.

제2장

안양예술공원 APAP 작품 아카이브

김진주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예술학 박사과정



1. 안양예술공원의 구성

안양예술공원은 지난 20년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진행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를 통해, 다양한 예술 작품과 자연환경, 주변의 주거지 및 상업지가 조화를 이루는 시민의 예술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안양예술공원은 60여 개에 달하는 야외 조각과 설치 미술 작품, 건축물 그리고 안양파빌리온과 김종업미술관이라는 두 중심 공간을 아우르며 높은 밀도와 광범위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안양예술공원의 기반은 장소 조성을 목적으로 했던 제1회 APAP에서 대부분의 현존 작품이 제작되면서 마련되었다. 제1회 도록에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전시 장소에 구현할 작품의 분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① 파빌리온형 현대미술 전시관, 숲속의 테마 전시관
- ② 전망대와 각종 쉼터들
- ③ 주차장
- ④ 관리사무소, 안내센터
- ⑤ 서술성이 있는 조각들, 유원지 기억에 연관된 이미지들
- ⑥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
- ⑦ 야간 풍경을 고려한 빛 작품들, 소리 조각 등
- ⑧ 보도의 패턴 작업들, 풍경에 개입하는 텍스트, 시들, 이미지들



2005년 제1회 APAP 존 구획 및 플랫폼 지정(APAP 아카이브 제공)

공공예술 작품의 현대적 의미와 물리적, 비물리적 형식을 총망라하는 이와 같은 제1회 APAP의 구성은 안양예술공원에 20년에 걸쳐 자리하게 된 작품의 거의 모든 범주를 아우르는 데 무리가 없다.

단순한 물리적 대상화에 국한된 ‘조각공원’을 넘어서서 도시의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담아내고 예술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장소의 감각’을 충분히 체험할 수”¹ 있도록 목표를 설정한 초창기 APAP의 공간 구성은 유원지 개발사업의 후속 사업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공공과 예술의 접점에서 도시의 문화 특성을 만드는 방향으로 내부적 분화를 생성하였다.

제1회 APAP에서 만들어진 안양예술공원의 공간적 초안은 본래 역사적으로 안양(安養)에 지상천국, 극락세계, 정토의 의미가 담겼던 것처럼, 안양예술공원이 되는 안양유원지 일대를 10개의 테마 영역으로 분할하였다.² 이 10가지 주제는 10개의 존(zone)으로 명명되며 제1회 APAP에서 영구 설치를 전제로 제작된 작품 52점과 일시적으로 전시된 작품 45점을 안양천과 안양유원지 일대에 고르게 분포할 수 있게 하는 기획적 구성력을 발휘하는 근거였다.

〈표 1〉 제1회 APAP 안양예술공원 테마 영역

ZONE	테마	영역
A	Hospitality(환영)	안양유원지의 입구와 주차장 인근 하천 주변 산책로를 주 영역으로 하는 시작점
B	Alliure(호기심)	연결된 긴 직선 보행로를 아우르며 안양유원지 중심부까지 연결되는 긴 흐름을 통해 상점까지를 연결하는 중첩 공간
C	Feast(향연)	거점이 되는 안양파빌리온이 들어선 작은 광장을 중심으로 공연장과 인공폭포 같은 환경적 요소 포괄
D	Art(예술)	산속에 위치한 숲길로 작품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포진
E	Garden(정원)	전망대가 설치될 안양유원지 삼성산 능선의 정점이 되는 언덕과 두 개의 개울을 포함하여 불규칙한 자연환경적 요소가 두드러짐
F	Pilgrim(순례)	숲으로부터 나가는 출구로 안양유원지의 숙박 밀집 시설과 동선을 접하는 영역
G	Play(놀이)	하천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중심으로 한적한 분위기가 두드러짐
H	Circulation(순환)	주차장과 넓은 휴게 공터가 자리한 곳으로 안양유원지의 개별 구역이 끝나는 지점
I	Pause(쉼)	존H와 마주보는 언덕 위 산 쪽으로 연결된 길을 따라 형성된 곳으로 작품을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공터가 있음 ³
J	Purified Earth(정토)	존I와 겹친 장소로 주제에 맞춰 일부 작품을 묶어 둔 영역

제1회 APAP에서 은유이자 실질적인 작품 묶음으로 역할을 했던 10개의 테마 영역은 이후 느슨한 틀로 작용하였다. 현재에도 안양파빌리온 인근에 설치된 안내판은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고 좀 더 단순화하여 꽃 이름을 딴 5개의 산책길 영역과 겹쳐 표기한 안내 지도를 제공하는 반면, 제1회 APAP에 최초로 전시되었고 2013년 재정비한 <돌지도 디자인> 작품은 안양예술공원 작품의 제목과 위치 정보를 제공하며 10개의 테마 영역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20년이 지나며 제1회 APAP에서 조성된 작품 사이사이 비어 있던 삼성산의 숲과 공원의 유휴지에 또 다른 APAP 작품이 계속해서 축적되었다. 현재 안양파빌리온에서 제공하고 있는 안내지도에는 이러한 세부 영역 구분 없이 안양예술공원 초입부터 시작해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앞까지 이어지는 동선을 따라 58개 작품에 번호를 붙여 추가되고 잔존하는 APAP 작품을 소개한다. 따라서 1~58번은 안양예술공원 가이드북 인쇄물에 따른 작품 번호이다. 가이드북은 안양예술공원의 입구에서 시작하는 진행 방향에 따라 작품에 번호를 매겼다. 59번부터는 안양예술공원 가이드북에는 등장하지 않으나 안양예술공간에 실제로 설치된 작품을 추가한 것으로 주로 2019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이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Anyang Public Art Project)는 3년마다 열리는 국내 하나뿐인 공공예술 트리엔날레입니다. 안양의 지형·문화·역사 등에서 영감을 얻은 세계적인 작가들이 안양예술공원을 중심으로 안양시 곳곳에서 미술·조각·건축·영상·디자인·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공예술 작품을 선보이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도시 자체를 하나의 갤러리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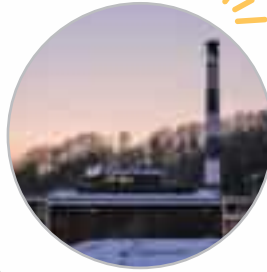
- | | |
|---|------------------------------|
| ① 새라지가는 문자들의 정원 | ⑮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
| ② 보물과 역사, 문명으로 통하는 길구, 다리 그리고 비법을 찾아 성스러운 공어를 해매다 | ⑯ 거기에/거기에서 |
| ③ 안양 메모리타워 | ⑰ 물고기의 눈물이 호수로 맺어지다 |
| ④ 달·식양형 | ⑱ 찬디 휴가 중 |
| ⑤ 1명 타워 | ⑳ 예술가의 정원 |
| ⑥ 신기루 | ㉑ 풍이 별 |
| ⑦ 안양 도로표지판 프로젝트 2005 | ㉒ 각목모수 |
| ⑧ 스텔리프 파우너 | ㉓ 공동의 집, 예술의 유익함을 생각하는 예술위원회 |
| ⑨ 안양파빌리온(안양호사자홀) | ㉔ 땀과 캐노피 |
| ⑩ 무문관(無門關) | ㉕ 그림자 호수 |
| ⑪ 뎡커 M. 바흐진 | ㉖ 거울 피로 |
| | ㉗ 노래하는 변지 |



- | | | |
|--------------------------------|--------------------|-----------------------------------|
| ① 휴간자(안방) | ③ 안방 서편 | ⑤ 돈화수 |
| ② 안방상자집-사라진(담)에 대한 원형 | ④ 정수정/비정수정 | ⑥ 유루 |
| ③ 먼 곳을 바라보는 남재(향약/복사집 명태(대삼은)) | ⑤ 앞간 | ⑦ 나무 위의 선으로 된 칸 |
| ④ 정암의 숲 | ⑥ 우재(현실에 영정을 배치하는) | ⑧ 들치도 디자인 |
| ⑤ 윤의 꼬리 | ⑦ 집을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 | ⑨ 긴 다리 |
| ⑥ 전광첩 | ⑧ 대양 애너지 차원 | ⑩ 안고강산 유람할 계 |
| ⑦ 전방대 | ⑨ 낮잠 대포 | ⑪ 일 여섯, 일백 여섯 |
| ⑧ 리플러 | ⑩ 휴식 | ⑫ 4 원소 집(地, 火, 水, 風) |
| ⑨ 숲속길 | ⑪ 로렌스 정자 | ⑬ 명운 |
| ⑩ 신중생물 | ⑫ 활꽃 | ⑭ 산과 정신을 위한 의자 |
| ⑪ 동물들의 세상 | ⑬ 우리들의 안방 | ⑮ 개인은 삶의 의미를 찾는 나의 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 ⑭ 전국은 넓히고 있다 | |
| | ⑮ 우리 | |



1. 사라져가는 문자들의 정원
배영환
2014



3. 안양메모리타워
정충모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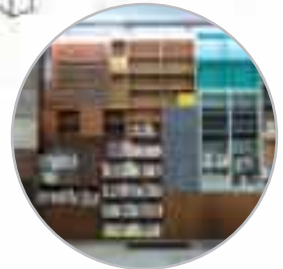
4. 달-삭망월
이광호
2014



2. 보물과 역사, 운명으로 통하는 입구, 다리,
그리고 비법을 찾아 성스러운 광야를 헤매다
오노레 도(Honoré d'O)
2014



9. 안양파빌리온(알바로시자홀)
알바루 시자 비에이라
(Álvaro Siza Vieira)
2006



10. 무문관
최정화
2016



5.
1평 타워
디디에르 피우자 파우스티노
(Didier Fiuzza Faustino)
2005



6.
신기루
왕두(Wang Du)
2005



7.
안양 도로표지판 프로젝트 2005
유켄 테루야(Yuken Teruya)
2005



8.
스트리트 퍼니처
프란체스코 트라부코 어소시아티
(Francesco Trabucco Associati)
2005



11.
벙커 M. 바흐친
이불
2007



12.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미카엘 엠그린
(Michael Elmgreen) &
잉거 드락셋
(Ingar Dragset)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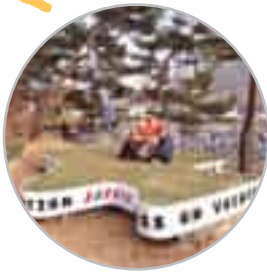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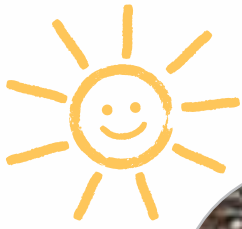


13.
거기에/거기에서
로렌스 뷔너(Lawrence Weiner)
2007



14.
물고기의 눈물이 호수로 떨어지다
오노레 도
2005





15. 잔디 휴가 중
도쿄 피크닉 클럽(Tokyo Picnic Club)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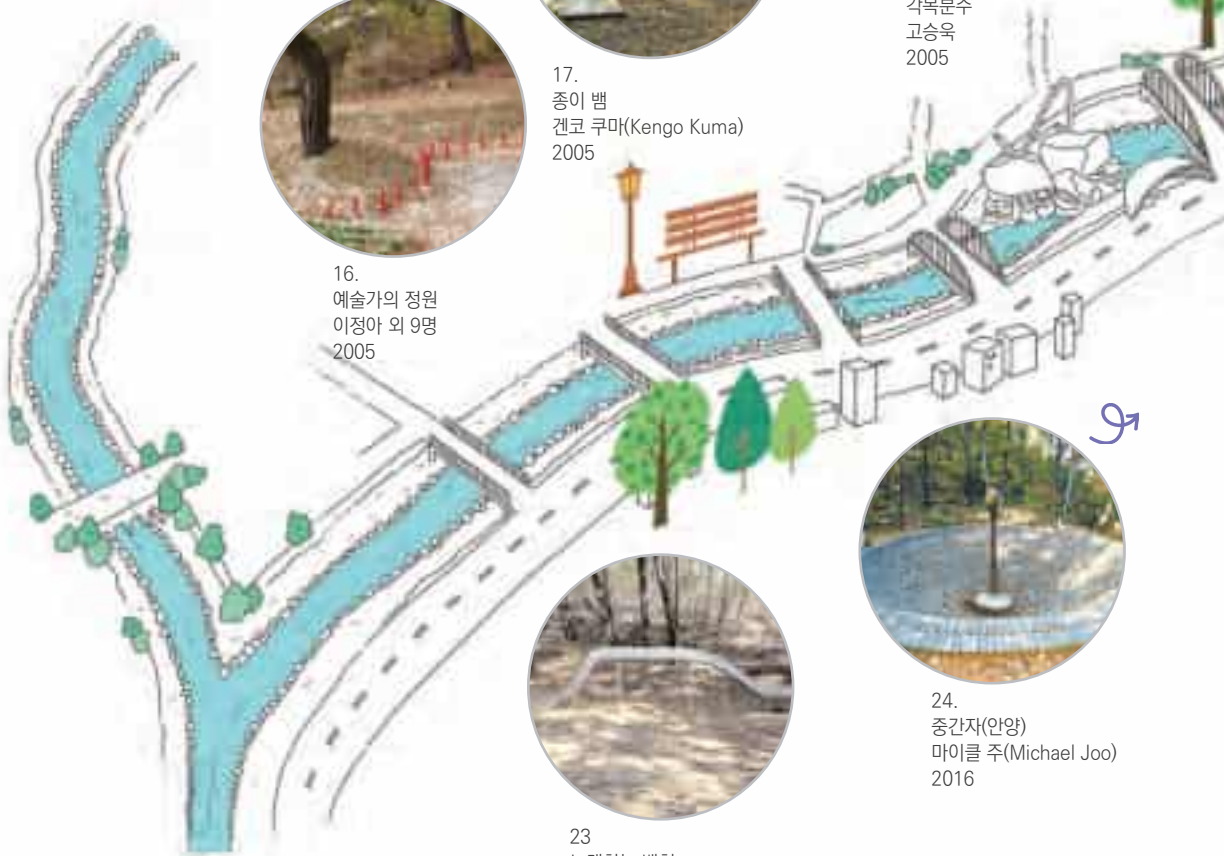
17. 종이 뱀
겐코 쿠마(Kengo Kuma)
2005



18. 각목분수
고승욱
2005



16. 예술가의 정원
이정아 외 9명
2005



23. 노래하는 벤치
예페 하인(Jeppe Hein)
2005



24. 중간자(안양)
마이클 주(Michael Joo)
2016





19. 공동의 장, 예술의 유익함을 생각하는 예술위원회 그라이즈 데일 아트즈(Grizedale Arts) 2014



20. 웰컴캐노피 박인수 2005



21. 그림자 호수 박윤영 2005



22. 거울 미로 예페 하인(Jeppe Hein) 2005



25. 안양상자집-사라진(탑)에 대한 헌정 볼프강 윈터 (Wolfgang Winter) & 베르트홀트 호르벨트 (Berthold Hörbelt) 2005



26. 먼 곳을 바라보는 남자(장학)/복사집 말래미(성은) 이환권 2005



27. 정령의 숲 이승하 2005



28. 용의 꼬리 이승택 2005





29
전환점
클럽(CLIP)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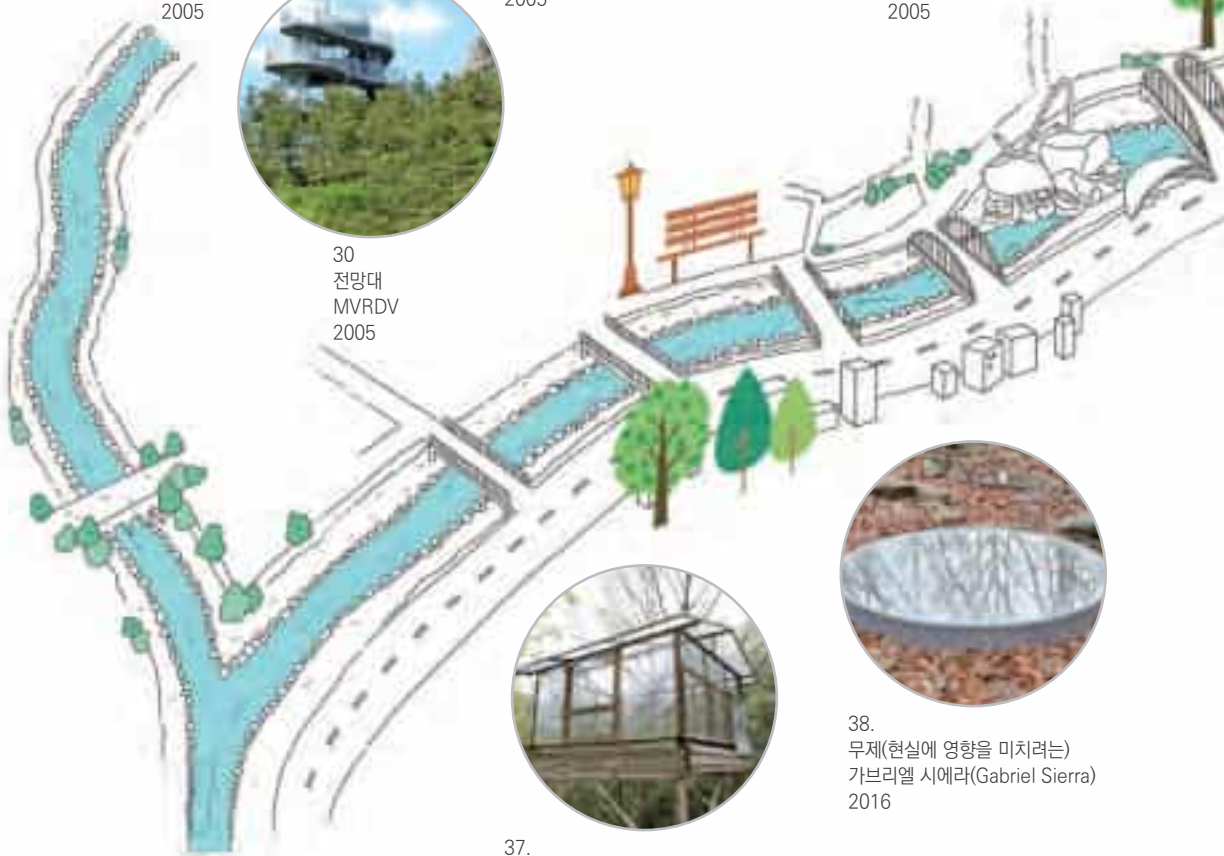
31.
리.볼.버.
허만 마이어 노이슈타트
(Hermann Maier Neustadt)
2005



32.
숲속길
클럽(CLIP)
2005



30
전망대
MVRDV
2005



37.
발견
장-뤽 빌무트(Jean-Luc Vilmouth)
2005



38.
무제(현실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브리엘 시에라(Gabriel Sierra)
2016



33.
신중생물
서정국, 김미인
2005



34.
동물들의 세상
쉐리 삼바(Chéri Samba)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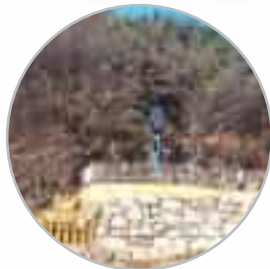
35.
안양 사원
에코 프라워토(Eko Prawoto)
2005



36.
장소성/비장소성
헬렌 박(Helen Ju-Hyun Park)
2005



39.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
박소영
2007



40.
태양 에너지 타워
주재환, 이필렬
2005



41.
낮잠 데크
클립(CLIP)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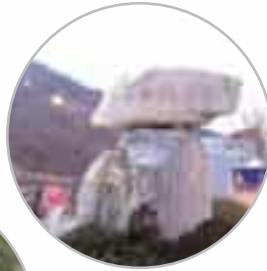


42.
휴식
이상수
2005





43.
로맨스 정자
나빈 라완차이쿨
(Navin Rawanchaikul)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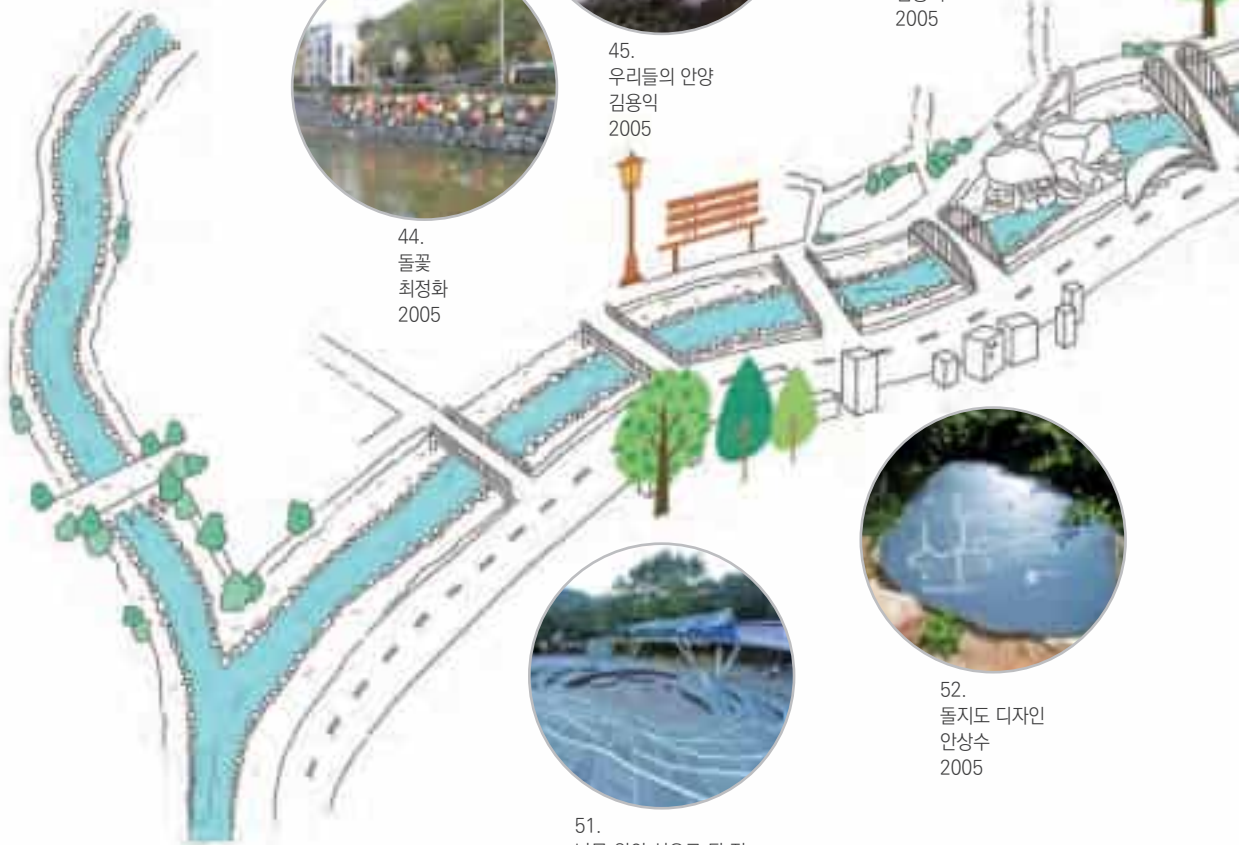
45.
우리들의 안양
김용익
2005



46.
만고강산 유람할 제
김용익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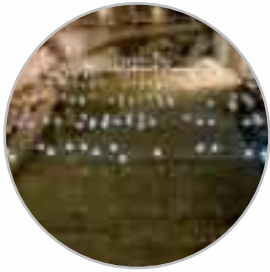
44.
돌꽃
최정화
2005



51.
나무 위의 선으로 된 집
아콘치스튜디오
(Acconci Studio)
비토 아콘치
(Vito Acconci)
2007



52.
돌지도 디자인
안상수
2005



47.
천국은 불타고 있다
최승훈, 박선민
2005



48.
뿌리
신호근
2005



49.
은하수
천대광
2005



50.
큐브
파브리스 지지
(Fabrice Gygi)
2005



53.
긴 다리
박신자
2005



54.
일 퍼센트, 일백 퍼센트
다미안 오르테가
(Damián Ortega)
2016



55.
4원소 집
(地, 火, 水, 風)
사미 린탈라(Sami Rintala)
2005



56.
평온
존 로저 홀트
(John Roger Holte)
2005





57.
신과 성신을 위한 의자
올루 오구베(Olu Oguibe)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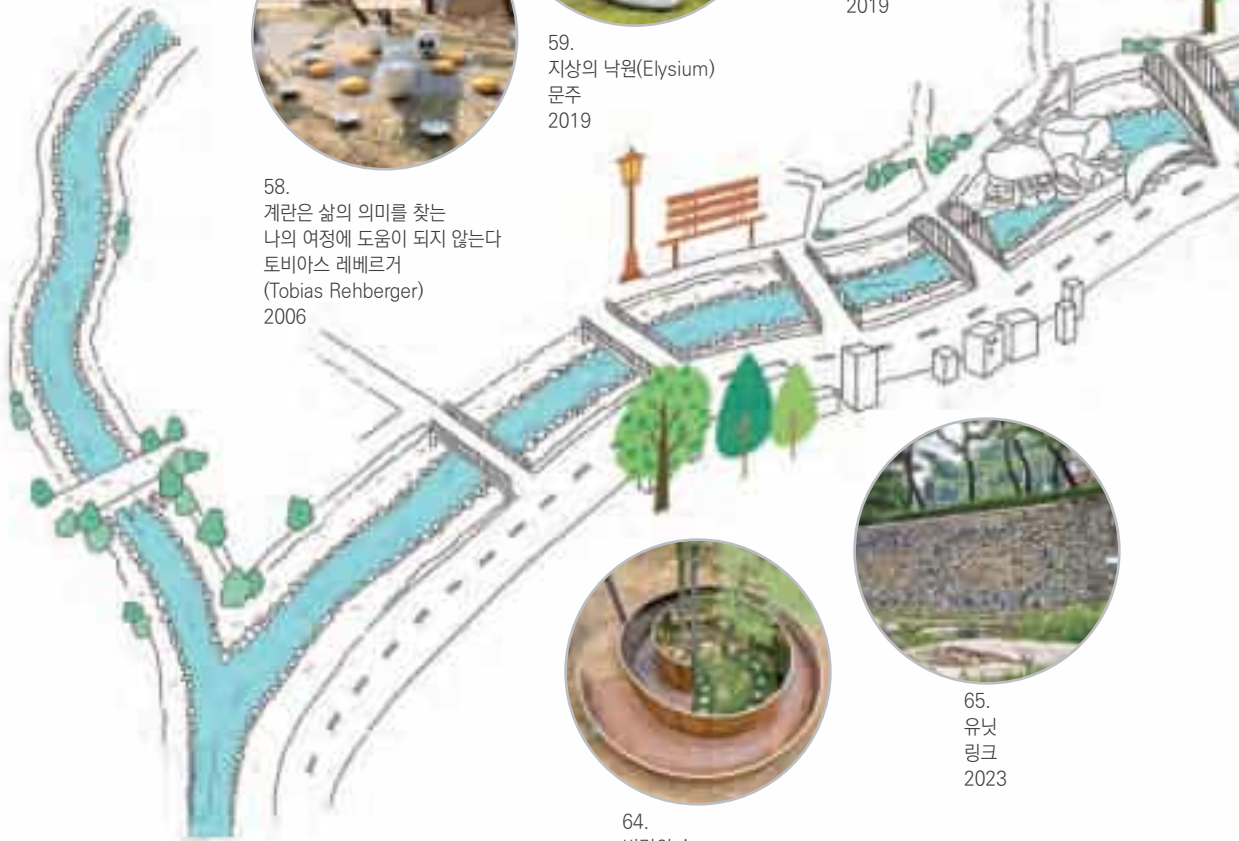
58.
계란은 삶의 의미를 찾는
나의 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토비야스 레베르거
(Tobias Rehberger)
2006



59.
지상의 낙원(Elysium)
문주
2019



60.
안양 2019
조르주 루스(Georges Rousse)
2019



64.
비밀의 숲
넥스트 아키텍츠
(NEXT architects)
2023



65.
유닛
링크
2023



61.
지구 잠재력
(도마뱀, 지구)
카트야 노비츠코바
(Katja Novitskova)
2017, 2019



62.
너의 거실 Your Living Room
(Simulation)
천대광
2019



63.
반영산수
우종택
2023

www



66.
아르키테우티스(오징어 정거장)
엘라스티코
(EL A STICO)
2005



67.
빌보드 하우스
존 커멜링
2005



68.
이소(Yiso, 異素)
김진주
2016



69.
무늬만 아카이브
김월식
2014



2. 안양예술공원의 출발점에서 볼 수 있는 작품

1) 김중업건축박물관 주변 작품

입구를 나타내는 시설물이 있었던 안양유원지 시절과 달리 현재 안양예술공원은 동명의 장소명을 붙인 버스 종점 겸 차고지와 주차장, 그리고 경내에 자리한 문화시설인 김중업건축박물관으로 자연스럽게 장소적 출발점을 형성하고 있다. 2014년 3월 28일 제4회 APAP가 운영되던 시기에 같이 개관한 김중업건축박물관은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최초의 공립박물관으로 옛 (주)유유산업 안양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해 본 건물, 특별전시관, 교육관의 세 곳으로 나눠 운영된다. 유유산업 안양공장은 서울올림픽 평화의 문을 설계한 근현대 한국 건축사의 중요 인물인 건축가 김중업이 1959년 설계했으며 안양예술공원 일대에서 안양의 산업화 부흥기를 표상한다. 제4회 APAP, 제5회 제 APAP를 위해 세 군데 건물과 외부 정원 일대는 전시장으로도 사용되었고 일부 전시 작품은 현재까지 존치되면서 안양예술공원 작품을 찾는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끈다.⁴



〈사라져가는 문자들의 정원〉⁵(배영환, 2014)

안양예술공원 초입에 자리한 김중업건축박물관은 제4회 APAP에 맞물려 개관되었는데, 안양과 APAP의 역사가 축적된 역사적 장소성을 가지는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 자리는 중초사, 안양사, 유유제약 공장 터였고, APAP가 제7회에 이르는 동안 많은 참여 작품들을 전시하며 김중업 건축가를 기리는 박물관이 문을 여는 문화예술의 장소가 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김중업건축박물관의 부속건물인 문화누리관 뒤편 야외 정원 중 안양사의 본존불을 모시는 금당지 자리로 추정되는 곳에 제4회 APAP의 참여 작품인 배영환 작가의 〈사라져가는 문자들의 정원〉이 세워져 시간이 만드는 망각과 축적 속에서 장소의 역사와 기억을 호출하였다.

이 작품은 24개의 기둥,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 만드는 조경이라는 두 층위로 구성된 다. 우선, 기둥들이 모인 중심부 조경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거북 '구(龜)'자를 형상한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안양사의 찬란했던 규모를 확인시켜 주는 사찰의 귀부(龜趺)에 깃든 과거의 형태와 의미를 배영환은 〈사라져가는 문자들의 정원〉에서 눈주목이라는 식물을 재료로 땅을 품고 조성한 조경 공간으로 변형하였다. 귀자 형태는 삼성산 삼막사의 삼귀



자(三龜字)로부터 따왔다. 돌이 아닌 식물로 채운 거북의 바탕 위에 세워진 기둥에도 새로움과 과거의 역사가 공존한다. 유유산업 제약공장 건물의 옛 기둥들 사이로 황금빛 표면에 여러 문자를 새긴 여덟 개의 새로운 기둥이 놓였다. 바탕이 된 수메르 설형문자, 마야 문자처럼 완전히 사용되지 않는 문자들, 훈민정음, 전통 한자처럼 점차 잊혀 가는 문자들은 문명의 사라짐을 표상하였다.⁶

〈보물과 역사, 운명으로 통하는 입구, 다리, 그리고 비법을 찾아 성스러운 광야를 헤매다〉

(오노레 도(Honoré d'O), 2014)

김중업건축박물관에서 목격할 수 있는 제4회 APAP 작품인 〈보물과 역사, 운명으로 통하는 입구, 다리, 그리고 비법을 찾아 성스러운 광야를 헤매다〉는 안양예술공원의 기틀을 조성한 제1회 APAP와도 연결된다. 제4회 APAP가 지난 작품들을 유지, 보수하면서 작품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기획을 추진하면서 제1회 APAP에서 삼성천 계곡 한가운데에 〈물고기의 눈물이 호수로 떨어지다〉를 설치한 오노레 도 작가를 다시 초대하였다. 9년의 간극을 두고 안양예술공원을 다시 찾은 오노레 도는 제4회 APAP에서 정지와 통과 신호를 보내는 주차차단기가 흐름을 제어하는 도구라는 점에 착안하여 기성의 디자인과 작동 방식을 변형한 세 가지의 차단기 구조물을 김중업건축박물관 외관과 내부를 연결하는 여러 장소에 설치하였다. 작가는 신비롭기도 하면서 동선을 가로막는 또 다른 요소인 공사장이나 유적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래주머니와 조약돌로 만든 구조물을 동반하였다.

수수께끼 같은 긴 제목만큼이나 사물과 공간의 복잡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 작품은 역사의 보존은 지난 시간을 잘 알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광야를 헤매”는 것처럼 끝을 모르는 깊이로 다가서려 하는 시도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깨달음을 시민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사물에 대한 통념을 빗겨나면서도, 익숙한 움직임과 직관적인 디자인을 매개로 삼아 낯설지만 매력적인 인식체계로 관객을 끌어들이는 시각적 수사학”⁷을 보여 온 오노레 도는 안양예술공원을 다시 찾으며 제1회 APAP에서 선보인 자신의 작품이 10여 년이 지난 2014년에도 여전히 잘 보존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것에 감동했다고 전해진다.⁸

〈안양메모리타워〉(정충모, 2014)

김중업건축박물관에 잔존하는 유유제약의 건축적 요소 중 대표적인 것이 굴뚝이다.

파란색과 흰색이 교차하는 도색의 옛 굴뚝은 삼성산을 배경으로 우뚝 솟아 시각적으로도 멀리서 가장 먼저 인지된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킨 굴뚝은 한창 생산의 열기가 가득했던 공장이 2006년 제천으로 이전하면서 작동을 멈추고, 그 후 안양시가 공장 부지를 구입하고 2014년 김중업건축박물관으로 개관하는 사이 멈추고 다시 활동하는 역사를 품은 상징물이기도 하다. 이 유구한 흐름의 목격자로서 존재감을 가진 굴뚝을 눈여겨보고 작품으로 활용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이는 안양 출신의 정충모 작가이다.

작가는 굴뚝의 운명에서 자신과의 유사성을 발견하였다. 작가는 안양에서 태어났지만 외지로 떠나 청년기를 보낸 뒤 1980년대 중반 다시 안양으로 돌아와 살게 되었다고 한다. 굴뚝이 왕성했던 공업도시 안양의 시간을 기억하며 작가는 굴뚝을 다시 밝히는 조형물을 구상하였다. ‘안양’, ‘공공예술’, ‘유유산업’, ‘김중업’이라는 장소성을 찾고, 이 단어에서 각각 자음을 따와 그 모양으로 조명의 기능을 하도록 만든 조형물을 옛 형태를 유지한 굴뚝 표면 위에 덧붙여 설치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안양 메모리타워> 작품에는 원래 ‘(주)유유’라는 글자가 그대로 남겨져 있었지만, “굴뚝산업의 폐해나 공업도시의 기억을 상기”⁹시킨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글자를 지우고 새롭게 도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음성을 시각성의 효과를 모두 자아내는 <안양 메모리타워>를 통해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 삶을 위해 안양으로 이주했고 떠나간 세대들이 상기된다. 활명수, 박카스, 유판씨 등 국민 누구라면 알만한 약품들이 안양에서 생산되었던 역사는 1980년대 이후로 안양 전반의 산업구조와 주거단지가 재편되며 잊혔지만, 예술적 시도를 통해 새로운 공공의 기억으로 탄생해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시민들을 바라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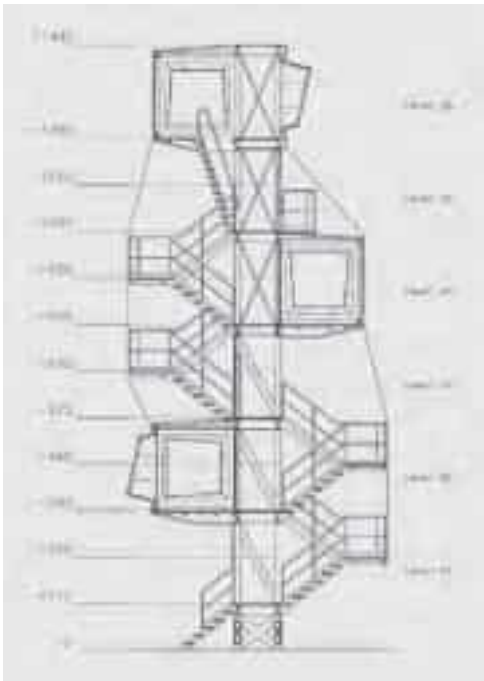
<달-삭망월>(이광호, 2014)

김중업건축박물관 내 전망대 외벽에 설치된 <달-삭망월>은 달 표면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도자 부조이다. 도자의 재료적 특성을 활용하여 섬세한 조형성을 드러내 온 작가 이광호의 이 작품은 보름달이 된 때부터 다음 보름달이 찾아올 때까지 사이 시간을 뜻하는 삭망월을 통해 변화하면서도 유구한 시간의 성질을 동시에 드러낸다. 제4회 APAP 당시 이 작품은 안양의 대표적인 상권지역에 자리한 (구)서이면사무소에 설치된 또 다른 작품 <달항아리>와 함께 제작되어 안양예술공원과 안양 시내의 생활공간을 연결하는 풍경을 자아냈다.

〈1평 타워〉(디디에르 피우자 파우스티노(Didier Fiuza Faustino), 2005)

김중업건축박물관을 지나 안양예술공원으로 한 걸음 더 진입하면 공영 주차장에 세워진 흥미로운 사각형과 계단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작품이 바로 1968년 프랑스에서 출생한 디디에르 피우자 파우스티노가 제1회 APAP에 참여하며 설계한 〈1평 타워〉이다. 파우스티노는 1995년 파리-빌맹건축학교(Ecole d'Architecture Paris-Villemin)을 졸업하고, 파리와 리스본에 거주하며 활동한 건축가로, 건축과 예술을 아우르는 프로젝트를 통해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공간과 관련된 쟁점들을 주로 제기하였다.¹⁰ 작가는 제1회 APAP의 제안을 받고 한국 건축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온 넓이 계량 단위인 한 평을 떠올렸다. 이 한 평이 한국인의 생활공간에 가지는 의미와 가능성은 파우스티노의 창작 세계를 통해 한 평 단위로 공간을 엇갈리게 수직으로 쌓아 올린 형태의 건축물로 디자인되었다.

이 작품 속에서 한 평의 사용 목적은 확정되지 않고 열려 있다. 파우스티노는 “건축을 우리의 감각을 긴장하게 만들고 현실 인식을 날카롭게 하는 도구로 정의한다. 그는 2006년 파리 남부 지역에 〈1평 타워〉의 대지 면적보다 작은 땅 위에 방과 욕실 그리



1평 타워(APAP 제공)

고 주방을 복층으로 구성한 <1평방미터 집(One Square Meter House)>을 세우기도 했다.”¹¹ 이처럼 “전 세계 각국의 특성에 맞는 건축과 예술을 아우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신체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 공간과 관련된 작업들을 다루어 온”¹² 작업 흐름 속에서 한국에서 좁혀 들어간 안양에서의 한 평은 최소면적 단위인 한 평이 가진 관념적이며 실제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사방이 막힌 한 평, 창을 낸 한 평, 계단과 연결되고 아래위로 이웃하는 한 평이라는 구조를 통해 공간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때 실제적 경험과 개인의 공간이 침범당하는 것에 대한 작가적 고민도 반영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택에 대한 현대적 해석”¹³을 담은 <1평 타워>는 여전히 안양예술공원을 찾는 방문객을 첫 번째로 마주하는 즐거움과 생각의 장소가 되고 있다.

2) 삼성천 하류와 산책길 주변 작품

안양예술공원의 출발점을 이루는 장소성은 건축적 요소만이 아니라 물길과 발길이라는 무형적 요소로도 발휘된다. 자연과 사람들의 흐름을 이루는 뼈대는 삼성천의 물줄기이다. 이러한 자연과 인적 환경과 어우러져 김중업건축박물관 앞쪽 삼성천 하류부터 안양예술공원의 유기적 흐름을 시작하고 발견하고 이끄는 작품들을 소개한다.

<신기루>(왕두(Wang Du), 2005)

안양예술공원의 핵심을 이루는 삼성천 물줄기를 세심히 들여다보면 제1회 APAP에 참여한 작가 왕두의 대리석 조각 <신기루> 10점 중 남겨진 작품을 만나는 행운을 마주할 수 있다. 1956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출생한 왕두는 사회 비판적 시각을 작품에 반영했던 작가이다. 1986년 광저우미술대학 출신으로 동료 작가들과 서방예술가살롱(Southern Artists Salon)을 조직해 다양한 ‘전위적’ 예술 장르를 전시와 강연 활동을 벌였고, 1989년에는 천안문사태를 계기로 체포되어 수감생활을 겪었다. “9개월 만에 프랑스 정부의 도움을 받아 출옥 후 파리에 정착하여 살며 활동하였다.”¹⁴

제1회 APAP의 초대를 받은 왕두는 삼성천 주변에서 사라진 무허가 건물들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구상하였다. 작가는 대규모 도시 개발로 장소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이 가려지고 신기루 같은 도시 풍경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제1회 APAP 당시까지는 유지되었으나 재개발로 곧 사라질 상점 건물들에 애착을 가졌다. 이 장소들을 통해 만나고 흠여지는 사람들이 대화하며 기억하며 이 작은 장소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길 바란 작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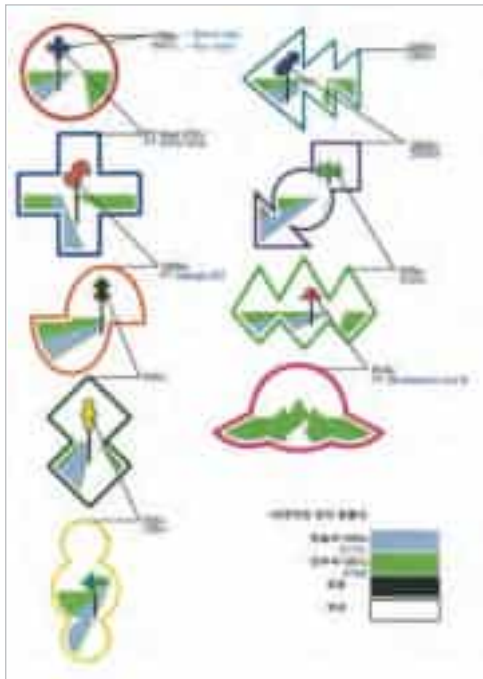
APAP 기획팀에서 제공한 사진을 보면서 열 채의 상점을 골랐다. 이 상점들의 가옥과 간판 같은 형태를 그대로 본떠 대리석을 재료로 조각했고, 이 하얀 돌 조각들을 삼성천의 물길을 따라 놓아 두었다. 계절이 변화하고 시간이 흐르며 물의 높낮이와 속도가 작품을 움직이게도 하고 멈추게도 했다. 제1회 APAP가 개최된 지 20여 년이 흘러 지금은 거의 모든 조각이 부서지고 사라져 본래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간간이 운 좋게 또 다른 의미의 신기루처럼 발견할 수 있는 작품의 부분들이 삼성산과 삼성천 상류에서 떠내려온 돌들 사이에 간직되어 있다.

작품이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APAP는 재정비 방안도 고려했지만, 작가는 그대로 두기를 원했다고 한다.¹⁵ 작가가 제1회 APAP 도록에 덧붙여 남긴 말처럼 “아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하는 도시들에서는 경제적, 정치적 발전이 실행되며 모든 것은 비합리적인 흐름을 유사하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는 ‘파괴하는 구축’을 뜻한다.”¹⁶는 차원에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유산들은 도시 속에서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신기루로 전해진다. 흔하게 의미 없이 사라졌을 구멍가게들이 조각으로 작품화되어 남고, 이러한 조형의 흔적이 “세월의 흐름에 따른 풍화작용과 홍수, 태풍 등을 겪으며 지금은 처음의 위치에서 이동하고, 형태가 변모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은 예술 작품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담는 흥미로운 행위”이기도 하다.¹⁷

〈안양 도로표지판 프로젝트 2005〉(유켄 테루야(Yuken Teruya), 2005)

안양예술공원의 긴 길을 만드는 삼성천 물줄기 옆으로 난 산책로에서 마주하는 또 다른 제1회 APAP 작품은 유켄 테루야의 〈안양 도로표지판 프로젝트 2005〉이다. 유켄 테루야는 1973년 오키나와에서 태어난 작가로 일본과 미국에서 공부했고 세계적으로 활발히 작품 활동을 전개하였다. 제1회 APAP 초대에 세 개의 작품을 제작했고 이 중 〈안양 도로표지판 프로젝트 2005〉이 안양예술공원에 남아 있다. 작품을 제작할 당시 작가는 서울 상공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출몰했다는 뉴스를 접했고 안양 하늘에서도 이를 목격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결국 보지는 못하였다. 작가는 상상과 염원 속에만 남은 유에프오의 이미지를 본뜬 도로표지판 아홉 개를 구상하였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 작품과 동반해 “유에프오와 유사한 형태의 분홍색 카우보이모자를 공중에 던져 그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한 〈10월 14일 오후 3시 35분 나는 유에프오를 보았다〉”도 만들었다.¹⁸

〈안양 도로표지판 프로젝트 2005〉 아홉 개의 형태 각각에는 다음 순서에 올 표지판의 형태가 들어있다. 즉, 첫 번째 표지판 안의 그림은 두 번째 표지판의 형태를 나타내



〈안양 도로표지판 프로젝트 2005〉(APAP 제공)

며, 두 번째 표지판에는 세 번째 표지판의 형태가 그려 있다.¹⁹ 마치 프리즘이나 렌즈를 통해 공존하지만,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풍경을 노출하듯 시물레이션처럼 지평선과 다음 표지판이 펼쳐진 그림이 사람들이 걷는 삼성천 주변의 경로를 따라 연쇄하는 식이다.

〈스트리트 퍼니처〉(프란체스코 트라부코 어소시아티(Francesco Trabucco Associatti), 2005)

프란체스코 트라부코 어소시아티는 밀라노폴리테크닉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프란체스코 트라부코가 1997년 설립한 디자인회사로 개별 건축가에서 참여의 폭을 넓혔던 제1회 APAP의 면모를 보여 주는 참여 작가이다.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작업을 수행한 트라부코와 그의 동료들은 제1회 APAP 작품으로 안양예술공원의 방문객이 쉬어 갈 수 있는 거리의 가구를 착안하였다. 작가팀은 이용자들이 어느 방향에서도 쉽게 앉을 수 있도록 동일한 폭을 갖춘 타원형으로 벤치를 디자인하였다. 또한 등받이를 제거해 의자를 사용하는 이들이 서로를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스트리트 퍼니처〉는 안양예술공원 초입에서 중반으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2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방문객을 맞이한다.

3. 안양예술공원의 거점, 안양파빌리온 주변 작품

안양예술공원의 작품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가장 대표적이며 지속적인 프로그램은 ‘APAP 도슨트 투어’이다. APAP 초창기부터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작품 해설과 감상 활동은, 제4회 APAP가 지향한 리뷰와 재구성이라는 기획의도와 맞물려 체계적이고 전문적 내용과 방식을 갖춘 작품감상 프로그램으로 한 단계 더욱 발전되었다. 제4회 APAP는 작품 해설과 감상을 돕는 역할을 맡는 도슨트로 자원봉사자들을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이들 커뮤니티와 소통하며 이들에게 필요한 배움을 조력하고 교류 활동을 촉진하였다. 이처럼 역사성을 가진 APAP 도슨트 커뮤니티의 기여에 힘입어 7번의 APAP가 열린 2025년 지금까지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안양파빌리온은 무형의 APAP를 보존하는 전승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 도슨트 투어를 통해 사람들이 모이고 출발하고 되돌아오는 기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안양파빌리온의 거점 역할은 인적 활동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모든 전시 작품과 참여자 정보, 제1회에서 제7회에 이르는 기록물을 보존하고 공유하는 아카이브와 APAP 역사에 대한 즐겁고 쉬운 이해를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전시물, 그리고 공공예술에 관한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서가가 설치되어 안양파빌리온의 공간적 기능을 발휘함과 동시에 그 내부에서의 전문적이면서도 대중적인 공공예술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안양파빌리온(알바로시자홀)〉(알바루 시자 비에이라(Álvaro Siza Vieira), 2006)

APAP의 역사와 기록을 축적하고 방문객들의 거점이 되며 안양예술공원의 중심 기능을 하는 장소인 〈안양파빌리온〉은 본래 제1회 APAP 참여 작품으로 알바루 시자 비에이라가 설계한 건축물 〈알바로시자홀〉이었다. 20세기와 21세기 건축을 잇는 건축가로 널리 알려진 알바루 시자 비에이라는 1933년 포르투 근처의 작은 마을 마토지뉴스에서 태어나 포르투갈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엑스포 '98 포르투갈 파빌리온〉(리스본, 1998) 등 대표작들을 세계 곳곳에 남겼다.

또한 그는 1992년 프리츠키상(Pritzker Prize)을 비롯하여 2002년과 2012년 두 번에 걸쳐 ‘베니스건축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을 수상하였다.²⁰

알바루 시자 비에이라는 제1회 APAP에 참여하여 동료 건축가 카를로스 카스탄헤이라(Carlos Castanheira)와 김준성과 함께 작품을 구상하였다. 관악산을 배경으로 주어진 너른 대지 위에 자리할 구조물은 위용보다는 주변 풍경과 어우러지면서도 건축가 특

유의 기하학적 공간성을 보여 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천고가 7m에 이르지만 공간 속에는 기둥이 없다. 셸(shell) 구조라고 부르는 이러한 형식은 다양한 곡면을 공간의 외부이자 지지대로 맞물리고 펼쳐내며 단순하고도 유연한 공간감과 실용성을 발휘한다. 벽면의 안과 밖은 회백색의 노출 콘크리트로 이루어지고 곡면과 천장이 만드는 사이 공간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에 더해 조명은 간접적으로 최소한 사용하여 자연의 대지와 유사한 건축적 어휘를 발휘한다. 이러한 비정형의 시적 건축은 자연과 건축의 조화를 통한 맥락의 생성을 중요시하는 알바루 시자의 건축철학²¹을 보여 준다. 산 능선을 닮은 돔 형태의 지붕은 주변의 작품과 환경을 다양한 스케일로 아우르는 원거리의 시각을 반영한다. 건축물에 깃든 이러한 장기적 전망은 조형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 건축물의 기능과도 맞닿아 있다.

애초에 15개의 전시공간을 포함할 예정으로 설계되었던 것처럼 일곱 차례 APAP가 치러지는 속에서 안양파빌리온은 다양하고 장기적인 활동을 품는 거점이 되고 있다. 특히 제4회 APAP에 이르러서는 그 건축적 장점이 APAP 내에서 제자리를 찾고 발현되기에 이르렀다. “제4회 APAP는 <알바로시자홀>로 불리던 이 건축물을 애초에 건축가가





안양파빌리온(APAP 제공)

제안했던 〈안양파빌리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원도서관’, ‘만들자연구실’을 연중 운영하는 APAP의 허브로서 재기획하였다.”²² 파빌리온이라는 단어에는 건축가가 본래 의도했던 ‘정자’의 개념이 있었다. 시민들이 어느 방향에서도 찾을 수 있는 곳, 열린 형태로 외부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이야기를 만들고 풍경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서 쉼터이자 공유지의 기능과 목적이 되살아난 것이다. 파빌리온으로 거듭난 내부 공간에는 초청공모전과 시민 투표를 통해 신혜원 건축가의 작품을 선정하고 제작하여 새로운 기능을 더하였다.

제4회 APAP가 안양파빌리온을 중심으로 안양예술공간의 장소적 재활성화를 시도하게 된 까닭은 기획의 글에 담겨 있다. 2005년 제1회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온 APAP에 대한 리뷰이자 코멘트이고, 쉼표이자 느낌표”였다. “겸손한 제안이자 심각한 물음표”²³를 표방한 제4회 APAP는 서울 근교에서 가장 오래된 놀이공원인 안양유원지를 예술공간화한 장소적 맥락을 안양파빌리온을 중심으로 확장하였다. 건축물과 구조물, 벤치, 놀

이터, 조각품과 설치물 배치하여 예술공원으로 변모한 과거는 제4회에서 활동과 재의미화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변화하며 한국 동시대 공공미술의 역사와 APAP를 다시금 연결하였다. “제4회 APAP는 지난 APAP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시민사회와 한국 역사, 공공예술과 현대미술 또는 현대미술과 퍼블릭이 교차하는 핵심적인 에피소드들을 부각시키고 이를 화자의 관점에 따라 다채롭게 엮어 가는 이야기 직물”²⁴로 “리스트리텔링을 공명”하려 했다. 이야기의 장소화라 할 수 있을 이러한 모색은 “APAP의 브레인으로 안양파빌리온”을 재발견한 것이기도 했다.²⁵ 매개(미디어)가 되는 장소로서 변모한 안양파빌리온이라는 공공(퍼블릭)의 공간에서 ‘프로그램의 공간화’, ‘가림막’, ‘공원도서관 : 책과 상자’, ‘만들자연구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그중 건축가 신혜원의 <오아시스>는 안양파빌리온의 포근한 분위기와 효과적 실용성을 만들며 여전히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골판지를 친환경 옥수수 성분의 접착제로 붙여 만든 지름 7.2m에 이르는 원형벤치는 단단하며 최적의 등받침 각도로 제작되어 이용객이 편안하게 앉아 책을 읽거나 등을 기대어 쉴 수 있으며, 카펫이 깔린 벤치 안에서는 누워서 책을 보거나 쉴 수 있다. 모든 연령의 이용객들이 각자의 쉼터로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다. 신혜원 작가는 폐지로 재활용될 수도 있었던 작품이 여전



공원도서관 : 책과 상자(APAP 제공)

히 안양예술공원 방문객을 위한 독서와 휴식의 오아시스²⁶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반가워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²⁷

한편, 제4회 APAP에서 안양파빌리온의 중추를 구성했던 ‘공원도서관’은 보통의 관람객, 방문객, 그리고 APAP프렌즈의 자원봉사자들, APAP 투어 도슨트들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 “안양파빌리온을 사용하고 지원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에너지에 형태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을 그 활동 목표”²⁸로 하며, 당시 제4회 APAP의 탐구 주제에 관한 도서과 비도서 2,000여 점이 수집되었다. 2005년부터 당시까지의 APAP 작품 90여 점과 참여 예술가에 관한 기록물을 정리하고 보관하고 전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공원도서관’의 부속 프로그램이자 작은 전시 코너로 ‘프로젝트 아카이브’도 있었다.

이처럼 ‘공원도서관’은 예술과 문화를 생각하고 향유하는 공간으로서 안양파빌리온을 활성화시켰다. 조성된 ‘공공예술서가’ APAP 공공예술팀에서 보관한 자료와 제4회 APAP에서 1년 6개월에 걸쳐 수집한 자료 총 2,000여 점가량은 공공예술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 한 차례 정리되었는데, 제6회 APAP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연구되고 배열된 변화를 겪는다.

〈무문관〉(최정화, 2016)

제4회 APAP에서 펼쳐진 다양한 안양파빌리온 활용 작품에 이어서 제5회 APAP에서도 거점 공간을 재활성화하는 예술적 시도는 발전을 거듭하였다. 어떻게 공공과 만날 수 있을지를 고찰했던 제5회 APAP는 공공미술 설치 작품 활동을 통해 여러 도시의 시민 관람객들과 호흡해 온 최정화를 초대해 안양파빌리온 실내의 공간적 재생을 기획하였다. 최정화가 한국의 전통적 수납장을 바탕으로 구상한 작품 〈무문관〉은 시민들이 기증한 가구를 개조해서 제작되었다. 안양파빌리온의 높은 천고를 거의 채우지만, 중압감 보다는 익숙함을 자아내는 색채와 질감의 가구가 모여 구성된 이 움직이는 벽은 안양파빌리온에 꼭 필요한 기능을 수용하는 작은 공간들을 생성하였다. 가변적 벽 뒤에 숨겨진 선반과 책장, 옷장 안에는 APAP의 기록물, 제4회 APAP에서 수립된 ‘공원도서관’의 서가를 비롯하여 사소한 물건까지 안양 파빌리온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물들의 세계를 품는 〈무문관〉의 역할은 이후 두 번의 APAP를 거쳤음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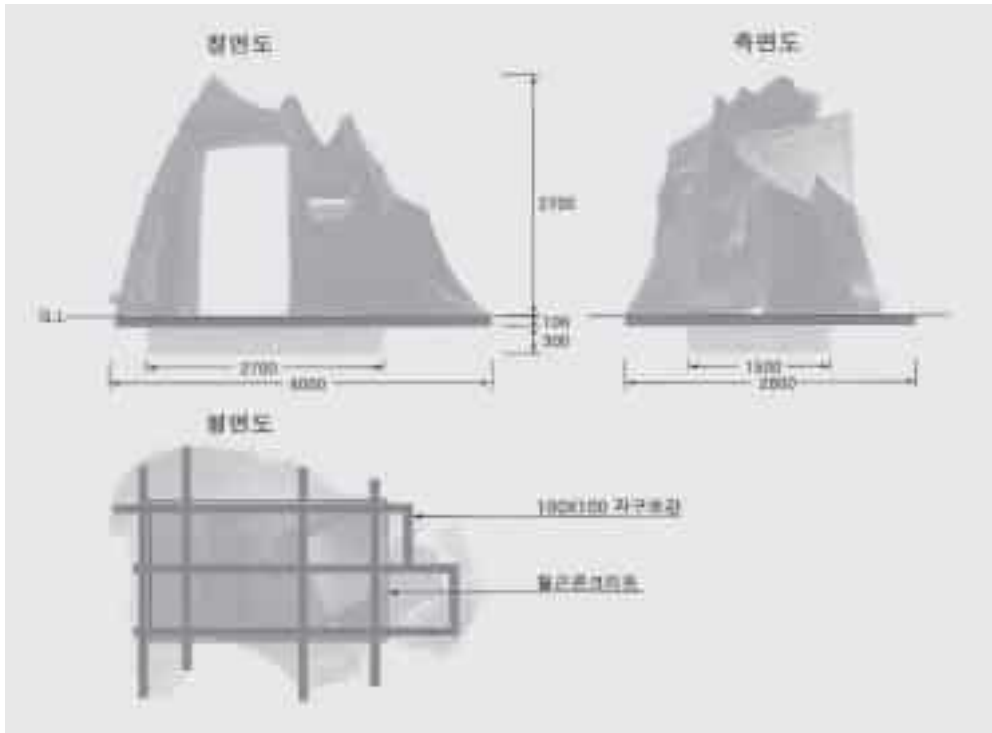


무문관(APAP 제공)

〈병커 M. 바흐친〉(이불, 2007)

안양파빌리온 외부의 유희공간 또한 관람객의 유동성이 높고 광장과 뒷마당 같은 특성을 발휘하며 작품을 품는 흥미로운 장소가 되어 왔다. 본래는 제2회 APAP 참여작품으로 평촌에 설치됐던 작품인 이불 작가의 〈병커 M. 바흐친〉은 제4회 APAP가 진행했던 작품 보존과 재구성 기획의 일환으로 안양파빌리온 뒤쪽 마당으로 옮겨 재설치되었다. 이불 작가는 1999년 제48회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상을 수상했고, 1980년대 후반 사회적 금기에 도전하는 신체를 활용한 퍼포먼스, 기계와 유기적 형태가 뒤섞인 사이보그 설치 연작, 유토피아를 향한 인간의 열망과 좌절을 건축과 조각을 결합하여 표현한 〈나의 거대 서사〉 연작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불이 제2회 APAP에 참여하며 제작한 이 작품은 파이버그라스를 재료로 빙산 모양의 외부 구조물을 품은 공간으로 구성됐다. 검은 외벽의 산맥 사이로 난 입구를 지나면 은색 첼제 벽이 어둠 속에 드러나는 내부 공간이 마치 병커나 동굴같이 자리한다. 이 작품에는 그것이 만드는 어두움의 공간처럼 맥락적으로 가려진 열쇠가 되는 한 인물이 있다. 작가는 1931년 도쿄에서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이구의 삶을 떠올렸다. 해방 이후 미국으로 건너갔던 이구는 1963년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



〈벙커 M. 바흐친〉(APAP 제공)

로 돌아와 창덕궁 낙선재에 거주하며 건축가로도 활동했지만, 조국에서의 삶은 순탄치 않았고 2005년 도쿄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에 이른다. 작가는 이러한 이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이상과 좌절을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구현하려 했고, 이구라는 역사적 변혁기를 살아간 한 모더니즘적 인물의 모습은 작품명에 등장하는 문학가 엠 바흐친과 이어진다.²⁹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미카엘 엠그린, 잉거 드락셋
(Michael Elmgreen & Ingar Dragset), 2007)

안양파빌리온 정문 출입구 쪽 광장에 설치된 미카엘 엠그린과 잉거 드락셋의 작품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도 제2회 APAP의 참여 작품으로 평촌 중앙공원 입구에 설치됐던 것을 제4회 APAP에서 이전하여 복원하고 재설치한 사례이다. 1995년부터 아티스트 듀오로 활동한 미카엘 엠그린과 잉거 드락셋은 제도 비판, 사회 정책, 퍼포먼스, 건축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특유의 위트와 유머로 익숙한 것들의 형태를 바꾸는

조각과 설치 작품 활동을 펼쳤다.³⁰

작가들은 APAP 관객을 만날 자신들의 작품을 구상하며 전화를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벨이 울리는 공중전화 부스를 떠올렸다. 제목이 된 문장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는 실제 공중전화의 모습과 기능을 본뜬 이 작품 속에서 관객이 수화기를 들면 듣게 되는 목소리이다. “전화벨은 오전 열 시부터 오후 여섯 시까지 매시 정각, 이십 분, 사십 분에 울린다.”³¹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점차 잊혀 가는 공중전화 부스를 사용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³² 불현듯 울리는 공중전화 벨소리에 호기심이 들면서 한편으로 받아도 될지 망설이게 되는 사회적 규범 사이를 넘어 발현된 관객의 행위는 불상의 관객을 향해 작가가 보내는 메시지와와 만남을 공감각적으로 선사한다. 응답과 마주침을 원했던 까닭에 원래 이 작품을 두고 작가들은 공원이 아닌 거리 속에 설치되길 원하였다. 그 의도에 따라 작품을 재정비하고 이전할 계획을 접한 작가들은 “텍사스 사막에 설치한 자신들의 다른 작품 〈프라다 마파〉가 사후 관리 부족으로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텍사스 도로국에서 불법 야외 광고물로 간주하여 철거의 위기”³³에 처한 사실을 전하며 이와 상반되게 꾸준히 작품을 살피는 APAP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거기에/거기에서〉(로렌스 뷔너(Lawrence Weiner), 2007)

안양파빌리온 앞 광장 바닥에는 평촌에서 옮겨 온 또 다른 작품이 자리한다. 철학을 공부했으며 1960년대부터 언어와 개념을 사용해 예술의 본질과 예술가의 존재적 의미를 탐구한 여러 작품으로 잘 알려진 작가 로렌스 뷔너의 〈거기에/거기에서〉는 본래 제2회 APAP 전시 작품이었다. 평촌 동안구청 원형광장에서 안양파빌리온 앞 광장 바닥에 동서남북 방향으로 설치됐던 이 작품은 2012년 안양예술공원으로 이전해 재설치되었다. 네 개의 타원형 동판(브론즈)에 한글로 ‘거기에’, ‘거기에서’라는 문구를 새긴 이 조각을 두고 작가는 텍스트에 담긴 해석적 의미의 전달보다는 관람객이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열린 서사를 작품의 완성이라는 뜻을 담았다. 또한 작가는 작품을 구상하며 “조각은 지정학적 존재론적 필요성에 의해 비은유적으로 기능한다.”³⁴는 스테이트먼트를 남기며 조각의 공공예술적 의미에 대한 자신의 창작 태도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이 작품에는 공공예술 작품의 제작이 작가 한 사람의 생각과 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여러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결정됨을 보여 주는 일화가 얹혀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형태 이전에 작가는 안양시의회 청사 건물 뒷면의 둥근 벽에 ‘ 옮겨진다’, ‘빛의 출입을 위해’, ‘물은 스스로 수평을 찾는다’라는 세 구절의 텍스트를 설치

하려고 했다. 시의회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작가는 새로운 텍스트를 작품으로 구상해야 했다. 제2회 APAP 도록에는 이 과정에 관한 대화가 실려 있다. 예술감독이 시의회에 의해 처음 작품 제안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을 작품에 대한 검열이나 오독으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묻자, 작가는 “분명 문화적 검열”이라고 보지만 결국 동의를 얻은 세 번째 제안도 최초의 제안과 같은 질문을 다루고 있는데 시의회는 그 점을 잘 알아채지 못했다고 짚으며 작품으로 만들어진 결과를 두고는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³⁵ 예술가, 정치인, 큐레이터 사이에서 생성된 이러한 이야기는 공공의장에서 예술 작품이 실현될 때 지켜야 할 것이 내포된 작가적 질문일지 아니면 외부로 드러나는 조형성일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공공미술 담론 형성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물고기의 눈물이 호수로 떨어지다〉(오노레 도, 2005)

안양파빌리온 길 건너 삼성천의 물줄기가 잠시 등글게 머무르는 계곡의 너른 자리에 거대한 돌과 어우러지며 설치된 은색 파이프로 물을 내뿜는 〈물고기의 눈물이 호수로 떨어지다〉는 벨기에 출신의 작가 오노레 도가 제1회 APAP를 위해 구상한 작품이다. 발견된 오브제와 이미지를 결합해 새로운 은유와 상징을 만드는 방식을 작업에서 즐겨 펼



〈물고기의 눈물이 호수로 떨어지다〉

치는 오노레 도 특유의 어법을 이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작가는 삼성천의 자연 속에서 두 개의 바위를 발견했고 분수대 기능을 하며 물고기 형태를 닮은 파이프 구조물을 놓는 지지대라는 작품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 바위들에는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던 1997년 안양 대홍수 때 굴러내려 온 역사가 얹혀 있다.

바위와 연결된 기록사진 몇 장과 신문 기사에 담긴 지난 역사에 멈추지 않고 작가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상상력을 작품에 덧댔다. 파이프 구조물과 바위가 설치된 장소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리에 있던 기능을 다한 전봇대에 수평으로 지지대를 걸어 그 위에 김칫독과 여행가방을 올려 두었다. 이처럼 오노레 노의 작품에서 익숙한 사물들은 엉뚱한 연결을 만든다. 산과 물의 흐름이 만드는 큰 속도와 힘을 산업적 전기 에너지와 이어보고, 공항에서 볼 법한 외국의 모던한 여행자의 채취를 앞마당에 놓인 전통적 장독대 속의 공기와 등치시켰다. 작가는 제1회 APAP 도록에서 “어떤 우연의 일치가 만들어내는 구조를 따라 그로부터 질서의 증거를 볼 수 있을까?”³⁶라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와 같이 공공의 환경과 기억, 작가 개인의 상상과 조형이 서로 오가며 예측 불가능한 비선형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특징은 이 작품이 “안양예술공원 APAP 투어에서 인기를 모으는”³⁷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지점이다.

4. 삼성산 봉우리를 넓게 아우르는 안양예술공원의 작품

안양파빌리온을 중심으로 두고 입구 쪽 삼성천을 건너면 안양예술공원 작품 설치된 주무대인 삼성산 언덕이 펼쳐진다. 부드럽지만 높은 삼성산 산맥과 숲속에는 예술공원이라는 명칭과 본질에 걸맞게 자연환경 속에 어우러지며 여러 작품이 설치되었다. 안양 예술공원 영역 내 삼성산 봉우리의 정점에 설치된 <전망대>를 꼭짓점으로 숲속에 가장 많은 작품이 놓였다.

1) 전망대를 향해 오르는 숲길에서 반겨 주는 작품

<잔디 휴가 중>(도쿄 피크닉 클럽(Tokyo Picnic Club),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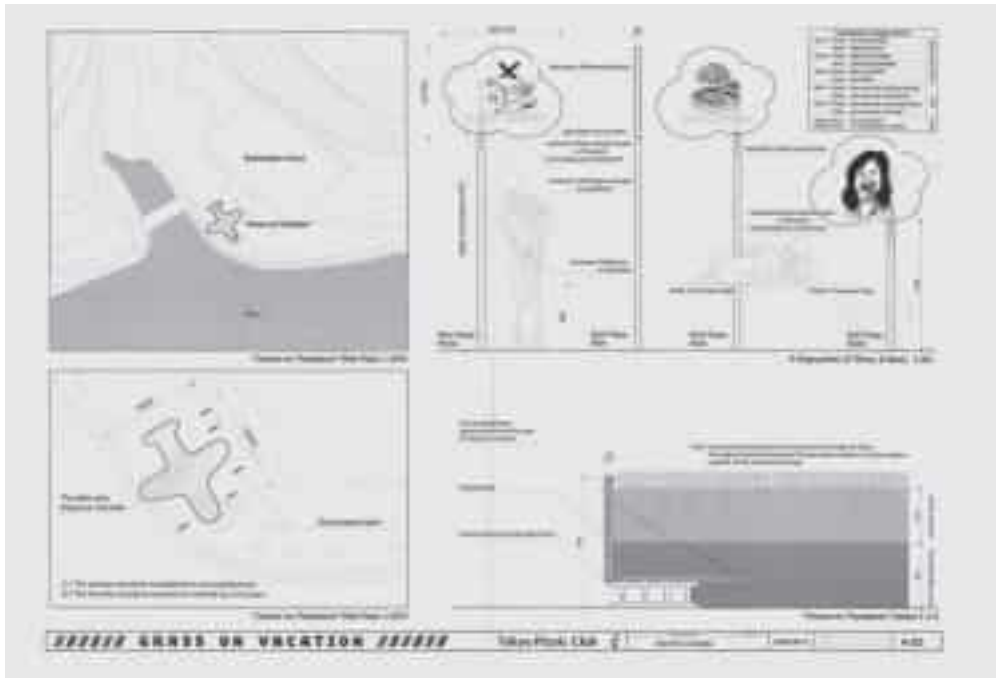
안양파빌리온에서 나와 삼성천 계곡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면 작가 그룹 도쿄 피크닉 클럽이 제1회 APAP에 참여한 작품 <잔디 휴가 중>이 펼쳐져 있다. 도쿄 피크닉 클



〈전망대〉

립은 2002년 건축가 히로시 오타(Hiroshi OTA), 도시계획가 카오리 이토(Kaori ITO), 와코루 아트센터(Wacoal Art Center)의 기술감독인 토모하루 마츠다(Tomoharu MATSUDA)가 모여 결성했고 피폐하고 과밀화된 환경 속 도시 사람들의 자연과 삶을 찾는 기본적 권리로서 산책(피크닉)을 선언하였다.³⁸

〈잔디 휴가 중〉을 위해 작가들은 안양종합운동장의 잔디를 안양예술공원으로 옮겨 왔다. 작가들이 안양을 찾았을 때 안양예술공원 내에 앉아서 피크닉을 즐길 만한 잔디로 채워진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반대로 안양종합운동장을 채운 잔디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한 상태였다. 여기서 가져온 잔디에 사람들을 위한 역할을 돌려주며 작가들은 여럿 앉을 수 있는 면적으로 비행기 모양의 틀을 만들고 그 안을 잔디로 채웠다. 주변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사랑에 빠지시라’, ‘평등이 첫째’ 같은 문구를 표지판에 적어 피크닉에 대한 생각을 관객에게 전달하였다. “1회 APAP 기간인 2005년 11월 15일에는 그룹의 구성원들이 안양을 방문해 자신들이 디자인한 피크닉 복장을 하고 다른 작가들과 함께 작품 위에서 직접 피크닉을 즐기기도 했다.”³⁹



〈잔디 휴가 중〉(APAP 제공)

〈예술가의 정원〉(이정아 외 9명, 2005)

안양예술공원에서 피크닉을 위한 작품 옆에는 정원을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작품 〈예술가의 정원〉이 펼쳐졌다. 이 작품은 10명의 예술가, 큐레이터, 비평가, 조경전문가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네트워크와 과정 중심으로 생태적 미술을 실천해 본 프로젝트였다. 미술뿐만 아니라 환경과 생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작가들은 프로젝트 참여자로서 이 자리에서 숲과 계곡이 만드는 안양예술공원의 본래 환경을 감상할 수 있고 식물을 심거나 미생물을 활용해 새로운 생태계를 더할 수 있는 실험을 3년 동안 진행하고 기록하였다.⁴⁰

〈종이 뱀〉(겐코 쿠마(Kengo Kuma),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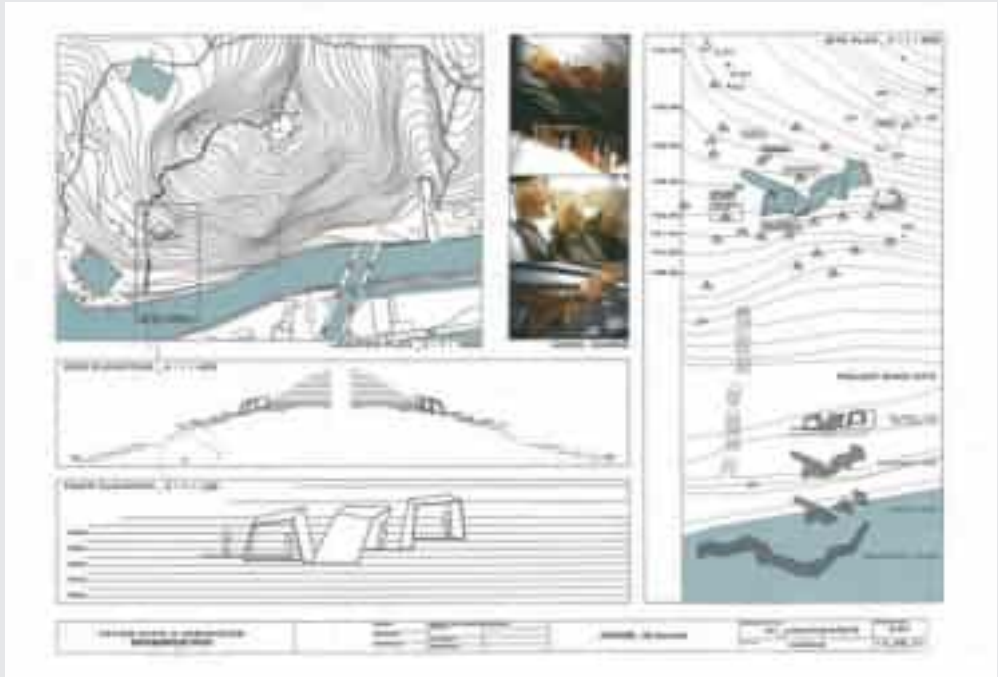
안양예술공원 중심에서 소풍과 정원의 흐름을 지나 산을 오르면 제1회 APAP 작품인 겐코 쿠마의 〈종이 뱀〉이 만드는 공간이 숲속의 나무들처럼 중첩돼 자리한다. 겐코 쿠마는 1954년 요코하마에서 출생한 건축가로 집합주택을 연구했고 다양한 건물을 설계했다.⁴¹ 〈종이 뱀〉은 작품을 설치하면서 안양예술공원의 숲이라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려 했던 작가의 구상과 노력이 건축적 실험으로 실현된 사례이다. 작가는 자연에 최소한으로 개입하기 위해 새로 개발했던 페이퍼 허니콤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였다.

이 재료는 3mm 두께의 종이를 40mm 두께의 FRP 패널 사이에 끼워서 만들었기에 강하면서도 가볍고 빛을 잘 투과하는 특수 효과를 발휘하였다. 이 재료를 콘크리트 없이 자연 속에 설치하는 것 또한 작가에게 고려할 부분이었다. 200mm 직경의 플라스틱 다발을 세운 후 그 위에 패널을 고정시킬 수 있는 접착제를 찾는 것이 작가에게는 이 공공예술 작품을 제작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였다.

〈각목분수〉(고승욱,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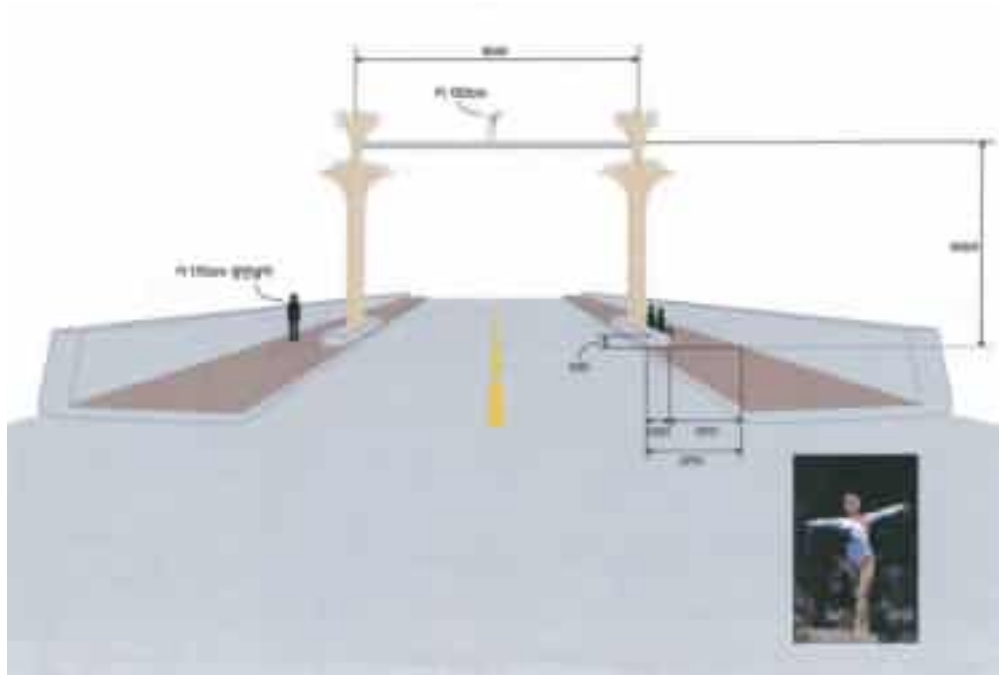
안양예술공원의 중심을 따라 흐르는 삼성천 줄기의 중간 지점에 설치된 제1회 APAP에 참여한 고승욱의 작품은 〈각목분수〉이다. 이 작품은 공공예술의 전통적 문법인 조각에 충실하면서도 특유의 날카로운 작가적 시선을 드러낸다. 각목을 긴 길이 그대로 분수가 뿜어 나온 듯 설치하고 그 위에 한 발로 균형을 잡은 여성 체조선수의 형상을 하나 덧붙여 조각했는데, 작품의 아랫부분에는 각목 다발을 굵은 끈으로 묶어 윗부분의 각목이 휘는 모양과 체조선수의 동세가 만드는 아슬아슬함과 대조되며 긴장감을 자아낸다.

이렇게 작품이 주는 팽팽한 힘과 선의 양감 옆으로 개발제한구역 표지가 자리하고 있



〈종이 뱀〉(APAP 제공)





〈각목분수〉(APAP 제공)

다. 안양예술공원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표지는 작가가 작품을 바로 그 위치에 설치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이다. 안양예술공원의 토대가 되는 자연환경과 예술의 인위성과도 멀지 않은 개발 사이에서 작가는 작품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느 공공예술 작품 가운데에서도 설치된 위치가 형성하는 맥락이 구심점이 되어 의미를 분출하고 있는 작품이 고승욱 작가의 〈각목분수〉라 할 수 있다.⁴²

〈공동의 장, 예술의 유익함을 생각하는 예술위원회〉(그라이즈 데일 아트스(Grizedale Arts), 2014)

안양예술공원 중심에 위치한 다리에서 멀지 않은 산기슭에 설치됐던 2회 APAP 전시 작품인 작가 그룹 플라잉시티의 〈미로언덕〉이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지만 시설물이 낙후되고 놀이터 시설에 대한 안전법규가 변경되면서 철거돼야 했다. 제4회 APAP는 APAP 작품 전체를 대상으로 재정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작품이 비어 버린 이 자리에 그라이즈 데일 아트스를 초대해 작품이자 휴식공간 〈공동의 장, 예술의 유익함을 생각하는 예술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었다.⁴³ APAP 작품이 보존, 보수, 이전, 철거와 같은 선택의 순간에 놓이는 과정에서 제4회 APAP가 고수했던 방향은 기술적 측면에서 작품을 보

완할 뿐만 아니라 공공예술 작품에 갖든 제작 의도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의미를 지속해서 생성해야 한다는 가치를 향하였다. APAP 운영팀은 이 과정에서 기능을 더하거나 설계를 고치는 물리적 방법 외에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공공성을 키워가는 활동도 더하였다. 이러한 APAP의 기초에 맞춰서 초대된 그라이즈데일 아츠는 영국 잉글랜드 중부 지역의 컴브리아에서 자연환경과 마을의 모습이 어우러지는 로손 파크를 기반으로 커뮤니티와 호흡하는 예술활동을 펼친 미술기관이자 작가들의 공동체이다. 동등하게 공공예술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단체를 교류 파트너이자 작가로 초대한 APAP의 공공예술 재생 시도에 그라이즈데일 아츠는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 프로젝트로 <공동의 장, 예술의 유익함을 생각하는 예술위원회>를 제안하였다.

보통의 작품보다 더 긴 시간과 맥락을 포괄하는 이 프로젝트 작품은 다시 만들어야 하는 장소 외에도 다른 곳에 있으나 공동체를 위한 여럿의 구조물이라는 성격을 공유하는 APAP의 또 다른 작품을 살피는 활동을 모색하였다. 제2회 APAP 작품으로 평촌에 설치되었던 작가 리암 길릭의 <안양광장을 위한 사회적 구조물의 제안>을 개선하는 활동으로 프로젝트의 첫 단계를 시작하였다. 기존 작품의 구조를 공공 공간의 상황에 맞추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하는 프로젝트의 활동은 다음 단계로 안양예술공원으로 돌아와 <미로 언덕>을 부분적으로 철거하고 놀이터를 재설계하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원래 있던 바닥 구조와 벽돌조적은 다 사라지지 않고 적절히 재활용되었고 정원과 벤치가 새롭게 더해졌다. 아이들이 제한 없이 만들고 부수고 다시 만드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래 놀이터도 추가되었다. 이러한 물리적 공간의 재구성뿐 아니라 김중업건축박물관과 안양파빌리온 사이 안양예술공원의 일상 공간에 시민들의 경제 활동이 투입할 수 있도록 가구를 만들어 제공하는 활동도 펼쳤다.⁴⁴

<웰컴캐노피>(박인수, 2005)

삼성산 초입에는 제1회 APAP에서 실시한 경쟁 공모에 당선되어 제작된 건축가 박인수의 작품 <웰컴 캐노피>가 단차를 만들며 설치되었다. 작품이 설치될 장소로 등산로 옆 공터가 선정되었고, 그곳을 덮고 있던 콘트리트 바닥 턱을 제거하며 땅을 고르고 주변에 무너진 축대를 보수하였다. 작가는 안양유원지 계곡을 가로지르던 두 개의 현수교를 철거하고 나온 목재를 수거해서 단차를 가진 평상을 만들었고 그 위로 철재 기둥과 사이사이 뚫린 캐노피가 설치되었다. 작품은 자연의 빛과 바람을 들어오게 하면서 가려진 곳으

로는 그들을 만들며 등산객과 관람객들에게 쉼터로 쓰인다.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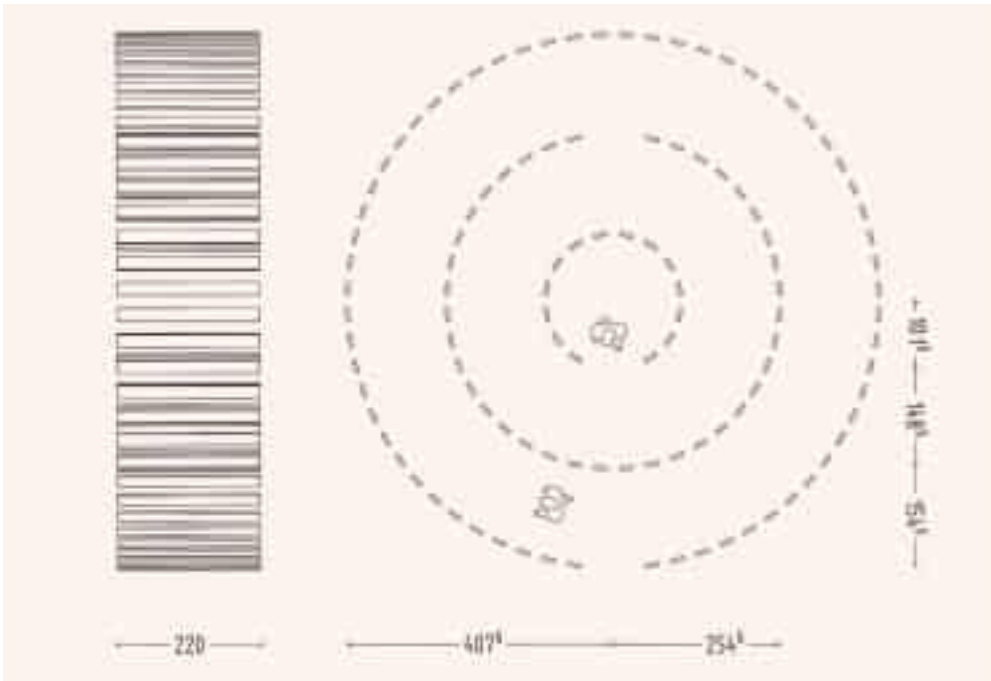
〈그림자 호수〉(박윤영, 2005)

삼성산 산길을 조금 더 오르면 중턱에 이르기 전에 제1회 APAP에 참여한 작가 박윤영의 작품 〈그림자 호수〉가 한 편의 병풍 폭을 펼치고 서 있다. 박윤영은 동양화를 전공한 예술가로 작품은 작가의 대표작인 〈픽톤의 호수〉 형상을 따왔다. 원래 재료와 기법인 비단에 먹으로 그리는 것 대신에 야외에 설치될 공공예술 작품으로 적합하도록 알루미늄판에 그림을 새겨서 제작되었다. 작가가 작품을 통해 병풍 속에 담은 이야기는 여성들의 삶이었다. 작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했던 로버트 픽톤에 의해 살해된 스물여섯 명의 여성에서 이미지 구성을 시작했고, 발레 〈백조의 호수〉, 영화 〈엘리펀트 맨〉 등의 여러 다른 텍스트 속으로 교차시켰다. 이러한 이미지 직조는 사라진 여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며 이들의 행방을 찾는 의지를 전한다. “작가는 병풍 속 이야기의 여성들이 ‘낙원’이라는 뜻을 지닌 안양에서 평안을 얻기를 바랐다.”⁴⁶

〈거울 미로〉(예페 하인(Jeppe Hein), 2005)

안양예술공원 산 중턱에 더 깊이 들어설수록 다양한 작품들이 숲과 어우러지는 중에 제1회 APAP에 전시된 작가 예페 하인의 작품 두 점을 발견하게 된다. 1974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태어난 예페 하인은 미술대학에서 공부하는 중에 비상업적인 조직을 설립해 미술전시를 조직하기도 했고, 이후 작품 활동으로 관람객이 다가가면 진동하는 조각이나 벤치를 변형한 설치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⁴⁷

APAP를 위해 만들어진 예페 하인의 작품 〈거울 미로〉와 〈노래하는 벤치〉도 다양한 접근 방식과 관객과의 호흡이라는 작가 특유의 면모를 보여 준다. 〈거울 미로〉는 백팔개의 거울 기둥이 나선형을 그리며 세워진 원형의 공간이자 열린 구조물이다. 미로 같은 작품의 구조 속으로 들어서 걸음을 거듭해야 하는 관객의 행위는 기독교 문화의 순례자 길이나 안양의 역사를 풍부하게 채운 불교 문화의 깨달음을 떠올리게 한다. 작품에 활용된 거울이라는 재료로 인해 “람자는 관찰하는 동시에 관찰당하는 대상이 되고, 작품의 내부와 외부로 나누는 경계는 의미를 잃는다.”⁴⁸ 이처럼 작품은 안양예술공원의 풍경과 방문객이 관찰와 드러냄의 시선을 교차하는 이중의 지각 현상을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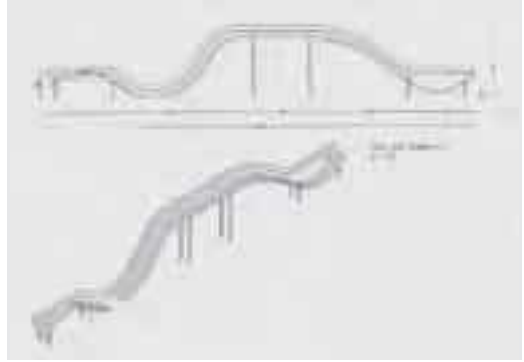
〈거울 미로〉(APAP 제공)



〈거울 미로〉(APAP 제공)

〈노래하는 벤치〉(예페 하인(Jeppe Hein), 2005)

〈노래하는 벤치〉는 〈거울 미로〉를 제작하고 남은 재료를 활용해 만든 작품으로 벤치 형태를 높낮이가 다르게 설치해 악보이면서 미끄럼틀 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 공공예술 작품을 체험하고 관람하기 위해 산속을 걸어야 하는 관객들은 이 작품에 둘러앉거나 누



〈노래하는 벤치〉(APAP 제공)

울 수도 있다. 아이들 관람객이 〈노래하는 벤치〉를 찾는다면 그 뛰어노는 모습이 마치 음표처럼 작품의 구조물과 어우러져 악보를 떠올리게도 한다. 이처럼 〈노래하는 벤치〉는 관람객의 참여와 호응으로 공공예술 작품이 완성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⁴⁹

〈중간자(안양)〉(마이클 주(Michael Joo), 2016)

제1회 APAP 작품이 준비한 안양예술공원 내 삼성산 중턱에 비어 있던 둔덕 자리로 제5회 APAP 참여 작가 한국계 미국인 마이클 주의 작품 〈중간자(안양)〉이 설치되었다. 작가는 작품이 설치될 장소를 선택하는 데 신중을 기하였다. 안양예술공원은 여러 사찰 등 유적지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작가가 구상한 작품은 기존 작품인 〈중간자〉(1998)에서 발전된 형태였는데, 스웨덴 남부에 설치했던 이 작품은 땅과 접지돼 파괴 침으로도 기능할 수 있는 동기동 구조로 만들어졌다. 숲과 산불을 낙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 조각은 안양예술공원에서는 작가 다듬은 네모난 화강암 조각으로 쌓아 올려 표면을 채운 옹덩이 속에 설치됐다. 산속에서 마주한 커다란 접시 같은 공간 가운데 놓인 동기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산화되고 풀 벌레가 드나들며 주변의 유적지와 같은 장소로 변모한다.⁵⁰

〈안양상자집-사라진(탑)에 대한 헌정〉(볼프강 빈터 & 베르트홀트 회르벨트 (Wolfgang Winter & Berthold Hörbelt), 2005)

제1회 APAP에 참여한 독일인 작가 볼프강 빈터와 베르트홀트 회르벨트의 작품 〈안양상자집-사라진(탑)에 대한 헌정〉은 재활용 플라스틱 박스를 쌓아 만든 구조물이다. 도시 산업화의 산물이기도 한 다양한 색상의 박스들은 레고 블럭처럼 언제든 조립과 해



〈안양상자집-사라진(탑)에 대한 헌정〉(APAP 제공)

체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이 작품에 활용된 것처럼 그사이를 볼트와 너트로 단단히 고정하면 삼성산 증턱을 오르며 숨이 찬 관람객 여럿을 한 번에 품을 수 있는 깊은 공간을 만들기도 한다. 내부에 조명이 설치돼 있기도 하고 별이 좋으면 바깥에서 자연스럽게 투과된 빛으로 밝아지는 이 작품 속 공간에서 작가는 관람자에게 “종교와 상관없이, 불탑이 우리에게 삶과 자연에 대한 겸허함, 슬픔, 영적인 에너지, 믿음과 희망을 불러일으키”길 바랐다.⁵¹ 2024년에는 작가가 직접 안양에 방문해서 세월에 따라 헐거워진 구조와 도색을 APAP 운영팀과 함께 손보았고 공간의 면적이 조금 축소되긴 했으나 지금까지 삼성산 곳곳에 있다가 사라졌을 사유와 신성을 품은 탑과 같은 공간을 대신해 제공하고 있다.⁵²

〈먼 곳을 바라보는 남자(창학)/복사집 딸래미(성은)〉(이환권, 2005)

제1회 APAP 전시 작품인 작가 이환권의 〈먼 곳을 바라보는 남자(창학)/복사집 딸래미(성은)〉 또한 삼성산 증턱에 자리하였다. 제목처럼 소녀와 소년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이 조각 작품은 산속에서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물을 재현하였다. 소녀 조각은 턱

을 받치고 엮드려 있는 모습인데 가로로 납작하게 눌렸고, 소년 조각은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인데 세로로 길게 늘어졌다. 이와 같은 조형적 특징은 작가가 텔레비전을 통해 영화를 본 경험에서 유래하였다. 와이드스크린으로 촬영한 영화가 텔레비전에서 방영될 때 이미지가 압축되고 왜곡되는 현상을 현실 공간 속 조각으로 옮겨본 작가의 표현이 안양예술공원의 자연환경 속에서 마주하기 어려운 생경함을 자아낸다.⁵³

〈정령의 숲〉(이승하, 2005)

삼성산 숲속에 설치된 또 다른 인물상 작품인 작가 이승하의 〈정령의 숲〉은 제1회 APAP에서 제작되었다. 야외에 도자 기법으로 제작한 작품은 쉽게 파손될 수 있지만 작가는 이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삼성산의 신령한 기운과 어우러지는 작품 제작을 구상하였다. 불상을 모티브로 삼되 인물을 묘사하는 것보다는 심상을 표현하려는 의도에 따라 작품 속 서로 다른 표정을 짓는 인물상은 자연석을 좌대 삼거나 절단되거나 변형된 형태를 품고 있다.⁵⁴ 이로써 〈정령의 숲〉은 실패하고 부서지기를 거듭하며 만들어지는 도자기처럼 공공예술 작품도 안양예술공원의 자연환경 속에서 시간을 감내하는 존재임을 드러낸다.

〈용의 꼬리〉(이승택, 2005)

삼성산 중턱에는 기와를 소재로 땅속에서 지붕의 부분이 용기한 듯한 형태로 제작된 설치 작품인 작가 이승택의 〈용의 꼬리〉를 볼 수 있다. 작가는 삼성산의 형세를 용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작품을 통해 끊긴 용의 능선을 잇고자 했다. 작품에 사용된 1,500여 장의 기와는 전통적 건축물의 소재이면서 시간의 기운을 품은 공간을 연상케 한다. 이승택이 기와와 같은 전통 소재를 발견하고 작품에 사용하기 시작한 때는 1950년대로까지 올라



〈용의 꼬리〉(APAP 제공)

가는 역사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관객은 일부만 드러난 기와지붕 위로 삼성산을 걸으며 공공예술 작품이 품은 무한한 시간과 자연을 가늠하게 된다.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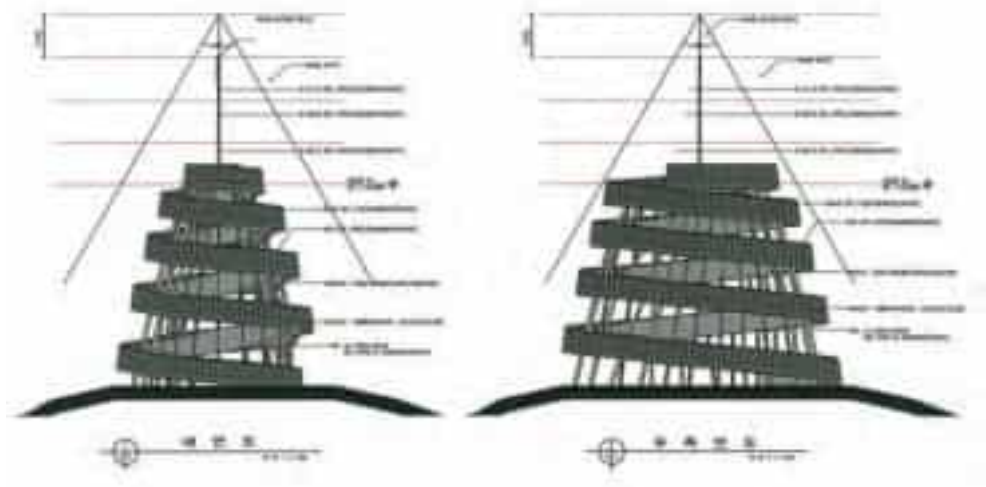
〈전환점〉(클립(CLIP), 2005)

제1회 APAP가 작가로 초대한 일본 건축가 그룹인 클립(CLIP)은 안양예술공원의 삼성산 곳곳에서 다른 작품의 위치와 경로를 연결하는 세 가지 작품을 목재 데크라는 같은 소재로 제작하였다. 1997년 에이신 마쓰나가, 쿠니토시히코 타나하시, 소이치 시타로, 토모미 카네코가 결성한 클립은 일본의 전통적인 등 모양에서 착안한 휴식시설이나 공중화장실 같은 공공 건축물을 만들었다.

〈전환점〉은 MVRDV의 〈전망대〉와 쉐리 삼바의 〈동물들의 세상〉을 잇는 긴 경로의 한 부분에 놓인 발판이다. 발판에는 세계 여러 도시의 이름이 명판으로 새겨 있는데 그 끝에 이르러 숲과 하늘의 탁 트인 경치를 마주하며 바닥을 바라보면 안양의 이름도 발견된다.⁵⁶

〈전망대〉(MVRDV, 2005)

삼성산 정상에는 제1회 APAP 전시 작품이자 건축물인 〈전망대〉가 관람객에게 안양 예술공원, 그리고 그 너머의 안양시 전체를 굽어볼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한다. 자연과 도



〈전망대〉(APAP 제공)



시를 전망하는 이 작품을 만든 작가 그룹 MVRDV는 세 건축가가 모인 사무실의 이름이기도 하다. MVRDV에게 건물은 설계된 장소를 넘어선다.

작가들은 건축물의 디자인과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형성하는 에너지, 기후, 사용자, 제도와 같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에 바탕을 두는 방법을 즐겨 시도하였다.⁵⁷ <전망대>도 이러한 특징을 반영해 안양예술공원의 지형과 문화 환경에 맞게 설계된 작품이다. 빼어난 자연경관을 한눈에 체감할 수 있는 위치는 산과 계곡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목적이 되어 주는 것처럼 안양예술공원 방문객들에게도 정상에 에너지를 모으는 방점이 된다. 작가들은 그 정점에 160㎡ 크기의 바닥 면적에서 시작해 점점 더 좁고 높아지는 나선형으로 길을 올렸다. 등고선을 입체적으로 끌어올린 듯 산의 최종 지점에서 계속해서 빙글빙글 이어지는 길은 안양사의 미륵불, 수 미터가 자랐을 세월을 버틴 나무들의 꼭대기를 바라보게 시야를 확장하고, 삼성산의 공간 또한 확장한다. 전망대 내부에 생긴 여유 공간에서는 전시나 공연이 열리기도 해서 관객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펼친다.⁵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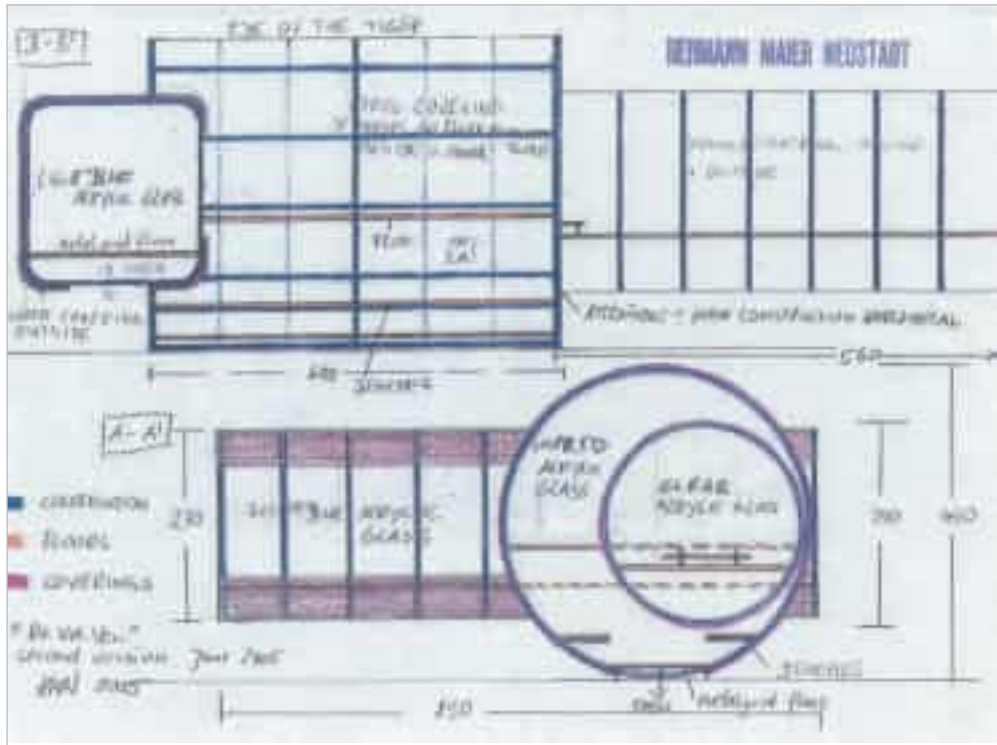
2) 전망대에서 내려오는 숲길에서 함께하는 작품

<리.볼.버.>(허만 마이어 노이슈타트(Hermann Maier Neustadt), 2005)

삼성산 정점을 닫고 내려와 중턱에서 만나는 제1회 APAP 작품 <리.볼.버.>를 만든 작가는 1955년 독일에서 태어나 뮌헨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도시의 역사와 문화적 토대를



<리.볼.버.>(APAP 제공)



(리볼버.) (APAP 제공)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조각과 설치 작품을 주로 선보였던 허만 마이어 노이슈타트이다.⁵⁹ 작가는 APAP를 위한 작품으로 공간적 구조물에서 장소의 역사성을 탐구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투명한 원통 구조물을 형상화했고, 권총을 뜻하는 제목을 통해 일본군과 미군이 연이어 주둔했던 안양의 근현대사와 연관된 내용을 담았다. 작가가 선택한 장소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이 지었고 제2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패망 이후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와 사용했던 모래 운동장이었다. 작가는 바로 같은 자리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적 구조물을 만들면서도 크기를 한정해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오랜 시간이 자라고 있던 나무를 베어내지 않으려 했다. 관람객은 삼성산의 자연 속에 묻힌 스미스앤드웨슨사의 리볼버 권총을 닮은 공간 속으로 진입하며 무력과 전쟁이 일으킨 역사를 상기하고 무한한 시간 속에서는 폭력조차 무상할 수밖에 없음을 성찰하게 된다.⁶⁰

〈숲속길〉(클립(CLIP), 2005)

제1회 APAP가 작가로 초대한 일본 건축가 그룹인 클립의 작품인 〈숲속길〉은 〈전환점〉보다는 길게 설치된 데크로 삼성산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계단식으로 이어서 땅에서 높이를 띄워 제작되었다. 자연에 친화적인 이 산책길은 웨리 삼바의 작품과 서정국과 김미인의 작품 사이를 흐르며 작품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는 환경적 기회를 제공한다.⁶¹

〈신종생물〉(서정국, 김미인, 2005)

서정국과 김미인이 제1회 APAP를 위해 공동으로 제작한 작품 〈신종생물〉은 두 가지 종의 생물을 결합한 형상을 숲속에서 색다르게 보여 주는 조각 아홉 점으로 구성되었다. 작가들은 작품의 아이디어를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플라스틱 모형 장난감에서 얻었다. 펭귄 등에 나비의 달개를 달고 양의 몸체에 원숭이 얼굴을 붙이고 새의 머리에는 공룡을 결합시키는 식으로 새로운 생물을 보여줬다. 작가들의 상상을 통해 태어난 생물 모습을 한 조형물을 숲속에서 마주치는 경험은 산과 계곡이라는 자연환경 속에서 생겨난 창의력의 산물인 안양예술공원과 APAP의 효과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이 숲과 예술의 공간은 그 안에 APAP 작품 〈신종생물〉을 존재시킴으로써 이질적인 특성들이 공존하고 결합할 수 있는 문화의 다양성을 발휘하는 세계로 변모한다.⁶²

〈동물들의 세상〉(웨리 삼바(Chéri Samba), 2005)

삼성산 중턱 울창한 숲길 속에는 제1회 APAP에 초대된 작가 웨리 삼바의 작품인 〈동물들의 세상〉이 등장한다. 웨리 삼바는 1956년 콩고민주공화국 키토 움빌라에서 태어나 10대부터 광고 간판을 그리고 잡지에 만화를 연재하면서 예술 작업을 펼쳤다. “자신의 관심은 사람들의 삶이며, 예술가의 역할은 사람들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라 말하기도 했던 작가가 만든 〈동물들의 세상〉은 사회에 대한 우화를 그렸다. 이 작품의 이야기 속에서 곤충의 몸을 가진 여성 가수는 세상의 선을 넘은 죄악과 불의 위험에 관해 “파괴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 이걸 안 돼. 이걸 정말 아니야!”라고 노래하고 그 주변에 모여든 동물들은 “당신도 일하면 안 되나요? 누구에게나 작가의 역할이 있는 거야.”라고 도시의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대화를 나눈다.⁶³

〈안양 사원〉⁶⁴(에코 프라워토(Eko Prawoto), 2005)

숲속 깊이 들어섰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에 제1회 APAP 작품 〈안양 사원〉이 저

멀리 삼성산의 더 깊은 골짜기와 더 높은 봉우리를 배경으로 자리한다. 이 작품을 디자인한 작가 에코 프라워토는 1958년 인도네시아 푸와레자에서 태어났고 건축과 미술을 오가며 자연 재료를 주로 써서 평범한 장소에 감각적이고 시적인 공간 경험을 만들어 왔다. 프라워토가 안양예술공원을 위해 만든 〈안양 사원〉은 자연의 재료인 대나무로만 세우고 엮어 만든 돔 형태의 구조물이다. 산봉우리를 닮은 작품의 형태는 프라워토의 작품에서 자주 보이는 특징으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축으로서 산을 바라보는 인도네시아의 자연환경에 대한 전통적 개념을 표현한다. 또한 작가에게 대나무는 대자연에서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존재일 뿐인 인간을 은유하는 재료로 안양예술공원을 찾는 이들에게 겸허한 태도를 주지시킨다.⁶⁵

〈장소성/비장소성〉(헬렌 박(Helen Ju-Hyun Park), 2005)

안양예술공원의 둘레 가장 바깥에 자리한 경사진 대지에 놓인 작품은 작가이자 건축가 헬렌 박의 작품 〈장소성/비장소성〉이다. 이 작품은 폭이 좁은 목재를 일정한 간격으로 수평적으로 배열하는 루버 공법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만든 구조물인데 관람자가 내딛은 땅의 높이에 따라서 구조물 뼈대 사이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달라진다. 전체 공간은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직육면체를 비스듬히 겹친 모양으로 입방체 내부에 있던 나무들은 그대로 두어 작품 설치 때문에 숲을 해치지 않았다. 공공예술 작품 속으로 포함되고 보존된 나무들 사이에는 가장 높은 곳에 관람객이 서서 넓은 시야로 주변 풍경을 바



〈장소성/비장소성〉(APAP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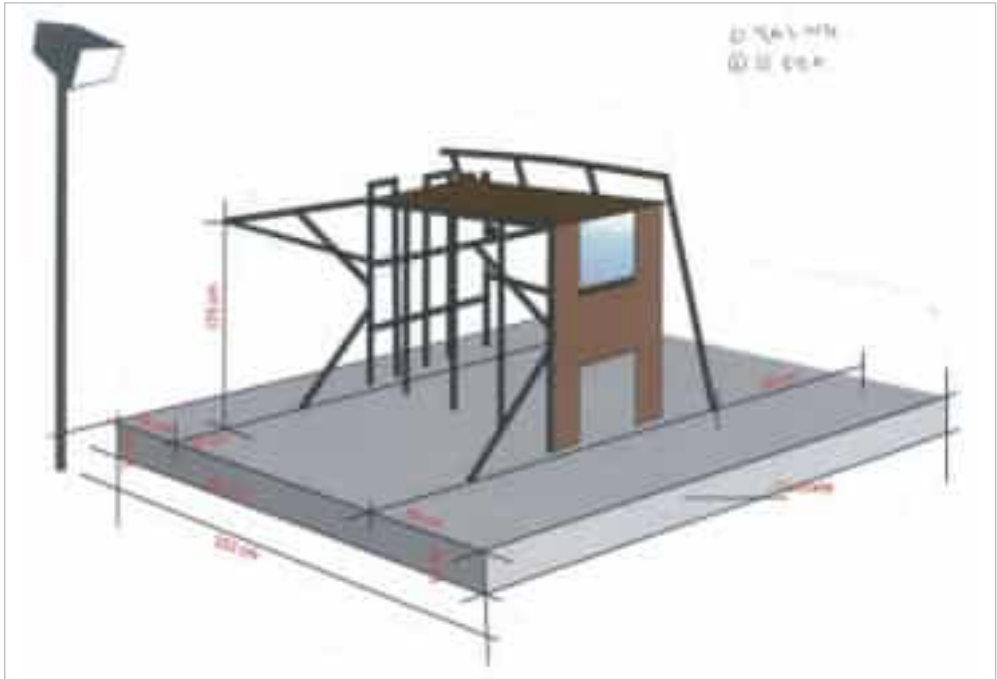


〈장소성/비장소성〉(APAP 제공)

라볼 수 있는 계단식 단을 설치하였다. 이 모든 구조는 자연과 작품 모두를 바라볼 수 있는 장치로서 건축과 조경을 공유하는 공공예술 작품을 실현하려 했던 노력이 쌓아 올린 결과이다.⁶⁶

〈발견〉(장-뤽 빌무트(Jean-Luc Vilmouth), 2005)

〈전망대〉와 〈장소성/비장소성〉이 잇는 삼성산 높은 능선을 짧게 오르고 다시 삼성천 계곡 쪽으로 안양예술공원에서의 동선을 이어 가면 중턱에 제1회 APAP 작품 〈발견〉이 관람객의 발견 대상이 된다. 이 작품을 만든 장-뤽 빌무트는 1952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미술을 공부하고 일상생활 속 사물을 일상적 맥락에서 벗어나게 새로운 환경 속으로 옮겨서 사물 안에 담긴 역사성을 드러내는 작품을 만들었다. 〈발견〉은 낡은 목재와 속이 비치지만 자연 속에 낡기도 하는 재질의 패널로 만든 방갈로 형태의 건축물이다. ‘모든 장소가 가진 나름의 역사는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작가는 안양유원지를 방문하고 방갈로를 마주했고 작품으로 선택하였다. APAP 기획팀과 작가가 주고 받은 이메일에는 그가 방갈로라는 장소이자 건축의 요소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한 내용이 남아 있다. 작가는 구조를 보강하고 흙으로 단을 쌓아 그 위에 방갈로를 옮기



〈발견〉(APAP 제공)

는 방식을 제안했는데 “방갈로 본연의 미학을 파괴하지 않도록 보존 작업에 신중을 기해 달라.” 당부도 덧붙였다. 논의를 바탕으로 삼성천 주변 음식점에서 흔히 발견됐을 일상적 공간이자 건축물인 방갈로는 고고학적 유물처럼 조심스럽게 복원됐고 콘크리트로 제작한 단 위에 설치됐다. 작가는 이 방갈로를 안양예술공원에서 마주한 관객들이 잊힌 폐건물보다는 이 장소의 “역사를 상시키는 유적”으로 받아들이길 바랐다.⁶⁷

〈무제(현실에 영향을 미치려는)〉(가브리엘 시에라 (Gabriel Sierra), 2016)

제1회 APAP에서 제작되고 전시된 작품이 대다수인 안양예술공원의 삼성산 자락 속에 제5회 APAP 전시 작품 〈무제(현실에 영향을 미치려는)〉를 구성하는 네 개의 다리가 화강석, 돌, 콘크리트, 철, 벽돌로 만들어져 곳곳에 놓였다. 작가가 마주한 안양예술공원은 천연 수영장을 만들 만큼 물이 넘치는 계곡으로 유명했던 과거와 달리 개발되면서 계곡의 물과 강수량이 줄어 장마철 빼고는 건조하게 메말라 가는 상태였다. 이제는 낙엽이 채운 계곡의 오솔길 속에서 사람들의 통행이 만든 흔적을 발견한 작가는 그 비공식적 흐름을 따라 첫 번째 다리이자 작품인 동그란 판 모양의 화강석으로 만든 〈무제O〉를 놓았

다. 두 번째 다리인 <무제(환영과 안녕)>는 직선이지만 양쪽의 휘어진 각이 다른 형태로 만들어졌다. 세 번째 다리인 <무제(어쩌면 길의 가운데)>는 <4원소 집>에서 <전망대>로 이어지는 길에 자리하였다. 강에서 가져온 돌덩이 여러 개를 쌓아 다리 상판을 받치고 있는 그 형태는 메마른 계곡을 흐르는 물을 상상하게 한다. 네 번째 다리인 <무제(거의 거의 도착 도착한)>는 안양예술공원 영역의 삼성산과 마주한 서울대학교 수목원 입구 근처에 놓인 벽돌로 만든 다리이다. 다리 중간은 80cm 정도 비워 있어, 공백을 건너는 행보를 만드는 다리의 역할을 드러냈다.⁶⁸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박소영, 2007)

제2회 APAP를 위해 제작된 작품으로 평촌 대로변에 전시되었던 작가 박소영의 작품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도 2013년 제4회 APAP 활동의 하나로 재정비되어 안양 예술공원으로 이전 설치되었다. 다양한 색을 입은 울퉁불퉁한 조각 여러 점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작가의 과거 작품 중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캐스팅하고 자동차 우레탄 도료로 색을 입힌 <덩어리>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규칙 대신에 유기체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듯한 형태의 덩어리들은 지나가는 안양의 시민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의 속도를 멈추고 삶의 무게도 내려놓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환경과 순간을 제공하였다.⁶⁹

<태양 에너지 타워>(주재환 & 이필렬, 2005)

1941년 서울에서 태어나 1980년 ‘현실과 발언’ 동인으로 활동했고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현실 비판적 개념미술을 펼친 작가 주재환과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 이필렬이 공동으로 제1회 APAP를 위해 만든 작품 <태양 에너지 타워>는 안양예술공원 삼성천 상류를 건너는 다리 근처에 설치되었다. <태양 에너지 타워>는 웃는 얼굴을 단순한 선으로 표현



<태양 에너지 타워>(APAP 제공)

한 형태로 이마 위치에는 태양열을 모으는 집열판을 달고 양팔 자리에는 공해 없이도 에너지를 만드는 자전거 바퀴를 뺀고 있는 귀엽고도 유머러스한 모습으로 서 있다. 제1회 APAP가 운영되던 중에는 직원이 옆에 서서 이 작품을 찾는 관람객에게 태양 에너지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작품이 전하고자 했던 희망의 메시지를 조력하였다.⁷⁰

〈낮잠 데크〉(클립(CLIP), 2005)

제1회 APAP가 작가로 초대된 일본 건축가 그룹인 클립이 제작한 세 작품 중 하나이다. 〈숲속길〉과 〈전환점〉이 안양예술공원 삼성산 속에서 걷기를 관객과 함께 이어볼 수 있는 장치가 된다면, 남은 작품 〈낮잠 데크〉는 걸음을 잠시 멈추고 수행할 수 있는



〈낮잠 데크〉(APAP 제공)

휴식을 일깨운다. 이 작품의 등반이는 산의 형세를 닮아 수직으로 세웠다가도 점점 뒤로 기울어지며 여럿이 안양예술공원의 환경 속에서 머물 수 있는 너른 자리를 그린다.⁷¹

〈휴식〉(이상수, 2005)

〈태양 에너지 타워〉에서 걸어 내려와 다리를 건너면 안양예술공원 내 삼성천 축대로 쌓아 놓은 커다란 돌덩이들 사이를 기어오르는 개미 형상의 작품 〈휴식〉이 설치되었다. 이 작품은 제1회 APAP 경쟁 부문에 당선된 작가 이상수의 작품으로, 금속을 주된 재료로 사용한 작가의 특징이 반영되었다.

안양예술공원 산책로를 걷다가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삼성천 아래를 바라봤을 때 문득 반짝이고 매끈한 은색의 개미들을 만나는 시각적 경험은 단조롭게 유형화된 도심 공원의 환경 속에서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⁷²

5. 안양예술공원에서 가장 깊은 삼성산 골짜기에 모인 작품

〈전망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영역을 벗어나면 안양예술공원 내 삼성산의 깊은 공간이 관악산으로 이어지며 펼쳐진다. 삼성산 골짜기 안쪽으로 상업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 여러 건물과 시설이 삼성천의 상류를 따라 이어지는 가운데 적지 않은 작품들이 제1회 APAP 때부터 곳곳에 설치되어 예술의 풍광을 간직하고 있다.

〈로맨스 정자〉(나빈 라완차이쿨(Navin Rawanchaikul), 2005)

정자의 의미와 역할을 지향한 안양파빌리온 외에 실제로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간이자 건축물이다. 정자의 모습을 한 나빈 라완차이쿨의 작품 〈로맨스 정자〉는 제1회 APAP에 삼성천을 따라 30분 이상을 걷다 보면 멈추어 설 수 있는 곳에 지어졌다. 라완차이쿨은 제1회 APAP에 초대받아 두 개의 작품을 제작했는데, 이 중 〈로맨스 정자〉에는 ‘파다다이스 살라’라는 명판이 달려 있다. 파라다이스(극락)은 안양이라는 단어가 유래한 불교의 이상향으로서 극락정토와 연결된다.

이 극락의 열린 공간 속 천장에는 현재와 이상을 그린 장면과 연꽃 조각이 장식됐다. 정자 주변에 놓인 게시판에는 국제공공예술협회라는 실제 있지 않은 기관이 이 작품을 국제공공예술 보물 1호로 지정했다는 이야기가 적혀서 관람객들에게 정자와 같은 야외 공간 속 작은 건축물이 담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성에 대한 상상을 불러일으켰다. 2013년 제4회 APAP의 작품 재정비 과정에서 철거되었지만, 제1회 APAP 당시에 작가는 이 정자 맞은편 건물 외벽에 태국식으로 그린 대형 영화 간판 〈안양 스토리〉를 작품으로 제작해 설치하였다.⁷³

〈돌꽃〉(최정화, 2005)

개미 형태의 〈휴식〉 외에도 삼성천 축대를 부대로 안양예술공원의 작품성을 드러내는 작품이 역시 제1회 APAP에 전시된 〈돌꽃〉이다. 이 작품을 만든 작가 최정화는 도심이나 자연 속에 놓이는 대형 조각을 주로 만들며 공공미술 분야에서도 여러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가 안양예술공원의 환경을 해석하고 내놓은 〈돌꽃〉은 장비, 다알리아, 나팔꽃, 패추니아, 해바라기, 팬지, 아마조니아와 같이 여러 종류의 꽃 모양을 삼성천 축대를 쌓은 돌 하나하나 크기로 확대해 인공적으로 만든 조형물이다. 밋밋한 회색으로 가득한 축대 사이에서 바래지 않는 색을 발현하는 꽃들의 이미지는 관람객들에게 안양예술공원

의 환경을 지키는 가치가 무엇일지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⁷⁴

〈우리들의 안양〉(김용익, 2005)

축대로 쓰인 돌과 어우러진 작품을 보고 길을 따라 삼성천을 계속 오르는 길에 더 거대한 돌을 쌓아 만든 〈우리들의 안양〉이 제1회 APAP 전시 작품으로 놓였다. 이 작품을 만든 작가 김용익은 APAP를 위한 작품에서도 공공성의 실천으로서 작가 자신, 예술감독, 공무원, 지역 주민의 글씨를 모아 문구를 디자인하고 돌 위에 단단히 새겨 놓았다. 안양 속에 담긴 낙원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당시 외국인 노동자 수가 증가했던 안양은 그에 알맞지 않은 두려움이나 혐오감을 키우고 가족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적 문제를 떠안고 있다는 점을 작가는 지적하였다. 작가는 미래에는 누구에게나 ‘우리들의 낙원’이 되어야 한다는 바람을 문구에 담았고, 안양유원지를 안양예술공원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바위를 재활용해서 고인돌이나 도로 경계에서 볼 수 있는 지표석처럼 형태처럼 쌓아 작품을 제작하였다.⁷⁵

〈만고강산 유람할 제〉(김용익, 2005)

〈우리들의 안양〉의 작가 김용익의 제1회 APAP 전시 작품으로, 공원화되며 떨어져 나온 자연 재료인 돌은 〈우리들의 안양〉이 놓인 위치에서 삼성천 자락으로 좀 더 들어간 공터에 조성한 광장 형태의 작품 〈만고강산 유람할 제〉에도 쓰였다. 작가는 산자락을 채운 바닥 돌 곳곳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국어로 쓴 글을 새겼고 등산객들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남아 전하는 그 필체와 메시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⁷⁶



〈만고강산 유람할 제〉(APAP 제공)

〈천국은 불타고 있다〉(최승훈 & 박선민, 2005)

안양예술공원 내 삼성천 상류에 이르면 양쪽 벽면을 이은 줄에 원형 태양열 전구를 점자처럼 배열아 설치한 제1회 APAP 전시 작품 〈천국은 불타고 있다〉가 늘어서 있다. 이 작품을 만든 작가 듀오 최승훈과 박선민은 안양예술공원의 환경을 광범위하게 활용한 설치로 점자의 언어적, 시각적 존재감을 드러내면서도 그 빛이 보내는 점자로 된 메시지를 그것을 읽어야 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을 연출하였다.⁷⁷

〈뿌리〉(신호근, 2005)

안양예술공원의 삼성산 영역에서 가장 깊은 곳에 이르면 처음 만나는 작품 〈뿌리〉는 제1회 APAP를 위해 건축가 신호근이 작가로 참여해 디자인한 건축물이다. 작가는 회백색 벽돌을 쌓아 여러 높낮이의 벽과 공간 구획을 만들어 도시에서 흔하게 제공되는 사각형 공간이 배제된 자유로운 형태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였다. 벽돌벽이 만드는 공간 가운데 놓은 나뭇가지를 역전시키거나 땅속 보이지 않는 나무뿌리의 형태를 상상하게 하는 방향과 각도의 선은 이 작품의 두드러진 특징이다.⁷⁸

〈은하수〉⁷⁹(천대광, 2005)

제1회 APAP에 전시된 작품 〈은하수〉는 안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작가 천대광이 안양유원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구상하며 만든 목재 구조물이다. 안양예술공원의 근간을 이루는 삼성산의 지형과 자연물을 되도록 그대로 보존하기를 추구한 작가의 의지를 반영해 작품의 형태는 나무와 바위가 자란 모양을 해치지 않고 품으며 사람들이 그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형성됐다. 작가는 “나무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듯이 구조물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메모”를 스케치에 남기기도 했다.⁸⁰

〈큐브〉(파브리스 지지(Fabrice Gygi), 2005)

〈뿌리〉의 사선과 이웃하는 제1회 APAP 전시 작품 〈큐브〉는 정육면체라는 도시의 평범하고 반복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이 작품을 디자인한 작가 파브리스 지지는 196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나 신체적 퍼포먼스, 산업 재료와 군사 시설을 활용해 사회에 내재하는 권위주의적 시스템을 비트는 설치 작품을 선보였다. 그는 안양예술공원 숲속에 설치된 작품 〈큐브〉에서 감옥과 놀이 또는 운동을 모두 떠올리게 하는 설치물을 디자인하였다. 스테인리스스틸 파이프를 3차원으로 교차해서 만든 두 개의 정육면체 구조

물은 정글집을 닮았지만, 내부를 구축하는 파이프 사이의 간격이 좁고 입구와 출구도 없어 갇힌 형태이다. 이 설치 작품은 구조를 통해서 이중적인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사회의 통제와 시민의 자유가 상충하고 공존하며 비롯할 수 있는 공공적 질문을 예술 안에 담았다.⁸¹

〈나무 위의 선으로 된 집〉(아콘치스튜디오(Acconci Studio) 비토 아콘치(Vito Acconci), 2007)

안양예술공원에 APAP 작품으로 설치된 건축물 중 가장 큰 규모이면서 많은 뉴스를 만드는 작품이 1970~1980년대 미술사에서 개념적 행위예술을 대표하는 미국 출신의 작가 비토 아콘치가 이끄는 아콘치스튜디오에서 제작한 〈나무 위의 선으로 된 집〉이다. 2005년 제1회 APAP를 위해 계획된 이 작품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완공됐으나, 그 후에도 수정과 보완을 거쳐 2007년에 최종 완성되었다.

안양예술공원 가장 깊숙한 장소에 위치하고 주차장 자리에 접해 ‘보기 싫은 주차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실질적 문제에서 출발한 이 작품은 해결책을 찾아 주차장 위로 높이 띄운 산책로로서 설계되었다. 곡선을 크게 그리는 튜브 형태의 통로는 주차장과 야외무대를 연결하는 긴 부지를 아우르며 중간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접근성과 편의



〈나무 위의 선으로 된 집〉(안양시 제공)

성 또한 높였다.⁸²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이 작품은 2024년 연말 수도권에 내린 폭설로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작품 보존에 관한 논의를 이어 가며⁸³ 안양예술공원의 독특한 장소성을 대표하고 있다.

〈돌지도 디자인〉(안상수, 2005)

제1회 APAP 때 만들어진 〈돌지도 디자인〉은 안양예술공원 내 열세 곳의 갈림길마다 놓여 정보의 플랫폼이자 나침반 역할을 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을 만든 안상수는 1952년 충주에서 태어나 디자인을 공부하고 서체 개발과 출판 기획을 실천했고 대안적 디자인 교육 학교 겸 공동체 ‘파티’를 설립하였다. 그는 한글 글자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7년 독일 라이프치히시가 수여하는 구텐베르크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바위 위에 널찍하고 평평한 대리석 판을 붙이고 그 위에 안양예술공원의 지리와 작품의 위치를 제공하는 정보를 새겨넣었다. 지식과 이해를 제공하는 독보적 지위를 가지는 이 공공예술 작품은 기능과 정확도에 충실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후 제4회 APAP에서 시행한 작품 재정비를 통해 철거되거나 이전된 작품 정보까지도 반영해서 2013년 지도가 그려진 상판을 다시 제작하였다. 수정되는 과정에서도 제1회 APAP에서 수립된 “환영, 호기심, 향연, 예술, 정원, 순례, 놀이, 순환, 쉼, 정토”로 안양예술공원을 나누는 열 개의 구역은 그대로 표기되었다.⁸⁴

〈긴 다리〉(박신자, 2005)



〈긴 다리〉(APAP 제공)

안양예술공원 영역에서 가장 끝자리에 놓여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입구에 위치한 공중화장실로 가는 길에 놓인 이 작품의 제목은 형태를 반영한 〈긴 다리〉이다. 제1회에 이어 제2회 APAP에도 참여한 공간 연출가 박신자가 디자인하였다.

안양예술공원에서 가장 시선이 닿지 않지만 필요한 이 장소를 작품 대상으로 직접 고르기도 한 작

가는 기존에 놓였던 낮은 나무다리를 철거하고 관람객의 시선을 끌어 장소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붉은색을 활용한 새 다리 구조물을 공공예술 작품으로 설치하였다.⁸⁵

〈일 퍼센트, 일백 퍼센트〉(다미안 오르테가(Damián Ortega),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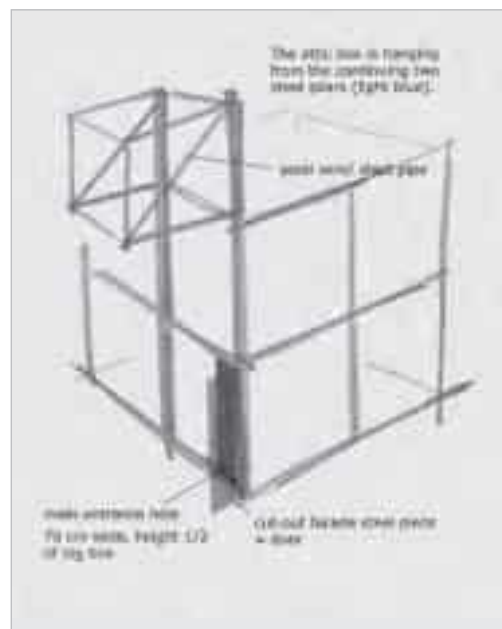
제5회 APAP에서 전시한 작품 〈일 퍼센트, 일백 퍼센트〉는 대부분 제1회 APAP 작품이 잔존하는 안양예술공원 마지막 영역에 설치되었다. 1967년 멕시코에서 태어난 다미안 오르테가가 만든 이 작품에는 콘크리트, 유리, 나무, 흙, 벽돌 같은 기초적 건축 재료를 즐겨 쓰는 작가의 특성이 발견된다. 겉면에 녹을 입힌 콘크리트 재질로 동일한 부피의 입방체를 1에서 100까지 다섯 단계이자 균집으로 놓인 균일한 사각형으로 구성한 이 설치 작품은 자본이 축적되고 나뉘지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관계의 문제를 공공예술 작품으로 풀어냈다.⁸⁶

〈4원소 집(地, 火, 水, 風)〉(사미 린탈라(Sami Rintala), 2005)

삼성산에서 안양예술공원 영역 끝자락에 놓인 작품 중 하나인 〈4원소 집(地, 火, 水, 風)〉은 제1회 APAP에 참여한 사미 린탈라가 구상하였다. 1969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태어난 사미 린탈라는 건축가이자 예술가로서 서사와 개념에 기반해 물리적, 정신적, 시적 층위로 장소를 다양하게 해석하는 작품 활동을 했다.

그가 디자인한 공공예술 작품이자 건축물인 〈4원소 집(地, 火, 水, 風)〉은 제목에 담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의 기본 원소인 흙, 불, 물, 공기의 모티브를 판입방체의 건축적 공간을 일률적이지 않게 자유롭게 올린 형태로 설계되었다. 주재료인 붉은 흙과 부식되는 철판은 소나무가 가득한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선택되었다.

안양예술공원에서 여러 작품을 둘러보고 마무리하며 삼성산, 그리고 그 너머의



〈4원소 집(地, 火, 水, 風)〉(APAP 제공)

관악산까지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 작품에는 ‘하늘 다락방’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⁸⁷

〈평온〉⁸⁸(존 로저 홀트 (John Roger Holte), 2005)

〈4원소 집(地, 火, 水, 風)〉 네 개의 방 중에 ‘불’을 상징하는 방에는 작품 속에 작품으로 노르웨이 출신의 작가 존 로저 홀트가 콘크리트로 만든 향로 〈평온〉이 놓였다.

〈신과 성신을 위한 의자〉⁸⁹(올루 오귀베(Olu Oguibe), 2005)

안양예술공원 가장 깊은 곳 울창한 소나무 숲 속에 설치된 작품 〈신과 성신을 위한 의자〉는 제1회 APAP에 참여한 작가 올루 오귀베가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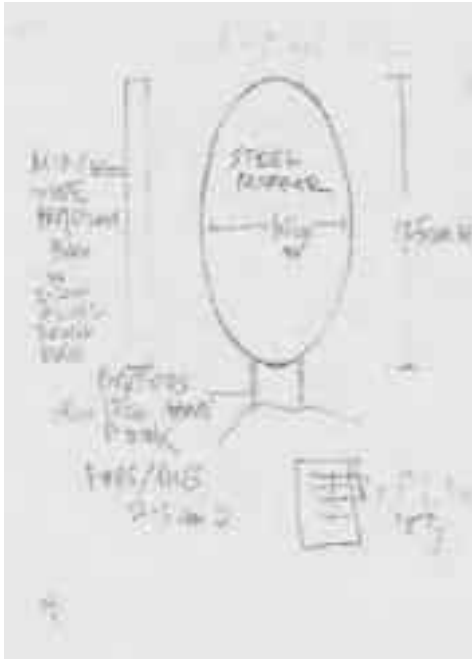
작가는 나이지리아 이그보 부족이 섬기는 대지의 여신과 태양신을 안양예술공원의 삼성산을 상징하는 세 명이 승려인 원효, 의상, 윤희와 연결해 떠올리며 〈신과 성신을 위한 의자〉를 구상하였다. 인간들만이 아닌 신을 위한 성스럽고 비밀스러운 장소성을 섬세하게 세공된 유리 재질의 의자 뒤로 스테인리스스틸로 지탱한 타원형 거울 표면의 등받이가 붙은 조각으로 구현하였다.⁹⁰

〈계란은 삶의 의미를 찾는 나의 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토비아스 레베르거(Tobias Rehberger), 2006)

긴 문장으로 제목을 붙인 작품 〈계란은 삶의 의미를 찾는 나의 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제2회 APAP 참여한 작가 토비아스 레베르거가 구성했고, 대다수의 제2회 APAP 작품이 평촌을 무대로 한 것과 달리 공식 개막에 앞서 안양예술공원에 설치됐다. 1966년 독일에서 태어난 토비아스 레베르거는 미술관의 라운지나 카페처럼 중간에서 접촉을 만드는 영역에 대한 건축적 구조와 디자인으로 예술적 탐구의 영역을 넓히는 여러 작품을 선보였다.

작가는 안양예술공원이라는 일상과 예술의 중간지대에서도 특정한 목적 없이 주차장으로 활용되던 숲속의 공터에 은색, 하늘색, 상아색, 연두색의 네 가지 색상의 천막을 늘어 조각조각 지붕을 만들고 그 아래 깨진 계란에서 형태와 상징의 모티브를 얻어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벤치와 테이블을 설치하였다. 제2회 APAP에서 완성한 작품의 요소 중에 지붕은 마모되어 사라졌고, 현재는 깨진 계란 조형물만 남아 있다.⁹¹



〈신과 성신을 위한 의자〉(APAP 제공)

6. 안양예술공원의 과거와 미래를 넓히는 작품

2024년 안양예술공원 가이드북에는 적용되지 못했지만, APAP 홈페이지 등에서 2019년 제6회 APAP 이후로 설치된 여러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양예술공원에는 제4회 APAP에서 진행된 작품 재정비를 계기로 철거된 작품들도 있고 삼성천과 안양천의 물길이 만나는 안양예술공원이 가장 인접 장소에서 세월과 함께하는 작품, 안양파빌리온에 일시적으로 전시된 물리적 작품이자 무형적 활동도 있었다. 카테고리 바깥에 놓인 이러한 작품들은 안양예술공원의 과거와 미래를 넓혀 갔다.

〈지상의 낙원(Elysium)〉(문주, 2019)

안양파빌리온 앞 산책로 사이에 설치된 〈지상의 낙원〉은 쉼터의 기능을 하면서 제6회 APAP의 주제인 ‘공생도시’를 상징적, 조형적으로 구현하는 작품이다. 작가는 이 작품에 극락정토를 뜻하는 안양의 지명에 대한 해석을 담은 주제를 안양파빌리온의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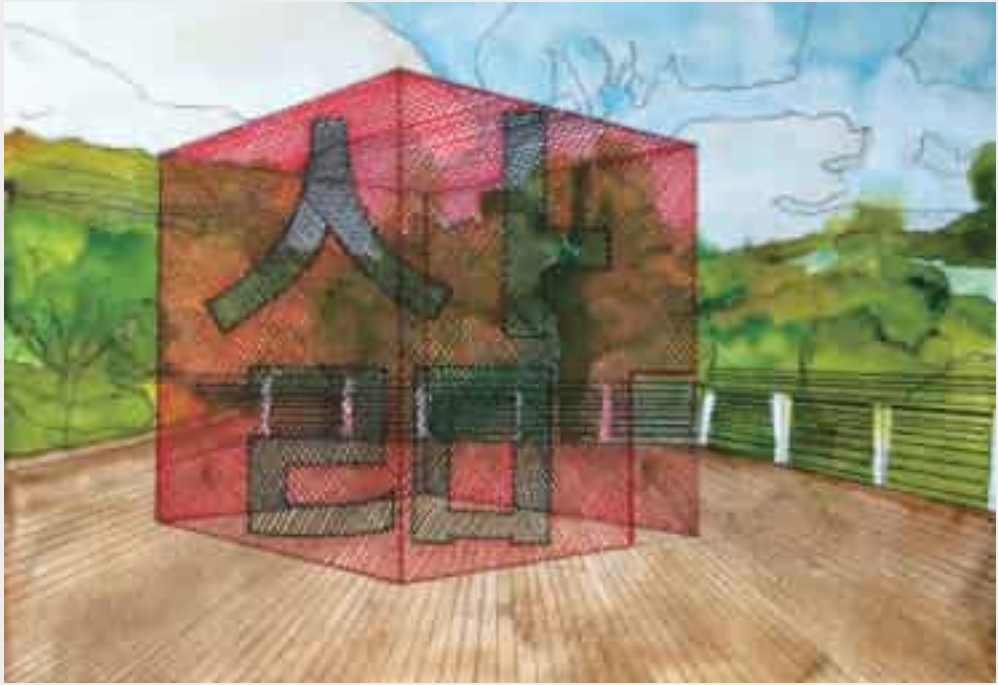


〈지상의 낙원〉(APAP 제공)

적 특성과 주변 환경에 어우러지는 곡선이라는 형태로 구현해 부각시켰다. 화강암 바닥 위로 부채처럼 펼쳐져 작품의 주요 요소가 되며 우레탄 도장이 된 스테인리스스틸 재질의 곡면에는 안양의 과거와 현재에 나타난 이미지를 투각해 낮에는 햇빛과 그림자가 비치도록, 밤에는 조명을 비춰 별자리처럼 빛나는 선으로 드러냈다. 곡면의 아래에서는 관람객들이 쉬기도 하고 작은 공연도 할 수 있어 다목적의 기능을 펼치는 공공미술 작품의 면모를 보여 줬다.⁹²

〈안양 2019〉(조르주 루스(Georges Rousse), 2019)

사방 5m 면적의 정육면체로 수백 개의 붉은색 긴 각목을 일정한 간격의 사선으로 정렬해 만든 〈안양 2019〉는 제6회 APAP를 위해 참여 작가 조르주 루스가 디자인하였다. 각목이 만드는 선들 사이로 ‘삶’이라는 글자가 검고 진하게 드러나며 관객에게 메시지를 전하였다. 각목 입방체 한쪽에는 문이 달려 있어서 내부로 들어갈 수 있고 바깥의 풍경을 역으로 감상할 수 있다.⁹³



〈안양 2019〉(APAP 제공)

〈지구 잠재력(도마뱀, 지구)〉(카트야 노비츠코바(Katja Novitskova), 2017, 2019)

안양파빌리온의 커다란 통창 너머로 보이는 〈지구 잠재력(도마뱀, 지구)〉은 제6회 APAP에 참여한 작가 카트야 노비츠코바가 장기적으로 진행했던 동명의 프로젝트 작품을 안양에 옮겨 재구성한 작품이다. 작가는 생물학적 위기를 맞이한 오늘날의 문제를 미디어, 기술, 과학, 생태 차원에서 접근해 왔다. 알루미늄에 디지털로 인쇄된 도마뱀의 다리 한쪽이 행성 지구의 형상에 겹친 이 작품의 이미지는 생명 공학과 유전자 연구에 동원되는 동물이나 유기체의 존재에 관한 질문을 공공예술의 장에서 상기시켰다.⁹⁴

〈너의 거실 Your Living Room(Simulation)〉(천대광, 2019)

제1회 APAP에서 작품 〈은하수〉를 선보였던 천대광은 제6회 APAP에 다시 참여하며 안양유원지에 있었던 옛 만안각수영장 자리에 작품 〈너의 거실〉을 설치하였다. 잔해만 남은 수영장의 흔적은 어린 시절을 안양에서 보낸 작가에게 기억을 소환하는 장소로 작동하였다. 알록달록한 벽체는 사람은 떠나고 기억만 남은 자리에 색색의 빛을 투과시키며 안양예술공원을 통해 기억하는 장소성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켰다.⁹⁵

〈반영산수〉(우종택, 2023)

제7회 APAP에 참여한 작가 우종택의 작품 〈반영산수〉는 돌, 나무, 그리고 매끄럽게 연마된 스테인리스스틸 재질로 만들어져 주변의 풍경을 반사하는 동시에 불규칙한 표면은 비친 이미지를 왜곡시켜 바라보는 실재에 관한 성찰을 불러일으킨다. 계절과 날씨의 변화에 따라, 보는 이의 위치에 따라 매순간 변화하는 이 공공예술 작품이 만드는 시각적 체험은 환경 속에 놓인 인간이라는 존재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었다.⁹⁶

〈비밀의 숲〉(넥스트 아키텍츠(NEXT architects), 2023)

안양예술공원 삼성산 중턱 등산로 안쪽에는 제6회 APAP 전시 작품 〈비밀의 숲〉이 설치되었다. 작가인 넥스트 아키텍츠는 네덜란드 출신의 건축가 바트 뢰저와 한국 출신의 건축가 지백현이 결성한 건축 스튜디오로 설치될 곳의 지형과 식생 같은 환경에 대한 이해를 중시해 작품의 구조를 설계하였다. 어느 한 점으로부터 시작해 나선형으로 퍼져 나간 형태로 숲을 에워싸는 형태로, 코르텐스틸(Corten Steel), 알루미늄 거울, 강철을 재료로 만든 이 작품은 그 동선을 따라 걸으며 시시각각 바뀌는 프레임으로 풍경을 경험할 수 있는 장치로도 역할을 하였다.⁹⁷



〈비밀의 숲〉(APAP 제공)

〈유닛〉(링크, 2023)

1980~1990년대 출생한 국내 작가 김주영, 김희용, 오누리, 유수가 모여 만든 작가 팀 링크가 제7회 APAP에서 전시한 〈유닛〉은 안양예술공원 초입 삼성천 돌담 사이에 다양한 푸른색 스테인리스스틸 재질의 반구를 설치한 작품이다. 이 파란 점들이 그리는 형상은 무한대를 상징하는 기호로 보이기도 하고 ‘안양’의 자음을 붙여 놓은 모습으로 읽히기도 하며, 환경 속에서 다층적 의미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공공예술 작품의 특성을 보였다.⁹⁸

〈아르키테우티스(오징어 정거장)〉(철거작, 엘라스티코(EL A STICO), 2005)

제4회 APAP에서 본격적으로 실행된 작품 재정비 사업을 계기로 철거된 작품이다. 작가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1995년 활동을 시작한 건축 및 디자인 스튜디오의 엘라스티코이다. 〈아르키테우티스(오징어정거장)〉는 제1회 APAP 당시 지중해에 서식하는 대왕오징어에서 모티브를 따와 제작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지금 안양예술공원의 입구 지점이 되는 위치에 버스정류장과 연계하여 설치된 공공예술 작품으로, 파스텔톤의 화사한 색감을 입은 오징어 촉수 모양 덕분에 ‘오징어정거장’이라는 유쾌한 별칭을 얻었고 삼성천에서 뛰어오른 물고기를 연상케 하며 쉼터로 기능하기도 했다. 작품이 노후화하고 버스정류장이 이전하면서 설치된 장소에서 비롯한 원래의 맥락이 변화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전면적인 디자인을 보수하는 작업이 세 번에 걸쳐 진행되기도 했으나, 결국 2014년 3월 작가의 동의를 얻어 철거되었다.⁹⁹

〈빌보드 하우스〉(철거작, 존 커멜링, 2005)

삼성천 변에 설치됐던 〈빌보드 하우스〉은 안전문제로 2013년 APAP 작품 재정비 활동에 포함되어 철거된 작품이다. 작가 존 커멜링은 도시계획이 파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비평가 유머를 모두 담아 표현해 왔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제1회 APAP에 전시된 작품 〈빌보드 하우스〉도 구상하였다. 관객이 계단을 올라 외부의 환경을 바라보고 배경으로 삼을 수 있는 이 작품의 주요한 요소인 대형 간판에는 포도가 그려져 있었는데, 포도는 안양을 상징하는 농산물이었지만 도시화에 밀려 자취를 감춘 식물이기도 했다. 과거 안양유원지 일대에도 포도밭이 즐비했다고 하는 기억처럼 이 작품 또한 기억 속으로 사라졌지만, 관련 기록은 디지털 아카이브에 남아 있다.¹⁰⁰



〈이소(Yiso, 異素)〉

〈이소(Yiso, 異素)〉(안양예술공원 인접지에 설치된 작품, 김진주, 2016)

안양예술공원은 삼성천 하류에 이르면 안양대교 아래의 안양천과 인접한다. 제5회 APAP에 참여한 작가 김진주는 서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특정한 시간을 정해 두지 않고 안양대교 아래에 모여 장기를 두는 모습에 착안한 작품 〈이소(Yiso, 異素)〉를 구상하였다. 안양천 주변에서 살며 어린 시절을 보낸 작가에게, 안양을 흘러감의 도시로 해석되었다.

작가는 〈이소(異素)〉를 통해 안양예술공원으로부터 흐르는 일상적 풍경의 귀퉁이에 개입하고 이를 향상할 수 있는 요소들을 설치하였다. 안양대교 아래 공간에는 안양에서 활동하는 목수와 협업하여 만든 마주 보고 장기를 둘 수 있는 긴 느티나무 의자와 구경하는 이들이 앉을 통나무 의자, 눈에 익숙한 색온도의 LED 조명, 강 건너를 바라보며 수를 둘 수 있는 너른 돌계단이 놓였고, 상반되는 의미인 목적 없음(異)과 완수(素)를 의미하는 여러 단어를 새긴 돌을 장기알처럼 놓아 두었다.¹⁰¹

〈무늬만 아카이브〉(일시적 작품, 김월식, 2014)

APAP에서는 안양파빌리온을 무대로 전시 기간에만 유지되는 일시적인 작품이 선보이기도 했다. 그중 제4회 APAP가 제작한 〈리빙 애즈 폼(더 노마딕 버전)〉의 두 번째 작가로 참여한 김월식은 공공미술과 커뮤니티 아트의 현장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업자들과 함께 실천한 장기적 프로젝트인 〈무늬만 커뮤니티〉의 활동을 공공예술 작품으로 제시하였다.

김월식을 포함한 무늬만 커뮤니티 작가들은 제3회 APAP 참여해 안양시 박달동의 주민들과 재활용 공방, 소식지 발행, 도시락 심포지엄, 아카이브 전시를 마련하기도 했다. 제4회 APAP에서 안양파빌리온 내에 조성한 공원도서관 서가를 폐지로 감싸서 만들어진 비정형의 공간에 작가들은 선언문, 반성문, 사진 등 작업과 관련한 기록물 등을 채워 넣음으로써 한국 사회 속에서 소외된 개인들의 차이를 회복시키는 공공의 예술적 행위를 펼쳤다.

7. 공공예술 작품과 장소의 힘

안양예술공원의 작품들은 서로 다른 조형적, 환경적 특징과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모든 다양성이 공공예술 작품으로서 관람객에게 전해지고 경험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안양예술공원이 가진 장소의 힘에서 나온다. 안양사, 안양유원지, 유유산업과 같이 공동체의 굴곡을 겪어내고 기억을 응축한 곳이 배경이자 맥락이 됐기에 국내 그 어떤 현대미술 전시보다도 공공미술을 실험적, 반성적, 미래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해 온 APAP가 가능하였다. 또한 APAP는 자연 속에 놓인 예술 작품을 상상할 때 가장 손쉬웠을 조각공원에 멈추지 않았다. 시작부터 많은 시민들이 발걸음해 경로를 생성할 수 있는 너른 자연 속에서 작품의 생을 살아가듯 존재하기도, 사라지기도 하는 예술공원의 개념으로 프로젝트를 발전시켰고, 그 결과 안양예술공원은 자연과 문화를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형식의 미술관”¹⁰²을 제공하고 있다.



- 1 이영철, 「도시개발과 예술」,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2005, 안양공공예술추진위원회, 18~28쪽.
- 2 안양공공예술추진위원회,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2005, 55쪽.
- 3 존 오버뷰 문서(APAP 아카이브 기록물).
- 4 안양박물관 홈페이지(<https://ayac.or.kr/museum/main/view>).
- 5 APAP 존치작품현황(2024년 9월 23일) 문서에 없는 작품이다.
- 6 안양문화예술재단,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2014, 343~345쪽.
- 7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 8 윤한순(도슨트) 인터뷰, 「6회 APAP」, 『APAP 리뷰 기획전』, 2019.
- 9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 10 정주영, 「이용자 안내문서」(교정 전).
- 11 정주영, 「이용자 안내문서」(교정 전).
- 12 정인진(도슨트) 인터뷰, 「6회 APAP」, 『APAP 리뷰 기획전』, 2019.
- 13 안양공공예술추진위원회,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2005, 68쪽.
- 14 박광옥(도슨트) 인터뷰, 「6회 APAP」, 『APAP 리뷰 기획전』, 2019.
- 15 정주영, 「이용자 안내문서」.
- 16 안양공공예술추진위원회,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2005, 90쪽.
- 17 박광옥(도슨트) 인터뷰, 「6회 APAP」, 『APAP 리뷰 기획전』, 2019.
- 18 정주영, 「이용자 안내문서」.
- 19 작품관리목록.
- 20 정주영, 「이용자 안내문서」.
- 21 이경희(도슨트) 인터뷰, 「6회 APAP」, 『APAP 리뷰 기획전』, 2019.
- 22 정주영, 「이용자 안내문서」.
- 23 안양문화예술재단,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2014, 7쪽.
- 24 안양문화예술재단,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2014, 10쪽.
- 25 안양문화예술재단,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2014, 10쪽.
- 26 안양문화예술재단,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2014, 21쪽.
- 27 이경희(도슨트) 인터뷰, 「6회 APAP」, 『APAP 리뷰 기획전』, 2019.
- 28 안양문화예술재단,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2014, 35쪽.
- 29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 30 정주영, 「이용자 안내문서」.
- 31 정주영, 「이용자 안내문서」.
- 32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 33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 34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 35 안양문화예술재단, 『제2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2007, 56쪽.
- 36 안양공공예술추진위원회,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2005, 98쪽.
- 37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 38 정주영, 「이용자 안내문서」.
- 39 정주영, 「이용자 안내문서」.
- 40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안양공공예술추진위원회,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2005, 296~297쪽.
- 41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정주영, 「이용자 안내문서」.
- 42 정주영, 「이용자 안내문서」.
- 43 작품관리목록 참조.
- 44 안양문화예술재단,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2014, 271~275쪽.
- 45 정주영, 「이용자 안내문서」.
- 46 정주영, 「이용자 안내문서」.
- 47 정주영, 「이용자 안내문서」.
- 48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 49 최정임(도슨트) 인터뷰, 「6회 APAP」, 『APAP 리뷰 기획전』, 2019.
- 50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이귀자(도슨트) 인터뷰, 「6회 APAP」, 『APAP 리뷰 기획전』, 2019.
- 51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 52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최정임(도슨트) 인터뷰, 「6회 APAP」, 『APAP 리뷰 기획전』, 2019.
- 53 정주영, 「이용자 안내문서」.
- 54 정주영, 「이용자 안내문서」.

-
- 55 정주영, 「이용자 안내문서」.
- 56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 57 정주영, 「이용자 안내문서」.
- 58 정주영, 「이용자 안내문서」; 윤한순(도슨트) 인터뷰, 「6회 APAP」, 『APAP 리뷰 기획전』, 2019.
- 59 정주영, 「이용자 안내문서」.
- 60 정주영, 「이용자 안내문서」.
- 61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 62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 63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 64 안양예술공원 가이드북에는 있지만, APAP 존치작품현황(2024년 9월 23일) 문서에는 없는 작품이다.
- 65 정주영, 「이용자 안내문서」.
- 66 정주영, 「이용자 안내문서」.
- 67 정주영, 「이용자 안내문서」.
- 68 안양문화예술재단, 『제5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2017, 194~203쪽.
- 69 정주영, 「이용자 안내문서」;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 70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 71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 72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 73 정주영, 「이용자 안내문서」.
- 74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 75 정주영, 「이용자 안내문서」.
- 76 정주영, 「이용자 안내문서」.
- 77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 78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 79 APAP 존치작품현황(2024년 9월 23일) 문서에는 없는 작품이다.
- 80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 81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 82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APAP 존치작품현황(2024년 9월 23일) 문서.
- 83 「안양문화재단, 'APAP 자문회의'로 작품관리 및 발전 방향 모색」, 『사이버타임즈』 2024년 12월 18일(http://cybertimes.co.kr/skin/news/basic/view_pop.php?v_idx=21755).
- 84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 85 정인진(도슨트) 인터뷰, 「6회 APAP」, 『APAP 리뷰 기획전』, 2019; 정주영, 「이용자 안내문서」.
- 86 안양문화예술재단, 『제5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2017, 168~175쪽.
- 87 정주영, 「이용자 안내문서」.
- 88 APAP 존치작품현황(2024년 9월 23일) 문서에 있으나 APAP 홈페이지에는 없는 작품이다.
- 89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정주영 「이용자 안내문서」 표기로, 안양예술공원 가이드북 인쇄물에서는 '올루 오귀베'로 음차한다.
- 90 정주영, 「이용자 안내문서」.
- 91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 92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 93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 94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 95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 96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 97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 98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 99 정주영, 「이용자 안내문서」;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도슨트 박광옥(도슨트) 인터뷰, 「6회 APAP」, 『APAP 리뷰 기획전』, 2019; 한은주, 「공공미술 기획 평론(2)」, 『퍼블릭 아트』(<https://artinpost.co.kr/product/public-tech/3118>).
- 100 정인진(도슨트) 인터뷰, 「6회 APAP」, 『APAP 리뷰 기획전』, 2019;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 101 APAP 홈페이지(<https://www.apap.or.kr:446/index.asp>).
- 102 안양문화예술재단,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2014, 8쪽.

05

삼성천 계곡 따라 문화와 생태 읽기

제1장 역사와 건축예술을 담다 : 안양박물관과 김중업건축박물관

제2장 안양예술공원 숲길 따라 만나는 맛의 풍경

제3장 한국 최초의 수목원,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둘러보기

제1장

역사와 건축예술을 담다

: 안양박물관과 김중업건축박물관

최정규 한신대학교 중국어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1. 유유산업 공장, 박물관으로 재탄생하다

안양예술공원이 시작되는 초입에 위치한 안양박물관과 김중업건축박물관은 안양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 103번길 4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안양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된 안양사라는 절이 있던 자리이며 지금의 유유제약 전신인 (주) 유유산업의 옛 공장이 있던 곳이기도 하다.

2000년대 초반까지 안양시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도시였다. 이러한 현실을 문제로 인식한 당시 안양시장 신중대는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였다. 그는 안양의 문화적 빈곤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공공박물관 설립을 구상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부지 확보에 고심하던 중 유유산업이 안양에서 철수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유유산업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제약회사 중 하나로, 안양예술공원 입구에 공장과 본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확장이 불가능해지면서 회사는 지방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고, 이에 해당 부지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안양시는 이 기회를 잡아 부지를 매입하고자 했지만, 유유산업 측은 당초 안양시에 매도할 의사가 없었다. 민간 건설업체에 매각하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와 기업 간의 이해 차이로 협상은 장기화되었고, 무려 4년에 걸쳐 설득과 인내의 과정을 거쳤다.

다양한 인맥을 동원하여 유유산업 측을 설득한 결과, 마침내 안양시에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안양시는 약 240억 원에 해당 부지를 확보하게 된다. 당시는 시 재정 상황상 큰 부담이었지만, 유유산업 측의 배려로 무이자 3년 분할 납부 조건으로 계약이



1980년대 유유산업(안양상공회의소 제공)

성사되었다.

이때 신중대 시장은 유유산업 공장의 건축적 가치를 확인하며 더 큰 문화적 비전을 품게 된다. 즉 유유산업 안양공장은 창립자인 유희한의 의뢰로 한국 현대건축의 대가인 김중업(1922~1988)이 1959년 설계하였다. 유유산업 건물이 대한민국 제1호 건축가 김중업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신 시장은 건축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유유산업 건물의 정문, 수위실, 2층 공장 건물, 보일러실과 굴뚝, 그리고 Y자 형태의 사무실 등 다섯 개의 주요 구조물을 보존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를 활용해 건축박물관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유유산업의 사무실이 김중업의 독창적인 설계로 이루어진 Y자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는 점이 큰 의미를 더하였다.

박물관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김중업건축박물관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김중업 건축가의 유품 및 설계 자료 등을 확보하는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안양시는 김중업의 장남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에 나섰고, 하와이에서 생활 중인 장남을 두 차례 귀국시켜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김중업의 별장이 있는 춘천댐 상류를 방문하였는데,



유유산업 리모델링 조감도(안양시청 제공)

그의 자필 시가 새겨진 대리석 비석 앞에서 시장과 관계자들이 예를 갖추 경례를 올리는 장면은 장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러한 진심 어린 접근은 큰 결실을 맺었다. 김중업 장남은 하와이에 보관 중이던 수많은 설계 모형과 도면, CD로 디지털화된 건축 자료들을 모두 안양시에 기증하였다. 이를 통해 박물관은 전시콘텐츠까지 확보할 수 있었고, 한국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건축전문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2007년 유유산업 안양공장이 제천으로 이전하면서 남겨진 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안양박물관과 김중업건축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박물관 외에 특별전시관과 교육관 등이 있으며 정문 옆 옛 수위실(현 문화지킴소)은 2층 원형의 독특한 형태로 설계되어 눈길을 끈다. 박물관 부지 내에는 보물인 중초사지 당간지주, 고려시대 삼층석탑 등 다양한 국가유산이 보존되어 있다.

안양 역사의 근간이 되는 안양사 터에 공업도시 안양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유유산업 건물을 살리고, 그곳에 김중업의 작품을 통해 건축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 것이다. 이러한 박물관의 탄생은 한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적 자산을 보존하고 승화시킨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유유산업 공장을 개조해 만든 안양박물관과 김중업건축박물관



2. 안양박물관의 安養各色

1) 안양을 알려거든 이곳으로 ……

안양박물관은 2004년 9월 호계동 평촌아트홀에 ‘안양역사관’으로 개관했으며, 2015년 안양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안양을 대표하는 공립박물관으로서 그 기능을 확대하고자 2017년 9월 28일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여 새롭게 문을 열었으며 2019년 4월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승격하였다. 승격 후 같은 해 7월에는 안양박물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전 《새겨진 아름다움, 안양의 보물을 찾아서》, 2020년 12월 특별전 《안양사의 흔적-안양의 기틀을 다지다》을 전시하였다. 2021년 11월부터 국가귀속문화재 특별전 《돌아온 역사, 안양》이, 2023년 3월부터 안양시 승격 50주년 기념전인 《安養年華 : 안양의 아름답고 찬란한 시간》이 개최되었으며 2024년 기획전시 《安養各色 : 안양에 이르다》가 열렸다.





안양박물관 특별전시관

안양박물관 건물은 모두 3개 층으로, 1층에는 안내데스크와 카페가 있고 2층에는 상설전시실, 문헌자료실, 수유실이 있으며 3층에는 사무실과 레스토랑 ‘더 테라스’가 있다. 박물관에서는 전시해설도 진행하는데 2024년 현재 1일 3회 실시하며 소요시간은 30분 정도이다. 해설을 들으며 관람하고 싶다면 해설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된다. 박물관 운영시간은 월~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마지막 입장은 5시),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특별전시관은 276㎡ 규모로 지상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 및 특별전시를 위한 전시관이다. 1층에는 전시실과 안내데스크, 2층에는 전시실과 문헌자료실이 있으며, 기획전시가 있을 때만 관람이 가능하다. 안양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동안 진행된 상설전시와 기획전시 영상을 3D로 관람할 수 있다.

교육관은 190㎡ 규모로 안양박물관 건물 뒤쪽에 위치한다. 공장굴뚝과 함께 (주)유유산업이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건물이다. 보일러실로 사용했던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부속건물을 증축하여 강연과 교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안양을 돌아보다

안양박물관 2층 상설전시실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안양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꾸몄다. 내부는 전시 구역과 포토존,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안양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 주는 연대표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그 옆으로 안양 지역의 대표적 유적지인 염불사 부도군, 삼막사, 석수동 석실분, 안양사, 석수동 마애종, 중초사지, 안양시 비산동도요지, 만안교, 구 서이면사무소 등이 표시된 지도가 전시되어 있다. 전시실 전체 구성은 선사시대~삼국시대, 통일신라-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로 나뉘어 있다.



안양의 선사시대 유물 전시(<https://blog.naver.com/redsant56/221698556014>)

안양에서 본격적으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청동기시대이며 대표적인 유적으로 관양동 마을 유적과 평촌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고인돌이 있다. 관양동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친 집자리, 석곽묘, 토광묘 등 유구 18기가 나왔으며 그 중 청동기시대 유구는 집자리 8기와 구덩이유구 4기이다. 그 밖에 골아가리구멍무늬 토기, 바리모양토기, 붉은간토기, 돌창, 돌화살 등 청동기시대 문화상과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수렵과 채집의 의존도가 높았던 석기시대에 비해 청동기시대는 농경의 비중이 커지면서 집단 간의 갈등도 생겨났다. 흉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해지면 다른 마을을 약탈하기도 했는데 전시실에 전시된 동검, 마제석검, 석촉, 석창 등 무기류 유물들이 이를 잘 말해 준다. 또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재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된 도구들도 발견되었다.

3) 안양 중초사와 안양사의 발자취

박물관 정문 왼쪽에 자리한 중초사지 당간지주(보물 제4호)는 827년(신라 흥덕왕 2)에 조성된 석조문화재로 안양의 유일한 보물이다. 사찰에 행사가 있을 때 사찰 입구에 거는 깃발을 당(幢), 깃발을 매다는 장대를 당간이라고 한다. 당간지주는 당간을 걸기 위해 세운 두 개의 기둥을 말한다.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높이 3.64m로 사각형 기둥 모양의 돌 지주 두 개가 마주하고 있으며, 지주 중간에는 당간을 고정하는 두 개의 간공이 있다. 서쪽 지주 바깥 면에는 6행 124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어서 절의 이름과 조성연대, 제작 과정과 작업자를 알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당간지주이다. 명문에 적힌 내용으로 이곳의 터가 중초사지인 것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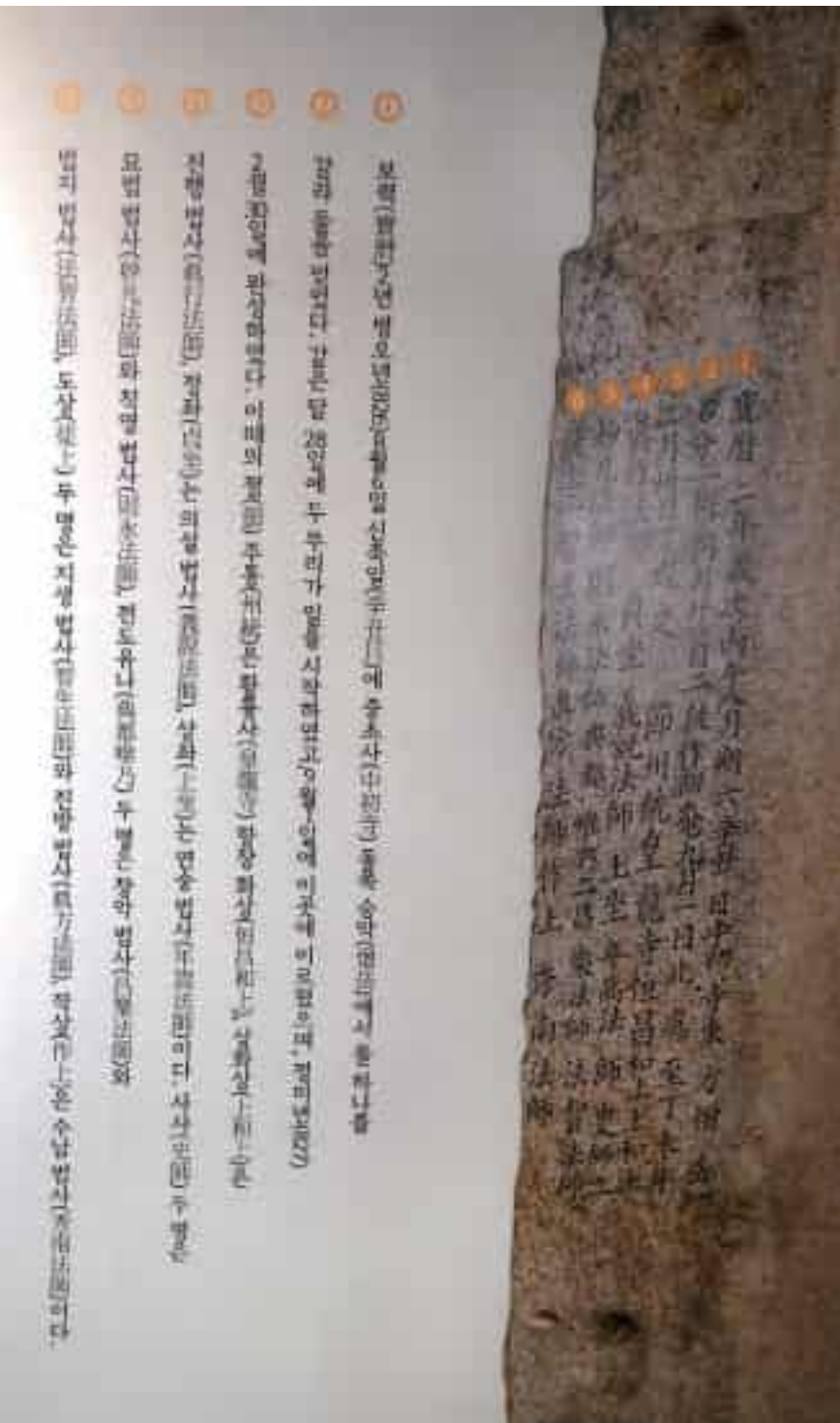
중초사지 당간지주 옆의 삼층석탑은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원래 당간지주에서 80m 정도 떨어진 옛 유유산업 건물(현 안양박물관) 뒤편에 붕괴한 상태로 있었는데 건물을 건축하면서 현재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기단부가 신라시대 석탑에 비해 간략하고 탑신부도 옥개석에 비하여 탑신석의 좌우 너비가 좁은 편이라서 다소 불안정한 모습이 다. 이 같은 비례를 가진 석탑은 고려시대의 대표적 석탑 유형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산하의 고적조사위원회는 1916년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남겼는데 이것이 안양 지역 문화재에 대한 첫 조사보고 문건이다. 1925년 조선총독부는 중초사지 토지 매입을 위해 도면 첨부를 의뢰하였다. 전시된 도면에 따르면, 중초사지 일대는 밭이었으며 좌측에는 당간지주가 있고 우측에는 삼층석

탑이 있으며 가운데 부분에 전탑지로 보이는 터가 표시되어 있다. 이 도면은 안양사지 일원에 남은 문화재의 원 위치를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전시실에는 독특한 탁본이 전시되어 있는데 바로 안양 석수동 마애종(경기도유형문화재)의 탁본이다. 마애는 자연 암벽의 암면을 다듬고 문자 또는 그림을 새기거나 파낸 것을 말한다. 석수동 마애종은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마애종이다. 통일신라 종의 양식을 계승한 고려 전기의 과도기적 범종을 재현한 작품이며 당시의 문화상을 보여주는 걸작으로 그 가치가 높다.

또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차에 걸쳐 중초사지 유적을



중초사지 당간지주 해석



안양박물관 2층 상설전시실 전경



삼막사 사적비 탁본(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석수동 마애종(안양시청 제공)



석수동 마애종 탁본(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안양사 명문기와



안양사지 출토 금속공예품(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발굴조사하는 과정에서 ‘안양사’ 명문기와를 발견하였는데, 이로써 고려시대에 중초사 터에 안양사를 지었음을 알게 되었다. 안양박물관에는 수키와와 암키와의 끝단에 막음을 위해 단 막새기와, 안양사 명문기와, 장식기와 등 안양사지에서 발굴된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하고 있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청자와 조선시대 분청자, 백자편 일부와 발, 국자 등 실용적인 청동그릇도 발굴되어 전시하고 있다.

허물어진 채 발굴된 안양사 7층전탑은 고려 태조 왕건이 세웠고 고려 말 최영 장군이 중수한 기록이 있는 탑이다. 조선 후기 서예가였던 이우(1637~1693)가 편찬한 『대동금석서』에는 ‘안양사 7층탑명’의 일부가 탁본으로 실려 있다. 『대동금석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유명한 석각과 비석 등의 목록을 신고 탁본을 오려서 엮은 다음 서첩으로 제작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안양사 7층전탑의 내력 등을 기록한 석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전탑지 주변에서 조선시대 목조건축물의 지붕 장식물인 연봉형 장식도 발굴되었다.

4) ‘안양각색’, 안양의 여러 가지 모양과 빛깔을 말하다

상설전시실에서는 안양박물관 개관 20주년을 맞이하여 《安養各色 : 안양에 이르다》를 주제로 기념전시를 진행하였다. 이 전시는 안양박물관이 지난 20년 동안 축적해 온 다양한 학술연구 성과와 함께 안양의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200여 점의 소장 유물과 미공개 자료를 선보이며,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 공간이었던 관악산, 삼성산의 옛 모습에서 여름 휴가지로 각광받았던 안양유원지까지 안양의 변화 과정을 다양한 유물을 통해 살펴보았다.

전시는 프롤로그와 1·2·3부로 구성되었다. 프롤로그 『삼성기유첩』은 1826년(순조 26) 도화서 화원 박기준이 네 명의 문인과 함께 관악산과 삼성산을 유람하며 그 감상을 시문과 그림으로 남긴 서화첩의 이름이다. 남자하-염불암-삼막사-망해루-망월암-불성사-동자하-동작강-북자하-여기담 등 11곳의 풍경과 경치를 느끼고 지은 시들이 포함되었다. 지금도 남아 있는 안양 주변의 사찰과 그 풍경 그림이 실려 있는데 관악산을 담은 서화첩으로는 유일하게 남은 유물이라고 한다. 『삼성기유첩』에 나오는 명소들의 그림과 현재 모습을 비교하는 영상물도 마련되어 있어 보는 재미가 있다.

1부 ‘안양, 평안을 누리다’는 조선시대 안양의 문화와 생활상에 관련된 여러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비산동 도요지, 불당골 도요지 등 안양의 도요지에 대한 설명과 도요



안양박물관 『삼성기유첩』 전시

지에서 출토된 백자, 청자 등의 도자기를 전시한다. 정월 대보름에 풍년과 무병을 기원하기 위해 다리를 밟으며 행했던 답교놀이, 정조의 화성행차를 위한 도로 정비와 만안교 축조, 양반의 생활상과 민속신앙 등에 관한 자료를 보여 준다. 특히 자료와 함께 영상물이 배치되어 이해를 돕는다.

2부 ‘안양, 시대에 맞서다’는 일제강점기에 안양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과 독립투사에 대해 다룬다. 양반, 농민, 상인, 학생,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안양 사람들이 일본 제국주의와 맞섰다. 1898년과 1904년에 두 차례의 농민봉기가 일어났고 19세기 말부터 이어진 40여 년의 항쟁에서 원태우, 이영래, 이재천, 이재현 등 독립운동가들이 적극 참여하였다.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의 사진과 보도 자료, 일제 감시대상 인물 목록 등도 볼 수 있다.

3부 ‘안양, 드높이 비상하다’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지금의 안양이 되기까지 그 사회상과 발전상을 보여 준다. 경부선 부설과 안양역 개통, 방직회사 설립 등을 통하여 철도 교통과 섬유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과정을 전시하였다. 안양의 행정구역 변화를 표로 정리하여 현재의 안양시가 되기까지 도시의 변천 과정과 경제 발전 과정도 보여 준다.



안양박물관 정조 원행 모형 전시(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안양박물관 불당골 도요지와 비산동 도요지 출토 도자기편(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안양시의 현대사회(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다. 안양도시기본계획도와 안양의 행정구역 변화 연대표를 볼 수 있으며, 경제발전 과정과 안양시민의 여가생활, 경부선 철도 개통, 안양유원지 조성 등을 다룬다. 안양유원지의 시대별 사진과 안양영화촬영소 관련 물건 등 다양한 자료를 전시하였다.

상설전시실 한쪽에는 <기억의 벽>이라는 전시물이 있다. 과거 이 자리에 있었던 유유산업 안양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노출된 건축부재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전시물로 활용한 것이다. 이 노출된 벽면은 과거와 현재의 공간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안양박물관에서는 다양한 교육 및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 교육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물관에서 만나는 안양’, ‘박물관과 함께 역사여행’ 등 다양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안양과천 교육지원청 소속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에서 교육을 만나다’ 등 교원 직무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유산업 안양공장 건축부재를 그대로 보여 주는 <기억의 벽>

3. 국내 최초의 건축전문박물관, 김중업건축박물관

1) 김중업의 이름으로

김중업건축박물관은 한국 근현대 건축의 선구자인 김중업을 기리기 위한 곳으로, 2014년 3월 28일 개관한 국내 최초의 건축전문박물관이자 공립박물관이다. 김중업은 한국 현대 건축을 대표하는 1세대 건축가로 주한 프랑스대사관, 삼일빌딩, 서울올림픽 평화의 문 등 우리나라 근현대 건축 역사에 길이 남을 건축작품들을 남겼다.

건축박물관은 상설전시와 야외전시를 통해 김중업의 건축 세계를 이해하고 대중들이 건축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왔다. 2016년 김중업박물관에서 김중업건축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 2018년 특별전 《김중업, 르 코르뷔지에를 만나다 : 파리 세브르가 35번지의 기억》, 2021년 기획전 《김중업, 더 비기닝 건축예술의 문을 열다》을 열었다. 2022년 4월에는 김중업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국내 최초의 건축 실감 콘텐츠인 《미디어 아키텍처 : 김중업, 건축예술로 이어지다》(특별전시관) 개최, 9월에는

기념 기획전 《김중업, 건축예술을 완성하다》를 진행하였다. 2023년 6월부터는 기증유물 기획전 《어느 건축가의 흔적》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회뿐만 아니라 건축전문가들과 함께 학술 컨퍼런스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며 공립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건축박물관은 1층 안내데스크와 상설전시실, 2층 상설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상설전시실에서는 김중업의 일생과 대표 작품을 통해 그의 건축 세계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김중업의 건축 스케치, 도면, 모형, 사진, 소품, 영상 등과 다양한 건축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관람시간은 월~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마지막 입장은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2) 시와 그림을 좋아하던 소년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로

1층 전시실은 '김중업, 더 비기닝: 건축예술의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소년 김중업이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로 성장한 여정을 다룬다. 프롤로그에서는 박물관 소개와 함께 건축가 김중업의 생애와 주요 건축작품 연보를 확인할 수 있다. 1부 '청년 꿈을 키우다'



김중업 연보 (김중업건축박물관 전시 참조)

1922	1941	1948
3월 9일 평양 출생	요코하마 고등공업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1963	1965	1971
뉴욕박람회 한국관 설계를 위해 뉴욕 방문	프랑스 정부로부터 기사작위를 받음	프랑스로 출국 후 파리 정착



1945~1952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조병화 패각의 집 (부산)	명보극장(서울) 부산대학교 본관(부산) 건국대학교 도서관(서울)	인천해무청사(인천) 무호해무청사(목호)	서강대학교 본관(서울) 한씨 주택(서울 석관동) 수도여자대학교 기숙사 (서울)	유유산업 공장(안양) 남산드라마센터(서울) 중앙공업연구소(서울)	주한 프랑스대사관 (서울) 고려인삼공장(서울)	모윤숙 주택(서울) 농촌진흥청 교육관 (수원)



1968	1969	1970	1974	1975	1979
진해 해군공관(진해) 유희한 주택(서울) 서울 도큐호텔(서울)	삼일빌딩(서울) 국회의사당(서울)	한국 니제르세라믹센터 (나이지리아 니아메) 삼성 컨트리클럽(광주)	홍명조 주택(서울)	성공회회관(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신관(서울) 쇼핑센터 태양의집(서울) 이강흥 주택(서울)

1952	1956	1957
베니스 국제예술가 대회 참석 르 코르뷔지에 파리사무실 근무	파리에서 귀국 김중업건축연구소 개소	제1회 김중업건축 작품전 개최
1974	1985	1988
프랑스 공인건축가 자격 취득 페리 앙 타르드누이에 부인 김병례 여사와 정착(1973)	건설유공 산업포장 수상	5월 11일 사망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성신병원(서울) 청평산장(청평)	뉴욕세계박람회 한국관 (미국 뉴욕)	제주대학교 본관(제주) 유엔묘지기념관(부산) 국립근인아파트(서울)	서산부인과 병원(서울) 농촌진흥원 연구원(수원)	제주대학교 수산대학 (제주) 유엔묘지 정문(부산)	이경호 주택(서울 가회동) 안국빌딩(서울) 미국 제일은행 지점(서울)



1981	1982	1983	1985	1986	1987
육군박물관(서울)	옥일빌딩(서울) 부산 충혼탑(부산)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진주)	한국 중소기업은행 본점 (서울)	한국방송 국제방송센터(서울) 서울올림픽 평화의문(서울) 군산문화회관(군산)	광주문화방송국(광주)	목포문화방송국(목포) 주 태국 한국대사관 (태국 방콕)



김중업건축박물관 내부(안양시청 제공)

는 평양과 일본 유학 시절과 귀국 후 김중업의 활동을 살펴본다. 당시 김중업의 자필 이력서, 여권, 건축사 면허수첩, 도장 등과 일본에서 설계했던 건축물의 자료 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2부 ‘건축가의 여정과 도약’에서는 ‘아틀리에 르코르뷔지에’ 근무 시절과 귀국 후 1950년대 작품 및 관련 자료들을 소개한다. 김중업이 작성한 연구계획서, 르코르뷔지에 사무실에서 작업했던 찬디가르 행정청사, (주)유유산업 안양공장과 부산대학교 본관 등 설계도와 관련 자료들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

3부 ‘한국 건축예술을 대표하다’는 서구 근대건축과 한국 전통문화를 재해석하여 제시한 건축작품들을 보여 준다. 특히 한국 현대 건축사에서 기념비적인 건축물로 평가받는 주한 프랑크대사관의 설계도와 모형, 건물의 사진 자료들이 눈길을 끈다. 그 밖에 석굴암 보수공사, 경주국립공원계획, 뉴욕 세계박람회 한국관의 모형과 관련 자료들이 전시되고 있다.

에필로그에서는 ‘건축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김중업이 가지고 있던 건축 잡지와 서적 등을 살펴보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채색도구를 가지고 김중업의 다양한 작품 도안



김중업의 활동 전시자료(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을 컬러링해 보는 체험공간도 준비되어 있다.

3) 자신만의 건축 세계를 펼치다

2층 상설전시실은 ‘김중업, 건축예술을 완성하다’를 주제로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건축작품을 살펴본다. 프롤로그 ‘도면의 춤’은 김중업 건축작품의 도면과 사진 등을 활용한 권민호 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실 벽면과 가벽에 적힌 김중업의 자필 문구들을 통해 건축을 예술로 승화시킨 김중업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1부 ‘건축, 살아 움직이는 선’에서는 김중업 건축의 특징인 불규칙하게 이어지는 힘 있는 곡선이 적용된 건축물들을 살펴본다. 제주대학교 본관, 서산부인과의 모형과 자료 등을 전시하고 있다. 2부 ‘건축, 시대를 이끌다’에서는 1971년 해외로 추방되기 전 설계한 고층빌딩 작품인 도큐호텔(현 단암빌딩), 삼일빌딩, 갯생보호회관(현 안국빌딩)을 소개한다. 특히 국내 최초로 커튼월(Curtain wall)을 설계에 적용한 삼일빌딩 일부 부재를 만나볼 수 있다. 3부 ‘건축, 삶을 꿈꾸다’에서는 개인주택 설계 작품들을 살펴볼 수 있다. 한남동 이기남 주택, 성북동 전성우 주택, 장충동 유특한 주택, 서교동 홍명조 주택 등의 건축 특징과 설계도,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4부 ‘건축, 세계로 나아가다’에서는 강제 출국 후 작업한 1970년대 작품들을 다룬다. 니제르 도자기 공장, 외환은행 본



르 코르뷔지에 인체모듈러(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부산대학교&건국대학교



서산부인과의원(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유유산업 안양공장 건축모형(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주한 프랑스대사관 건축모형(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주한 프랑스대사관(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공간대상 : 제1회 건축 25년상(주한 프랑스대사관)과 자필수첩(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체험공간(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체험공간(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점 계획안, 성공회 회관 등 다양한 설계도를 살펴볼 수 있다. 5부 '김중업, 한국 현대 건축에 새겨지다'에서는 한국으로 돌아온 뒤 1988년 작고에 이르기까지 작품들을 보여 준다. 실현되지 못한 제주 바다호텔 계획안, 민족대성전 계획안 등의 전시물과 한국교육개발원 신관, 육군박물관 등의 모형 등이 전시되고 있다. 특히 서울올림픽 평화의 문은 그가 중점을 두었던 한국의 지붕 선을 착안하여 구성한 작품이다.

2층 복도의 에필로그 '예술인들과의 교류'에서는 건축가 김중업이 다양한 국내외 예술가들과 교류한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예술인들의 이름을 적은 수첩과 동인지 등을 만나볼 수 있다.

3) 예술로서의 건축을 꿈꾸었던 어느 건축가의 흔적

건축박물관 밖에도 전시공간이 있다. 특별전시관 앞의 야외전시 공간에는 《어느 건축가의 흔적》이 전시되고 있다.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2015년부터 대사 집무실의 신축 현상공모를 진행하였고, 김중업이 설계한 원형의 디자인을 오마주하여 2022년 4월 '김중업 파빌리온'으로 재개관하였다. 대사 집무실 철거 뒤 나온 원형의 건축 부재들을 대사관으로부터 기증받아 전시하게 되었다. 건물의 기둥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외부로 노출시켜 내부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근현대 건축물이 재건축·재개발되는 한국의 현대사회에서 건축 문화재를 어떠한 방향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기획되었다. 예술로서의 건축을 꿈꾸었던 어느 건축가가 남긴 흔적 안에서 현대 건축의 의미를 고민해 보는 공간이다.



체험공간(경기도 멀티미디어 제공)







제2장

안양예술공원 숲길 따라 만나는 맛의 풍경

최정규 한신대학교 중국어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1. 쇠락하던 유원지에서 눈과 입이 즐거운 힐링 명소로

안양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공간이 된 안양예술공원에 공원을 따라 음식문화거리가 조성되어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즐거움을 한층 더한다. 토종닭백숙, 오리백숙 등 물놀이로 유명한 계곡이라면 꼭 볼 수 있는 백숙집과 각종 탕과 샤브샤브, 추어탕, 돼지갈비, 열무국수, 빈대떡 등 맛깔 난 한식과 브런치 카페 등 양식, 중식, 일식 그리고 퓨전음식까지 다양한 음식점들로 가득 찬 그야말로 맛집거리이다. 맛집뿐만 아니라 삼성천 주변 곳곳에 저마다 독특한 개성으로 자리 잡은 카페에서 힐링의 시간을 갖는 것도 안양예술공원을 찾는 커다란 재미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트렌디한 분위기의 레스토랑과 카페도 많이 생겨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어느 카페를 가더라도 평균 이상의 커피와 차를 맛볼 수 있으며 수려한 전망에 더해 이국적인 분위기, 고즈넉한 분위기 등 다양한 인테리어로 찾아다니는 맛을 배가시킨다.

맑은 숲과 시원한 계곡물을 따라 조성된 맛집거리인 만큼 야외정원이나 테라스가 있는 카페들이 많아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이 가능한 곳도 많다.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 가족들에게 더없이 좋은 산책로이다. 예술공원로 옆으로 흐르는 계곡물은 삼성산과 관악산에서 흘러내리는 천연수로 탐방객들의 물놀이 장소로도 활용된다. 계곡물 소리를 벗 삼아 멋진 식사와 차 한 잔의 여유를 누릴 곳이 가득해서 찾는 이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 준다.



2. 박물관에 위치한 레스토랑과 카페

안양예술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르는 곳으로 공원 초입의 안양박물관이 있다. 안양박물관 1층과 3층에는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는데 두 곳 다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특히 3층 레스토랑 ‘더테라스(The terrace)’는 잔디가 깔린 루프탑으로 유명하며, 브런치와 파스타, 스테이크 등을 판매한다. 특이하게 뚝배기에 담아 나오는 뚝배기 파스타, 전복과 감태가 들어간 전복 감태 리조또, 안심 스테이크가 유명하며 메인 식사 메뉴 주문 시 후식으로 커피, 주스, 녹차 등 음료가 무료로 제공된다. 실내는 일반적인 레스토랑의 모습이지만 커다란 창을 통해 삼성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실외 루프탑으로 나가면 안양예술공원과 삼성천이 내려다보이는 뷰가 근사하다. 루프탑 가운데는 잔디가 깔려있고 그 주위로 나무데크를 설치해서 파라솔을 놓았다. 실내와 테라스를 합쳐 테이블도 넉넉해서 가족이 함께 들르기에 좋은 곳이다. 박물관 관람을 마친 후 편하게 휴식하기에 좋다.

박물관 1층에는 힐링 식물카페가 있다. 카페 실내에는 정성껏 키운 초록 식물들이 가



안양박물관 1층 카페 야외 테라스





안양박물관 3층 레스토랑 '더테라스'(안양시청 제공)



'더테라스' 대표 메뉴인 독배기 파스타와 전복 감태 리조토

특하고 원목을 사용한 인테리어 덕분에 친환경적인 느낌을 주는 카페이다. 규모는 작지만, 채광이 좋은 통창을 통해 안양박물관의 정원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따금 초대 개인전을 열어 작품을 전시하기도 한다. 야외 테라스는 박물관 잔디정원과 연결되어 있다.

공원 입구의 공영주차장에는 안양예술공원 관광종합안내

센터가 있다. 안내센터에는 안양예술공원 가이드북이 비치되어 있으며, 관광체험 프로그램 예약과 각종 문화·예술·축제·행사·이벤트 정보를 제공한다.

3. 물놀이 계곡 따라 맛집 탐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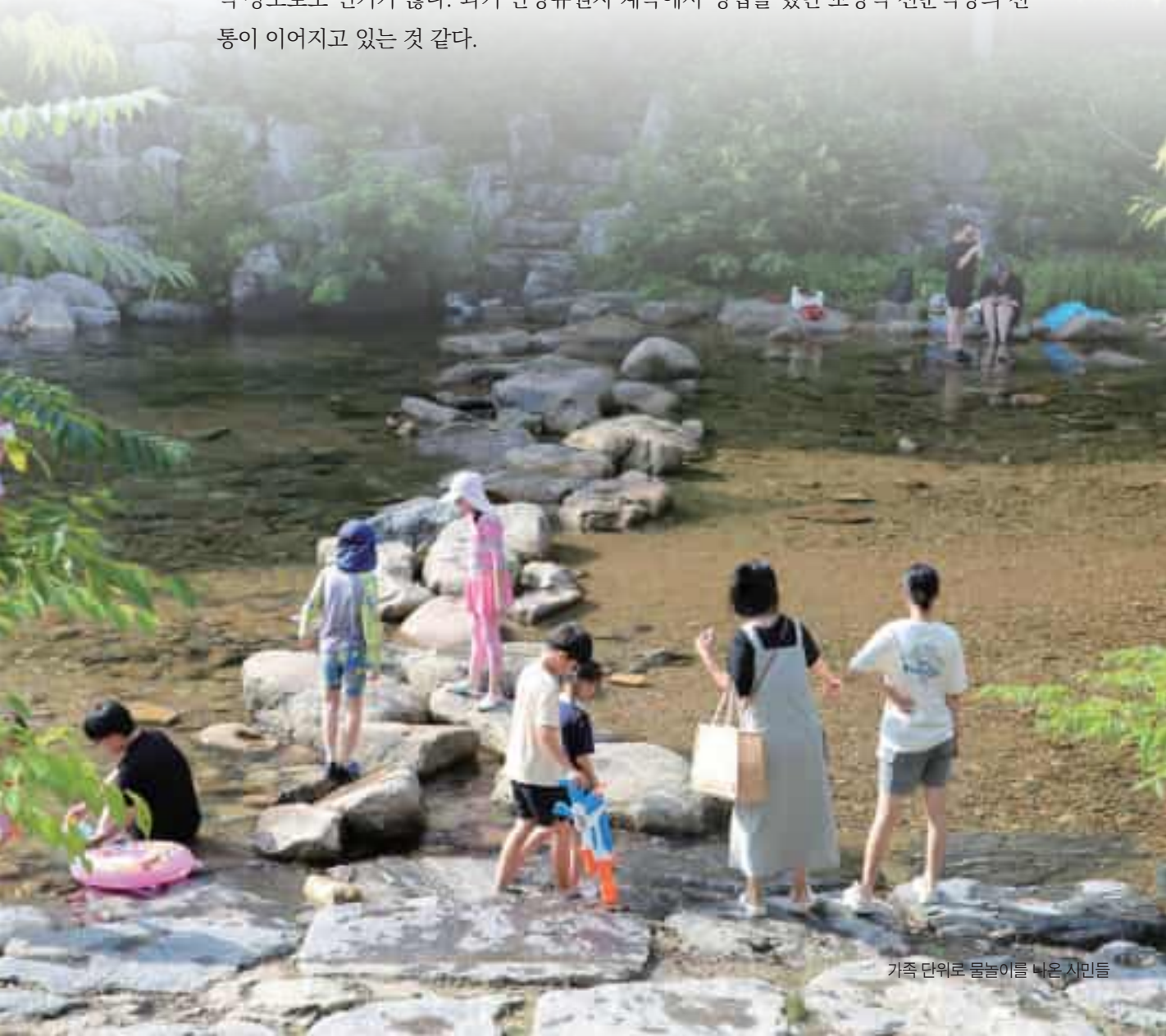
안양박물관에서 시작해서 예술공원로는 장미길, 개나리길, 코스모스길, 진달래길, 벚꽃길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공원로를 따라 걸으면 가로수길 양쪽으로 다양한 맛집과 카페들이 나타난다. 더테라스 건너편에는 추어탕과 매운탕을 전문으로 하는 '허서방 추어탕메기매운탕'이 있다. MBC 「생방송 오늘저녁」이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되기도 한 맛집이다. 매운탕에 들어가는 손수제비가 무한 제공이며, 탕에 추어·인삼 튀김까지 함께 곁들여 먹으면 별미라고 한다.

허서방추어탕메기매운탕집 위로 추어탕 전문점이 하나 더 있다. 곤지네큰집추어탕이라는 음식점인데 추어탕 장인인 곤지 엄마가 특별한 비법으로 끓이는 추어탕이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국내산 미꾸라지와 무우청, 우렁, 전복 등을 이용하여 국내산 고춧가루와 함께 정성스럽게 끓여낸다. 음식 재료를 푸짐하게 넣어 진한 국물이 특징이라고 하며, 식사를 주문하면 황칠을 넣은 보쌈이 함께 나온다. 하루 300인분만 한정 판매한다고 한다.

계곡 곳곳에는 가족 단위로 물놀이를 나온 시민들이 보인다. 돛자리와 간식거리를 챙겨와 즐기는 모습이 과거 안양유원지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예술공원로 나무데크 길에는 초등학교생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어 산책의 재미를 더해 준다.

곤지네큰집추어탕에서 100m 정도 관악산 쪽으로 걸어가면 예술공원로 왼쪽으로 공영주차장이 나오고, 350m 정도 더 걸어가면 관악교가 나온다. 관악교 양쪽으로 가볼 만한 음식점과 카페들이 있다. 다리를 중심으로 왼쪽에 위치한 ‘짜리골 능이백숙 흑염소’는 백숙 전문점으로 오리, 닭, 흑염소 등 보양식을 차려내는 음식점이다. 밖에서 보는 것보다 실내가 넓고 테이블이 많아서 단체 손님이 많은 편이다.

야외 테이블은 삼성천 계곡과 붙어 있어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식사를 할 수 있어 회식 장소로도 인기가 많다. 과거 안양유원지 계곡에서 영업을 했던 보양식 전문식당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닭, 오리, 흑염소 등 보양식을 전문으로 하는 싸리골 능이백숙 흑염소

4. 전문 갤러리부터 갤러리 카페까지, 전시회 구경하기

‘싸리골 능이백숙 흑염소’ 오른쪽 길로 들어가면 약간 경사진 길목에 입구부터 특이한 외관의 건물이 보인다. 미술 갤러리인 두나무 아트큐브로, 관악산과 삼성산의 공공미술(미술, 건축, 조각, 디자인, 퍼포먼스 등) 관람 동선에 위치한 문화공간이다. 두나무 아트큐브에서는 “국내외의 우수한 작가들의 작품을 선정하여 소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시 기획을 통해 대중의 예술에 대한 즐거움과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작품을 전 세계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하고 대중적으로 소비하는 것”이라고 소개한다. 지역 작가의 작품 전시는 물론 청년작가 발굴 및 지원 등 다양한 초대전과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다.

두나무 아트큐브 건물 외벽에 ‘2024 안양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공간’이라는 문구가 적힌 간판이 붙어 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지역의 문화공간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2024 안양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카페나 공방, 작



미술 갤러리 두나무 아트큐브

은 도서관, 연습실, 갤러리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생활공간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의, 공연, 전시,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두나무 아트큐브도 예술재단의 지원으로 <쓰임이 예술이 되는 순간> 전시회를 열었다.

싸리골과 두나무 아트큐브 사잇길을 따라 조금 걸어가면 아기자기한 야외정원이 있는 동유럽 감성의 예술감성 카페 ‘사이숲’이 보인다. 구옥을 리모델링한 건물로 1층은 카운터, 2층은 실내카페, 3층은 루프탑으로 되어 있다. 다양한 형태의 테이블과 벽에 걸린 그림들이 실내를 장식한다. 붉은 벽돌을 깔아 놓은 야외 테이블과 하얀 테라스가 이국적인 느낌을 들게 한다. 야외정원에도 곳곳에 다양한 작품들이 조성되어 있다.

두나무 아트큐브에서 안양사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어반스케치라는 카페가 하나 더 있다. 사이숲과는 또 다른 분위기로 잘 꾸며 놓은 야외정원은 규모가 상당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카페의 정원이 아니라 숲속 공원에 카페를 옮겨 놓은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이한 점은 실외에 작은 집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인데, 5~6명이 들어갈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카페 이용객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한다. 시그니처인 크로플과 와플 네 가지를 판매하며 야외 공간에는 반려동물 동반이 허용된다.



동유럽 감성의 예술감성 카페 '사이숲'

5. 농림축산식품부 안심식당이 지정한 안전한 먹거리

관악교 오른쪽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식당이 두 곳 있다. 샵브 샵브 전문점인 뽕잎사랑과 조개요리 전문점인 택이네조개전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심식당은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3대 실천과제인 덜어 먹기,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생활 방역을 준수하는 곳으로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인증을 받은 음식점을 의미한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식당은 식문화 개선과 관련된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안심식당' 지정업소 표기를 할 수 있다.

관악교 오른쪽으로 밀가루가 아닌 쌀 반죽으로 만든 와플을 파는 카페 '화이트 브릿지'도 있다. 쌀가루로 만든 각종 디저트와 직접 담근 수제차를 판다. 화이트 브릿지 카페에서 160m 정도 올라가면 와우곱창이 나오는데 이곳도 농림축산식품부 안심식당이다. 식당들이 즐비한 공원으로 양쪽으로 백백이 늘어선 가로수가 햇빛을 가려 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한다.

와우곶창 바로 옆에 안양파빌리온이 있다.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모더니즘 건축의 거장 알바로 시자 비에이라가 설계한 건축물로, 알바로시자홀이라고도 한다. 어느 각도에서도 같은 형태로 읽히지 않는 독특한 공간 구조를 지니고 있다. 내부 공간은 실내 설치 작품과 공원도서관,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작품투어 등 공공예술 전문센터로 운영되며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안양파빌리온 옆으로 벽천광장이 있고 광장 끝에는 인공폭포가 설치되어 있다. 안양 예술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피크닉테이블 10여 개와 야외벽천광장 인공폭포 무대도 있는데 각종 연주회나 공연이 열리기도 한다. 인공폭포에는 동굴이 있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가 폭포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설계되었다. 여름철엔 시원한 폭포수가 흐르고 밤에는 오색 조명이 아름답다.





벽천광장 인공폭포



안양예술공원 최고의 가성비 맛집 '명춘 두루치기'

벽천광장 앞 도로 왼쪽으로 산과 계곡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전망 좋은 ‘피어나’가 있다. 베이커리와 디저트를 파는 카페로, 실내는 깔끔한 분위기이며 테라스로 나가면 안양예술공원 산책로와 바로 연결된다. 맛있는 디저트와 차를 마시며 자연풍경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장소이다. 2층은 단체를 위한 대규모 테이블이 있으며 3면이 통창으로 되어 실내에서 예술공원의 풍경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안양정이 보이는 창가석의 뷰가 좋기로 유명하다. 야외정원에는 애완동물 동반이 가능하다.

벽천광장 앞에는 안양예술공원 최고의 가성비 맛집인 ‘명촌’이 있다. 두루치기와 청국장, 김치전골 등을 파는 곳으로 삼성산 등산객들 사이에 소문난 맛집이며 가격도 저렴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한다. 가게 뒤편에 벽천광장 인공폭포가 있어서 폭포 뷰가 좋은 2층 테라스 자리는 경쟁이 치열하다.

6. 안양예술로 곳곳에 숨어 있는 개성 있는 카페 찾기

명촌 두루치기 위로 줄지어 있는 청년다방, 흰돌감자탕, 돈통마늘보쌈 모두 농림축산식품부 안심식당이다. 돈통마늘보쌈을 지나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왼쪽으로 삼성3교라는 다리가 나온다. 다리를 건너면 왼쪽에 자연 담은 건강밥상 봄설이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이 보인다. 유스호스텔 블루몬테의 별관으로 3층에 색다른 카페가 하나 있다. 갤러리 카페 ‘작은 박물관’이다.

한식당 봄설과 같은 건물에 있지만 카페로 들어가는 입구는 따로 있어서 초행길인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다. 별관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면 유스호스텔 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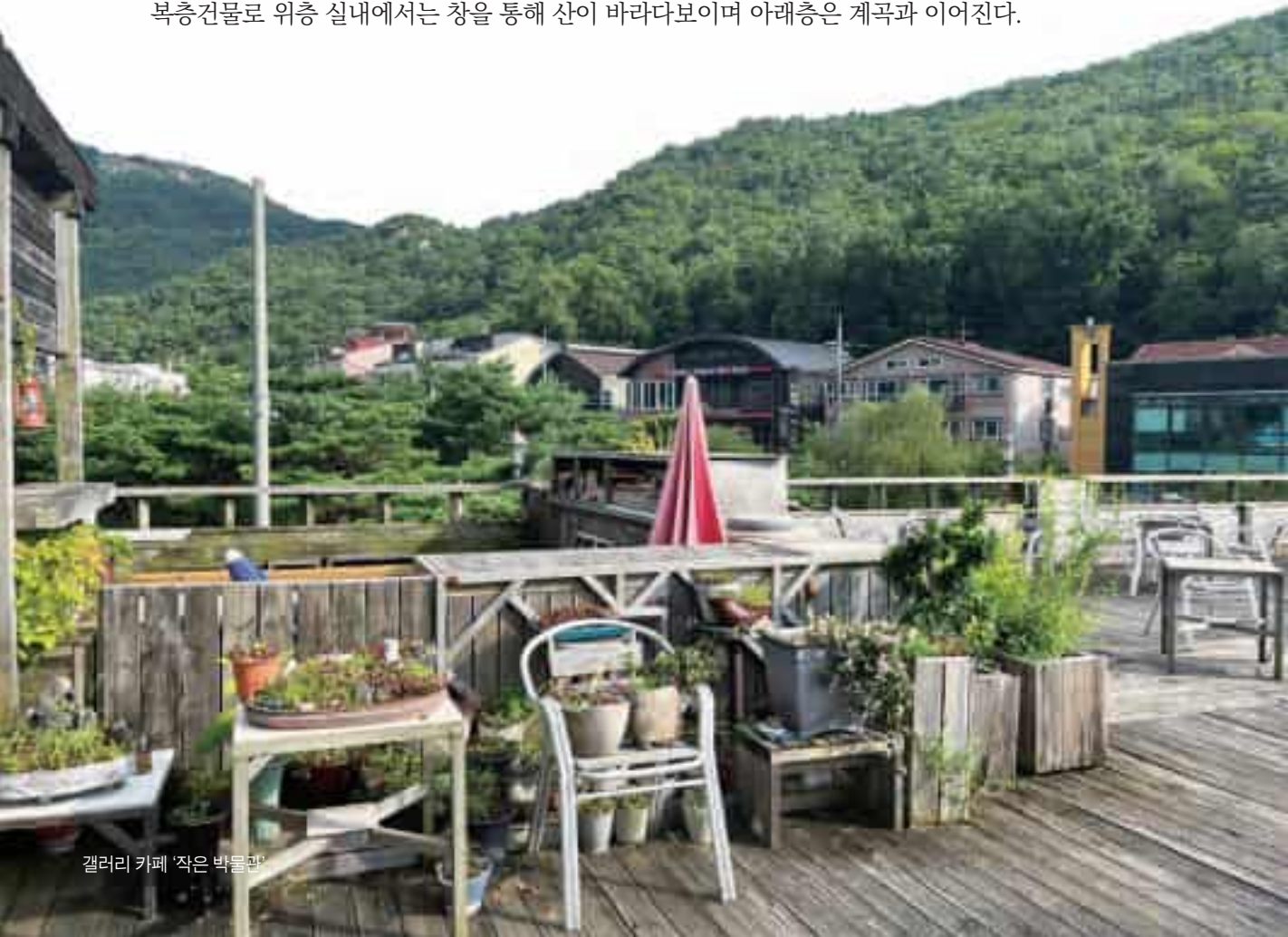


중국 구도 도자기 등 특이한 물품을 전시하는 갤러리 카페 ‘작은 박물관’

루몬테가 나오고 왼쪽으로 낡아서 이용하지 않는 듯 보이는 철제 구름다리가 하나 보인다. 그 다리를 통해 카페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오른쪽으로 서울휘트니스 수영장을 보며 다리를 건너면 작은 박물관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인다. 길에서 보기엔 딱히 특별하지 않은 가게처럼 보이지만 진귀한 중국 구도 도자기 유물과 갑골문자, 공룡알 화석 등을 전시하는 특별한 카페이다.

관악수목원 방향으로 이어지는 공원로로 올라가다 보면 안양예술공원 거의 끝자락에서 서로 다른 분위기의 갤러리 카페 두 곳을 만난다. '울토갤러리'와 '수목원 가는 길'이다. 울토갤러리는 안양예술공원에서 유일한 예술가 카페로, 도예가 부부가 운영하며 직접 도자기를 굽고 판매도 하는 도자기 공방 겸 카페이다. 실내에는 도자기와 미술 작품이 가득해서 어디에 앉아 사진을 찍어도 근사한 포토존이 된다. 커피와 차, 빙수와 디저트를 판매하며 작가가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컵에 음료를 담아 준다. 여자 손님에게는 핸드메이드 도자기 목걸이를 선물로 주어 더욱 인기가 높다.

수목원 가는 길은 국내 중견화가들의 개인전과 단체전이 수시로 열리는 갤러리 카페로, 신인 화가와 조각가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실내는 위층과 아래층으로 이루어진 복층건물로 위층 실내에서는 창을 통해 산이 바라다보이며 아래층은 계곡과 이어진다.





도예가 부부가 운영하는 도자기 공방 겸 카페 '울토갤러리'



국내 작가들의 전시회가 수시로 열리는 갤러리 카페 '수목원 가는 길'

카페 입구와 위·아래층 벽에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천천히 감상할 수 있으며, 테이블 간격이 넓어서 주변을 신경쓰지 않고 편하게 담소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해 줄 우유 얼음을 갈고 인절미와 직접 삶은 팔을 얹어낸 옛날 팔빙수가 인기메뉴이다.

‘수목원 가는 길’ 옆에 있는 ‘장어애호 삼민물장어’는 실내 구조가 굉장히 독특한 장어요리점이다. 테이블 아래를 뚫어 물을 채운 뒤 발을 담그고 식사를 할 수 있게 해놓았다. 가게 한쪽은 계곡과 연결되어 있어 물놀이 후 허기진 배를 채우기 안성맞춤이다. 홍삼으로 맛을 낸 장어구이가 인기이며 고창, 영광의 장어를 당일 손질해서 내놓는다.

관악수목원 조금 못 미친 삼성천 제방 근처에 다다르면 방문객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소나무 그늘 아래 설치한 벤치들이 보인다. 그곳에 특이한 모양의 정자가 하나 있는데 ‘파라다이스 살라’라고 적힌 손글씨 간판이 붙어 있는 <로맨스 정자>이다. 태국의 나빈 라완차이쿨 작가의 작품으로 국제 공공예술 보물 제21호이다.

파라다이스 살라는 태국의 학자 반딧 찬로차나키티 붙인 이름이다. 안양이 불교의 이상향인 극락정토를 의미한다는 사실에서 착안하였다. 정자의 천장화는 그의 부인인 안양 출신 작가 오환희의 작품으로, 안양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이상을 정자의 천정에 그려 넣었다. ‘살라’는 태국어로 정자를 의미하는데 태국에서 정자는 소통과 대화를 나누는 개방된 무대의 기능을 한다. 태국적인 요소와 한국적인 요소가 혼합된 형태로 제작된 천장화는 서로 다른 모국을 가진 두 사람이 함께하며 겪는 일상생활 속 활동과 파라



파라다이스 살라로 불리는 나빈 라완차이쿨의 <로맨스 정자>

다이스에 대한 상상력을 반영하고 있는 썸이다. 이 정자는 2005년 안양 공공예술프로젝트에서 최초로 영구 소장작품으로 공식 선정되었다.

7. 옛날 유원지 식당 느낌 그대로



봉암식당 앞 계곡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을 향해 예술공원로를 오르다 보면 관악산 안양유원지 분기점이 나온다. 여기서 보이는 음식점 간판은 옛날 유원지에 가면 쉽게 볼 수 있었던 ○○식당, ○○회관 같은 상호가 적혀 있다. 닭·오리 백숙, 닭볶음탕, 영양탕 등의 보양식을 주로 판매하며 손님들이 계곡을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다. 단체손님을 받을 수 있는 넓은 방이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염불암 가는 길에 있는 봉암식당은 1968년부터 한 자리에서 3대째 이어 오고 있는 곳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표 관광지 소개 사이트〈대한민국 구석구석〉에도 올라와 있다. 토종닭과 오리를 주재료로 하여 각종 한약재, 능이버섯, 옷나무를 이용한 백숙 종류와 토종닭볶음탕, 오리불고기, 오리주물럭이 주메뉴이다. 식당 앞에 계곡이 있어 물놀이도 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갖추고 있다.

8. 안전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위하여

2010년 경기도는 안양예술공원 음식문화거리를 음식문화개선특화거리로 지정하였다. 음식문화개선특화거리 선정사업은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음식물 잔반량 감소 등 식량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남은 음식의 재사용을 막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로 음식점이 밀집된 거리를 대상으로 나트륨 줄이기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현장지도 및 홍보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두 차례의 위생 점검을 실시해 거리별로 우수실천업소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업소에는 음식문화 개선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위생물품을 지원하기도 한다.

한편 안양예술공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삼막 맛거리촌도 있다. 삼막마을은 한마음선원부터 경인교대 및 삼막사 등산로 입구까지 이르는 지역으로 이곳에는 보리밥, 막국수, 짬밥 등을 주메뉴로 하는 40여 개의 토속음식점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등 인근의 미식가들이 자주 찾아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안양예술공원 음식문화거리와 더불어 안양을 대표하는 먹거리촌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두 곳 모두 관악산과 삼성산 자락에 위치해 경관이 수려한데다 안양예술공원이라는 걸출한 관광자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등산객과 나들이객들로 붐비고 있다.







계곡 옆 안양예술공원 음식문화거리





계곡 옆 안양예술공원 음식문화거리 야경

제3장

한국 최초의 수목원,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둘러보기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최정규 한신대학교 중국어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1. 잃어버린 수목표본을 찾아서 :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의 태동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¹의 탄생은 오랜 세월을 걸친 연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소중한 자연자원을 되찾기 위한 끈질긴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바로 이창복(1919~2003) 교수였다. 그는 한국전쟁으로 잃어버린 수많은 식물 표본을 복구하고, 수목 연구의 토대를 다시 쌓기 위해 평생을 바친 인물이었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는 원래 농림전문학교의 유산을 이어받아 3만 점이 넘는 식물 표본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표본들은 연구자료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식생을 기록한 귀중한 자료로, 학문적 가치와 함께 보존해야 할 역사적 가치를 지닌 것이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러한 소중한 유산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된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전쟁의 한가운데 놓이면서 교본실(표본관)이 폭격을 맞고 불에 타버린 것이다. 그 결과,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이 모아온 수많은 수목 표본이 재가 되어 사라졌다. 표본만이 아니었다. 전쟁으로 교재원(당시 수목을 보존하고 연구하던 공간)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온 연구 기반이 무너졌다. 이에 한국의 임학 연구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창복 교수는 사라진 연구 기반을 복구하는 데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마음먹은 이창복 교수는 1952년 남한 내 전황이 안정화되자 본격적으로 표본을 수집하는 작업에 돌입하였다. 그는 전국을 직접 돌아다니며 새로운 표본을 채집하는 일에 매진하였다. 특히 1955년부터 1957년까지는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아놀드수목원과 협력하여 수많은 수종을 직접 채취하여 한국으로 들



1952년 이창복 교수가 관악산에서 수집한 가는오이풀과 감국(국립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제공)



1952 버들금불초(덕적도)



1952년 분꽃나무(백아도)



1953년 물개암나무(강화도)



1957년 투구꽃(백운산)



1958년 흰민들레(용인 양지)



1959년 도둑놈의 갈고리(관악산)



1960년 줄망제비꽃(관악산)



1961년 섬초롱꽃(울릉도 도동)

이창복 교수가 기증한 식물표본(국립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제공)



1902년 수원잔대(수원 고등동)



1914년 과꽃(자강도 자성군 삼하면)



1954년 푸른각시고사리



1955년 노루참나무

도쿄대학교에서 소장하던 한국 식물 표본(국립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제공)

여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여기서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가 힘들게 채집한 표본들은 경기도양묘장에 보관되었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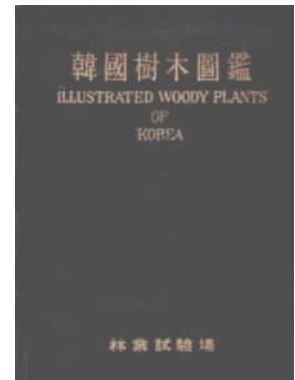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1963년부터 1968년까지 미국 농무성과 공동으로 한국의 식물자원을 연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더욱 체계적으로 표본 수집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박정덕, 조대환, 조무행, 이문호 등 여러 연구자들과 함께 전국을 누비며 식물 표본을 채집하였다. 단순히 나무 한두 그루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산과 들을 직접 밟로 뛰며 다양한 종을 수집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당시 한국에서 수집된 표본이 일본 도쿄대학교에 상당수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학자들이 한국의 식물을 연구하면서 많은 표본을 일본으로 가져갔던 것이다. 이창복 교수는 1964~1965년 겨울 동안 도쿄대학교를 방문하여 과거 한국에서 수집된 표본들을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수집 표본들을 감정하였다.

이창복 교수와 연구진들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수년간의 작업을 통해 무려 7만 점에

수우(樹友) 이창복(1919~2003)의 주요 이력과 업적

- 1919 · 평안도 맹산 출생
- 1943 · 수원고등농림학교 입학과 졸업
- 1944 · 평양공립농업학교 교사
- 1946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 1952 · 식물표본 수집 시작
- 1957 · 미국 하버드대학교 MA
- 1963 · 서울대학교 농학박사 학위 취득
· 한국임학회상 수상
- 1966 · 한국수목도감 발간
- 1967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부설 관악수목원 초대 원장
- 1968 · 대한민국 과학기술상 수상
- 1971 · 약용식물도감 발간
- 1975 · 한국식물분류학회 회장
- 1982 ·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 수상
- 1984 · 하은생물학상 이사회 이사
·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 문화공보부 문화재위원
- 1986 · 신고수목학 발간
- 2003 · 식물표본과 문헌자료 산림청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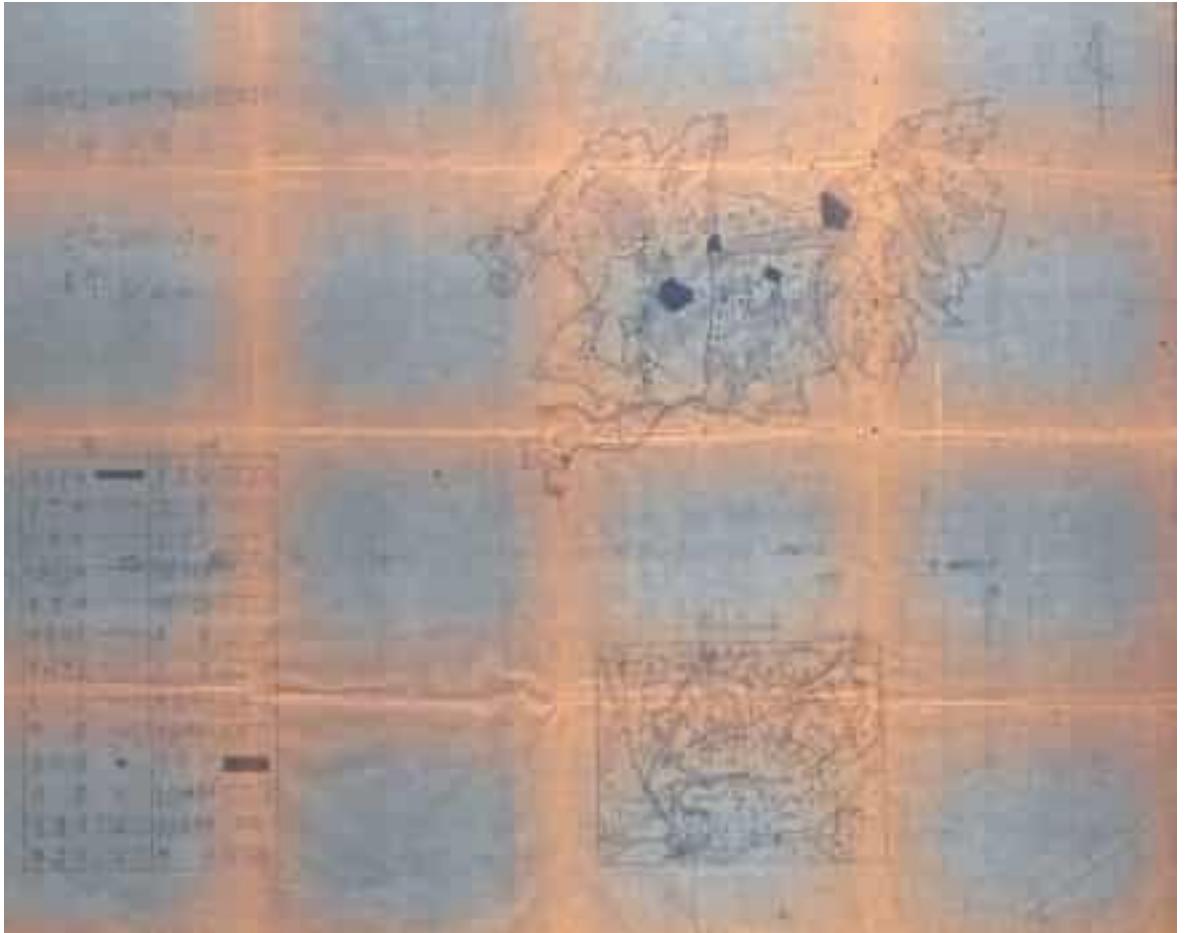
달하는 표본이 새롭게 수집되었다. 그는 정년퇴임 때까지 총 15만 점의 표본을 수집하였는데, 이는 전쟁으로 사라졌던 한국의 식물 연구 기반이 부활한 것이었다. 이 교수는 수집된 표본을 토대로 교육교재를 만들고 식목도감을 제작하는 등 식물자원 연구를 지속해 가던 중 살아있는 나무와 숲을 보존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즉 이창복 교수는 ‘생명 표본’을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인 수목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67년 10월 21일, 서울대학교 규칙 제94호에 따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부설 관악수목원’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창복 교수가 초대 원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표본 수집은 한국의 식물 연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이창복은 1969년 당시까지 조사된 한국의 식물자원을 정리한 대규모 연구자료를 발표하며, 앞으로 추진할 표본 수집의 길잡이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창복 교수는 책 속의 기록과 말라버린 표본만으로는 식물을 완전히 연구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살아있는 표본’을 보존하고 연구할 공간, 즉 수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수많은 정치가·행정가·연구자들을 설득해 나갔으며 그 결과 마침내 1971년 6월 10일, 대통령령 제5666호에 따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부속 수목원 설치’가 공포되며, 수목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 뺏길 뻔한 서울대학교 관악산연습림 : 험난했던 부지 확보 과정

관악수목원의 부지는 원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의 연습림이었다.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은 연구와 교육을 위해 전국 여러 지역에 실습용 산림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관악산연습림이었다. 하지만 이 연습림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바위산이었으며, 도시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무분별한 입산자들의 출입이 많아 관리도 어려웠다. 이 때문에 서울대학교는 오랜 고민 끝에 이 땅을 정부에 반납하기로 결정했고, 1965년 국유화되면서 더 이상 대학이 직접 관리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결정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였다.

이창복 교수가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을 설립하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수목원을 세울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서울대학교 내부에서도 여러 후보지가 거론되었지만, 결국 가장 적합한 곳은 이미 연구용으로 사용했던 관악산연습림이었다.



1960년대 관악산연습림 위치도와 현황도(수원박물관 제공)

하지만 문제는 이미 국유화된 이 땅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서울대학교 신임 총장은 관악산연습림을 다시 대학 소유로 돌려놓고 싶어 했고, 이를 위해 정부와 협의하려 했다. 그러나 학내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학과 일부 교수들은 “관악산은 바위산이라 수목원으로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며 우려를 표하였다. 또한 수자원이 부족해 식물을 키우기에 어려운 지역이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이창복 교수는 다른 의견을 가졌다. 그는 “수자원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바위산도 수목원이 조성되면 오히려 훌륭한 경관자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대학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다.

사실 서울대학교 관악산연습림은 1960년대 중반 믿기 힘든 일에 휘말렸는데, 관악산

연습림의 일부가 어느 날 갑자기 민간 소유로 변경된 것이다. 이 사건을 처음 알아챈 것은 이창복 교수였다. 어느 날 그는 연습림사무소 앞에서 토지를 측량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토지 등기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20년 동안 관리해 온 500만 평의 국유림 중 70만 평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서울대 농대 연습림 사건’이라 불리는 소유권 부정이전 사건이었다.

70만평이나 되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연습림인 국유림을 개인소유인 것처럼 가짜임야 소유증명을 발행, 민간인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내준 시흥군 내무과장 서관영 등 5명의 공무원이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사기방조혐의로 국유림을 개인명의로 소유등기하여 편취한 보식원 원장 박원희 씨 등 5명의 민간인은 사기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고 전 시흥군수 임동섭 씨 등 계 공무원 9명이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를 받고 있다.

문제된 안양읍 비산리 산3에 있는 70만 평의 동 국유림은 8·15해방 직후부터 20년 동안 서울대 농과대학에서 관리해 온 귀속재산으로 65년 1월 1일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자동 국유화한 임야다. 그런데 박씨 등 민간인은 시흥군청 및 안양읍사무소 직원들과 짜고 동 임야가 구한말 정신(廷臣) 박영효 씨 며느리의 소유인 것처럼 시흥군수 및 안양읍장이 발행한 가짜 소유증명을 받아 64년 8월 26일자로 보식원 소유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했다는 것이다. (중략) 이날 구속된 사람을 다음과 같다.

서관영(시흥군 내무과장), 김원극(경기도 내무국 재정과 지적계원), 김기복(용인군 내무과장), 김익한(안양읍 사회계원), 박원희, 이웅익, 김동호, 김택수(운현궁 관리인), 박남홍(대서사)
〈국유림 70만평 가로채, 가짜 사유증명 만들어〉, 『조선일보』 1966년 2월 17일

이 땅을 차지하려던 단체는 ‘보식원’(保殖院)이라는 곳이었다. 보식원은 1913년 조선 귀족회에서 만든 임업조합으로, “일반 인민에게 식림사상과 산림배양을 고무 장려”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둔 친일단체이다. 당시 조선산림회 고문이었던 친일파 박영효가 보식원의 발기인이자 총재였다.

1964년 보식원의 원장 박원희는 시흥군청·경기도청 공무원들과 결탁하여 허위 임야증명을 발급받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연습림 70만 평을 사유지로 둔갑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들의 수법은 치밀하였다. 시흥군청 및 안양읍사무소의 공무원들은 박영효의 며느리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가짜 소유증명을 발급해 주었다. 그 후 1964년 8월 26일, 이 허위 문서를 근거로 보식원이 국유림을 자신들의 소유로 등기하였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시흥군 내무과장 서관영, 경기도 내무국

재정과 지적계원 김원극, 용인군 내무과장 김기복, 안양읍 사회계원 김익한 등 총 5명의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사기방조 혐의로 구속되었다. 또한 보식원 원장 박원희를 포함한 민간인 5명도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 이들은 공탁금 5만 원을 내고 풀려났다. 게다가 전 시흥군수는 서울대학교 총장을 공격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하며,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 서울대학교는 법정 싸움을 이어 갔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청 지하창고에서 일제강점기 관보(공식 문서)를 뒤지는 작업까지 해야 했다. 결국, 담당 직원 김인기가 발견한 일제시대 관보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대법원 판결로 서울대학교가 연습림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서울대학교 역사에서 가장 큰 부동산 소유권 분쟁 중 하나였다.

결국 힘겹게 관악산연습림을 되찾은 후 수목원의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1974년 12월 9일 서울대학교 연습림 중 722ha를, 1979년 3월 1일 794.96ha를 공식적으로 수목원 부지로 이관받았다. 수목원 부지는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뉘었다. 안양유원지 상류 계곡(안양시 석수동-비산동 일대 620ha), 과천시 지역(정부종합청사 뒤편 남태령고개 580ha),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계곡(서울대 캠퍼스 앞에서 상



서울대 농대 연습림 사건을 다룬 신문기사 (『조선일보』 1966년 2월 17일)



관악수목원을 다룬 신문기사(『조선일보』 1974년 7월 11일)



1970년대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식물을 설명하고 있는 이창복(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제공)



1978년 소잔디원 주변 수로(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제공)

류 계곡 305ha)으로, 특히 안양유원지 계곡 약 10ha에 다양한 국내외 수종을 심으며 본격적인 조성이 시작되었다.

〈표 1〉 관악수목원 구역과 면적(1997년)

소재지		면적(㎡)	소재지		면적(㎡)
안양시	안양동 산16-1	963,966	안양시	비산동 산9	18,446
	석수동 산4-1	1,847,365		비산동 산10	1,190
	석수동 산4-3	139		관양동 산114	268,760
	석수동 산4-5	793		과천동 산118-1	1,237,190
	석수동 산11-2	617,851	과천시	관문동 산23	970,612
	석수동 산11-7	3		중앙동 산11	3,317,355
	비산동 산3-1	2,486,183		갈현동 산99	251,901
	비산동 산5	733	관악구	신림동 산56-2	3,029,671
	비산동 산5-2	1,876	계		15,014,034

자료 : 서울대학교 수목원 3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수목원 30년사』,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부속 수목원, 1997, 60-61쪽.

3. 바위산에 관악수목원을 만들다 : 자연과의 싸움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은 그저 비어 있는 땅에 나무를 심어 조성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척박한 바위산에서 시작된, 자연과의 지난한 싸움이였다. 처음 수목원을 조성하려 했을 때, 사람들은 “이곳은 나무가 자라기 힘든 바위산이라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오랜 세월을 걸쳐 하나하나 땅을 개척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토양 부족, 침식 문제, 극한의 자연재해, 식재 실패, 행정적 난관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관악수목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용 수목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 기나긴 도전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관악수목원 토질과 토양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특히 지질이 대보 화강암 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비가 오면 표토층이 쉽게 유실되었다. 강한 비가 내릴 때마다 산사태와 침식이 반복되었고, 묘목을 심어도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흙과 함께 쓸려 내려가 버렸다. 토양이 너무 부족하여 묘목을 심을 공간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연구진들은 나무 한 그루를 심으려면 다른 지역에서 흙을 가져와야 할 정도로 토양이 부족한 곳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연구진들은 서서히 수목이 자리



1975년 진입로 공사



1977년 관악수목원 사무소



1977년 산사태 피해를 입은 수목원



1977년 대홍수로 폐호가 된 관찰원



1977년 교량공사



1977년 사방공사



1977년 중앙도로 복구공사



1977년 중앙도로

를 잡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관악수목원의 조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중, 1977년 7월 8일 관악수목원이 자리한 안양 일대에 46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이 폭우는 수목원 조성 역사에서 가장 큰 재앙으로 기록되었다. 산사면이 무너지면서 갓 심은 묘목들이 흙과 함께 쓸려 내려갔고, 비탈면을 보호하던 시설물들이 모조리 파괴되었다. 연구진들이 어렵게 닦아 놓았던 도로가 사라져 버렸다. 이때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연구진들은 산에 심어 놓았던 나무들이 몽땅 사라지고 자갈밭만 남은 광경을 보고 말을 잃었다. 심지어 서울대 총장은 이창복 교수에게 “당분간 현장에 가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그가 현장을 보고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라도 일으킬까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필자(이창복)는 지리산 중에서 현지실습 중이었으므로 학생들과 라디오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총장은 학장한테 필자가 당분간 현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심장마비의 변을 우려하셨던 것 같이 느꼈습니다. 비참한 광경이 신문에 직접 보도되고 뜻있는 분들은 그 참상을 직접 확인하고자 현지를 다녀갔다고 들었습니다. 예산 배정이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 손수 가꾸어 심은 것들이 모조리 없어졌으므로 어디서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목원 복구비 3,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총장과 사무국장은 그중 2,000만 원을 본부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손에 쥐고 달라고 떼를 쓰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심장마비를 걱정해 주던 그가 현금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음을 느꼈으나 묵묵히 따라갈 수밖에 별도리가 없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수목원 3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수목원 30년사』,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부속 수목원, 1997, 82쪽〉

다행히 관악수목원 수해 복구사업비로 3,000만 원이 책정되어 복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학본부가 이 중 2,000만 원 정도를 가져가면서, 수목원에는 겨우 1,100만 원만 배정되었다. 연구진들은 그 적은 돈으로 다시 도로를 정비하고, 수목원 시설을 복구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했다. 자연과 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다시 한 번 깨닫는 순간이었다.

1977년 대홍수 이후에도 연구진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들은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수목원 조성에 나섰고, 1980년까지 총 1,056종, 1982년까지 1,398종, 1987년까지 무려 1,700종의 식물을 식재하며 본격적인 수목원의 틀을 잡아 나갔다. 이 과정에서 연



관악수목원 간이온실(외래종자파종)



1981년 붓꽃전시포

구진들은 각 관찰원(식물 구역)에 적합한 종을 배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1982년에는 종자저장소를 신축하여, 식물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관악수목원은 식물 연구의 중심지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다. 연구와 교육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장기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면서, 서울대학교는 관악수목원을 국내 최고의 연구형 수목원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4.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의 완성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이 자리 잡은 지역은 1971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수목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조차 마음대로 건설할 수 없었다. 연구시설, 관리사, 창고, 도로 등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 필요했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어떤 공사도 진행할 수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들은 여러 차례 정부기관을 찾아다니며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대학본부, 안양시청, 건설부, 문교부 시설국 등을 일주일에 2~3번씩 방문하며 협의를 진행하였다. 또 도시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을 철저히 연구하여, 기존 규정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았다. 수위실 겸 관리사는 '그린벨트 관리사'로 10평 증축하고 경운기와 농기구를 보관할 창고가 없어 '종자저장고'를 '대피소'로 둔갑시켜 공사 완료하였고 관찰로는 '농로'로 허가를 취득하였다. 이처럼 법적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수목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마련해 나갔다.

관악수목원은 국내에서만 연구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희귀종을 도입하여 연구하고, 한국 기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험 재배하는 작업도 진행하였다. 미국, 일본,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식물을 들여와 연구하고,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종을 관악수목원에서 보호 및 번식하였다. 해외 수목원과 협력하여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 진행하는 등 이러한 노력 덕분에, 관악수목원은 점점 더 연구 중심의 수목원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초반 정부는 사회기강 확립과 치안 강화를 위해 폭력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하였다. 이에 시내 중심가에서 활동하던 폭력배들은 단속을 피해 산속으로 은신처를 옮기는 전략을 택하였다. 6월 초순경, 관악수목원 직원들은 순찰 도중 상수리원 위쪽 건너편 계곡에서 이상한 구조물을 발견하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공사용 시설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 목재를 골조로 한 가건물이었고, 내부에는 보온 덮개와 비닐이 덮여 있었으며, 심지어 연탄보일러까지 설치하려는 흔적이 보였다.

이곳은 폭력배들이 도심의 단속을 피해 몸을 숨길 수 있도록 지어진 은신처였다. 당시 수목원 근처에서는 상수도 터널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공사 자재들이 수시로 운반되는 상황을 악용하여 공사장 차량을 이용해 자재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수목원 측에서는 즉시 작업 중단을 명령하고, 자진 철거를 요청했지만, 폭력배들은 오히려 공갈 협박을 하며 공사를 계속 강행하였다. 수목원 직원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안양시청 단속계 철거반의 협조를 요청하여 강제 철거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다음 날, 철거반 직원들이 오자 폭력배들은 이미 모습을 감춘 상태였고, 큰 마찰 없이 은신처를 철거할 수 있었다.

이로써 수목원을 불법적인 목적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막아낼 수 있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9시경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철거된 은신처를 원래 대로 복구하든가, 200만 원을 내놓으라는 협박이 들어온 것이다. 20대 폭력배 3명이 찾아와 위협을 가하며, 한 명은 칼을 들고 직원의 목을 겨누었고, 또 다른 한 명은 랜턴으로 직원의 머리를 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수목원 직원들은 순간 당황했지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폭력배들에게 합리적인 설명을 시도하며 설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고, 한 시간 넘게 협박을 이어갔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려고 전화를 걸려 하자 그제야 폭력배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자리를 떠났다.

수목원을 관리할 때 이런 위험한 사건이 간혹 발생하였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산불이었다. 당시에는 산불 예방에 대한 의식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건조한 날



1977년 정문 공사(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제공)



1982년 단풍길(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제공)



1982년 화관목원(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제공)



1983년 수생초 전시장(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제공)

씨가 지속되면 관악산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였다.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이 되면 연구진들은 초비상 상태에 돌입해야 했다. 하루에도 산불이 네 번이나 발생한 적이 있었으며, 서울대 정문 앞 도로를 통제하고, 산불 진화용 헬기를 띄우는 일도 있었다.

특히, 서울 신림동 무너미고개 너머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사건은 연구진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산불이 발생하자 수목원 직원들은 즉시 손전등과 진화 장비를 갖추고 오토바이를 타고 출동하였다. 삼막사를 지나 철도무선중계소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미 관악구청 직원들이 먼저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산불은 산봉우리 하나를 태우고 하단부로 번지고 있는 상태였다. 다행히 큰불이 아니라서 비교적 쉽게 진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밤 11시경, 진화를 마치고 철수하려는 순간, 멀리서 다시 불길기 치솟았다. 부랴부랴 되돌아가 다시 불을 끄고, 새벽 1시까지 잔화 처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삼성산 증턱까지 이동해 되돌아보니, 또다시 새로운 화재가 발생하였다. 다시 달려가 불을 끄고, 세 바퀴 정도 순찰을 돌며 잔불까지 완전히 제거하였다. 결국, 해가 뜨고 찬 서리가 내려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진화 작업을 종료할 수 있었다.

밤새 불을 끄느라 직원들의 몸은 온통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이방인이 된 것 같다.”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이날 발생한 화재도 불법 입산자들의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런 사건을 겪을 때마다 연구진들은 더더욱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무지한 사람들의 부주의로 한번 파괴된 자연이 원상회복되려면 몇 십 년이 걸린다. “자연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연을 이용할 자격이 있다.” 이 말은 수목원을 운영하는 모든 연구자들이 공감하는 말이었다.

이 모든 과정은 관악수목원이 자연을 지키고 후세에 전해야 하는 소중한 공간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준 사건들이었다. 관악수목원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연구자와 관계자들이 노력과 헌신을 다했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울창한 숲과 식물들은 그 노고 위에 자라고 있다.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연혁

- 1967 →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부설 관악수목원 설치(서울대학교 규칙 제94호)
- 1970 → · 종자교류목록(Index Seminum) 국내 최초 발간(해외 식물원·수목원과 교류 시작)
- 1971 →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부속 관악수목원 설치(대통령령 제5666) : 세계 72번째 수목원 소지국가
- 1974-1979 → · 관악산연습림을 관악수목원으로 이관(관악산연습림 폐지)
- 1992 → ·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생명의 나무교실' 시작
· 관악수목원 사방 공사 실시
- 1997 → · 안양시 '문화재 자매결연단체' 지정(비산동 도요지)
- 2001 → · 관악수목원 유리온실 신축
· 수목병원 신설(서울대학교 규칙 제1180호)
- 2003 → · 산림청에 학교수목원 등록(「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01 신규 제정, 제11호)
- 2005 → · 관악수목원 일반인 개방 실시(안양시 만안구청 연계 숲해설 프로그램 시작)
- 2006 → · 수목병원이 식물병원으로 설립 · 분리(서울대학교 규칙 제1521호)
- 2011 → · 관악수목원 가공선로 지중화 완공(한국전파기지국 지원, 1.2km)
- 2013 → ·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계절숲교실' 시작
- 2014 → · 관악수목원 일반인 확대 개방, 후문 개방 시작
- 2018 →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안양시 업무협약 체결 · 안양시 '자원봉사 수요처' 인증
· 환경부 '생물다양성 관리기관' 지정 · 청소년 산림과학 전공체험 프로그램 시작
· 교육부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 2019 → ·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업무협약 체결 및 종자보전협약체 등록
· 안양시 미래인재육성 장학재단·7개 대학 업무협약 체결
- 2020 → · 관악수목원 참고(이전 사무실) 산림복합체험장으로 리모델링(안양시 지원)
- 2021 → · 관악수목원 교육관리동 준공
- 2022 → · 관악수목원 시범 개방
· 관악수목원 재조성 사업 시작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관악수목원 안내도

5.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생태 체험

1)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한시적 시범 개방

휴식을 즐기기 위한 관광지나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목 보호 등의 이유로 그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었다. 이에 대해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주민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2003년 관악수목원은 만안구청과 연계하여 확대 개방을 실시하였으며, 그 뒤로 안양시와 서울대의 교류협력 협약체결에 따라 시민들이 수목원의 정취를 느끼도록 개화기에 맞춰 한시적인 시범개방을 실시하고 있다. 2023년에는 봄철(4월 15일~5월 7일)과 가을철(10월 21일~11월 15일)에 두 차례 개방하였고, 2024년에는 4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23일 동안 봄철 시범개방을 시행하였다.

시범 개방 기간에는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 “숲 해설가가 들려주는 숲이야기”가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코스는 ‘임간교실(리기테다소나무 시험지)’에서 ‘중간 화장실(대잔디원)’ 앞까지이며,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숲 해설가가 함께하여 비공개구역이었던 관람로의 나무와 숲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하루에 1타임 두 번(14시~15시,



주차장을 예술공간으로 변화시킨 <나무 위의 선으로 된 집>

14시 30분~15시 30분)과 2타임 두 번(15시 30분~16시 30분, 16시~17시)으로 4회 진행하며 소요시간은 1시간 정도이다. 따로 예약할 필요 없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된다. 개방 기간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 문의는 안양시청 녹지과로 연락하면 된다.

관악수목원으로 들어가기 전, 안양예술공원로가 끝나는 지점에 두 개의 야외 전시물이 눈길을 끈다. 안양예술공원을 중심으로 세계적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작품들이다. <나무 위의 선으로 된 집>(아콘치 스튜디오, 비토 아콘치)은 ‘보기 싫은 주차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작품이라고 한다. 주차장 위로 튜브 형태의 통로를 만들어 주차장과 야외공연장을 잇는 관람로를 조성하였다. 기존 주차장을 예술 공간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튜브 형태의 통로를 통해 주차장 위를 걸어 관악수목원 입구에 도달하게 설계하여 수목원 관람객에게 색다른 재미를 제공한다. 철재 그릴 바닥과 둥그렇고 불투명한 천장이 다른 세계로 향하는 터널 같은 느낌을 준다.

또 다른 작품인 <만고강산 유람할 제>(김용익)는 안양예술공원 개발 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발생한 폐기물들을 활용하여 작품을 구성하였으며, 함몰 지역을 고르고 넓은 쉼터로 만들었다.

2) 삼성천을 따라 조성된 다양한 나무숲

관악수목원 정문으로 들어서면 왼쪽으로 관악수목원 종합안내도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수목원 주 관람로인 중앙로(바람춤길)는 관악산 계곡(삼성천)을 따라 조성되었으며 중국굴피나무, 회화나무, 처진올벚나무 등 많은 고목과 다양한 나무들이 길을 따라 모습을 드러낸다. '바람춤길'이라는 이름의 중앙로는 정문에서 후문까지 약 1.6km 길이로 곧장 걸어가면 20여 분 정도가 걸리며 단풍나무길로 우회하면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수목원 정문을 중심으로 중앙로 오른쪽에 2021년 준공된 교육관리동이 위치하고 있다. 교육관리동 1층은 수목원 관람객을 위한 공간이다. 정문에서 교육관리동으로 가는 길에는 분비나무, 산뽕나무, 젓나무(전나무), 눈개승마 등 다양한 나무들이 줄지어 있다. 교육관리동을 지나면 리기테다소나무 시험지가 나온다. 리기다소나무와 테다소나무의 우수한 성질을 인공적으로 교잡하여 개량한 리기테다소나무의 적용성을 시험하기 위해 1959년에 식재한 장소이다.



산림복합체험장으로 향하는 나무다리



휴식과 모임을 위한 공간인 어울림마당(임간교실)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수목원 탐방

리기테다소나무들에 둘러싸인 공터는 어울림마당(임간교실)으로 휴식과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며, 숲 해설 프로그램 집합 장소이기도 하다. 리기테다소나무 시험지 앞 중앙로 왼쪽에는 나무데크 다리가 있는데 계곡 건너편의 산림복합체험장과 유실수원으로 가는 길이다. 산림복합체험장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목공체험프로그램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리기테다소나무 시험지를 지나면 수목보존집중관리 지역으로 그동안 출입이 통제되어 ‘비밀의 화원’으로 알려진 생태 구역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중앙로를 중심으로 오른쪽 길은 진달래길-소잔디원-수생식물원-교재원-숙근초원-대잔디원으로 이어지며, 왼쪽 길은 관목원-참나무속 관찰로-단풍나무길이 조성되어 있다. 관람로라고는 하지만 여타 수목원처럼 나무데크나 야자매트가 깔린 잘 가꿔진 길이 아니므로 유모차나 휠체어로 이동하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3)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자연 그대로 보존된 산책로

중앙로에서 오른쪽으로 좁은 오솔길이 보이는데 바로 진달래길(헤어람길)이다. 진달



자연 훼손으로 살 곳을 잃은 곤충들을 위한 곤충호텔

래길에서는 진달랫과의 진달래, 철쭉, 산철쭉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숲에서 관찰할 수 있는 40여 종의 식물들을 만날 수 있다. 진달래는 쌍떡잎식물 진달래목 진달랫과의 낙엽관목으로 참꽃 또는 두견화라고도 하며, 꽃은 4월에 잎보다 먼저 핀다.

진달래길에서 나오면 중앙로 왼쪽으로 갈림길이 나타난다. 갈림길로 들어서면 관목원과 참나무속 관찰로가 나온다. 관목원은 높이가 2m 이내이고 주줄기가 분명하지 않은 낮은 키의 나무들을 일컫는다. 관목원에서는 층층나무속, 조팝나무속, 진달래속 등 120여 종의 낮은 키 나무들을 속별로 관찰할 수 있다. 참나무속 관찰로에서는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참나무 6종을 포함한 10여 종의 참나무속 나무들을 관찰할 수 있다.

관목원을 관람하고 중앙로로 나오면 또다시 오른쪽으로 갈림길이 나오는데 중앙로와 갈림길 사이로 소잔디원과 남부식물온실, 수생식물원이 자리하고 있다. 소잔디원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왕벚나무, 만철조팝나무, 망개나무, 다릅나무, 헛개나무, 합다리나무, 고로쇠나무, 골담초, 곰의말채, 서어나무, 은종나무, 올벚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이 탐방객의 눈길을 끈다. 서어나무는 서쪽에 있는 나무란 뜻의 이름으로 자작나뭇과 낙엽활엽 교목에 속한다. 표면이 매끈하면서도 울퉁불퉁한 회색 수피가 특징인데 남자의 근육질이 연상된다고 해서 머슬나무라고도 불린다. 음지에서 잘 자라서 끝까지 살아남는 나무이다. 멋있기는 하지만 목재로는 적합하지 않아 딱히 쓰임새는 없다.

서어나무 옆쪽으로 은종나무도 보인다. 쌍떡잎식물 감나무목 때죽나뭇과의 교목으로 원산지는 미국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귀한 나무이다. 흰색의 꽃이 은색의 종처럼 매달려 있는 모습 때문에 은종나무라고 불린다. 올벚나무는 벚나무의 한 종류로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활엽교목이다. 올벚나무의 ‘올’은 빠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벚나무는 종류가 많은데 다른 종류의 벚나무보다 일찍 꽃이 피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나무숲 사이에는 나무들을 모아 집처럼 지어 놓은 곤충호텔도 있다. 오염물질과 서식지 단편화로 살 곳을 잃은 곤충들을 위한 공간이다.

4) ‘생명의 나무’ 아그베나무를 만나다

소잔디원은 푸른 잔디가 펼쳐진 곳으로 태풍에 쓰러진 나무들을 활용한 회양목 미로 등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이 있으며, ‘생명의 나무’로 지정된 아그베나무를 관찰할 수 있다. 아담한 잔디밭 사이에 우뚝 서 있는 하얀 꽃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띄는데, 열매의 생김새가 아기배 같다고 해서 아그베나무라고 불린다. 쌍떡잎식물 장미목 장미과의 낙엽소교목으로 열매의 사이즈는 꽃사과 정도 크기이다.

이 아그베나무가 생명의 나무로 명명된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1992년 11월 6일 전국적으로 관심을 일으킨 행사가 관악수목원에서 개최되었다. 그해는 리우환경회의가 열린 해였고 세계 정상들이 모여 지구환경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나무이므로 대회의 상징을 생명의 나무(Tree for life)로 정한 바 있다. 그 뜻에 동참하기 위해 개별국가로는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에서 생명의 나무를 정하여 명명식을 가졌다.

이날 지구상의 나무를 대표하는 생명의 나무로 뽑힌 아그베나무는 1977년 큰 홍수가 났을 때 물에 떠내려온 7년생 가지가 자리를 잡아 성장한 것이다. 이 나무가 자리한 곳



끈질긴 생명력으로 '생명의 나무'로 지정된 아그배나무

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위치였으며, 굳건한 생명력을 보여 주는 나무의 자연이 상징성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생명의 나무로 결정되었다.

소잔디원과 남부식물온실 사이에 길게 뻗은 나무들의 모습이 보인다. 펄프에 많이 사용되는 메타세쿼이아인데, 나무껍질을 만지면 폭신폭신했던 느낌이 든다. 남부식물온실은 다정큼나무, 종가시나무, 참식나무 등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에서 생육하는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 미개방구역이라 관람은 불가능하다. 남부식물온실 바로 옆에 수생식물원이 있다. 수생식물원은 왜개연꽃, 수련 등 수생식물과 노랑꽃창포, 노루오줌 등 수변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다양한 수생식물뿐만 아니라 올챙이, 개구리, 청둥오리, 소금쟁이 등 수서생물들도 살고 있다.

꽃잎이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는 듯 보이는 특이한 나무도 있는데 빨강계 익는 열매가 산딸기 모양이라 하여 산딸나무라고 부른다. 예수님을 매단 십자가를 이 나무로 만들었다고 한다. 6월이 되면 십자가 모양으로 네 장의 하얀 꽃잎이 피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꽃이 아니라 꽃받침이며, 이런 것을 헛꽃이라 한다. 진짜 꽃은 꽃받침 가운데 장식



다양한 수변 식물들이 자라는 수생식물원 연못



시범 개방기간에 맞춰 안양시에서 제작한 가방걸이

처럼 매달린 부분이다. 꽃이 수수하게 생긴 탓에 꽃 대신 꽃받침이 화려한 모습으로 별을 유인하는 기능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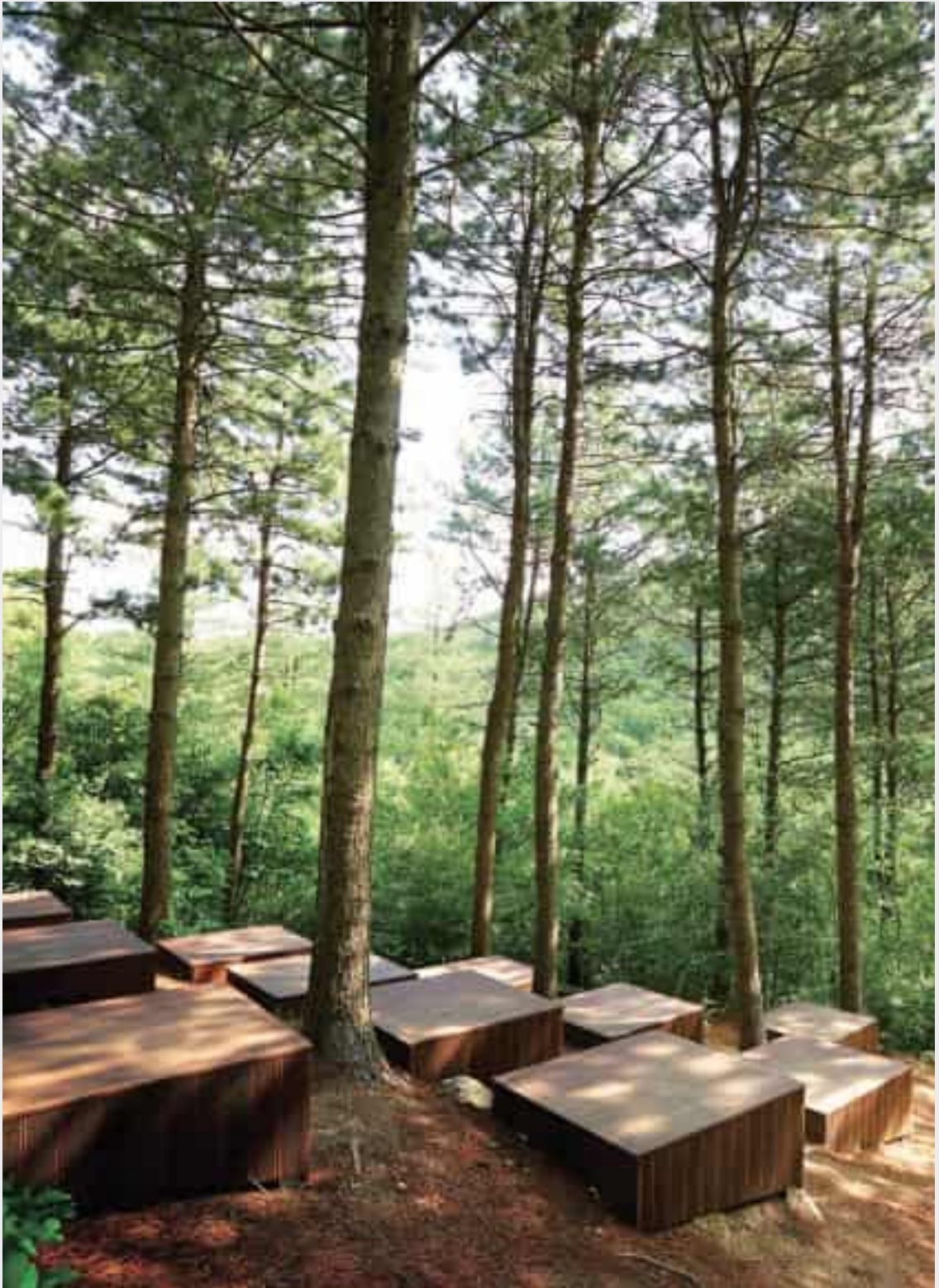
수생식물원을 지나면 길은 다시 중앙로로 이어진다. 중앙로와 관람로가 만나는 자리에 교재원이 있다. 교재원은 초등교과에 나오는 식물들을 위주로 조성하여 아이들이 책



대잔디원에 조성된 등나무 파고라

에서만 보았던 식물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관찰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이다. 어린이들이 평소 식탁이나 교과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채소와 허브식물 등을 심어 견학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교재원에서 중앙로를 따라 걸으면 왼쪽 갈림길이 나오는 곳에 숙근초원이 있다. 겨울 동안 꽃과 가지가 말라 죽고 뿌리만 남아 있다가 봄에 생장을 계속하는 초본식물을 여러해살이 식물이라고 한다. 숙근초원에서는 붓꽃, 두메부추, 기린초 등 계절마다 바뀌는 여러해살이 초본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다.

숙근초원에서 오른쪽으로 계곡에 놓인 다리를 건너면 대잔디원이 나온다. 소잔디원과 마찬가지로 뛰어놀 수 있는 푸른 잔디가 넓게 펼쳐져 있다. 대잔디원에는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는 등나무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어 탐방객들이 쉬어가기에 더없이 좋다. 친환경 명상테크에서 아름다운 등나무꽃의 향긋한 향을 맡으며 나뭇잎명상 등 산림치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친환경 명상테크

5) 대잔디원을 지나 단풍나무 길을 걷다

대잔디원에서 중앙로로 돌아와 걷다 보면 양쪽으로 단풍나무길(휴드림길)이 나오고 수목원 후문이 보인다. 단풍나무길(휴드림길)은 단풍나무, 복자기, 고로쇠나무 등 단풍 나뭇과 나무들과 더불어 50여 종의 나무를 관찰할 수 있다. 후문에는 정문과 마찬가지로 관악수목원 안내도가 있으며, 수목원의 역사 및 주요 수목에 대한 설명과 수목원 지도가 안내되어 있다.

또한 수목원이 보유한 멸종위기 및 희귀식물을 소개한 안내도를 제작하여 삼성천보 앞 증문에 설치하였다. 수목원에서 관리하는 멸종위기식물은 섬개야광나무, 정향풀 등이며, 희귀식물은 개느삼, 조도만두나무, 동강할미꽃, 섬노루귀 등이고, 특산식물로 꼬리말발도리, 히어리, 새끼노루귀, 자란초 등이 있다.

수목원 후문의 안내도는 2014년 후문 개방과 더불어 설치하였다. 원래는 등산객 통제를 목적으로 후문에 펜스를 설치하고 수목원을 우회하여 하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월담하거나 펜스를 우회 또는 훼손한 뒤 수목원을 통과하여 수목이 훼손되기도 하였다. 이에 수목원을 관통하는 등산객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하여 안양시청과 협의하여 후문을 개방하였다. 안양시에서 지원한 인력의 안내로 정문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후문은 동절기를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개방하고 있으며 통과 중에는 멈춰서 관람할 수 없다. 수목원 정문과 후문에는 우회등산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등산로 중간에 조성된 전망데크 쉼터







관악수목원 바로 옆에 조성된 등산로로 서울, 연주대 방향으로 가는 2.3km의 길이다. 등산로 코스는 정문에서 출발하여 등산로를 걸은 다음 수목원 후문을 통해 돌아오도록 조성되어 있다. 관악산 숲길을 따라 걸다 보면 출렁다리가 나오고, 출렁다리를 건너면 전망데크 쉼터가 있다. 등산로에는 이처럼 중간중간 쉬어 갈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놓아 등산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만남의 다리를 건너면 마지막 쉼터인 만남의 광장이 나온다. 광장을 지나면 관악산 후문이다. 후문으로 가는 길에 ‘즐거운 산행은 당신의 뺨살 탈출구’라는 문구가 적힌 나무 기둥들이 보인다. 나무 기둥들 간격을 다르게 해서 그 사이를 통과하며 비만 정도를 짐작해 보는 시설이다. 등산로 중간에 화장실이 없으니 출발하기 전에 수목원 정문에 있는 화장실을 미리 이용해 두는 것이 좋다.

6) 수목원과 이어지는 관악산 둘레길

수목원 후문은 관악산 둘레길로 연결된다. 관악수목원을 둘러싸고 조성된 관악산 둘레길은 관악산을 순환할 수 있는 총 31.2km 길이의 자연 탐방로로, 안양시와 과천시, 서울시를 아우르는 관악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며 역사와 생태를 배울 수 있는 등산로이다. 안양시 구간은 석수역에서 시작해 금강사, 안양예술공원, 망해암, 비봉 산책길, 내비산 입구, 관악산 산림목장, 간촌약수터를 지나 과천 구간으로 연결된다. 거리는 10km이며 약 4시간이 소요된다.

관악수목원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찰로를 새롭게 만들고 꾸준히 정비하였다. 2013~2014년 수생식물원의 관찰로를 신규 조성하고 대잔디원과 소잔디원을 보수하였으며 단풍길과 진달래길을 보수하고 잣나무 조림지로 가는 관찰로를 조성하여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그 후로도 재정비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2012년에는 서울대학교 법인화 출범에 따라 관악수목원의 국유재산을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T/F팀의 실사가 있었고 몇 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지역사회의 반발로 아직까지 무상양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대학교에 소유권이 넘어간다면 일반의 이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악수목원은 다른 수목원과 달리 서울과 안양 도심에서 가깝고 안양예술공원과 인접해 시민들이 방문하기 좋지만,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관리되는 곳인 만큼 특정 시기 이외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조화로운 해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7) 지역 주민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부스

관악수목원은 시민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숲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으로 심신의 안정과 행복감을 준다. 1992년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생명의 나무교실’을 시작으로 2005년 시민을 위한 숲해설 프로그램, 2010년 유아교육기관 교사교육, 2013년 사회공헌을 위

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산림치유프로그램, 목공체험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다. 산림치유프로그램은 건강 회복의 시간을 목표로 하며 숲의 피톤치드, 음이온, 소리, 햇빛, 바람, 경관, 향기, 식물 등 다양한 치유인자를 활용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이다. ‘숲과 활력’, ‘숲과 쉼’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둘 중 원하는 프로그램을 골라 신청하면 된다. ‘숲과 쉼’은 ‘쉬는 것’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으로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다. ‘숲과 활력’은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로 에너지가 고갈되고 무기력해진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이다. 체험 내용은 전신 이완체조, 힘차게 걷기, 몸과 마음의 활력 불어넣기, 완전 호흡, 바람결 느끼기, 아로마마사지, 숲명 등이다. 대상은 일반 성인이며 운영 기간은 보통 봄부터 가을까지인데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참여 인원은 1팀당 10명 이하로 3명 이상 신청 시 운영한다.

목공체험 ‘숲에서 두드리다’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꽂이 및 트레이 제작 등 각종 목재품을 직접 제작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인원은 1팀당 7명 이하로 3명 이상 신청 시 운영한다. 두 가지 프로그램 모두 운영시간은 월~목요일이며 오전 10~12시와 오후 2~4시로 이렇게 1일 2회 진행한다.

예약방법은 온라인 사전예약이며 매달 20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프로그램을 신청 받는다(20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익일 오전 9시 오픈). 1인 1회 선착순 신청이 원칙으

로 중복 접수 시 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안양시청 통합예약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다. 관악수목원의 산림 보호를 위하여 반려동물 입장은 금지이다. 수목원 내 주차장은 협소하여 주차가 불가하므로 안양예술공원 초입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인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외에 공공복지기관,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교내 식물 관련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복지기관과 유아교육기관 프로그램은 관악수목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초·중·고등학교 프로그램은 따로 공문을 접수하면 된다.

참고자료

「원로와의 대담-식물사랑 60년 이창복 박사」, 『과학과 기술』 1995년 11월호.

서울대학교 수목원 3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수목원 30년사』,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부속 수목원, 1997.

신중훈·박철규, 「관악수목원 신규 주제원 조성 계획(안)」, 『서울대학교 수목원 연구보고』 27, 2009.

국립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http://www.nature.go.kr/kbi/lvbnng/clssc/KBI_2005_080300.do).

註

- 1 2025년 9월 서울대학교는 기획재정부 협의와 교육부 승인을 거쳐 해당 부지를 국유재산에서 대학 소유로 양여받았다. 이후 서울대학교와 안양시는 협력하여 '안양수목원'으로 명명하고 11월 5일부터 상시 개방하였다. 이 글은 2024년 기준 작성되어, 기존 명칭인 관악수목원으로 표기하였다.

집필(가나다순)

김진주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예술학 박사과정
이재욱 안양예총 회장
임동민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명림 작가
최정규 한신대학교 중국어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기획총괄

김현미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편집·교정

윤유석, 허부동, 홍현영

어반스케치

서은주, 서향숙, 이강은, 하미경(안양어반스케치회)

안양시사 19 **안양유원지&안양예술공원**

발행일 | 2025년 12월 15일

발행처 | 안양시사편찬위원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TEL. 031-8045-2064

디자인&인쇄 | 흥익기획
TEL. 02-2274-8110

발간등록번호

ISBN 979-11-94861-28-7

ISBN 979-11-94861-09-6 (세트)



THE HISTORY OF ANYANG CITY



9 781194 681287

ISBN 979-11-94480-28-7
ISBN 979-11-94480-09-6 (Ⅲ)